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547-12



승인번호
제 117087 호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종합편

2018.2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종합편, 기초보고서 3종)로 제출합니다.

2018년 2월

주관연구기관명 : 한약진흥재단

연구책임자 : 김 유 진

공동연구진 : 성 수 현

전 혜 원

이 화 동

이 기 현

이 국 여

정 원 석

유 준 오(한국갤럽)

이 성 화(한국갤럽)

이 재 웅(한국갤럽)

이 강 욱(한국갤럽)

연구보조원 : 심 희 주

류 지 연(한국갤럽)

박 수 린(한국갤럽)

목 차

요 약	1
제 1 장. 서론	5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7
1. 연구배경	57
2. 연구목적	59
제2절 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개요	60
1. 사업수행체계	60
2. 조사대상 및 시기	61
3. 표본크기	61
4. 주요특성 및 변화추이	63
제3절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구축	82
1. 홈페이지 구축 배경	82
2. 홈페이지 주요 내용	83
3. 실태조사 홈페이지 구축	84
4. 홈페이지 운영방안	85
제 2 장. 이론적 배경	87
제1절 '11년 및 '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주요결과 비교	87
1. 한방의료이용 추이	87
2. 한약소비현황	92
3. 정책제언 추이	95
제2절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관련 선행연구	97
1. 선행연구 개요	97
2. 선행연구 결과	97
제 3 장.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관련 한의약통계 분석	108
제 1절 분석 개요	108
1. 개요	108
2. 분석방법	110
제 2절 국민건강보험상 한방의료 이용실태 분석	114

1. 한방의료이용의 전체 현황	114
2. 한방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118
3. 한방의료급여 분석 결과	231
4. 한방 자동차보험 이용 현황	246
제3절 한약재 생산 현황	248
1. 연구배경	248
2. 국산 및 수입한약재 현황	248
3. 한약제제 생산실적	255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제언	257
제1절 결론	257
1.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258
2. 한약소비 실태조사	261
3. 실태조사 관련 한의약 통계자료 분석	264
제2절 정책제언	268
1. 개요	268
2. 전문가자문 주요결과	269
3. 전문가 서면자문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도출	273
4. 정책제언	273
제3절 실태조사의 한계 및 개선사항	276
참 고 문 헌	278
부 록	
부록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통계수요조사	281
부록2. 한방의료이용 증진 정책제언 관련 서면자문	284
부록3. '17년 실태조사 대상별 정책지표에 대한 전문가 서면자문	291

표 목 차

<표 1-1> 한의약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	58
<표 1-2> 연도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연혁	64
<표 1-3> 조사 대상 및 방법	65
<표 1-4> ‘11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외래/입원)	66
<표 1-5> ‘11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	67
<표 1-6> ‘11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	67
<표 1-7> ‘14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입원)	68
<표 1-8> ‘14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69
<표 1-9> ‘14년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 조사표별 조사항목(한방병원/한의원)	69
<표 1-10> ‘17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	70
<표 1-11> ‘17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외래/입원)	71
<표 1-12> ‘17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한방의료서비스)	72
<표 1-13> ‘17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조제·판매)	73
<표 1-14> ‘14년 조사 대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일반국민) 조사표별 조사항목	74
<표 1-15> ‘14년 조사 대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외래/입원) 조사표별 조사항목	75
<표 1-16> ‘14년 조사 대비 한약소비 실태조사(한방의료서비스) 조사표별 조사항목	76
<표 1-17> ‘14년 조사 대비 한약소비 실태조사(조제·판매) 조사표별 조사항목	77
<표 1-18> 용어 정의	80
<표 2-1> 실태조사별 정책제언 추이(한방의료이용)	95
<표 2-2> 실태조사별 정책제언 추이(한약소비)	96
<표 2-3> 한방의료이용 관련 선행연구	97
<표 2-4> 한약소비 관련 선행연구	106
<표 3-1> 한의학 건강보험 정책 변화	109

〈표 3-2〉 연구자료 개요	110
〈표 3-3〉 주요 분석 내용	111
〈표 3-4〉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방건강보험 현황)	112
〈표 3-5〉 의과 및 한방 건강보험의 현황	114
〈표 3-6〉 의과 및 한방 건강보험의 현황(5대 항목 급여비)	115
〈표 3-7〉 한방 입원 이용률	116
〈표 3-8〉 한방 외래 이용률	117
〈표 3-9〉 건강보험 청구건 변화 추이	119
〈표 3-10〉 한방건강보험 이용 실환자수 변화 추이	121
〈표 3-11〉 한방건강보험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	123
〈표 3-12〉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추이	125
〈표 3-13〉 한방건강보험의 환자당 내원일수 변화 추이	126
〈표 3-14〉 한방건강보험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추이	127
〈표 3-15〉 한방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 변화 추이	128
〈표 3-16〉 소아·성인·노인 실환자수 구성비	129
〈표 3-17〉 성별 실환자수 구성비	132
〈표 3-18〉 성별·연령별 실환자수	135
〈표 3-19〉 성별·연령별 입원 및 외래 실환자수	137
〈표 3-20〉 성별·연령별 내원일수	139
〈표 3-21〉 성별·연령별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141
〈표 3-22〉 소아·성인·노인 분류에 따른 진료비 구성비	142
〈표 3-23〉 성별에 따른 진료비 구성비	145
〈표 3-24〉 성별·연령별 진료비 분포	147
〈표 3-25〉 성별·연령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149
〈표 3-26〉 성별·연령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150
〈표 3-27〉 전체 연령군별 본인부담금	152
〈표 3-28〉 지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53

〈표 3-29〉 지역별 한의사 수	155
〈표 3-30〉 지역별 한방 요양기관 수(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157
〈표 3-31〉 지역별 청구건	159
〈표 3-32〉 지역별 실환자수	161
〈표 3-33〉 지역별 내원일수	163
〈표 3-34〉 지역별 진료비	165
〈표 3-35〉 지역별 입원 청구건 및 진료비	167
〈표 3-36〉 지역별 외래 청구건 및 진료비	169
〈표 3-37〉 지역별 평균 일당진료비	171
〈표 3-38〉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다빈도 상병)	173
〈표 3-39〉 대분류별 청구건, 실환자수	176
〈표 3-40〉 대분류별 내원일수, 진료비	179
〈표 3-41〉 2016년 대분류별 연령별 환자수 상위 5위	183
〈표 3-42〉 청구 환자에 따른 다빈도 상병 20순위(전체 한방의료기관)	185
〈표 3-43〉 진료비에 따른 다빈도 상병 20순위	186
〈표 3-44〉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2014)	188
〈표 3-45〉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2015)	190
〈표 3-46〉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2016)	192
〈표 3-47〉 진료비에 따른 특수목적코드(한의상병) 다빈도 상병 20순위	193
〈표 3-48〉 내원일수에 따른 특수목적코드(한의상병) 다빈도 상병 20순위	194
〈표 3-49〉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다빈도 20순위 양·한방 비교)	195
〈표 3-50〉 2016년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에 따른 의과 순위	196
〈표 3-51〉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 양방 실환자수 비교	198
〈표 3-52〉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 양방 진료비 비교	200
〈표 3-53〉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 양방 내원일수 비교	203
〈표 3-54〉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방건강보험 약제 처방현황)	204
〈표 3-55〉 종별 연도별 약제비 및 투약일수	205

〈표 3-56〉 종별 연도별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206
〈표 3-57〉 종별 연도별 단미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207
〈표 3-58〉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4년)	208
〈표 3-59〉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5년)	209
〈표 3-60〉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6년)	210
〈표 3-61〉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3년)	212
〈표 3-62〉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4년)	213
〈표 3-63〉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5년)	214
〈표 3-64〉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6년)	215
〈표 3-65〉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3년)	217
〈표 3-66〉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4년)	218
〈표 3-67〉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5년)	219
〈표 3-68〉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6년)	220
〈표 3-69〉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3년)	222
〈표 3-70〉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4년)	223
〈표 3-71〉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5년)	223
〈표 3-72〉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6년)	224
〈표 3-73〉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3년)	225
〈표 3-74〉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4년)	226
〈표 3-75〉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5년)	227
〈표 3-76〉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6년)	227
〈표 3-77〉 65세 기준 약제비 추이	229
〈표 3-78〉 65세 기준 투약일수 추이	230
〈표 3-79〉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방의료급여)	231
〈표 3-80〉 의료급여 환자 변화 추이	232
〈표 3-81〉 한방의료급여 청구건 변화 추이	235
〈표 3-82〉 한방의료급여 실환자수 변화 추이	237

〈표 3-83〉 한방의료급여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	239
〈표 3-84〉 한방의료급여 진료비 변화 추이	241
〈표 3-85〉 한방요양기관의 환자당 내원일수	243
〈표 3-86〉 한방의료급여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추이	245
〈표 3-87〉 한방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청구건수	246
〈표 3-88〉 한방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	247
〈표 3-89〉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약재 생산 현황)	248
〈표 3-90〉 2013년~2016년 약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249
〈표 3-91〉 2013년~2016년 약용작물별 생산량 현황	250
〈표 3-92〉 2013년~2016년 한약재 수입현황	252
〈표 3-93〉 2013년~2016년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량 현황	253
〈표 3-94〉 2013년~2016년 수입액 상위 30개 한약재 현황	254
〈표 3-95〉 2013년~2016년 한약제제 생산실적	255
〈표 3-96〉 2013년~2016년 약효분류별 생산실적	256
〈표 4-1〉 한방의료 현황	269
〈표 4-2〉 정책제안 방향성	270
〈표 4-3〉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	271
〈표 4-4〉 한의약분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271
〈표 4-5〉 한의약 정책현안 관련 주제	272

그 림 목 차

[그림 1-1] 사업수행체계	60
[그림 1-2]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85
[그림 3-1] 한방 입원 이용률	116
[그림 3-2] 한방 외래 이용률	117
[그림 3-3]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130
[그림 3-4] 입원별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변화	130
[그림 3-5] 외래별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변화	131
[그림 3-6] 성별 환자수 구성비	133
[그림 3-7] 입원별 성별 환자수 구성비 변화	133
[그림 3-8] 외래별 성별 환자수 구성비 변화	134
[그림 3-9] 소아·성인·노인 진료비 구성비	143
[그림 3-10] 입원별 소아·성인·노인 진료비 구성비 변화	143
[그림 3-11] 외래별 소아·성인·노인 진료비 구성비 변화	144
[그림 3-12] 지역별 한방 건강보험 적용인구	154
[그림 3-13] 지역별 한의사 수	156
[그림 3-14] 지역별 한방 요양기관 수	158
[그림 3-15] 지역별 청구건	160
[그림 3-16] 지역별 실환자수	162
[그림 3-17] 지역별 내원일수	164
[그림 3-18] 지역별 진료비	166
[그림 3-19] 지역별 입원 청구건	168
[그림 3-20] 지역별 입원 진료비	168
[그림 3-21] 지역별 외래 청구건	170

[그림 3-22] 지역별 외래 진료비	170
[그림 3-23] 지역별 평균 일당진료비	172
[그림 3-24] 대분류별 환자수	174
[그림 3-25] 대분류별 환자수	175
[그림 3-26] 대분류별 내원일수	177
[그림 3-27] 대분류별 진료비	178
[그림 3-28]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환자의 연령별 분포	180
[그림 3-2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환자의 연령별 분포 ..	181
[그림 3-30] 특수목적 코드(U00-U99)환자의 연령별 분포	182
[그림3-31] 한방 20대 항목 양 · 한방 실환자수 비교	199
[그림3-32] 한방 20대 항목 양 · 한방 진료비 비교	201
[그림3-33] 한방 20대 항목 양 · 한방 내원일수 비교	204
[그림 3-34]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변화	221
[그림 3-35]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 변화	221
[그림 3-36]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 변화(작약, 감초)	228
[그림 3-37]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 변화(작약, 감초)	228
[그림 3-38] 65세 기준 약제비	230
[그림 3-39] 의료급여 환자수 변화 추이(전체)	232
[그림 3-40] 의료급여 환자수 변화 추이(입원)	233
[그림 3-41] 의료급여 환자수 변화 추이(외래)	233

요 약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일반국민 및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자(외래 및 입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외래 및 입원) 이용실태와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이용행태,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한의약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 한약소비기관(의료서비스부문/조제·판매부문)을 대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의 연간 처방현황 및 다빈도 처방, 다빈도 한약재 처방명 등 한약의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외홍보, 조사 전단계 관리, 조사결과 공표,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한 이용자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근거에 기반한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한의약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목표인 한의약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한방의료이용 특성 및 의료이용 추이분석 및 정책제언 마련을 연구 목적으로 함

2.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 개요

가. 사업수행체계

- 본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약진흥재단’ 과 ‘(주)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체계를 구축함

- (주관기관) 한약진흥재단 : 실태조사의 전체적인 기획 및 운영, 사업
총괄 담당
- (조사수행기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 실태조사 실사 전반 담당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 조사대상은 한방의료이용-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일반국민 5,000명과 한방의료 이용자 외래 1,010명/ 입원 904명과 한약 소비-한방의료기관, 한약방,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대상임
- 조사방법은 일반국민- 가구방문조사, 외래/입원- 한의약 관련 의료기관 방문, 출구면접조사, 한약소비- 방문조사로 이루어졌음

<표 1>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조사대상 및 방법

	한방의료이용	한약소비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 : 5,000명 ○ 외래/입원 : 1,010/904명 ○ 일반국민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이용자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한방의료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소비기관 2,800개소 - 한방의료서비스 : 한방병원, 요양병원, 병원/종합병원 (한의사 有), 한의원(병상없음) - 조제·판매 :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한약방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국민-가구방문조사 ○ 외래/입원-한의약 관련 의료기관 방문, 출구면접조사 	방문조사
조사시기	조사기준 시점: 2017년 9월 1일 0시 조사기간: 2017년 9월 14일-12월 11일	

3. 홈페이지 구축

-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기반 확대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제도 보완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 실태조사 관련 대외홍보 및 수요 조사, 조사결과 공표, 데이터 제공 필요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소개
 -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의 목적과 배경, 조사내용,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 제공함
 - 일반국민에게도 인포그래픽스 등을 통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 조사결과 쉽고 빠르게 전달 및 홍보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간행물 등록 및 제공
 - 시스템을 통한 일원화된 통계 산출물 생산, 관리 등 전반적인 통계 업무 처리의 효율성 제공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공개
 - '17년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공을 위해 제공범위 및 제공절차, 제공방법, 제공비용 등에 대한 규정개발 및 자료분석 지침서 제공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주소 : 1)www.koms.or.kr

4. 조사특성 및 변화추이

가. 조사연혁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현황과 주요 한약(재) 소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의약 분야 조사 통계이자 국가승인통계임
 -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조사연혁은 200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1) KOMS : KOrean Medicin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consumption Survey

2009년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실시되었는데 2011년도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로 통합되면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117087호)로 지정되어 그 이후 계속 조사 수행되고 있음

나. 조사 변경사항

-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표는 2011년, 2014년 조사표를 참고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 가능한 문항은 유지하였고, 그렇지 않은 문항은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일부내용 수정·보완 하였음
- 또한 2017년 조사표에 새롭게 개발된 조사항목의 경우 ‘11년, ‘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이용했던 연구자, 한의약 관련 전문가(협회, 단체, 학계 등)들을 대상으로 사전 통계수요조사를 실시,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추가하였음
- 특히 조사표의 질병선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2016년, 약 5년간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른 다빈도상병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용어변경)「약사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기존조사의 한약국, 한약 조제약국 대신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으로 변경함
- 따라서 2017년 조사결과를 2011,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해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각 세부사항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표 2〉 '17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

대상	구분	주요내용
일반 국민	일반적 특성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이용 실태	평생 한방의료 이용경험, 경험이 없는 이유,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목적, 이용한 한방치료법, 한방의료 선택이유, 한방의료 각 항목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가장 최근 이용시기(년/월), 평균 이용빈도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한방의료에 대한 인지도,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 획득 경로, 각 질환별 한방의료로 치료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 이용비용에 대한 생각 및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 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질환,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한방의료 분야 개선 필요사항
	향후 이용 및 권유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향후 한방의료 이용의향, 이용계획 목적, 향후 한방 복용의향,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한방의료 타인 추천 의향, 추천대상 및 이유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만 19세 미만 자녀여부 및 자녀수, 지난 1년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경험 여부, 한방의료 이용목적 및 경험한 한방의료의 치료법, 한방의료 이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사유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및 과거 만성질환 여부, 장애 등급 판정여부
	의료보장 및 보험 관련	국가에서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 민간의료 보험(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여부

〈표 3〉 ‘17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외래/입원)

대상	구분	주요내용
외래/ 입원	일반적 특성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 및 종류,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
	의료이용 실태	한방의료기관 방문목적,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횟수,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선택 이유,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목적(질환/증상) 및 치료법, 지난 1년간 이용한 한방치료법의 효과,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 경험 여부/종류,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에 지출한 총 비용,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시 항목별 만족도,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시 전반적 만족도/불만족 이유,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전 동일증상으로 다른 기관 이용여부/이용한 다른기관 종류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한방의료에 대한 인지도,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 획득 경로, 각 질환별 한방의료로 치료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 이용비용에 대한 생각 및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 각 질환별 한방의료로 치료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 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질환,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한방의료분야 개선 필요사항
	향후 이용 및 권유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향후 한방의료 이용의향 및 목적, 향후 한약복용 의향,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한방의료 타인 추천 의향, 대상 및 이유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및 과거 만성질환 여부, 장애등급 판정 여부
	의료보장 및 보험 관련	국가에서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 민간의료보험(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여부

〈표 4〉 ‘17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한방의료서비스)

대상	구분	주요내용
한방의료 서비스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종합) 병원)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 및 경영 현황	진료 및 경영현황, 경영상태 및 전망
	선호제형 및 선호 이유	선호제형 및 선호이유
	처방·조제 (판매)	전년대비 탕약 및 한약제제(탕약제외) 처방·조제 (판매)건수 변화, 처방건 대비 용도별 비율, 질환 치료시 다빈도 처방(조제)질환, 질환치료시 처방· 조제(판매) 탕약명, 질환치료시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명
	탕전 및 한약재 이용 현황	탕전 이용형태, 탕전 이용현황,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한 곳, 한약재 총 가짓수 및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여부,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및 이유
	한약재에 대한 인식	한약재 관련 평소 생각,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탕약 및 한약제제(탕약 제외) 이용 확대방안	탕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약제제 (탕약제외, 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방의료(한약) 효과 및 보험	질환별 한방의료 치료의 효과성, 한약 치료가 효과적인 질환,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가장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가장 우선적용이 필요한 질환

〈표 5〉 ‘17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조제·판매)

대상	구분	주요내용
조제·판매 기관(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한약방)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 및 경영 현황	진료 및 경영현황, 경영상태 및 전망
	선호제형 및 선호 이유	선호제형 및 선호 이유
	처방·조제 (판매)	전년대비 탕약 및 비보험한약제제(탕약제외) 조제(판매)건수 변화, 조제(판매)건 대비 용도별 비율, 질환치료 시 조제(판매) 탕약명, 질환 치료시 조제(판매) 비보험한약제제(탕약제외)명
	탕전 및 한약재 이용 현황	탕전 이용현황,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한곳, 한약재 총 가짓수 및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여부,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및 이유
	한약재에 대한 인식	한약재 관련 평소생각,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탕약 및 한약제제(탕약 제외) 이용 확대방안	탕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비보험한약제제(탕약제외)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방의료(한약) 효과 및 보험	한약치료가 효과적인 질환

다. 이전 실태조사 대비 ‘17년도 개선사항

- ‘11년, ‘14년과 달리 ‘17년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모든 대상(일반국민 5,000명, 외래이용자 1,010명, 입원이용자 904명, 한약소비기관 2,800개소)을 방문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증대시킴

- 한의약 정책과 향후 자료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17년도 조사표별 조사항목을 변경하였음
 - 한의약 정책, 한의계 현안인 한약재의 안전성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였음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11, '14년에는 한방의료 전체의 치료효과를 물었으나 각 질환별 한방의료의 치료효과로 문항을 변경하여 문항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범위에 한방의료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자료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모두 지난 1년간 경험으로 문항을 통일시켜 비교성 및 일관성을 증가시킴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국민 및 외래/입원환자의 조사표 내 이용 질환 관련한 질병선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 자료에 의한 다빈도 한방질환을 파악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이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방이용질환을 수정·보완함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의 경우 만성질환 여부 및 종류 문항을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약소비실태조사) 전년대비 탕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보험한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 처방건수 변화, 질환치료시 탕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보험한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를 구분하여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탕약명, 한약제제명 및 한약재 사용 가짓수 등을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약소비실태조사) 한방의료서비스기관 외 한약 조제·판매기관(한약방, 한약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을 따로 조사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킴

- (조사표 용어변경) 「약사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기존조사의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대신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으로 변경함
-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각 조사대상자별 모집단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대표성과 비교성 확보
-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축(www.koms.or.kr)으로 실태조사 관련 대외홍보 및 수요조사, 조사결과 및 데이터 제공으로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기반 확대 등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 (홈페이지) 조사 주요 결과를 인포그래픽스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홈페이지) ‘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공개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한방의료 연구 기회제공 및 홍보
- (시계열 분석 한계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최초 실시되었던 2008년 기준으로 그 이후 실태조사가 수행될 때마다 각 실태조사의 조사표, 조사대상, 조사방법이 일부 변경되어왔음. 또한 ‘17년도 역시 그 이전 실태조사 관련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반영함으로 인한 변동으로 전체적인 연차별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 예를 들어, 한방의료 이용경험 문항의 경우, ‘11, ‘14, ‘17년도별 조사방법 등의 변동으로 각 연도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추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II. 연구 결과

1. 한방의료이용

가. 일반국민의 한방의료이용 추이

- 평생동안 한번이라도 한방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3.8%로 나타났음
- 성별·연령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6〉 평생 한방의료 경험 추이

(단위:%, 명)

구분		경험유무	2017년
전체		경험있음	73.8
		경험없음	26.2
		총계	100.0(5,000)
성별	남	경험있음	68.4
		경험없음	31.6
	여	경험있음	79.1
		경험없음	20.9
연령별	19~29세	경험있음	43.1
		경험없음	56.9
	30대	경험있음	63.4
		경험없음	36.6
	40대	경험있음	77.7
		경험없음	22.3
	50대	경험있음	86.1
		경험없음	13.9
	60대 이상	경험있음	90.6
		경험없음	9.4

- 평생동안 한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 중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7〉 평생 동안 한 번도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추이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n)
한방의료를 잘몰라서	9.5
진료비가 비쌀 것 같아서	4.2
한약안전이 걱정되어서	3.4
한방치료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11.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71.2
기타	0.1
총계	100(1,310)

- 평생 한방의료를 이용한 질환순위는 요통이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 염좌, 오십견/견비통 순으로 이용하였음

〈표 8〉 한방의료 이용한 질환순위 추이

순위	질환	%
1	요통(허리통증)	52.7
2	기타염좌(뺨)	37.3
3	오십견,견비통	20.9
4	관절염	20.7
5	체질개선	16.5
6	디스크(추간판탈출,협착증)	12.7
7	감기,비염	9.2
8	소화불량 등 소화기질환	9.0
9	다이어트	3.1
10	기타질환치료	2.6

Note : 이용목적별 복수응답한 각 질환비중(%)으로서 인구추계가중치 적용함

- 가장 많이 받은 또한 이용한적 있는 한방치료법으로 침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항, 뜸, 한방물리요법 순으로 치료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9〉 가장 많이 받은 또는 이용한적 있는 한방치료법 추이

(단위:%)

치료방법	2017년
침	90.2
뜸	49.1
부항	53.0
약침	22.6
한약제제(탕약 제외)	26.4
탕약	39.2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40.2
추나요법	7.8
기타	-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10〉 지금까지 받은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 추이

(단위:%(n))

구분		만족도	2017년
전체		만족	76.2
		보통	21.7
		불만족	2.0
성별	남	만족	75.8
		보통	21.8
		불만족	2.4
	여	만족	76.6
		보통	21.7
		불만족	1.7
연령별	20대	만족	67.8
		보통	29.5
		불만족	2.6
	30대	만족	73.4
		보통	24.1
		불만족	2.5
	40대	만족	77.3
		보통	21.3
		불만족	1.5
	50대	만족	77.1
		보통	21.4
		불만족	1.4
	60대	만족	79.1
		보통	18.4
		불만족	2.5

Note : 만족(매우만족+만족), 보통, 불만족(불만족, 매우불만족)으로 통합 재분류

- 한방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인식도가 높았음

〈표 11〉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인식	2017년
전체		알고있음(매우+약간)	34.9
		보통	28.3
		모름(전혀+별로)	36.8
성별	남	알고있음(매우+약간)	32.3
		보통	27.2
		모름(전혀+별로)	40.5
	여	알고있음(매우+약간)	37.4
		보통	29.4
		모름(전혀+별로)	33.2
연령 별	20대	알고있음(매우+약간)	15.1
		보통	20.2
		모름(전혀+별로)	64.7
	30대	알고있음(매우+약간)	30.4
		보통	28.0
		모름(전혀+별로)	41.6
	40대	알고있음(매우+약간)	39.2
		보통	33.0
		모름(전혀+별로)	27.8
	50대	알고있음(매우+약간)	45.2
		보통	28.5
		모름(전혀+별로)	26.4
	60대	알고있음(매우+약간)	40.7
		보통	30.4
		모름(전혀+별로)	29.0

나. 외래/입원 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 추이

- 지난 1년간의 한방외래진료 이용횟수 추이를 보면 4~7회, 1~3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입원진료 이용횟수 추이를 보면 1회 입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2〉 한방의료의 외래/입원 이용횟수 추이

외래횟수	%	입원횟수	%
1~3회	26.4	1회	62.7
4~7회	30.7	2회	22.9
8~12회	19.4	3회	7.1
13회 이상	23.5	4회	2.5
-	-	5회이상	4.8

- 지난 1년간 외래진료를 이용한 질환순위 추이 결과를 보면 척추질환(허리)의 이용율이 43.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및 관절병 32.8%, 어깨병변 24.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한방의료를 이용한 입원질환 추이 결과를 보면 척추질환(허리)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및 관절병 22.9%, 관절의 탈구염좌 긴장 22.3%, 어깨병변 19.3% 순으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 지난 1년간 입원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추이를 보면 50만원 미만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방입원 진료비에서 300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지출하는 경향은 감소하는 추세임.

〈표 13〉 외래/입원 이용시 총 진료비 추이

(단위:%(n))

구분	진료비	2017년
외래	1만원미만	3.8
	1~10만원미만	49.3
	10~50만원미만	34.3
	50~100만원미만	9.9
	100만원 이상	2.7
	전체	100(1,000)
입원	50만원 미만/이하	40.7
	50~100만원미만	29.4
	100~300만원미만	21.4
	300만원이상	8.5
	모름	-
	전체	100(1,000)

다. 한약소비기관의 한약소비 추이

- 한약소비기관(한방의료서비스, 조제·판매)의 경영수지 변화추이 결과를 보면 지난 1년간 2016년 의료기관 경영수지에 대하여 긍정적(매우 긍정적과 약간 긍정적을 합한 비율:18.8%)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요양병원이 한방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또한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2016년도 경영상태를 66.0%가 부정적(약간 부정적과 매우 부정적을 합한)이라고 평가하였음

〈표 14〉 한약소비기관별 경영현황 추이

(단위:%)

의료기관	많이증가	조금증가	변화없음	서서히감소	많이감소
한방병원	3.0	11.6	52.7	26.8	5.9
요양(종합)병원	5.2	14.5	73.8	5.5	1.0
약국	0.5	5.7	41.2	33.8	18.8
한약방	-	1.2	15.2	36.6	47.0

Note : 2017년(1년간): 표본기관 총 2800개소 조사완료. 약국은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을 의미함. 5점척도 응답항목을 ‘매우긍정, 약간긍정, 보통, 약간부정, 매우부정적으로 변경

- 평소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 추이를 보면 한약도매상에서 79.4%(한방의료서비스)와 89.3%(조제·판매)로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음

〈표 15〉 한약재 구입처 추이

(단위:%)

구분1	구분2	한약도매상	한약제조업소	기타
유형	한방병원	83.0	17.0	-
	한의원	76.6	17.4	6.1
	요양/(종합)병원	74.5	25.5	-
	약국	85.3	10.6	4.1
	한약방	94.5	3.5	2.0
매출규모	10억원미만	81.7	18.3	-
	10~20억원미만	82.9	17.1	-
	20~50억원미만	78.5	21.5	-
	50~100억원미만	78.2	21.8	-
	100억원이상	76.4	23.6	-
전체	한방의료서비스	79.4	20.6	-
	조제판매	89.3	7.5	3.2

- 조사대상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종류로 한방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우 평균 93.8개를 사용하는데 50~100개 미만이 34.5%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평균 81.4개를 사용하고 50~100개 미만이 45.2%로 가장 높았음

〈표 16〉 사용한약재 총가짓수 추이

단위:%

한약재수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한약방	약국 (한약조제약사)	약국 (한약사)
50미만	5.7	15.4	28.3	15.5	29.1	
50~100미만	25.1	34.5	26.3	43.3	46.6	
100~150미만	33.1	33.4	20.1	23.1	16.6	
150이상	13.8	9.3	25.3	6.9	4.6	
150~300	15.1	6.2	-	5.4	2.2	
300이상	7.2	1.3	-	5.8	0.9	

- 지난 1년간 전체 매출액중 한약재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 비중을 조사한 결과 20% 미만에서 한방병원 63.5%, 한의원 58.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 구입비중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조제·판매의 경우 한약방은 매출액대비 한약재구입비중이 20~40% 미만(42.6%)이 가장 높으며, 약국(한약조제약사, 한약사 근무)보다 매출액 중 구입비중이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17〉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비중 추이

(단위:%)

비중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한약방	약국 (한약조제약사)	약국 (한약사)
20%미만	63.5	58.5	98.2	9.0	41.5	
20-40%미만	30.6	30.0	1.1	42.6	26.8	
40-60%미만	5.3	8.7	0.7	29.5	20.9	
60-80%미만	0.6	2.3	-	14.1	9.0	
80%이상	-	0.5	-	4.7	1.8	

- 구입이 어려웠던 한약재 추이를 보면 한방의료서비스 부문과 조제·판매부문 모두 당귀가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한방의료서비스 부문은 감초 > 황기 > 인삼 > 숙지황,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감초 > 숙지황 > 인삼 > 백출 순으로 나타남

〈표 18〉 구입이 어려웠던 한약재 순위 추이

순위	한방의료서비스부문		조제·판매	
	한약재	%	한약재	%
1	당귀	32.8	당귀	52.9
2	감초	11.9	감초	8.8
3	황기	8.9	숙지황	4.6
4	인삼	7.0	인삼	4.4
5	숙지황	6.1	백출	4.3
6	백출	5.5	황기	4.0
7	작약	4.9	작약	3.8
8	복령	2.9	갈근	3.2
9	창출	1.7	창출	2.1
10	길근	1.6	천궁	1.7
11	향부자	1.3	마황	1.5
12	반하	1.2	복령	1.2
13	진피	1.2	반하	1.0
14	시호	1.2	강활	0.7
15	생지황	1.1	진피	0.6
16	마황	0.9	시호	0.6
17	계지	0.9	계지	0.6
18	천궁	0.7	육계	0.3
19	대추	0.6	의이인	0.2
20	황련	0.5	맥문동	0.2

라.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관련 한의약통계 분석

1) 국민건강보험상 한방의료 이용실태 분석

-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한방과 의과 의료기관 수는 한방은 14,150개 의과는 33,575개로 한방 대비 의과 의료기관이 2.4배 많았음
 - 한방병원은 282개, 한의원은 13,868개
 - 한의사 수 19,737명, 의사 수는 123,512명으로 한의사 대비 의사 수는 6.3배 많았음

〈표 19〉 의과 및 한방 건강보험의 현황

(단위: %)

구분(단위)	한방					의과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2016
건강보험 적용인구(명)	49,989,620	50,316,384	50,490,157	50,763,283	0.5	50,763,283
소계(개)	13,312	13,654	13,873	14,150	2.1	33,575
상급종합병원(기관)	-	-	-	-	-	43
종합병원(기관)	-	-	-	-	-	298
한방병원(기관)	212	231	260	282	10.0	2,942
한/의원(기관)	13,100	13,423	13,613	13,868	1.9	30,292
한의사 수(명)	18,199	18,767	19,246	19,737	2.7	123,512
청 구 건 수 (건,%)	101,126,086 7.6%+	104,457,391 7.7%+	102,611,566 7.6%+	103,267,644 7.4%+	0.7	717,373,476 51.3%+
내 원 일 수 (일,%)	103,259,945 7.0%+	106,759,913 7.2%+	105,162,434 7.1%+	106,006,557 7.0%+	0.9	893,738,361 58.6%+
총 진료비 (천원,%)	2,108,963,913 4.2%+	2,272,416,018 4.2%+	2,321,029,190 4.0%+	2,420,551,472 3.7%+	4.7	36,349,097,162 56.2%+
한/의원 건당 진료비 (천원)	20,855	20,323	20,807	21,295	0.7	23,927
내원 1일당 진료비(원)	20,424	20,286	20,768	21,257	1.3	23,634

Note: 1) 진료비(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비용

2) + 해당지표/해당지표의 총계(약국포함)

3) 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포함), 의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한방 건강보험의 5대 진료항목 비용은 시술 및 처치료가 52.9%, 진찰료 35.3%, 입원료 4.0%, 투약료 1.6%, 검사료 0.1%이었음
- 2013년 대비 2016년 투약료는 5.2% 증가하였고, 검사료는 비용의 비중은 적으나 4.2%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의과는 진찰료 20.9%, 시술 및 처치료 18.6%, 입원료 12.1%, 검사료 12.9%, 주사료 8.3%,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4.5%, 이학요법, 투약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순임

<표 20> 의과 및 한방 건강보험의 현황(5대항목 급여비)

(단위: 천원, %)

구분		한방					의과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2016
5 대 항 목 급 여 비	진찰료	783,754,317 37.2	835,080,417 36.7	831,585,655 35.8	857,658,422 35.4	3.0	10,019,859,707 20.90
	입원료	90,568,448 4.3	69,473,333 3.2	86,822,482 3.7	94,112,920 3.9	2.0	5,775,934,457 12.05
	투약료	33,940,419 1.6	33,887,057 1.5	35,078,230 1.5	38,636,911 1.6	5.2	1,377,962,087 2.87
	시술및처 치료	1,197,374,122 56.8	1,255,545,089 55.2	1,275,545,089 55.2	1,323,548,427 54.7	2.3	8,932,765,549 18.63
	검사료	3,326,608 0.2	3,198,715 0.1	3,010,068 0.1	2,929,564 0.1	-4.1	6,197,239,454 12.93
	주사료	-	-	-	-	-	3,965,064,552 8.27
	마취료	-	-	-	-	-	1,205,609,806 2.51
	이학요법료	-	-	-	-	-	1,421,293,842 2.96
	정신요법료	-	-	-	-	-	368,715,169 0.7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	-	2,168,203,012 4.52

Note: 1) 2010~2015년 건강심사평가원 의료정보관리부 자료는 기본진료비(진찰료, 입원료, 식대), 시
술 및 처치료(시술료, 처치료, 정신요법료, 온냉경락요법료), 검사료, 조제료, 약품비, 재료
대,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16년 전산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함(약국 실적 제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가) 한방건강보험 청구건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건강보험 청구는 연평균 0.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의원의 청구건수가 90%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입원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11.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방병원은 연평균 10.8%, 요양병원은 연평균 12.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외래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0.2%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원을 제외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 각각 -1.6%, -8.7%, -4.8%로 감소하였음

- 외래의 청구건수 중 유일하게 한의원만 연평균 0.4% 증가함

〈표 21〉 건강보험 청구건 변화 추이

(단위: 건,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청구건	전년 대비 증가율	구분비	청구건	구분비	청구건	구분비	청구건	구분비	청구건	구분비
전 체	2013	104,085,419	6.3	100.0	3,221,220	3.1	98,228,546	94.4	1,006,644	1.0	1,629,009	1.6
	2014	107,062,256	2.9	100.0	3,155,296	2.9	101,122,411	94.5	1,137,263	1.1	1,647,286	1.5
	2015	104,734,452	-2.2	100.0	3,057,101	2.9	99,020,982	94.5	1,153,226	1.1	1,508,143	1.4
	2016	105,189,465	0.4	100.0	3,132,577	3.0	99,447,001	94.5	1,204,311	1.1	1,405,576	1.3
	연평균 증가율	0.4			-0.9		0.4		6.2		-4.8	
입 원	2013	860,839	23.2	100.0	164,699	19.1	16,999	2.0	679,141	78.9	—	
	2014	990,028	15.0	100.0	179,436	18.1	19,979	2.0	790,613	79.9		
	2015	1,094,178	10.5	100.0	202,153	18.5	19,142	1.7	872,883	79.8		
	2016	1,199,147	9.6	100.0	224,179	18.7	19,676	1.6	955,292	79.7		
	연평균 증가율	11.7			10.8		5.0		12.0			
외 래	2013	103,224,580	6.2	100.0	3,056,521	3	98,211,547	95.1	327,503	0.3	1,629,009	1.6
	2014	106,072,228	2.8	100.0	2,975,860	2.8	101,102,432	95.3	346,650	0.3	1,647,286	1.6
	2015	103,640,274	-2.3	100.0	2,854,948	2.8	99,001,840	95.5	280,343	0.3	1,508,143	1.5
	2016	103,990,318	0.3	100.0	2,908,398	2.8	99,427,325	95.6	249,019	0.2	1,405,576	1.4
	연평균 증가율	0.2			-1.6		0.4		-8.7		-4.8	

Note :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나) 한방건강보험 이용 실환자수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환자의 연평균증가율은 0.8%이고, 2016년 기준 한의원 91.9%, 한방병원 5.0%, 보건기관 1.6%, 요양병원 1.5% 순이었음
- 입원 환자의 연평균증가율은 10.8%이고 요양병원의 입원환자가 약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9.5% 증가율을 보임
- 한방병원의 입원환자가 연평균 1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외래 환자의 연평균증가율은 0.5%이고 90% 이상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모두 외래 환자가 줄어들고 있음

〈표 22〉 한방건강보험 이용 실환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환자수	전년 대비 증가 율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전체	2013	13,214,484	3.0	100.0	663,783	5.0	12,618,490	95.5	181,525	1.4	251,299	1.9
	2014	13,906,536	5.2	100.0	653,876	4.7	12,802,828	92.1	199,758	1.4	250,074	1.8
	2015	13,661,513	-1.8	100.0	662,342	4.8	12,569,410	92.0	199,510	1.5	230,251	1.7
	2016	13,532,564	-0.9	100.0	678,145	5.0	12,438,089	91.9	204,454	1.5	211,876	1.6
	연평균 증가율	0.8			0.7		-0.5		4.0		-5.5	
입원	2013	229,785	16.3	100.0	101,449	44.2	10,669	4.6	122,629	53.4	—	
	2014	259,080	12.7	100.0	108,069	41.7	12,044	4.6	138,967	53.6		
	2015	288,541	11.4	100.0	126,262	43.8	12,013	4.2	150,266	52.1		
	2016	312,258	8.2	100.0	139,691	44.7	11,631	3.7	160,936	51.5		
	연평균 증가율	10.8			11.3		2.9		9.5			
외래	2013	13,080,085	2.9	100.0	604,984	4.6	12,613,875	96.4	60,840	0.5	251,299	1.9
	2014	13,699,564	4.7	100.0	589,104	4.3	12,797,567	93.4	62,819	0.5	250,074	1.8
	2015	13,428,143	-2.0	100.0	583,008	4.3	12,564,043	93.6	50,841	0.4	230,251	1.7
	2016	13,277,982	-1.1	100.0	588,109	4.4	12,433,148	93.6	44,849	0.3	211,876	1.6
	연평균 증가율	0.5			-0.9		-0.5		-9.7		-5.5	

Note : 1) 요양기관 구분에 따라 중복된 환자 포함

2) 전체 한방 진료 실환자수는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실환자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진료를 포함

다) 한방건강보험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건강보험 이용 전체 내원일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0.5%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의원이 90%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 입원의 내원일수는 연평균증가율이 9.1%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방병원의 입원 내원일수는 연평균 10.3%로 증가하고 있음
- 요양병원의 입원 내원일수의 연평균증가율은 -28.9%로 감소하는데 이는 전체 요양병원 환자의 45%는 한방·의과 협의 진찰을 시행함에 따라 협의진료 시 내원일수는 산정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따라서 요양병원의 내원일수²⁾는 해석시 특히 유의해야함
- 외래의 내원일수는 연평균증가율이 0.2%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평균 0.4%로 증가하는 한의원을 제외하면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모두 -1.6%, -8.7%, -4.8%로 감소하고 있음

2) 요양급여일수 산정 지침: 협의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실제 입원한 진료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으로 산정)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표 23〉 한방건강보험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

(단위: 일,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전체	2013	105,614,162	6.4	100.0	5,212,486	4.9	98,389,571	93.2	383,096	0.4	1,629,009	1.5
	2014	108,726,379	2.9	100.0	5,369,380	4.9	101,316,259	93.2	393,454	0.4	1,647,286	1.5
	2015	106,520,780	-2.0	100.0	5,508,934	5.2	99,200,266	93.1	308,437	0.3	1,503,143	1.4
	2016	107,097,529	0.5	100.0	5,800,787	5.4	99,622,139	93.0	269,027	0.3	1,405,576	1.3
	연평균 증감률	0.5			3.6		0.4		-11.1		-4.8	
입원	2013	2,389,609	15.4	100.0	2,155,966	90.2	178,039	7.5	55,604	2.3	—	
	2014	2,658,419	11.2	100.0	2,393,524	90.0	216,244	8.1	48,651	1.8		
	2015	2,881,281	8.4	100.0	2,653,997	92.1	198,492	6.9	28,792	1.0		
	2016	3,107,334	7.8	100.0	2,892,408	93.1	194,900	6.3	20,026	0.6		
	연평균 증감률	9.1			10.3		3.1		-28.9			
외래	2013	103,224,553	6.2	100.0	3,056,520	3.0	98,211,532	95.1	327,492	0.3	1,629,009	1.6
	2014	106,057,930	2.8	100.0	2,975,856	2.8	101,100,015	95.3	344,803	0.3	1,647,286	1.6
	2015	103,639,499	-2.3	100.0	2,854,937	2.8	99,001,774	95.5	279,645	0.3	1,503,143	1.5
	2016	103,990,195	0.3	100.0	2,908,379	2.8	99,427,239	95.6	249,001	0.2	1,405,576	1.4
	연평균 증감률	0.2			-1.6		0.4		-8.7		-4.8	

Note : 1)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2)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진료를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라) 한방건강보험 이용 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6년 2조 5,143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약 95%(한의원 84.4%, 한방병원 10.9%)를 차지하고 요양병원은 4.3%, 보건기관은 0.4%를 차지함
- 입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8%(2016년 기준 3,056억원)로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63.8%, 요양병원 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92%(2016년 기준 2조 2,086억원)로 연평균증가율 3.3%이며 한의원의 외래 진료비가 95%이상을 차지함

〈표 24〉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전체	2013	2,201,615	10.6	100	189,456	8.6	1,924,989	87.4	77,013	3.5	10,157	0.5
	2014	2,368,689	7.6	100	208,554	8.8	2,059,983	87.0	89,738	3.8	10,414	0.4
	2015	2,413,056	1.9	100	240,104	10.0	2,064,758	85.6	98,309	4.1	9,885	0.4
	2016	2,514,313	4.2	100	274,179	10.9	2,122,823	84.4	107,841	4.3	9,470	0.4
	연평균 증감률	4.5			13.1		3.3		11.9		-2.3	
입원	2013	198,690	21.3	100	121,470	61.1	6,642	3.3	70,577	35.5	—	
	2014	229,286	15.4	100	138,566	60.4	7,987	3.5	82,733	36.1		
	2015	267,577	16.7	100	167,472	62.6	7,650	2.9	92,455	34.6		
	2016	305,664	14.2	100	195,148	63.8	7,860	2.6	102,656	33.6		
	연평균 증감률	15.4			17.1		5.8		13.3			
외래	2013	2,002,926	9.6	100	67,987	3.4	1,918,347	95.8	6,435	0.3	10,157	0.5
	2014	2,139,403	6.8	100	69,987	3.3	2,051,996	95.9	7,006	0.3	10,414	0.5
	2015	2,145,479	0.3	100	72,632	3.4	2,057,108	95.9	5,854	0.3	9,885	0.5
	2016	2,208,647	2.9	100	79,031	3.6	2,114,962	95.8	5,184	0.2	9,470	0.4
	연평균 증감률	3.3			5.1		3.3		-7.0		-2.3	

Note : 1)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2)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진료를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마) 한방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23% 입원을 유지하고 있음
- 한방병원에서의 본인부담비율이 한의원, 요양병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25〉 한방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 변화 추이

(단위: 원, %)

구분	연도	입원			외래		
		건당 본인부담비용	내원일당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 비율	건당 본인부담비용	내원일당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 비율
전체	2013	52,894	19,070	22.9	4,868	4,868	24.8
	2014	52,933	19,713	22.9	4,695	4,695	24.4
	2015	55,773	21,180	22.8	5,065	5,065	24.5
	2016	58,568	22,602	23.0	5,219	5,219	24.6
	연평균 증가율	3.5	5.8	0.1	2.3	2.3	-0.3
한방 병원	2013	185,508	14,183	25.2	8,656	8,656	38.9
	2014	192,743	14,449	25.0	866	866	38.8
	2015	204,812	15,600	24.7	9,861	9,861	38.8
	2016	216,852	16,807	24.9	10,507	10,507	38.7
	연평균 증가율	5.3	5.8	-0.4	6.7	6.7	-0.2
한의 원	2013	92,126	8,829	23.7	4,742	4,742	24.3
	2014	91,725	8,475	22.9	4,850	4,850	23.9
	2015	94,008	9,066	23.5	4,972	4,972	23.9
	2016	95,286	9,620	23.9	5,109	5,109	24.0
	연평균 증가율	1.1	2.9	0.3	2.5	2.5	-0.4
요양 병원	2013	241,384	19,748	19.0	7,195	7,196	36.6
	2014	20,221	328,606	19.3	7,438	7,478	36.8
	2015	20,418	618,997	19.3	7,651	7,670	36.6
	2016	20,667	985,880	19.2	7,607	7,608	36.5
	연평균 증가율	-55.9	268.2	0.3	1.9	1.9	-0.1

Note : 1) 건당 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청구건
 2) 내원일당 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내원일수
 3) 본인부담비율 = 본인부담비용/진료비*100

바) 소아·성인·노인 실환자수 구성비

- 전체 실환자수는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0~9세 환자들이 가장 적었음
 - 2016년 기준 40~64세 47.6%, 20~39세 23.7%, 65세 이상 21.1%, 10~19세 4.7%, 0~9세 3.4% 순이었음
- 입원 실환자수는 65세 이상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0~9세 환자들이 가장 적었음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52.9%, 40~64세 38.9%, 20~39세 13.5%, 10~19세 1.6%, 0~9세 0.2% 순이었음

○ 외래 실환자수는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0~9세 환자들이 가장 적었음

- 2016년 기준 40~64세 48.1%, 20~39세 24.0%, 65세 이상 20.5%, 10~19세 4.8%, 0~9세 3.5%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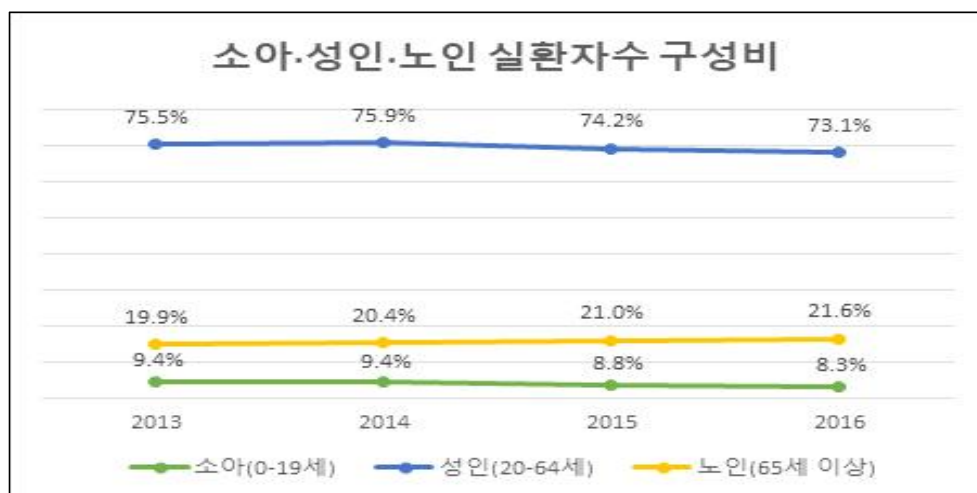
<표 26> 소아·성인·노인 실환자수 구성비

(단위: 천명, %)

구분		0-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전체	2013	485	3.5	763	5.5	3,495	25.2	6,475	46.8	2,631	19.0
	2014	485	3.5	752	5.4	3,492	25.1	6,532	47.0	2,693	19.4
	2015	467	3.4	696	5.1	3,331	24.4	6,473	47.4	2,769	20.3
	2016	461	3.4	641	4.7	3,213	23.7	6,446	47.6	2,851	21.1
입원	2013	0.5	0.3	4.1	1.6	31.8	12.4	91.2	35.7	127.9	50.0
	2014	0.9	0.3	4.4	1.7	33.2	12.8	100.4	38.8	139.6	53.9
	2015	0.8	0.3	5.1	1.8	38.1	13.2	113.0	39.2	152.8	53.0
	2016	0.7	0.2	5.1	1.6	42.0	13.5	121.5	38.9	165.2	52.9
외래	2013	484	3.5	761	5.6	3,481	25.4	6,435	47.0	2,536	18.5
	2014	485	3.5	750	5.5	3,476	25.4	6,485	47.3	2,587	18.9
	2015	466	3.5	693	5.2	3,311	24.7	6,419	47.8	2,651	19.7
	2016	461	3.5	638	4.8	3,191	24.0	6,387	48.1	2,723	20.5

Note : 1)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2) 구성비 = 해당연도 연령별 실환자수/해당연도 실환자수



[그림 1]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사) 성별 실환자수 구성비

- 전체 실환자수의 여자 구성비는 약 60%로 남자 구성비 약 40%보다 더 많았음
- 입원 실환자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65.9%, 남자는 34.1%였음
- 외래 실환자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57.2%, 남자는 42.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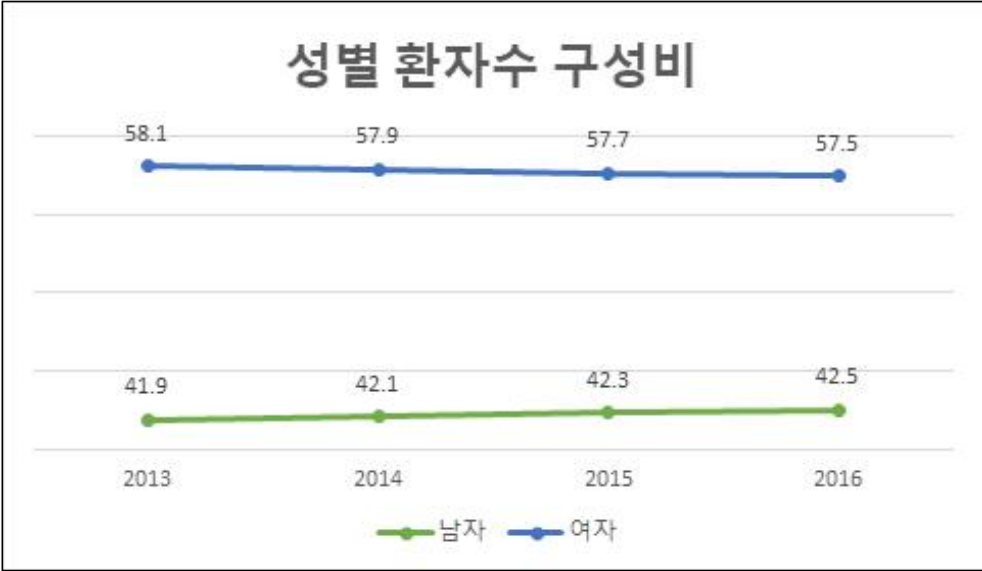
<표 27> 성별 실환자수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남자		여자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전체	2013	5,848,667	41.9	8,103,565	58.1
	2014	5,859,556	42.1	8,094,960	57.9
	2015	5,785,027	42.3	7,950,628	57.7
	2016	5,748,269	42.5	7,863,819	57.5
입원	2013	83,744	42.1	171,963	57.9
	2014	89,976	27.3	188,450	72.7
	2015	99,185	34.4	210,547	65.6
	2016	106,513	34.1	227,896	65.9
외래	2013	5,764,923	32.8	7,931,602	67.2
	2014	5,802,770	42.4	7,980,247	57.6
	2015	5,720,965	42.6	7,819,979	57.4
	2016	5,678,412	42.8	7,720,595	57.2

Note : 1)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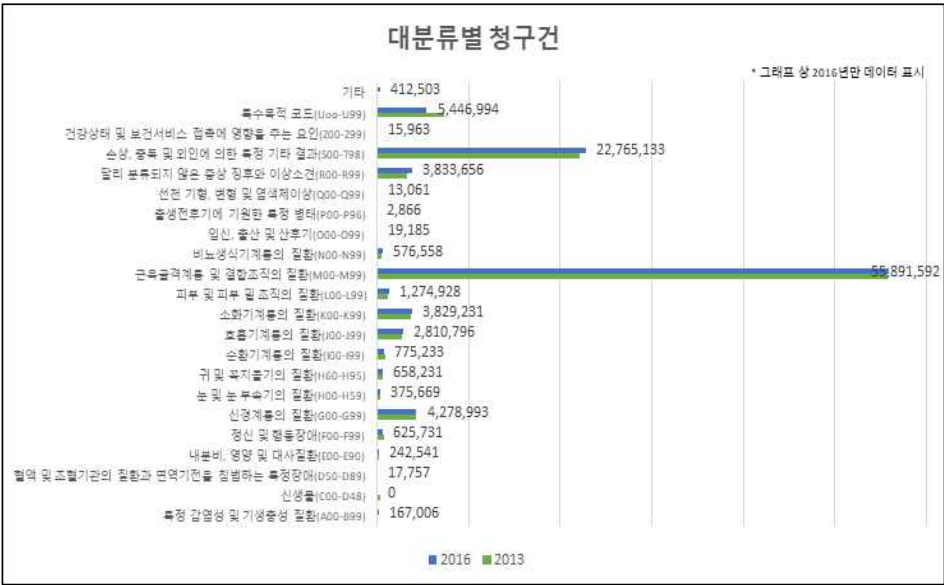
2) 구성비 = 해당연도 성별 실환자수/해당연도 실환자수



[그림 2] 성별 환자수 구성비

아) 대분류별 청구건

- 2016년 청구건이 많은 질환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53.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21.9%), 특수 목적 코드(5.2%), 신경계통의 질환(4.1%) 등의 순이었음



[그림 3] 대분류별 청구건

〈표 28〉 대분류별 청구건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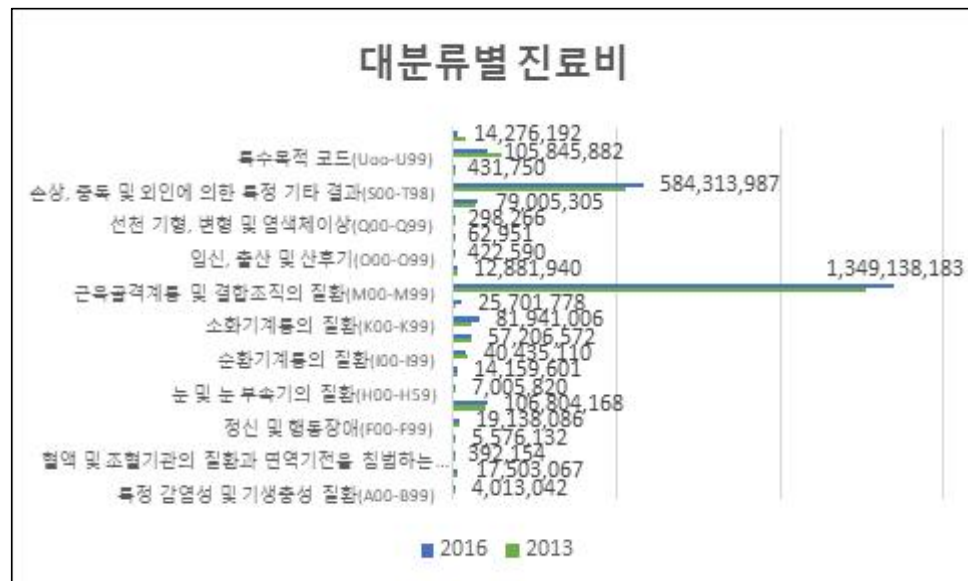
구분 대분류 명칭	청구건(건)				
	2013	2014	2015	2016	2016 구성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123,778	142,944	157,090	167,006	0.2
신생물(C00-D48)	310,231	-	-	-	-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14,027	14,105	16,262	17,757	0.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251,188	240,599	234,328	242,541	0.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723,250	700,035	668,551	625,731	0.6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4,260,298	4,293,937	4,185,131	4,278,993	4.1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H00-H59)	350,031	367,101	357,498	375,669	0.4
귀 및 쪽지돌기의 질환(H60-H95)	598,400	634,604	643,174	658,231	0.6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962,941	940,306	887,958	775,233	0.7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2,710,367	2,904,379	2,704,919	2,810,796	2.7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9)	3,739,078	3,810,473	3,794,384	3,829,231	3.7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L00-L99)	1,132,090	1,276,213	1,258,242	1,274,928	1.2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55,721,894	56,140,059	54,765,026	55,891,592	53.7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00-N99)	553,642	595,989	564,133	576,558	0.6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23,471	24,134	23,623	19,185	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2,652	3,978	5,684	2,866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18,573	16,496	13,773	13,061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조건(R00-R99)	3,337,701	3,353,959	3,239,449	3,833,656	3.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22,077,449	22,681,506	23,009,741	22,765,133	21.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20,514	19,478	19,975	15,963	0.0
특수목적 코드(U00-U99)	7,395,943	7,132,129	6,573,436	5,446,994	5.2
기타	0	384,027	374,711	412,503	0.4
합계	104,327,519	105,676,451	103,497,088	104,033,627	100.0

Note : 한의병명(U20-U33), 한의병증(U50-U79), 사상체질병증(U95-U9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자) 대분류별 진료비

- 2016년 22대 분류별 진료비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53.4%),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23.1%), 특수목적 코드(4.2%), 신경계통의 질환(4.2%)의 순이었음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2013년 1조 1,732억원이며, 2016년 1조 3,491억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환의 2013년 4,879억원에서 2016년 5,843억원으로 6.2% 증가하였음. 특수목적 코드는 2013년 1,445억원에서 2016년 1058억원으로 1.4% 감소하였음



[그림 4] 대분류별 진료비

〈표 29〉대분류별 진료비

(단위: 천원, %)

구분 대분류 명칭	진료비(천원)			
	2014	2015	2016	2016 구성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3,173,904	3,624,728	4,013,042	0.2
신생물(C00-D48)	12,921,015	14,236,092	17,503,067	0.7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311,910	363,222	392,154	0.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5,175,630	5,111,018	5,576,132	0.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18,235,179	18,962,154	19,138,086	0.8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99,486,239	100,398,331	106,804,168	4.2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H00-H59)	6,459,576	6,431,628	7,005,820	0.3
귀 및 쪽지돌기의 질환(H60-H95)	12,965,429	13,435,841	14,159,601	0.6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42,628,622	42,701,213	40,435,110	1.6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54,930,533	53,261,275	57,206,572	2.3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9)	57,745,516	58,654,007	81,941,006	3.2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L00-L99)	3,676,959	3,445,284	25,701,778	1.0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1,262,216,828	1,276,249,821	1,349,138,183	53.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00-N99)	12,399,093	12,209,428	12,881,940	0.5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505,457	512,513	422,590	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86,137	115,664	62,951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343,964	308,393	298,266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R00-R99)	67,345,603	66,630,699	79,005,305	3.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526,766,130	563,369,499	584,313,987	23.1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665,887	433,092	431,750	0.0
특수목적 코드(U00-U99)	146,857,492	138,861,104	105,845,882	4.2
기타	41,063,728	42,374,254	14,276,192	0.6
합계	2,375,960,831	2,421,689,260	2,526,553,582	100.0

Note : 한의병명(U20-U33), 한의병증(U50-U79), 사상체질병증(U95-U9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연령별로는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은 0~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

(S00-T98)은 10~1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음. 또한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은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별 환자수가 1순위임

〈표 30〉 2016년 대분류별 연령별 환자수 상위 5위

(단위: 명)

연령	G00-G99	J00-J99	K00-K93	L00-L99	M00-M99	R00-R99	S00-T98	U00-U99
0~4세	1,444	130,644	29,714	14,659	2,228	50,643	2,956	26,221
5~9세	2,674	111,976	35,637	10,669	14,502	33,690	35,500	24,386
10~14세	4,721	54,339	31,563	9,123	50,932	21,420	92,731	19,380
15~19세	10,380	35,399	42,226	15,311	148,873	26,086	165,643	27,258
20~24세	13,933	25,271	49,170	21,376	236,508	27,409	223,823	35,735
25~29세	20,080	30,777	61,095	21,493	342,214	34,511	306,647	54,601
30~34세	26,294	40,122	70,430	19,848	472,676	43,269	395,579	76,885
35~39세	32,400	45,054	74,659	15,880	551,863	47,484	445,257	79,954
40~44세	41,225	44,288	79,629	13,471	646,341	53,946	495,028	83,694
45~49세	55,550	43,078	89,996	13,113	793,441	64,969	568,962	97,329
50~54세	70,507	40,834	92,867	11,736	881,028	73,035	582,515	106,989
55~59세	84,374	44,503	96,454	10,981	948,209	85,446	587,206	116,276
60~64세	71,372	33,921	72,204	7,798	748,886	72,409	410,909	93,612
64~69세	68,481	29,041	69,338	6,015	694,185	72,039	294,802	92,103
70~74세	62,812	22,662	62,514	4,866	612,654	69,277	214,578	84,583
75~79세	50,248	15,545	49,753	3,465	483,192	57,834	144,505	68,352
80~84세	25,997	7,618	27,122	1,781	262,935	31,602	68,156	37,457
85세이상	10,523	3,149	11,566	763	117,960	13,130	26,956	16,750

Note : 연령별 1순위를 진한 색으로 표시함

차) 한방건강보험 약제비 및 투약일수(전체)

○ 전체 약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전체 약제비 287억원에서 2016년 315억원으로 약 10% 증가함
- 2014년 287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약 0.7% 감소함

○ 전체 투약일수도 약제비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전체 투약일수 2,557만일에서 2016년 3,100만일로 약 21% 증가함

〈표 31〉 중별 연도별 약제비 및 투약일수

(단위: 원, 일, %)

구분	약제비				투약일수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한방 병원	1,467,589,894	1,621,147,988	1,926,374,876	2,163,532,109	891,246	1,042,758	1,273,016	1,447,687
	5.1	5.7	6.6	6.9	3.5	4.0	4.6	4.7
한의원	26,724,793,222	26,306,584	26,516,951	28,780,018	24,378,129	24,950,591	26,304,893	29,131,279
	93.0	92.3	91.4	91.1	95.3	94.8	94.1	94.0
요양 병원	287,796,413	209,337,624	254,716,612	210,997,170	162,168	125,261	158,677	144,469
	1.0	0.7	0.9	0.7	0.6	0.5	0.6	0.5
기타	246,181,164	346,519,683	324,261,932	422,060,862	141,520	205,424	213,813	279,265
	0.9	1.2	1.1	1.3	0.6	0.8	0.8	0.9
전체	28,731,360,693	28,505,641,169	29,006,992,991	31,564,670,319	25,573,063	26,324,034	27,950,399	31,002,7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ote :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 2016년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처방 한약제제(56종 혼합엑스산제, 67종 단미엑스산제)의 다빈도 상위 10개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혼합엑스산제의 71.6%, 단미엑스산제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56종 혼합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오적산으로 25.6%를 차지하며, 67종 단미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작약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6년)

(단위: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한방 56종 혼합엑스산제	1	오적산	7,679,685	25.6
	2	궁하탕	2,778,786	9.2
	3	구미강활탕	2,138,587	7.1
	4	소청룡탕	1,501,860	5.0
	5	삼소음	1,378,038	4.6
	6	이진탕	1,309,993	4.4
	7	보중익기탕	1,287,134	4.3
	8	반하사심탕	1,266,021	4.2
	9	향사평위산	1,219,477	4.1
	10	반하백출천마탕	931,170	3.1
한방 67종 단미엑스산제	1	작약	711,973	46.9
	2	감초	450,028	29.6
	3	인삼	128,229	8.4
	4	강활	39,588	2.6
	5	방풍	29,368	1.9
	6	독활	25,665	1.7
	7	당귀	24,433	1.6
	8	맥문동	19,911	1.3
	9	계지	19,421	1.3
	10	창출	18,575	1.2

자료: 2016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한약재 생산 현황

- 한약재생산의 시계열적 추이 분석을 위해 '11년, '14년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정리하였음

가) 국산 약용작물 생산 현황

- 국산 약용작물의 생산현황 파악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내 한약재 생산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약용작물 재배·수확면적 및 전체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 수확면적 그리고 생산량 모두가 증가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배면적은 연평균 6.2%가 그리고 수확면적은 4.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3〉 2013년~2016년 약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단위: ha, 톤, %)

연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재배면적	13,958	14,847	14,232	14,458	6.2
수확면적	12,834	13,359	12,741	12,644	4.8
생산량	75,550	75,649	83,068	76,886	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각 년도

나) 한약재 수입 현황

- 수입 한약재의 품질검사 실적 분석을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 총 수입량과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수입물량은 연평균 2.7%씩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연평균 5.9%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4〉 2013년~2016년 한약재 수입현황

(단위: 개, 톤, US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품목	346	313	342	315	-3.1
물량	19,203	18,922	15,660	17,670	-2.7
금액	112,392	122,791	181,640	133,312	5.9

자료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실적, 각 년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다) 한약제제 생산실적

-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국내 한약제제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생산액은 연평균 약 1.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약제제 분류별로 보면 단미엑스제가 약 38.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미혼합엑스제가 약 9.9%, 그리고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약 0.0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8%를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5〉 2013년~2016년 한약제제 생산실적

(단위: 억원, %)

한약제제 분류*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한약제제 총 생산액	2,866	2,962	2,776	2,959	1.1
단미엑스제	6	12	14	16	38.7
단미혼합엑스제	251	375	282	333	9.9
기타 한약복합제제	2,609	2,575	2,481	2,610	0.0

자료: 2013-2014는 한국제약협회 자료를 한국한의약연구원에서, 2015-2016은 한약진흥재단에서 재가공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제제 생산액을 약효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한약제제 중 27.9%가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으로 나타났으며, ‘해열, 진통, 소염제’가 20.1%,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이 18.7% 그리고 ‘건위소화제’가 7.4% 순으로 나타남

〈표 36〉 2013년~2016년 약효분류별 생산실적

(단위: 백만원, %)

약효분류별	2013	2014	2015	2016	총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14)해열, 진통, 소염제	6,029	5,517	5,238	5,453	22,237	20.1	-3.3
(119)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74	207	205	261	847	0.8	△14.5
(132)이비과용제	423	506	536	570	2,035	1.8	△10.5
(190)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 기관용 의약품	8,166	7,503	7,426	7,880	30,975	27.9	-1.18
(219)기타의 순환계용약	70	70	72	83	295	0.3	△5.8
(222)진해거담제	1,519	1,676	1,687	1,781	6,663	6.0	△5.5
(229)기타의 호흡기관용약	115	109	96	108	428	0.4	-2.1
(231)치과구강용약	40	33	29	33	135	0.1	-6.2
(233)진위소화제	2,043	1,992	2,036	2,176	8,247	7.4	△2.1
(235)최토제, 진토제	1,215	1,369	1,184	1,300	5,068	4.6	△2.3
(238)하제, 완장제	46	50	51	49	196	0.2	△2.1
(239)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965	4,638	5,642	6,439	20,684	18.7	△17.5
(253)통경제	666	592	537	587	2,382	2.1	-4.1
(259)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4	23	22	26	95	0.1	△2.7
(263)화농성질환용제	846	866	782	830	3,324	3.0	-0.6
(290)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28	29	21	22	100	0.1	-7.7
(329)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	1,681	1,587	1,542	1,649	6,459	5.8	-0.6
(392)해독제	8	9	7	8	32	0.0	0.0
(399)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 사성 의약품	191	170	166	169	696	0.6	-4.0
합계	27,249	26,946	27,279	29,424	110,898	100	2.6

Note : 약효분류번호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의약품 분류표에 따라 의약품별로 3자리
숫자로 정해져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의약품청구현황

Ⅲ.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1) 일반국민

- 일반국민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평생한방의료 이용경험자는 73.8%로 높았으나 지금까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0.6%로 가장 많았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이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방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한방치료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방의료를 잘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76.2%로 높고 그 이유로 치료효과가 좋아서, 부작용이 적어서, 유명해서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효과가 좋아서’의 비율이 증가함
- 이에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사회경제학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의약 관련 인식 제고 필요함
- 둘째, 일반국민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잘 모름이 가장 많고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잘 모름이 많았음
- 셋째, 지금까지 한방의료를 이용한 응답자 중 주요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1%로 가장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치료를 위해 한방의료를 이용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 증진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질환으로는 전체적으로 주로 요통이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으로 기타염좌(뺨) 37.3%, 오십견 및 견비통 20.9% 순으로 나타남

- 이용한 한방치료법으로는 침이 90.2%로 가장 많고, 부항 53.0%, 뜸 49.1%의 순으로 나타남
- 질환별 한방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효과있다고 응답한 질환 중 요통이 85.1%로 가장 높았고 기타 염좌(뺨) 83.9%, 오십견 및 견비통 81.1% 순으로 나타남

○ 넷째, 한방의료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2명 중 1명인 53.4%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는 탕약 84.2%, 추나요법 39.8% 순으로 나타남

-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 치료법으로서(1순위만) 탕약이 5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약제제(탕약 제외)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10명중 6명이 탕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질환으로서(1순위만) 근골격계질환이 41.5%로 가장 많고 4대중증질환 28.0%, 신경질환 14.4% 순으로 나타남

○ 다섯째, 한약재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 10명 중 4명인 39.2%는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에서 취급하는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생산자, 유통 및 판매 업체 등의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또한 향후 한방의료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78.9%는 한약복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한약복용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약값이 비싸서 44.3%로 가장 높았음

○ 여섯째, 만 19세 미만 자녀의 지난 1년간 한방의료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대상자의 22.3%가 자녀의 한방의료이용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녀의 한방의료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경험한 치료법은 탕약이 6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침 39.1% 순이었음. 이용결과에

대한 만족은 57.6%를 보였음

2) 이용자(외래/입원)

- 외래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한방외래의 이용경험을 보면 외래목적은 질환치료가 93.3%로 가장 많고 30대 이하의 경우 교통사고 치료가 가장 많음. 지난 1년간 외래이용횟수는 4~7회가 가장 많고 여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60대의 경우 평균 16.1회로 이용횟수가 증가함
 - 질환치료 목적으로는 척추질환(허리)이 4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32.8%, 어깨병변 24.7% 순으로 이용하였음
 - 가장 많이 이용하고 효과있는 치료법으로서 침이 각각 93.5%, 97.0%를 차지함.
 - 외래이용자가 지난 1년동안 지출한 외래진료비는 전체적으로 1만원~10만원이 4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만원~50만원 미만 순으로 지출함. 지출비용에 대한 생각은 외래이용자 10명 중 4명이 비싸다고 생각하였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탕약이 7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약제제(탕약 제외), 추나요법 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탕약 51.9%, 한약제제 23.9% 순이며 우선적용이 필요한 질환은 근골격계질환 41.1%. 4대 중증질환 28.1%, 신경질환 10.1% 순이었음
- 둘째, 한방의료정보 획득경로는 외래이용인 경우 주로 가족친구 등 주변사람에게서 58.6%로 획득함. 또한 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6.5%로 매우 높은 편이며, 세부적으로 한의사진료태도 97.1%, 간호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태도 94.4%, 치료효과에 대해서 94.2% 순으로 만족하였음. 한방의료이용전 타의료기관 이용경험은 50.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타의료기관으로서 의원, 병원, 약국 순이었음

- 셋째, 입원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실태를 보면 지난 1년간 입원이용을 한 목적이 질환 치료가 6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치료 34.5%, 건강증진 4.4% 순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치료를 위해 방문한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임. 입원 이용횟수는 전체적으로 1년간 1회가 62.7%로 가장 높고 평균 1.7회이며, 1회인 경우는 여성과 연령이 젊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질환치료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으로는 척추질환(허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22.9%, 관절의 탈구·염좌·긴장 22.3% 순으로 이용하였음
 - 가장 많이 이용하고 효과있는 치료법으로서 침이 각각 97.8%, 9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뜸 72.9%, 부항 70.9% 순이었음
 - 입원이용자가 지난 1년동안 지출한 입원진료비는 전체적으로 10만원~50만원 미만인 3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순으로 지출함. 지출비용에 대한 생각은 입원이용자 10명 중 7명이 비싸다고 생각하였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탕약 75.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침, 추나요법 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 치료법으로서 탕약이 48.9%로 가장 많고, 우선적용 질환은 근골격질환이 3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4대 중증질환 32.9% 순으로 높았음
- 넷째, 한방의료정보 획득경로는 입원이용인 경우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에게서 63.6%를 획득함. 또한 입원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6%로 매우 높은 편이며 세부적으로 한의사의 진료태도 95.6%, 간호사 및 의료기관종사자 태도 95.5%, 한방치료법 설명 91.6% 순으로 만족하였음. 한방입원이용 전에 동일질환으로 타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46.9%였으며 입원전 타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의원 순으로 가장 많았음
 - 한약에 대한 복용의사는 86.1%로 매우 높은데 복용의사가 없는 13.9%에게 복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약값이 비싸서가 62.5%로 높았음

나. 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약소비실태는 한약유통단계 중 최종 한약소비기관으로서 한방의료 서비스부문(한방의료기관, 한방진료과목이 있거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기타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부문(한약방,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으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임
- 첫째, 한약(탕약 등 전체)소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방의료서비스부문이 96.6%로 가장 많으며 이 중 한의원이 84.9%로 가장 높았으며 한약조제·판매부문은 3.4%가 한약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방의료서비스 부문의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의 처방(조제) 건수의 변화에 대해 병원급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사가 있는 요양/ [종합]병원, 이하 같음)은 비슷함이 6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감소함 25.7% 순이었고, 한약제제(보험)는 비슷함 78.1%, 감소함 16.5% 순이었음. 한의원의 경우 탕약은 감소함 48.3%, 비슷함 45.2% 순이며, 한약제제(보험)은 비슷함 71.4%, 감소함 16.2% 순이며 한약제제(비보험)는 비슷함 68.8%, 감소함 24.6% 순이었음
 - 한약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의 처방(조제) 건수의 변화에 대해 감소함 69.6%, 비슷함 29.2%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약제제(비보험)의 조제건수 변화에 대해 비슷함 50.4%, 감소함 45.8%의 순이었음
- 둘째, 한방의료서비스부문(전체)에서 질환치료시 탕약이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1순위)은 근골격계질환이 5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소화기질환 20.3%, 호흡기질환 6.0%순이었고 한약제제(보험)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56.7%, 호흡기질환 18.8% 순이며, 한약제제(비보험)의 경우는 근골격계 34.1%, 소화기질환 28.3%의 순으로 처방함
 - 질환치료시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한약(1순위)으로서 탕약은 오적산이 16.6%, 보중익기탕 10.4% 순으로 높고, 한약제제(보험)의 경우 오적산 27.9%, 궁하탕 10.6% 순이며, 한약제제(비보험)의 경우 소청룡탕 17.0%, 평위산 5.4% 순으로 처방(조제)되었음

- 셋째, 한약재 소비현황으로서 한방의료서비스 부문 중 병원급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전체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비중은 평균 4.0%로서 구입비중 20% 미만인 92.0%로 가장 높음. 사용하는 한약재의 가짓수는 병원급 한방병원이 평균 116.4개(한방병원: 139.2개, 요양/[종합]병원: 8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의원 93.8개, 요양/(종합)병원이 85.8개를 사용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52.5%, 감초 14.1%의 순이었음
- 한약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2016년 전체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비중은 평균 31.7%로서 구입비중 20~40% 미만인 33.6%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하는 한약재 가짓수는 평균 81.4개(한약방: 98.2개, 약국: 68.7개)를 사용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52.9%, 감초 8.8%의 순이었음
- 넷째, 한약소비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약 선호 제형의 경우 한방 의료서비스부문은 탕제가 94.2%로 가장 많고 환제 44.9%, 과립제 43.7% 순으로 높았음. 한약 조제·판매의 경우 탕제 85.6%, 과립제 34.6%, 환제 20.9% 순이었음
- 평소 한약재와 관련하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병원급 한방 의료기관인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 45.9%, 한약재 가격상승 4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 75.2%, 한약재 가격상승 69.4% 순이었음. 한약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 77.4%, 한약재 가격상승 62.3% 순이었음
- 한약이용의 활성화방안으로서 탕약에 대하여 한방의료서비스부문 중 병원급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5.6%, 품질관리강화 50.5% 순으로 높았고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80.5%, 안전성 인식개선 63.6% 순이었음. 한약제제(보험)의 경우 병원급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1.9%, 품질관리강화 45.7% 순이며 한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확대 71.6%, 다양한 제형개발 52.1% 순이었음. 한약제제(비보험)의 경우 병원급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9.0%, 품질관리강화 41.6% 순이고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4.2%,

치료효과 홍보 45.0% 순으로 응답하였음. 반면, 한약·조제판매의 경우 탕약이용은 건강보험적용 확대 72.9%, 안전성인식 개선 40.4% 순으로 높았고, 한약제제(비보험한약) 활성화는 건강보험적용 확대 75.6%, 치료효과 홍보 41.1% 순이었음

다. 실태조사 관련 한의약 통계자료 분석

1) 한방건강보험자료

- 2011년도와 2014년도에 이어 2017년도 실태조사 관련 한의약 통계자료 추이분석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한방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한방의료기관 종별 및 한방청구 서식구분으로 입원/외래별 성별·연령별 한방의료이용실적, 지역별 의료이용, 진료비구조 및 한방다빈도상병 등을 연도별 추이분석을 위해 분석·제공함
- 한방건강보험 청구건은 연평균 0.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한의원의 청구건이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 입원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방병원은 연평균 10.8%, 요양병원은 연평균 12.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외래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0.2%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의원을 제외(0.4% 증가)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 각각 -1.6%, -8.7%, -4.8%로 감소하고 있음
- 한방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2조 5,143억 원에 달함. 그 중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약 95%(한의원 84.4%, 한방병원 10.9%)를 차지하고 요양병원은 4.3%, 보건기관은 0.4%를 차지함
 - 입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8%로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63.8%, 요양병원 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92%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한의원의 외래 진료비가 95% 이상을 차지함

-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13년 5,455억에서 2016년 6,137억으로 약 13%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5세~59세에서 14.0%로 가장 많았음. 입원/외래 연령별 본인부담금 역시 55~5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입원은 13.6%, 외래는 14.1%임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환자수의 여자 구성비는 약 60%로 남자 구성비의 약 40% 보다 더 많았음
 - 입원 실환자수도 2016년 기준 여자가 65.9%로 남자 34.1%보다 더 많았음
 - 외래 실환자수도 2016년 기준 여자가 57.2%로 남자 42.8%보다 더 많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환자수는 <표 4-15>에서 40~64세 환자들이 2016년 기준 47.6%로 가장 많았으며 0~9세 환자들이 3.4%로 가장 적었음
 - 입원 실환자수는 남자의 경우 55~59세 9.7%, 75~79세 9.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80~84세가 9.1%로 많고 가장 적은 연령군은 0~9세로 0.4%임. 여자의 경우 85세 이상이 1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80~84세 14.5%, 75~79세 11.0%의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 연령층은 0~9세군으로 0.1%임
 - 외래 실환자수는 남자의 경우 45~49세가 1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54세군, 55~59세군이 9.8%로 많았으며 0~9세군은 4.5%를 차지함. 여자의 경우 55~59세군이 11.6%로 가장 많고 50~54세군 10.7%, 45~49세군 9.5% 순이었으며 0~9세는 2.7%이었음
- (다빈도 상병) 2016년 청구 환자가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1.9%, 특수 목적 코드 5.2% 등의 순이었음
 - 진료비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3.1%,

특수 목적 코드 4.2%, 신경계통의 질환 4.2%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은 0~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S00-T98)은 10~1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음. 또한 근육 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은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별 환자수가 1순위임

2) 한약재 생산 현황

- (조사대상 변경) 2011년도 실태조사는 한약재의 최종소비단계에 가장 가까운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³⁾을 대상으로 2009, 2010년의 주요 한약재 구입량을 조사하고, 2014년도는 한약제조업체 및 한약도매상을 대상으로 주요 한약재의 연간 소비(유통)량 및 소비(유통)실태 조사함. 2017년도는 한약재 생산실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통계가 됨에 따라 2011년도와 유사하게 한약소비기관으로서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 및 한방진료과목이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등 기타 의료기관,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한약방을 대상으로 한약소비 실태조사 수행함.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약재의 생산실적의 추이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함
- (국산 약용작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약용작물 재배·수확 면적 및 전체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 수확면적 그리고 생산량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배면적은 연평균 6.2%가 그리고 수확면적은 4.8%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국산 약용작물 생산량 상위 품목은 오미자, 산약, 복분자, 양유, 길경, 의이인, 식방풍 등의 순이었으며 같은 기간동안 약용작물 생산량 증가 상위 품목은 백수오, 식방풍, 강황, 목단피, 결명자, 강활 등의 순이었음

3) '한약국'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인용함

- (한약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 총 수입량과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수입물량은 연평균 2.7%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연평균 5.9%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마황, 복령, 육계, 감초 순으로 수입이 많이 이뤄졌으며 2016년에는 감초, 마황, 복령, 지황 순으로 수입이 많이 이뤄졌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녹용, 우황, 사향, 마황, 감초 순으로 2016년에는 녹용, 사향, 우황, 반하, 감초 순으로 수입액이 높았음. 2013년과 2016년 모두 녹용의 수입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약제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한약제제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생산액은 연평균 약 1.1% 증가하였으며 그 중 한방의료보험급여 처방조제용 개별 한약재 추출물인 단미엑스제가 약 38.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단미엑스제를 기존 한방처방에 따라 혼합한 제제인 단미혼합엑스제 약 9.9%, 기타 한약복합제제(기존 한방 방제를 제제화한 한약제제) 0.01% 순이었음
 -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8%를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음

2. 정책제언

○ 정책제언 도출방법

① 전문가자문단 서면자문(설문)조사

- 자문내용구성 : 한방의료이용 증진 정책제언 관련 한방의료이용
현황변화, 한의약정책 수용성, 한의약정책 방향성
부분으로 구분하여 향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 관련 통계지표 수요조사, 한의약
전반에 관한 정책제언 방향성 및 정책제도 검토
- 전문가 : 실태조사 자문단(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약사협회,
제약회사 및 학계) 8명 및 한의 종사자 9명
- 조사기간 : 2017. 11. 28.~ 12. 11.
- ② ‘17년도 실태조사결과와 전문가자문단 서면자문결과 연계하여
정책제언 도출

가. 전문가자문 결과

- (정책방향성) ‘17년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조사표의 구성에
의거하여 정보매체 등 인식개선 위한 홍보방안, 한약재관리방안,
보장성강화방안, 이용목적에 따른 방향성, 한의진료 활성화방안 및
만족도 및 신뢰도 개선 6개부문에 대한 정책제언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수렴함

〈표 37〉 정책제안 방향성

주제	정책제안 내용
정보매체 등 인식개선 위한 홍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교육매체 내 탑재 가능한 홍보자료(교재 및 부교재, 애니메이션 자료) 개발하여 아동 및 젊은 연령층 부모에 간접 홍보 - 현대화된 한의학 인식 증대를 위하여 다큐멘터리 같은 친근한 형식으로 한의학 홍보 - 한의전문매체 외에도 일반대중매체 의학전문기자 및 의학담당기자에 적극홍보
한약재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GMP 한약규격품등 구축된 한약재관리제도 홍보. 비규격품(규격 존재하나 시중에 존재하지 않은 한약재, 규격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한약재)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방안 모색 - 원외탕전실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필요
비용부담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이나 유효한 질병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한의치료수요가 높은 연령층 맞춤형 보장성 강화정책
이용 목적에 따른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중심 진료, 한의치료 우수질환 등 질환치료에 대한 중점적 지원이 필요, 양방과 병행 치료 우수사례 개발과 방향성 제공 우선 - 건강증진목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의진료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다빈도질환 중 근거가 확실한 질환-치료 먼저 근거강화와 홍보지원 등 전략 필요 - 새롭게 늘고 있는 대사성질환 등에 대한 근거 확보 및 창출 연구 지원, 내과질환 환자의 한의의료이용 증대방안 모색
만족도 및 신뢰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와 안전성 있는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구축 - 근거중심 의학적 체계에 맞춘 정책방안 제시 필요

-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방 의료이용의 역할 증진 및 다양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함

〈표 38〉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

순 위	아동 (0-19세)	청년 (20-44세)	장년 (45세-64세)	노인 (65세 이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염 ○ 이토피성 피부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통 ○ 요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 ○ 치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불량 ○ 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 ○ 고혈압 ○ 소화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 ○ 중풍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질환 (소화불량, 편두 통, 두근거림 등) ○ 불면증 ○ 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럼증 ○ 이명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의약분야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한방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55.6%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현재보다 전문화된 한방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3.3%로 2순위였음

〈표 39〉 한의약분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우선순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1순위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한방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
2순위	공공부문은 의료소외계층에 한해 현재보다 전문화된 한방진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순위	공공부문은 건강증진 관련 한방 공공보건사업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책현안 연구주제) 실태조사자료 활용하여 한의약정책 수립 근거 제공에 필요한 연구주제 제안에 대하여 의견수렴함

〈표 40〉 한의약 정책현안 관련 주제

구분	의견
한의학의료비 지출 및 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분석: 본인부담금, 한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이용자의 지출의사 - 제형별(복용한약, 외용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실태 - 한의약계에 경쟁산업분야의 지출규모 분석 (예. 소아성장, 성기능강화, 비만, 항노화, 탈모, 피부미용 등에 관련된 현대 의학, 건강기능식품, 민간부문 등) - 건강개선과 질병치료 목적별 한의의료서비스이용 분석 - 한의 의료 이용자 대상 패널을 구성 필요, 매년 샘플링을 통해 조사 혹은 순환 조사 - 한의의료이용이 자녀 또는 타인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실비보험 가입 및 실제이용 현황 및 영향분석 - 주요 상병별 표준 매뉴얼 제작과 민간실손보험 상품개발 데이터 구축
자동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의 한의급여 비율, 세부항목별 치료기간, 치료비 등 현황 분석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의 이용차이(진료비, 협약 등) - 자동차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 구축(지불제도개선 및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확대 방안 -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국민, 이용자 및 공급자 별 선호급여대상행위 등 보장성강화확대방안 연구 - 민간의료보험의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근거설정 자료 수집을 통한 건강보험급여항목 확대 근거자료 이용방안 모색
보건의료체계 내 한의 의료재원의 분배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사 주치의 제도의 단계적 시행 - 한의의료서비스 적용가능한 보험급여 지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총액계약제 또는 인두제 등) -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한방병의원 관리지표(환자 1인당 부가가치, 병상이용률, 입원 대 외래환자비, 100병상 당 1일 평균 외래환자수) 구축 - 보건의료체계 내의 한의의료재원의 재정립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한방진료 지원(예. 청각장애인 한방진료시 통역지원 등)

나. 정책제언

1) 한방의료이용 제고방안

- 첫째, 국민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지도 강화하여야 함. 국민 및 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방의료 이용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긍정적 인식 확산 위한 홍보 강화 필요함
- 둘째, 한방의료 이용서비스의 다양화하여야 함. 한방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과 치료방법을 확대하여 한방의료 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용편의 제공 및 진료비 절감방안 마련하여야 할 것임. 질환치료에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한방의료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형태의 다각화를 통한 치료효과 증대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보장성강화방안

- 첫째, 국민 및 이용자의 한방의료 이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비급여 항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한의약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 및 이용자 특성별 수요에 맞게 한방의료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상별 질환 및 치료법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의료수요가 증가추세이므로 노인 특성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함. 그 외에도 장애인, 저소득층, 임산부 등 대상 한방의료 이용서비스 강화정책 마련 필요함

3) 한약관리방안

- 첫째, 한약의 안전관리정책을 강화할 필요 있음. 실태조사결과 한약안전의 관리 주체로서 정부 > 생산자 > 유통판매업체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한약 규격품제도 등 정부의 한약정책을 적극 홍보하여 한약제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한약재 품질검사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 있음

- 둘째, 한약소비기관은 한약재 관련 심각한 문제로 한약소비량 감소 추세를 72.4%, 77.3%로 1순위로 뽑고 한약재 가격상승이 66.8%, 62.3%로 2순위로 답하고 있어 탕약 및 한약제제의 이용 장점을 고려한 이용방안(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이용 활성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홍보 등) 개발 및 한약재 가격 안정정책을 강구할 필요 있음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국내 한의약 의료서비스 시장이 '09년 3조 2,730억원에서 '13년 4조 7,171억원 (연평균 9.3% 상승)⁴⁾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따라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 통계자료 산출 필요함
- 이에 따라 한의약통계는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료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한의약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한의약 관련 당면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통계에 기반한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의 근거가 되는 만큼 그 생산 및 관리는 매우 중요함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08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3년 주기)를 시작하였고, 이듬해 2009년 한약소비실태조사(2년 주기)가 실시되었음. 2011년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로 통합되어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받은 이후 3년 주기로 생산되고 있어 그동안의 관련 법적, 제도적 환경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한방의료 및 한약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한의약분야에 대한 전망이 요구됨

4)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p.25

〈표 1-1〉 한의약 관련 법적·제도적 환경의 변화

- ✓ 2011. 10 ~ 2014. 09 : **한약 유통일원화**(한약도매상 경유 의무화)
 - 한약규격품 대상 품목[대한약전(165품목),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381품목)에 해당되는 한약]을 구입하는 경우 ‘제조업소에서 규격품(포장 및 표시된)으로 제조된 제품’을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구입
 - ※ 자가규격제 폐지 충격을 완화하고 한약도매상의 전문화·대형화, 제조업소로의 전환 등 경쟁력 확보 기회 제공
 - ※ ‘17년 현재 한약제조업소 및 도매상 모두를 통해 한약규격품 구입 가능

 - ✓ 2012. : **한약재 GMP 의무화 제도 도입**
 -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약품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 ✓ 2015. 01 : **한약재 GMP제도 전면 의무화**
 - ※ 한약재 제조·수입실적보고 의무 : 한국한약산업협회(제조실적),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수입실적)에서 취합 후 식약처로 제출

 - ✓ 2015. 10 : **한약재 인삼은 「약사법」으로만 관리**
 - (식품으로 판매되는 인삼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 ※ 한약규격품 제조 및 안전관리 및 유통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관(‘13.03~)

 - ✓ 2016. 04 : **식약처 「의약품생산실적및수입실적」 보고통계로 국가승인통계 지정**
 - ※ 원료의약품인 규격 한약재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업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매년 제출하여야 함
-

2. 연구목적

-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에서는 일반국민 및 한의의료서비스 이용자(외래 및 입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서비스(외래 및 입원) 이용실태와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이용행태, 만족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한의약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는 한약소비기관(한방의료서비스부문/조제·판매부문)을 대상으로 한약(탕약, 한약제제)의 연간 처방현황 및 다빈도 처방, 다빈도 한약재 처방명 등 한약의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대외홍보, 조사 전단계 관리, 조사결과 공표,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을 포함한 이용자서비스 제공 등에 활용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근거에 기반한 연구환경을 구축하고 다양한 한의약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함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주요 목표인 한의약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한방의료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 마련을 연구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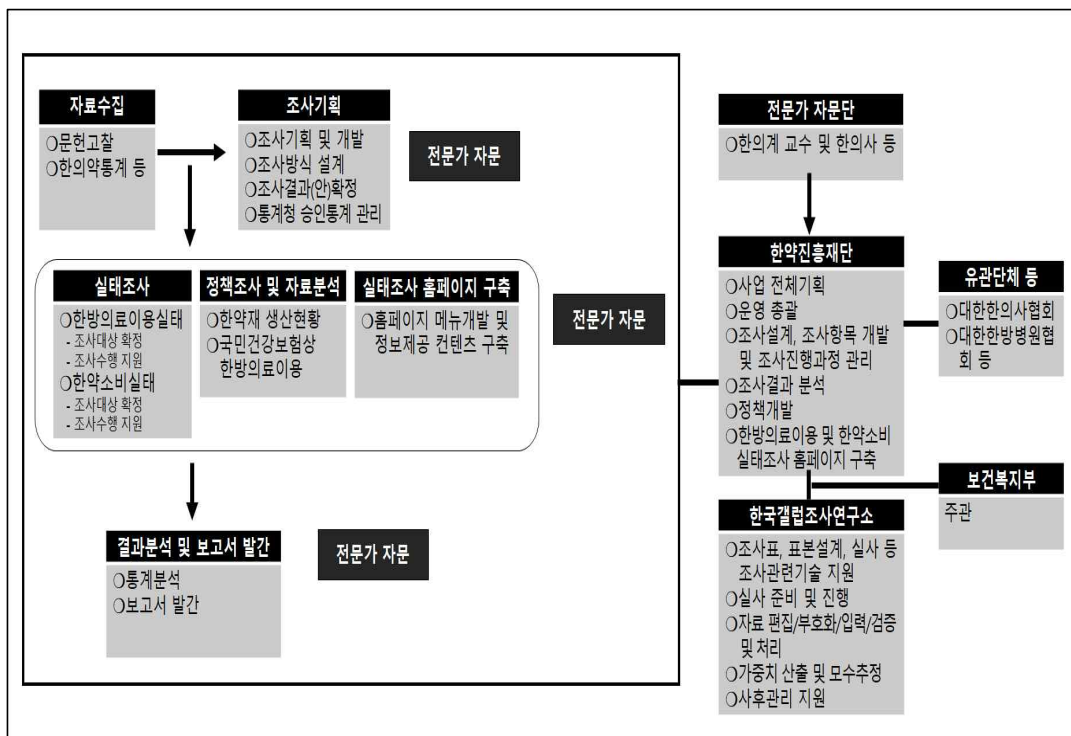
제2절. 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개요

1. 사업수행체계

○ 본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약진흥재단’ 과 ‘(주)한국궤립 조사연구소’ 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수행체계를 구축함

- (주관기관) 한약진흥재단 : 실태조사의 전체적인 기획 및 운영, 사업 총괄 담당

- (조사수행기관) (주)한국궤립조사연구소 : 실태조사 실사 전반 담당



[그림 1-1] 사업수행체계

2. 조사대상 및 시기

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 일반국민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이용자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한방의료 이용자

나. 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방의료서비스 : 한방병원,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가 근무하는), 한의원
- 조제·판매 : 약국(한약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한약방

다. 조사시기

- 조사 기준 시점 : 2017년 9월 1일 0시
- 조사 기간 : 2017년 9월 14일 ~ 2017년 12월 11일

3. 표본크기

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1) 일반국민

- 모집단 :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일반가구의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통계공표 수준, 작성되는 통계의 목표오차,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최대 허용오차 한계를 2.0%p로 정하면 이에 따른 표본크기는

2,370호의 표본 가구로부터 약 5,000명을 조사(만 19세 이상 인구 수는 가구당 2.11명으로 산정)

- 5,000명 조사 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3\%$ p임

※ 표본추출과정(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등)은 기초보고서 참조

2) 이용자(외래/입원)

○ 모집단 : (2016년 9월 기준)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가 근무하는)의 지역별 모집단 리스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외래/입원진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만 19세 이상의 환자를 모집단으로 하되, 가구조사시 표본크기가 매우 커져 외래/입원환자를 현장에서 조사함

○ 표본크기

-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에 대한 표본크기는 전체 조사비용과 오차 수준을 고려하여 외래환자 1,000명, 입원환자 900명으로 결정함 (총 1,900명)

- 표본오차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그룹에 대해서 각각 95% 신뢰 수준에서 $\pm 3.1\%$ p임

※ 표본추출과정(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등)은 기초보고서 참조

나. 한약소비 실태조사

○ 모집단 : (2016년 9월 기준)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가 근무하는)의 지역별 모집단 리스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공받아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여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 有) 등을 대상⁵⁾으로 함

5) 원외탕전실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탕전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설치된 것이므로 독립적인 표본추출 필요하지 않음

○ 표본크기

- 본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예산과 난이도 등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위한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가 근무하는)⁶⁾의 표본크기를 300개소로 정함
- 한의원(병상 없음) 조사에 대한 표본크기는 지난 2011년도 조사 결과를 살펴볼 때 표본크기가 상당히 커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조사예산 제약으로 1,000개소로 결정하였음. 이는 한의원 대상 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의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의 한계가 약 3.1%p 수준
- 약국(한약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한약방의 표본크기는 전체 1,008개소로 결정하였음. 모비율 추정의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의 한계가 약 3.1%p 수준

※ 표본추출과정(층화, 표본배분, 표본추출 등)은 기초보고서 참조

4. 조사특성 및 변화추이

가. 조사연혁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대표적인 한의약분야 조사통계이자 최초 국가승인통계로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현황과 주요 한약(재) 소비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의약 분야의 대표적인 조사 통계임
-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08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2009년 한약소비실태조사가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로 통합되면서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 117087호)로 지정되었음

6) 그동안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 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약 소비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위해서 표본크기를 얼마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표 1-2〉 연도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연혁

조사 연도	조사 제목	수행기관
2008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한약소비실태조사	전남한방산업진흥원
201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한약진흥재단

나. 조사 변경사항

-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표는 2011년, 2014년 조사표를 참고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 가능한 문항은 유지하였고, 그렇지 않은 문항은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일부내용 수정·보완하였음
- 또한 2017년 조사표에 새롭게 개발된 조사항목의 경우 ‘11년, ‘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이용했던 연구자, 한의약 관련 전문가(협회, 단체, 학계 등)들을 대상으로 사전 통계수요조사⁷⁾를 실시, 수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추가하였음
- 특히 조사표의 질병선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2016년, 약 5년간의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른 다빈도상병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하였음
- (용어변경) 「약사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기존조사의 한약국, 한약조제 약국 대신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으로 변경함
- 따라서 2017년 조사결과를 2011, 2014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시 조사방법,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의 차이로 인해 해석에 유의해야 하며 각 세부사항별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7) 한방·한의약 관련 학과, 학회/협회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산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총 46개 기관 중 22개 기관 회신 취합하였음. 부록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통계수요조사 참조.

1) 조사 대상 및 방법

- (일반국민) 2011년에는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총 1,000명을 조사했으나 2014년에는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을 통해 총 5,000명을 조사했음. 금번 2017년 조사에서는 2014년과 동일하게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 면접을 통해 총 5,000명을 조사함
- (외래 및 입원환자) 2011년에는 전국의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외래/입원환자 5,607명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반면, 2014년에는 외래환자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입원환자는 일부 한방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반국민에 더해 추가조사 형식으로 소규모 실시하였음. 따라서 금번 2017년 조사에서는 2014년 보다 2011년 조사를 참고하여 한방병원, 한의원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병원/종합병원(한의사가 근무하는)의 외래환자 1,010명, 입원환자 904명을 기관에 방문하여 출구면접조사 형식으로 실시하였음

〈표 1-3〉 조사 대상 및 방법

구분	변경 사항	2011		2014	2017
한방 의료 이용	조사 대상	일반 국민	총 1,000명	총 5,000명	총 5,000명
		외래/입원	총 5,607명 - 한방병원(입원) 1,368명 - 한방병원(외래) 1,539명 - 한 의 원 (외 래) 2,700명	(입원환자만) 총 344명	총 1,914명 외래 1,010명 입원 904명
	조사 방법	일반국민-전화조사 외래/입원-방문조사		일반국민-방문조사 입원-면접조사	일반국민-가구방문조사 외래/입원-한의원 관련 의료기관 방문, 출구면접조사
한약 소비	조사 대상	한방의료기관,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한약국 2,671개		한약제제조업체, 한약도매상 1,143개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한약방 2,800개
	조사 방법	우편조사		전화조사(조사참여 요청) 및 면접조사	방문조사

2) 조사항목

○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 2011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2008년에 시행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며, 실제 한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외래 및 입원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 한방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의료이용 행태 및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문항 중심으로 개발함

〈표 1-4〉 ‘11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외래/입원)

대상	구분	주요내용
외래/ 입원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정도, 직업유무, 경제활동상태, 월평균 가구 총소득
	의료이용 실태	주관적 건강수준, 주요 치료기관, 한방진료시 이용하는 기관 및 증상, 한약복용 및 침치료 경험, 단골 한방의료기관 이용 유무 및 이유, 의료보장 형태 외래 : 지난 3개월 간 한방 외래진료 이용경험(횟수, 이용 이유, 진료비, 치료효과, 진료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부작용 경험, 현재 한방 외래진료를 받기 전에 이용한 의료기관) 입원: 지난 1년간 한방 입원진료 이용경험(횟수, 이용 이유, 진료비, 치료효과, 진료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부작용 경험, 현재 한방 입원진료를 받기 전에 이용한 의료기관)
	일반적 인식	인식 정도, 한방의료 정보원, 신뢰도, 한방의료기관 선호 이유, 개선사항, 급여 확대 항목, 한·의과 협력 진료, 진료비, 향후 이용의향

〈표 1-5〉 ‘11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

대상	구분	주요내용
일반 국민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월평균 총소득
	한방의료 수요 실태	주로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기관, 평생 한방진료 경험 (여부, 치료법, 경험이 없는 이유) 등
	의료이용 실태	지난 3개월 간 한방외래진료 이용경험(횟수, 이용이유, 진료비, 진료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부작용경험, 의료보장 형태) 등
	일반적 인식	한방의료 정보원 신뢰도, 개선사항, 급여 확대 항목, 향후 이용의향 등

- 2011년 한약소비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일반적인 특성, 경영 및 운영 현황, 당전실 운영실태, 한의약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 조사함
- 모든 조사항목들은 통계청 승인 과정을 걸쳐 개발되었음

〈표 1-6〉 ‘11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

대상	구분	주요내용
한약소비기관 (한의원, 한약방, 한약조제약국, 한약국, 한방병원)	한약재 구입	한약재 구입하는 곳, 한약재 종류, 2년 간 구입량, 2년 간 수입량 (감초, 마황, 용안육, 사인), 한약재 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 1년 간 구입 어려운 한약재, 생산/수입 늘려야 할 한약재, 한약재 유통과정 심각성, 한약재 생산·유통 장려 위한 제도 필요성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운영주체, 한의원 시설물 소유, 개설형태, 프랜차이즈/네트워크 가입여부, 일반적 사항(원장), 종사 인력의 수 등
	경영 및 운영현황	3년 간 이용하는 환자수/경영수지 변화 추이, 1년 간 한달 평균 입원실 병상가동률,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1년 간 순수 진료비 수입 총액, 비보험수입, 1년 간 첩약제제(비보험한약)의 처방빈도 및 이유, 1년 간 한약제제(보험한약) 처방빈도 및 이유, 의과협진여부, 다른 한방 의료기관과 협진여부, 당전용 1제(20첩)당 가격 등
	한의약 관련 현안에 대한 의견	한의사 수 과잉배출, 한약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한약재 가격, 한의대 졸업 한의사 개업을 많이 하는 경향, 처방 대부분 비보험, 언론에서 한방의료에 대해 부정적, 국산 한약재의 생산 감소, 한방 의료정보 폐쇄적, 한방물리치료 건강보험, 한의약 분업, 전통의약시장 개방, 인정의 제도, 한약재 원산지 표시, 다양한 한약제형, 원외 당전실 활성화, 환자에게 한약처방 공개, 한·의 의료기관 교차개설 및 상호고용 허용 등

○ 20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 조사대상을 ‘11년 조사와 동일하게 일반국민, 외래환자, 입원환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지 않고 일반국민 내에서 한방 입원 실태를 파악함
- 한방입원에 대한 조사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조사항목을 조사함

<표 1-7> ‘14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입원)

대상	구분	주요내용
일반 국민/ 입원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가구소득, 의료보장 형태, 경제활동상태(직업), 결혼여부, 19세 이하 자녀 유무 등
	의료이용 실태	이용경험, 이용횟수, 증상별 치료법 및 효과정도, 이용 만족도, 총 진료비, 전반적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 등
	일반적 인식	정보원, 인식 및 신뢰수준, 치료효과 인식수준,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정도, 개선점 등
	한방외래 및 입원서비스 이용실태	이용경험, 이용횟수, 증상별 치료법 및 효과정도, 이용 만족도, 총 진료비, 전반적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 등
	이용자의 이용경험 향후 이용 및 권유의향	평생동안의 한방의료 경험, 가장 많이 받은 치료법, 이용이유, 향후 이용 및 권유 여부 등
	19세 이하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평생동안 자녀의 한약 복용 경험, 최초 한약복용 시기 및 이유, 한약복용 빈도 및 비용, 향후 자녀의 한약 복용의향 등

- ‘14년 한약소비실태조사는 ‘11년도와 다르게 한약제조업체 및 한약도매상을 대상으로 주요 한약재의 연간 소비(유통)량 및 소비(유통)실태를 파악하고자 조사함
- ‘11년도 조사에 추가하여 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의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 수입량, 한약재 생산량 및 생산액, 등에 대한 현황을 추가 조사함
- 다양한 한약재 관련 정책현안에 대해 관련 주체별(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및 한방의료기관) 인식도 파악과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위한 문항 추가 조사함

〈표 1-8〉 ‘14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한약제조업체, 한약도매상)

대상	구분	주요내용
한약제 조업체, 한약도 매상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설립연도, 종사자 수, 취급 한약재 품목수, 매출규모 등
	한약소비 (유통)량	2011~2013년 동안 주요 59개 한약재의 원산지별 구입(판매)량 및 주요 판매처별 판매량, 한약재 구입(판매)량 작성시 참고자료 등
	한약 관련 이슈 및 정책수립 관련 인식도 조사	구입(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와 그 이유, 향후 생산 또는 수입 증가가 필요한 한약재, 한약재 규격품 전면 시행(자가규격폐지)제도와 한약재 유통 일원화 제도에 대한 인식도, 한약관련 이슈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 우수 국산 한약재 생산·유통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등

- ‘11년 한약소비실태조사와 비교 분석을 위해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한방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의료기관인 한방병원, 한의원의 경영 및 운영실태를 조사함

〈표 1-9〉 ‘14년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 조사표별 조사항목(한방병원/한의원)

대상	구분	주요내용
한방의 료기관(한방병 원, 한의원)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병의원명, 요양기호, 주소, 개원연도, 개원형태, 설립주체, 진료과목, 양방과의 협진 유무, 타 한방의료기관의 협진 유무, 프랜차이즈 또는 네트워크 가입 유무, 원장님 일반 사항 등
	의료기관 자원 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현황	입원 및 외래(실환자수, 연환자수), 병상이용률, 첩약제제(비보험한약) 처방건수, 소아청소년 첩약제제(비보험한약) 처방건수, 한약제제(보험한약) 처방건수, 소아청소년 한약제제(보험한약) 처방건수 등
	경영현황	매출액(수익), 진료비 수익, 진료비 수익 중 비보험 수익 비율, 비보험 수익 중 당전비율, 현재 의료기관의 경영상태, 현재 경영상태와 비교한 향후 경영전망,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치료분야 등
	당전현황	당전용 1제(20첩)당 가격(일반치료약, 보약), 원외당전 의뢰 시 비용, 전담인력(한의사, 한약사)배치여부, 운영방식 등

○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조사표별 조사항목

<표 1-10> '17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일반국민)

대상	구분	주요내용
일반 국민	일반적 특성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의료이용 실태	평생 한방의료 이용경험, 경험이 없는 이유,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목적, 이용한 한방치료법, 한방의료 선택이유, 한방의료 각 항목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가장 최근 이용시기(년/월), 평균 이용빈도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한방의료에 대한 인지도,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 획득 경로, 각 질환별 한방의료로 치료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 이용비용에 대한 생각 및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 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질환,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한방의료 분야 개선 필요사항
	향후 이용 및 권유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향후 한방의료 이용의향, 이용계획 목적, 향후 한약 복용의향,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한방의료 타인 추천 의향, 추천대상 및 이유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만 19세 미만 자녀여부 및 자녀수, 지난 1년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경험 여부, 한방의료 이용목적 및 경험한 한방의료의 치료법, 한방의료 이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사유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및 과거 만성질환 여부, 장애 등급 판정여부
	의료보장 및 보험 관련	국가에서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 민간의료 보험(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여부

〈표 1-11〉 ‘17년 한방의료이용 조사표별 조사항목(외래/입원)

대상	구분	주요내용
외래/ 입원	일반적 특성	성별, 혼인상태, 직업여부 및 종류, 생년월, 교육수준,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
	의료이용 실태	한방의료기관 방문목적,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 진료서비스 이용횟수,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선택 이유,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목적 (질환/증상) 및 치료법, 지난 1년간 이용한 한방치료법의 효과,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 후 부작용 경험 여부/종류,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 서비스에 지출한 총 비용,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 진료서비스 이용시 항목별 만족도, 지난 1년간 한방 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시 전반적 만족도/불만족 이유, 지난 1년간 한방외래/입원진료서비스 이용전 동일증상으로 다른 기관 이용여부/이용한 다른기관 종류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한방의료에 대한 인지도,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지식 획득 경로, 각 질환별 한방의료로 치료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 이용비용에 대한 생각 및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 각 질환별 한방의료로 치료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질환,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한방 의료분야 개선 필요사항
	향후 이용 및 권유의향 및 타인 추천의향	향후 한방의료 이용의향 및 목적, 향후 한약복용 의향,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이유, 한방의료 타인 추천 의향, 대상 및 이유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현재 및 과거 만성질환 여부, 장애 등급 판정 여부
	의료보장 및 보험 관련	국가에서 적용받고 있는 의료보장의 형태, 민간의료 보험(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 여부

〈표 1-12〉 '17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한방의료서비스)

대상	구분	주요내용
한방의료서비스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 및 경영 현황	진료 및 경영현황, 경영상태 및 전망
	선호제형 및 선호 이유	선호제형 및 선호이유
	처방·조제 (판매)	전년대비 탕약 및 한약제제(탕약제외) 처방·조제(판매)건수 변화, 처방건 대비 용도별 비율, 질환치료시 다빈도 처방(조제)질환, 질환치료시 처방·조제(판매) 탕약명, 질환치료시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명
	탕전 및 한약재 이용 현황	탕전 이용형태, 탕전 이용현황,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한 곳, 한약재 총 가짓수 및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여부,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및 이유
	한약재에 대한 인식	한약재 관련 평소 생각,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탕약 및 한약제제(탕약 제외) 이용 확대방안	탕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약제제(탕약제외, 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방의료(한약) 효과 및 보험	질환별 한방의료 치료의 효과성, 한약 치료가 효과적인 질환,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가장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가장 우선적용이 필요한 질환

〈표 1-13〉 '17년 한약소비 조사표별 조사항목(조제·판매)

대상	구분	주요내용
약국(한약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한약방	조사기관 일반적 특성	일반현황, 시설현황, 인력현황
	진료 및 경영 현황	진료 및 경영현황, 경영상태 및 전망
	선호제형 및 선호 이유	선호제형 및 선호 이유
	처방·조제 (판매)	전년대비 탕약 및 비보험한약제제(탕약제외) 조제(판매)건수 변화, 조제(판매)건 대비 용도별 비율, 질환치료 시 조제(판매) 탕약명, 질환치료 시 조제(판매) 비보험한약제제(탕약제외)명
	탕전 및 한약재 이용 현황	탕전 이용현황,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한곳, 한약재 총 가짓수 및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여부,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및 이유
	한약재에 대한 인식	한약재 관련 평소생각,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
	탕약 및 한약제제(탕약 제외) 이용 확대방안	탕약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비보험한약제제(탕약제외)의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
	한방의료(한약) 효과 및 보험	한약치료가 효과적인 질환

3) '14년 조사 대비 2017년 조사표 변경 사항

- 2014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대비 2017년 조사표는
현 한의약 정책과 향후 자료 활용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여 삭제,
추가, 변경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생각, 주체별 역할에 대한 생각을 알아
보기 위해 조사항목에 반영함

〈표 1-14〉 '14년 조사 대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일반국민)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분	문항
삭제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 병이 있을 때 치료, 상담하는 곳, 응답자특성(주택형태), 각 자녀의 한약복용 여부, 자녀의 한약복용 시기/이유, 자녀의 한약복용 빈도, 자녀의 한약 1회 평균비용, 자녀의 향후 한약이용 수준, 자녀의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 이용경험/이유, 자녀의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 미이용 경험/이유
변경	한방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는 곳 - 보기변경, 한방의료 치료효과에 대한 생각(전체→질환별), 치료효과 대비 한방의료 진료비 수준에 대한 생각→한방의료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 한방의료 개선해야할 점 - 보기변경, 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급여 확대시 우선적용 필요항목 - 보기변경, 한방의료 이용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법→이용경험이 있는 한방의료 치료법으로 변경(복수응답 가능) - 보기 변경, 한방의료 이용을 위해 주로 방문한 기관(복수응답 가능) - 보기변경, 한방의료를 이용한 이유→한방의료 이용 목적 - 보기변경, 평생동안 한방의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보기변경,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하려는 이유(오픈문항→보기), 향후 1년간 한방의료서비스 권유 의향(4점척도→있다/없다), 한방의료서비스 권유하고 싶은 사람 - 보기변경, 한방의료서비스 권유하고자 하는 이유(오픈문항→보기), 의료보장 형태 - 보기변경, 교육정도/월평균소득/혼인상태 - 보기변경
추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한방의료 치료법, 건강보험에서 한방의료급여 확대시 우선적용 필요한 질환,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의 안전에 대한 생각, 한약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 한방의료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각 항목별 한방의료 만족도, 한방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가장 최근 한방의료를 이용한 시기, 한방의료이용 빈도, 건강상태(만성질환여부/ 종류 및 장애등급 판정여부),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가입한 민간의료보험 범위에 한방의료적용여부), 경제활동 상태(일자리 종류, 일자리 없는 경우), 지난 1년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경험, 자녀의 한방의료이용 목적, 자녀가 경험한 한방의료 치료법, 자녀가 받은 한방의료이용 결과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한방의료이용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표 1-15〉 ‘14년 조사 대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외래/입원)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분	문항
삭제	최근 3개월간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외래 이용 경험, 교통사고로 인한 한방외래 이용시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처리 여부, 최근 3개월간 받은 한방외래진료 만족도, 최근 1년간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입원 이용한 경험, 교통사고로 인한 한방입원 이용시 자동차보험으로 비용처리 여부
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 이용여부 및 횟수(3개월간→1년간),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 받은 이유(증상)(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 받은 이유에 대한 치료법(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 받은 치료법별 치료효과(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 이용시 경험한 부작용 종류(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 이용시 지출한 총 진료비(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받은 한방외래진료에 불만족한 이유(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외래진료를 받은 같은증상 치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3개월간→1년간) - 보기변경, 최근 3개월간 한방입원진료 이용여부 및 횟수(3개월간→1년간), 최근 1년간 한방입원진료 이용한 주된 질병명 및 입원기간→질환/증상 및 치료법 - 보기변경, 최근 1년간 한방입원진료 받은 치료법별 치료효과 - 보기변경, 최근 1년간 한방입원진료 이용시 지출한 총 진료비 - 보기변경
추가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방문목적, 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한방입원진료서비스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지난 1년간 이용한 한방외래진료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지난 1년간 이용한 한방외래진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방문 목적

- ‘14년 실태조사는 한약재별 생산실적을 조사하였으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통계와 중복되어 ‘17년은 ‘11년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조사대상으로 변경하고 조사표를 개발하였음

〈표 1-16〉 ‘14년 조사 대비 한약소비 실태조사(한방의료서비스)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분	문항
삭제	병실별 병상수-상급/기준 병실, 입원/외래 질환자수, 협약제제(비보험한약, 보험한약)처방건수-소아청소년건수, 탕전의 용도, 탕전용 1제 당 가격-일반치료약, 보약 중 보약삭제, 진료비 수익, 진료비 수익 중 비보험수익 비율/ 비보험수익 중 탕전비율,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수입을 늘려야할 한약재, 한약 규격품 전면 시행제도가 한약시장에 미칠 영향 및 이유, 한약 유통 일원화제도가 한약시장에 미칠 영향 및 이유, 국내 한약(재)의 생산, 유통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
변경	병원명, 요양기호→기관명, 기관기호, 양방과 협진유무→의과와 진료협약 유무, 공간면적→제공미터단위로 응답, 한달 평균 입원일→병상가동률, 탕전실 전담 인력 배치여부 - 보기변경, 탕전실 운영방식 및 시설규모/월 평균 탕전건수→원내탕전 한달 평균 탕전건수,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야할 치료분야 - 보기변경, 한약(재)관련 평소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 - 보기변경
추가	기관유형, 원장님 일반사항(생년월일, 전문의 자격명칭, 현재기관 진료기간), 의료기관 평가인증 유무, 탕약 처방건수, 탕전 이용유형, 매출액 중 탕약비율, 매출액 대비 한약재 구입 비율, 매출액 중 보험 및 비보험 비율, 매출액 중 비보험 치료법 구성비, 선호제형 및 선호이유, 전년대비 탕약 처방 건수 변화, 전년대비 한약제제(탕약제외, 보험한약) 처방 건수 변화, 전년대비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 처방 건수 변화, 한약처방(조제)과 관련 처방 건수 대비 각 용도별 비율, 질환치료시 탕약, 한약제제(탕약 제외, 보험한약),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를 구분하여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 질환치료시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탕약, 한약제제(탕약 제외, 보험한약),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명, 한약제제(탕약 제외, 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필요방안,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필요방안, 사용한 한약재의 총가짓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명,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중요도, 탕약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필요방안,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 질환별 한방의료 치료의 효과성,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질환

〈표 1-17〉 ‘14년 조사 대비 한약소비 실태조사(조제·판매) 조사표별 조사항목

구분	문항
삭제	기관 내 취급품목, 업종, 전체 매출액 삭제, 한약도매상 운영 여부, 한약재 구입량, 2011년 한약 규격품의 판매량에 대한 판매처별 판매비율, (한약도매상을 겸업하지 않는 경우) 2012~2013년 한약 규격품의 판매량에 대한 판매처별 판매비율, (한약도매상을 겸업하는 경우) 2012~2013년 한약 규격품의 판매량에 대한 판매처별 판매비율, 지난 1년간 한약재 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매출액 대비 비율), 한약재 판매량, 2011년 의약품용 한약의 판매량에 대한 한약 소비기관별 판매비율, 2012~2013년 의약품용 한약의 판매량에 대한 한약소비기관별 판매비율, 지난 1년간 한약재 구입을 위해 지출된 비용(매출액 대비 비율),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던 한약재,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수입을 늘려야 할 한약재, 한약 규격품 전면 시행제도가 한약 시장에 미칠 영향 및 그 이유, 한약 유통 일원화제도가 한약 시장에 미칠 영향 및 그 이유, 한약(재)관련 제도 및 정책별 필요성
변경	한약(재)관련 평소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
추가	매출액 대비 한약재 구입비율, 약국인 경우 매출액 중 한의약 관련 수익비율, 기관기호, 주소, 기관유형, 대표자 성별, 대표자 출생년도, 대표자 면허(자격), 전체 진료기간, 현재기관 진료기간, 건물 소유여부, 공간면적, 탕전실 전체면적(조제실, 전탕실 등 포함), 전체 한약 조제(판매)환자수, 탕전실의 전체 탕약 조제(판매)건수,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의 전체 조제(판매)건수, 의료기관 경영상태, 향후 경영전망, 선호제형 및 선호이유, 전년대비 탕약 조제(판매)건수 변화, 전년대비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 조제(판매)건수 변화, 한약 조제(판매)와 관련하여 조제(판매) 건수 대비 각 용도별 비율, 질환치료시 가장 많이 조제(판매)된 탕약,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명, 탕약 1제당 가격(기준 20첩, 10일분), 탕전실 전담 인력 배치 여부, 한약재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 사용한 한약재의 총 가짓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명,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한 각 주체별 중요도, 탕약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필요방안, 한약제제(탕약 제외, 비보험한약)의 이용을 확대시키기 위한 필요방안, 질환별 한약치료의 효과성

다. 이전 실태조사 대비 '17년도 개선사항

- '11년, '14년과 달리 '17년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모든 대상(일반국민 5,000명, 외래이용자 1,010명, 입원이용자 904명, 한약소비기관 2,800개소)을 방문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을 증대시킴
- 한의약 정책과 향후 자료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17년도 조사표별 조사항목을 변경하였음
 - 한의약 정책, 한의계 현안인 한약재의 안전성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 측면을 최대한 고려하였음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11, '14년에는 한방의료 전체의 치료효과를 물었으나 각 질환별 한방의료의 치료효과로 문항을 변경하여 문항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의 범위에 한방의료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자료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모두 지난 1년간 경험으로 문항을 통일시켜 비교성 및 일관성을 증가시킴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국민 및 외래/입원환자의 조사표 내 이용 질환 관련한 질병선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청구 자료에 의한 다빈도 한방질환을 파악하고 여러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이용과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방이용질환을 수정·보완함
 -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의 경우 만성질환 여부 및 종류 문항을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약소비실태조사) 전년대비 탕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보험한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 처방건수 변화, 질환치료시 탕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보험한약), 한약제제(탕약제외, 비보험한약)를 구분하여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탕약명, 한약제제명 및

한약재 사용 가짓수 등을 추가하여 자료 활용도를 증가시킴

- (한약소비실태조사) 한방의료서비스기관 외 한약 조제·판매기관 (한약방, 한약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을 따로 조사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킴

- (조사표 용어변경) 「약사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기존조사의 한약국, 한약조제약국 대신 약국(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으로 변경함
- (조사결과의 대표성 확보)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각 조사대상자별 모집단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산출하여 조사결과에 반영함으로써 대표성과 비교성 확보
-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축(www.koms.or.kr)으로 실태조사 관련 대외홍보 및 수요조사, 조사결과 및 데이터 제공으로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기반 확대 등의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 (홈페이지) 조사 주요 결과를 인포그래픽스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홈페이지) ‘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공개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한방의료 연구 기회제공 및 홍보
- (시계열 분석 한계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최초 실시되었던 2008년 기준으로 그 이후 실태조사가 수행될때마다 각 실태조사의 조사표, 조사대상, 조사방법이 일부 변경되어왔음. 또한 ‘17년도 역시 그 이전 실태조사 관련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개선·반영함으로써 인한 변동으로 전체적인 연차별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 예를 들어, 한방의료 이용경험 문항의 경우, ‘11, ‘14, ‘17년도별 조사방법 등의 변동으로 각 연도별 조사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추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라. '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관련 용어 정의

○ '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관련 용어 정의는 <표 1-18>과 같음

<표 1-18> 용어 정의

□ 한방의료

- 한의학치료법(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시술하는 행위
- 한방의료기관, 한의사나 한방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한의사가 한방의료나 보건지도행위(의료법제2조제2항제3호)를 하거나 약국(한약국) 및 한약방에서 한약사,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말함
 - 즉, 한방 관련 의료기관에서 진료/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것 뿐만 아니라 약국이나 한약방에서 한방 관련 의약품을 구입한 것도 포함
- 외래진료 :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 것
- 입원진료 : 일정기간동안 의료기관에 들어가서 머물러 진료를 받는 것

□ 한방의료기관

- 한방병원 : 30병상 이상이며 한의사 면허(보건복지부 장관 許)를 가진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한의원 : 30병상 미만이며 한의사 면허(보건복지부 장관 許)를 가진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한의사가 있는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
 - 한방병원 외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보건복지부 장관 許)를 가진 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본 조사에서는 한의사가 종사하는 요양병원, 병원, 종합병원을 의미함
 - 요양병원은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함
 - 환자를 입원시킬수 있는 병상수가 30개 이상임
- 한약방 :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곳
- 약국 : 한약조제약사 또는 한약사가 근무하는 곳

□ 한방치료법

- 약침
-

-
- 한약추출물을 주사기를 통해 혈자리에 주입하는 것을 말함
 - 기존의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를 결합하여 발전시킨 한방 치료법
 - 이외에 약침제제 및 약침주입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도 포함됨
- 한약제제(탕약 제외)
 - 생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한 의약품으로 환제, 산제, 정제, 연조엑스제 등 다양한 제형
 - ※ 생약 : 의약품의 일종이며, 천연으로 산출되는 자연물을 그대로 또는 말리든가, 썰거나 가루로 만드는 정도의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삼는 것
 - 탕약 :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한약재를 물에 넣고 일정한 시간동안 끓인 다음 걸러서 얻은 액체
 - 한약 : 한약제제와 탕약을 포함하여 이르는 것
 -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제외)
 - 한의학적 이론을 도입하여 약물 대신 천연이나 물리적 작용에 의해 병을 치료하는 방법
 - 도인안교, 온열치료, 한냉치료, 전기자극 치료 등
 - 추나요법
 -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
 - 2017년 2월 13일부터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입원 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의료보장 및 보험 관련

- 건강보험
 -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의료급여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

증진에 기여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에게 지원

제3절.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구축

1. 홈페이지 구축 배경

- 한의약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기반 확대 등의 국민의 다양하고 새로운 욕구를 반영한 제도 보완 및 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 일반 국민의 한의 의료 수요 및 이용형태, 만족도와 한의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실태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한약재 생산·수입현황을 바탕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약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필요
- 통계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홈페이지 구축 및 이용자서비스 개발 필요
- 실태조사 관련 대외홍보 및 수요 조사, 조사결과 공표, 데이터 제공 필요
 - 다양한 통계 이용자서비스 개발을 통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의 통계 활용성 제고
 -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 및 이용자 정보 획득 편의성 증대

2. 홈페이지 주요 내용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소개

-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의 목적과 배경, 조사내용, 연혁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 제공함
- 일반국민에게도 인포그래픽스⁸⁾를 통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결과 쉽고 빠르게 전달 및 홍보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간행물 등록 및 제공

- 시스템을 통한 일원화된 통계 산출물 생산, 관리 등 전반적인 통계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공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데이터 공개

- '17년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공을 위해 제공범위 및 제공절차, 제공 방법, 제공비용 등에 대한 규정개발 및 자료분석 지침서 제공

※ '17년 실태조사 자료부터 이용자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공개관련 절차 보건복지부와 협의·진행할 예정

○ 한의약 관련 통계자료 hub로서 역할

- 실태조사 자료와 연계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한약진흥재단에서 생산 중인 한의약연감, 한의약 정책리포트 등 통계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연계
- 기타 한의약관련 주요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과의 연계는 물론 유관기관에서 생산 중인 한의약 관련 통계사이트 링크 연결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통계연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산업실태조사

8) 복잡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차트, 그래픽, 아이콘, 그래픽스, 이미지 등을 활용,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코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등

○ 주요 공지사항 및 정보제공 콘텐츠 구축

- 조사에 대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조사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의견 등이 있을 경우 상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 응답자와 직접적인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가능하게 함

○ 콘텐츠 만족도 구축

- 주기적 홈페이지 이용만족도(매우 만족부터 매우 불만까지 5점 척도로 구성)를 구축하여 향후 홈페이지 이용의견 반영

○ 관리자 페이지 구축

- 통계 생산 표준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을 통한 통계 생산성 향상
- 회원관리, 데이터 다운로드, 항목(지표)제안, 방문자 수 등을 누구나 쉽게 관리 가능하도록 구축함
- 인포그래픽스 유지·보수 등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 운영

3. 실태조사 홈페이지 구축

○ 홈페이지 구축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주소 : ⁹⁾www.koms.or.kr
- 반응형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무리 없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메인 화면은 다음과 같음

9) KOMS : KOREan Medicine health service utilization and consumption Survey



[그림 1-2]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4. 홈페이지 운영방안

○ 데이터 보호 및 관련 규정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홈페이지 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하도록 하며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은 비학술용, 학술용 모두 해당됨

- 학술용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만 제한되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자(학술용 데이터 신청자)는 잠재적으로 환자 또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는 ‘연구사용 제한 보안유지 서약서’에 동의해야 하며 제공된 데이터 결과물을 홈페이지에 등록 및 연구결과물에

반드시 출처를 남기는데 동의해야 함

- 기본적인 개인정보만을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한 과정 외 연구제목, 연구주제, 발표월, 연구구분, 출처를 필수적으로 작성한 후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

※ 향후 데이터 유형 및 형태 등의 제공·공개관련 절차 보건복지부와 협의·진행할 예정

○ 항목(지표)제안 절차

- 간단한 인증(성명, 이메일주소, 소속)을 거쳐 회원가입 후 제안서 등록(상시 가능)
- 등록된 항목(지표)제안 내용은 한약진흥재단 내부위원 및 자문위원의 검토를 통해 최종승인여부가 결정되며 향후 최종승인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함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1절. '11년 및 '14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주요결과 비교

1. 한방의료이용 추이

가. 일반국민의 한방의료이용 특성

- (한방의료서비스이용) '11년도에는 전체 조사대상자 5,507명 중 여성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률이 3,794명(68.9%)으로 남성의 1,713명(31.1%)보다 2배가량 높았음. 연령별로는 40~50대(43.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0대 이상(30.5%), 20~30대(22.8%), 10대 이하(3.3%) 순이었음. 그 밖에 기혼자(71.2%)가 미혼자 등에 비해 높았고 교육수준은 고졸(33.1%), 대졸이상(33.8%)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은 201~300만원이 22.8%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53.9%가 무직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10.8%), 전문가(9.3%)순으로 높았음
- '14년도에는 전체 대상자 5,000명 중 평생동안 한방의료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2.0%이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전업주부 및 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이용비율이 높았음
- (이용의료기관) '11년도에는 5,507명 중 한방병원 3,090명(51.6%)이 이용하고 있었고 한의원 2,417명(43.9%) 이었음.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1,581명(28.7%)이고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응답자는 3,926명이었음
- '14년도에는 한방의료이용을 위해 주로 이용한 기관으로 한의원이 86.5%로 가장 많았음
- (치료법) '11년도 한방치료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법은 침(48.0%), 물리요법(20.3%), 탕약(15.8%), 뜸(6.4%), 부항(5.9%)순이었음. '14년도 역시 침치료가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탕약(27.6%),

한약제제(4.9%), 한방물리요법(4.6%) 순이었음

- (상용치료기관) 질병이 있을 때 주로 치료하거나 의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기관으로서 '11년도는 한의원이 16.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한방병원이 7.2%를 차지하였고 '14년도에도 '11년과 유사하게 한의원이 13.3%, 한방병원이 4.1%를 차지하였으나 '11년도에 비해 비중이 낮아졌음

나. 외래환자의 한방의료이용 특성

- (진료횟수) '11년도 지난 3개월간 한방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횟수 조사결과 1~3회 이용하였다가 36.1%로 가장 많았고 51회 이상 다빈도 이용자의 경우 지역(3.7%) 또는 직장가입자(2.8%)보다 의료급여대상자(6.1%)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 '14년도 외래 진료횟수는 평균 4.2회로 1회가 31.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회 이상이 27.6%, 2회 21.3%, 3회 19.7% 순이었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률이 높아져 50~59세 이용률이 가장 높고 60대 이상의 경우 5회 이상이 43.4%로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많았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외래이용률이 높았음
- (진료비) '11년도 지난 3개월간 한방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1만원 미만이 38.3%로 가장 많았고 1~10만원이 35.2%로 그 다음 순이었음
 - '14년도 최근 3개월간 한방 외래 진료비는 1인당 평균 171,467이었으며 1만원 이상 5만원미만이 37.2%로 가장 많고 10만원~50만원 미만이 28.4%였음. 남자(185,179원)가 여자(160,978원)보다 많이 지출하였고 60세 이상 1인당 진료비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치료방법) '11년도 지난 3개월간 질병치료 목적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질환으로 천식, 감기 및 아토피를 제외한 모든 증상에서 침치료를 가장 많이 받았으며 천식, 감기 및 아토피 증상에서는 한약(탕약)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11년도(전화조사

남녀 1,000명 대상)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법은 침(70.6%), 한약(20.8%), 한방물리요법(4.6%) 순이었음

- '14년도 최근 3개월간 받은 외래치료법으로 침(85.7%)로 가장 많고 한방물리요법(39.7%), 뜸(34.0%), 부항(32.8%), 탕약(32.6%), 한약제제(21.0%), 약침(9.7%), 추나요법(8.7%)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은 한방물리요법 이용이 많은 반면, 탕약은 20대 연령층이 많았음. 증상별로는 대부분의 질환(증상)에서 침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체질개선, 허로(허약), 다이어트, 기관지염 등은 탕약이 더 많이 이용되었음

○ (외래질환) '11년도(전화조사 남녀 1,000명 대상)에 가장 많이 받은 외래진료 질환은 요통(17.5%), 근육부상(13.7%), 허리뻘(10.4%), 어깨 결림(9.8%), 관절염(9.3%), 발목뻘(8.7%) 순이었으며 근골격계 및 사고로 인해 한방외래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됨

- '14년도 한방외래진료 이용 이유는 질병 치료가 90.0%로 가장 많고 그 중 근육골격계 및 결합조직이 6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소화기계통(10.9%), 두통, 허약 등 기타 증상 및 증후(5.3%), 호흡기계통(3.9%) 순이었음

다. 입원환자의 한방의료이용 특성

○ (입원횟수) '11년도 지난 1년간 입원치료횟수 조사결과 1회 입원이 78.6%로 가장 높고 2회, 3회 순으로 나타남. 입원자 중 40~50대가 77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413명), 20~30대(344명), 10대(32명) 순으로 나타남. 입원의 경우 지역(686명)이나 직장가입자(681명)는 비슷한 이용률을 보였으나 의료급여 대상자는 129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음

- '14년도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이내 한방입원 진료경험은 0.8%여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우나 60세 이상 고령층, 중졸 이하, 상대적 저소득층 이용률이 높은 추세를

보입

- (진료비) ‘11년도에는 입원진료비는 101~200만원이 34.5%로 가장 많았고 51~100만원이 23.5%, 50만원 이하 13.9%, 201~300만원 13.5% 순이었음
 - ‘14년도에는 최근 1년동안 총 지출한 진료비는 1인당 평균 2,016,465원으로 300만원 이상이 24.1%로 가장 높고, 10만원~50만원 미만이 14.0%였음. 여자가 2,239,438원으로 남자 1,688,414원보다 많이 지출하였고 연령 및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입원진료비 지출이 증가함
- (질병별 이용횟수 등) ‘11년 조사결과 입원 환자의 질병별 이용횟수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입원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뇌경색(7.5%)과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7.5%)으로 인한 입원 순이었음. ‘11년도(전화조사 남녀 1,000명 대상)에 가장 많이 받은 입원진료 질환은 교통사고 후유증, 근육 부상, 골절, 구안와사 등이 조사되었음
 - ‘14년도 질병치료 질환으로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순환기계통(21.2%), 신경계통(12.2%) 순이었음
- (치료방법) ‘11년도 지난 1년간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진료시 치료방법별 치료효과 정도를 보면 외래환자와 동일하게 모든 치료법에서 약간 효과있음 > 매우 효과있음 > 보통 순으로 나타나 한방치료가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14년도에는 한방입원진료를 받은 질환/증상별 치료방법을 보면 침이 9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탕약(84.9%), 뜸(73.3%), 한방물리요법(71.5%), 부항(61.6%), 한약제제(50.9%), 약침(43.6%), 추나요법(22.4%) 등의 순으로 나타남

라. 기타

- (한방의료인식도) ‘11년도에는 5,505명 중 한방의료에 대해 보통수준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7%, 매우 잘 알고 있다가 5.5%이었으며, 남녀 모두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및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고 20~30대, 40~50대 연령층은 약간 알고 있다가 거의 모른다 보다 높게 나타남
 - ‘14년도에는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서 일반적인 인지도는 5점 만점에 3.2점(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음),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도수준은 3.6점(점수가 높을수록 신뢰도수준이 높음)으로 나타남
- (외래만족도 및 입원만족도) ‘11년도에는 80% 이상의 응답자가 외래진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약 20%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 치료효과가 없어서(47.6%)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가 비싸서(22.0%), 대기시간이 길어서(10.6%)의 순이었음. 또한 입원환자 중 70% 이상의 응답자가 입원진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약 30%의 응답자가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외래환자의 불만족 이유와 유사하게 치료효과가 없어서(39.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진료비가 비싸서(35.0%), 대기시간이 길어서(5.6%)의 순이었음
 - ‘14년도 한방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으로서, 외래진료에 대하여 만족도 비중은 매우 만족 4.5%, 대체로 만족이 62.4%이며 입원진료의 경우 매우 만족이 21.2%, 대체로 만족이 61.6%로 나타남
- (개선사항) ‘11년도 한방의료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33.3%가 고가의 진료비라고 응답하였으며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22.4%), 전문분야별 전문성제고(8.4%), 치료효과 및 과학적근거 제시(8.4%), 진료범위의 확대(8.3%), 시설 및 장비개선(7.6%) 순으로 나타남
 - ‘14년도에도 ‘11년도와 유사하게 고가의 진료비가 4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약재 안전성확보(27.6%), 치료효과의 불확실성(15.5%), 전문분야 전문성제고(9.2%), 진료범위확대(3.4%), 시설/장비 개선(2.9%) 순으로 나타남

○ (치료대비 진료비 수준) '11년도에 한방 진료비가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은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비싸다가 36%, 저렴하다 13% 순이었음

- '14년도에는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용 인식도는 5점 만점(점수가 높을수록 저렴) 평균 2.6점으로 인식비중은 대체로 비싼편 41.1%, 매우 비싼편 4.7%로 나타남

○ (보험급여 확대분야) 보험적용이 시급히 확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11년도 전체 응답자 중 68.3%가 한약(탕약)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물리요법(13.3%), 한약제제(9.8%), 추나요법(6.2%) 순이었음

- '14년도에는 보험급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한방치료법으로서 탕약(48.7%), 한방물리요법(22.3%), 한약제제(13.6%) 순이었음

2. 한약소비현황 추이

○ (조사대상의 변경) '11년도에 실태조사의 경우 한약재의 최종 소비단계에 가장 가까운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을 대상으로 2009, 2010년의 주요 한약재 구입량을 조사수행하였음. 반면, '14년도에는 한약제조업체 및 한약도매상을 대상으로 주요 한약재의 연간 소비(유통)량 및 소비(유통)실태 파악함

○ '11년도 실태조사의 한약소비특성

- (환자수 및 경영수지 변화) 2008~2010년 환자수는 69.4% 및 경영수지 73.3%가 감소하는 추세

- (한약재 구입) 평소 한약재 가장 많이 구입하는 곳은 한약도매상이 7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한약제조업소가 19.8%를 차지함. 한약재 구입 지출 비중은 전체 응답기관 중 39.1%가 전체 지출액 중

10~30% 미만인 것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0~50% 미만이 26.9%를 차지함

- (한약재종류) 전체 응답기관(863개 기관) 중 44.6%가 80가지 이상 한약재를 사용한다고 응답함. 60~80가지 미만이 20.4%로 그 다음 순이었음. 구입이 어려웠던 한약재는 당귀(4.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산수유, 사인, 백수오 순으로 응답하였음. 한약재 구입 어려움의 주원인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었음. 또한 국내생산이 필요한 품목으로 당귀(26.0%)로 가장 많았고 수입증가가 필요한 품목은 사인이 13.0%로 가장 많았음
- (구입량 추계) 33개 한약재품목의 전체 구입량(국산+수입)은 2009년 963만kg에서 2010년 941kg으로 약 2.2% 감소하였음. 2010년 구입량이 가장 많은 10개 한약재는 당귀, 복령, 황기, 작약, 감초, 천궁, 숙지황, 향부자, 산약, 길경의 순으로 나타남
- (한약소비기관별 한약재 구입량) 전체적으로 2009년 비해 2010년 구입량이 2.2% 감소하였으며, 약국(한약 조제)의 구입량은 3.9%, 한방병원은 2.1%, 한의원 구입량은 1.6%씩 감소함. 한약사가 있는 약국만이 2009년 대비 2010년 구입량이 4.1% 증가함. 한약소비기관 중 한약재 구입량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한의원으로서 2009년 전체구입량의 80.2%에서 2010년 80.8%를 차지함
- (첩약제제와 한약제제의 처방빈도 추이) 2010년 1년간 한방병원의 경우 각각 66.7%, 43.8%로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한의원의 경우 각각 74.9%, 19.6%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함
- (탕전용 보약1제 가격) 한방병원의 경우 탕전용 보약 최저가격은 20~30만원 미만이 33.7%로 가장 많고 최고가격은 40~50만원으로 31.5%를 차지함. 한의원의 경우 최저가격은 20~30만원이 38.7%로 가장 많고 최고가격은 40~50만원이 36.0%로 가장 많았음

○ '14년도 실태조사의 한약재 생산/수입 특성

- 국산약용작물 생산현황은 최근 5년간 국산 약용작물의 재배면적, 수확면적 및 생산량 모두 감소 추세에 있음. 국산약용작물 생산량

상위 5대 품목현황을 보면 복분자가 1년 동안 생산량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양유, 오미자, 길경 등 순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한약재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증가 추세로 수입량은 연평균 5.4%, 수입액은 연평균 17.4%씩 증가함. 2010~2013년간 수입량 상위 한약재는 복령, 감초, 마황, 백출 등 순으로 나타남
- 한약제제 생산실적의 경우 최근 5년간 한약제제 총생산액은 연평균 7.0%로 증가세에 있으며 약효군별로 분류해보면 기타 순환계용약이 47.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기타자양강장 순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추이

〈표 2-1〉 실태조사별 정책제언 추이(한방의료이용)

구분	2011년 실태조사 정책제언	2014년 실태조사 정책제언
한 방 의 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 한방진료비 인하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탕약 등 건강보험급여화 노력 - 한방진료재료비, 경영효율화 등 원가인하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의료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방 의료보장성 확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도가 높은 순위 순차적 확대 검토 - 급여화에 대한 이용자, 공급자, 보험자 측면의 요구와 재정건전성, 정책적 도입필요성 및 용이성 등 종합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요법과 탕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 부여방안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확대보완책으로 한방민영보험의 의료비 보장제도 개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분야는 민간재원 비중 증가추세로 가계부담 - 한방비급여의 민간보험 보장성 강화와 한방진료를 포함한 보험상품 개발되도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의 생산, 유통 등 전단계의 투명성 보장 및 지속적 개선노력 - 보건복지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간의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효과 및 과학적 근거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약계 적극적 노력과 정부 한의약연구개발 투자 중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별 전문성 제고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전문분야별 전문성 제고, 시설 및 장비개선, 한방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등 한방의료의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 가격의 상승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 가격상승대응책으로 품질 검사비용 등 보조금 지원, 상생 가능한 유통단계 축소 및 수급조절대상 한약재 탄력적 적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다양한 한약제형 조제 및 투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한방 의료기관 교차개설 및 상호고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한방 협진유무 비율이 감소원인 파악 개선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원보다 한방병원 주로 수행. 협진기관비율 감소추세

〈표 2-2〉 실태조사별 정책제언 추이(한약소비)

구분	2011년 실태조사 정책제언	2014년 실태조사 정책제언
한약 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을 위한 조사대상 기관 사전교육 및 교육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소비량 감소 대응하고 소비 활성화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 우수성 및 안전성 알리는 연구개발 확대 -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확대 및 한약규격품에 대한 품질 검사 강화 - 한약특성에 따른 유통기한과 포장단위(방법)의 다양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기록의 전산화 중장기적으로 의무화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견인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제제에 대한 제형현대화 -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화 확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탕전실에 대한 전반적 수행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 및 국산한약재의 식품과 의약품용도 구별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2014년 9월 30일 이후 한약유통일원화제도 일몰에 따른 한약도매상의 기능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재 관리부처간 협조체계 강화 	—

제2절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관련 선행연구

1. 선행연구 개요

- 문헌연구의 발행연도는 최근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0년에서 2017년으로 한정하였으며 제목 검색으로 제한함
- 문헌 검색 기준
 - 3개의 검색어- 한방의료이용, 한약소비, 한방정책을 선별하여 진행함
 - 한국학술정보의 학회지 원문서비스(KISS),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L), 누리미디어 지식 서비스(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OASIS)를 선정하여 검색을 진행함

2. 선행연구 결과

가. 한방의료 이용

〈표 2-3〉 한방의료이용 관련 선행연구

저자명 (연도)	연구자료 및 대상자	N	연구 방법	주요변수	주요연구내용
유왕근 등 (2000)	대구광역시 지역주민	545명	설문 조사	질환별 한방의 료서비스의 이 용행태, 인식도, 이용결정요인	한방의료이용횟수 2-5 회 46.4%, 의료이용 본 인선택 48.8%, 근골격 계질환자 54.5%
김성진 (2001)	지역사회주 민, 의료기 관이용자	1,430 명	직접면 접조사	한방의료이용 질 문, 한의학, 한약 에 대한 인식도	양방이용군, 한방이용군, 양한방혼용군, 비이용군 별로 의료이용 분석
이정택 등 (2006)	수도권 한의 원 내원환자	202명	설문 조사	한방치료의 안정 성, 경제성, 효과 성, 친절성	건강증진, 질병치료, 질병관 리목적으로 나누어 한방의 료선택과 이용에 관한 연구
이한울 등 (2007)	서울 지역 20세 이상 성인가족	1,376 가구	설문 조사	성,연령,직업,학력 별 한방의료이용	입원/외래비율은 여성,고 령,저학력,저소득층,육체노 동계층에서 높게 나타남

도세록 (2009)	노인의 의료 이용 현황과 정책과제	2008 년 환 자조사	기초자 료 사 용 2차 분석	의료자원 현황, 연령별, 질환별 외래수진율, 외 래환자수 등	노령층의 의료이용추세 로서 근골격계질환이 가 장 많고 의원급에서 한 의원을 가장 많이 이용
서영준 등 (2010)	한의원 내원환자	-391개 한의원 -환자 1,208명	우편설 문조사	한 방 의 료 이 용 행 태 및 만 족 도 실 태	한방진료선택이유, 한 의원선택동기 및 타의 료기관 이용경험, 선호 한약형태 및 만족도
이현주 등 (2011)	200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참여자중 만 성질환자	11,665 명	2차분석	지난 1년간 미 치료, 치료지 연 경험여부, 입원여부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여부, 이용 행태, 한방의료 서비스 이용결정요인 파악
임미선 (2011)	2009 한국의료 패널조사자료	5,586 명	2차분석	5개 만성질환, 의 료비 등 의료이 용변수	5개 만성질환별 의료기 관종별 이용현황
윤강재 (2012)	11년도 한방의 료이용실태조사	—	2차분석	연령별, 건강보 험자격별 만족도	한방의료와 양방의료 혼합사용, 중장년층과 고령층의 한방의료 이 용율 높음
최성용 등 (2012)	2008년 한방 의료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	8,251 명	2차분석	지역,성별,연령 별, 다빈도상병, 치료방법 등	한방병원의 경우 남자가 주로 이용하고 한의원은 여자가 주로 이용함
최민선 등 (2013)	난 임 부 부 여성	124명	전자 설문, 직접 설문	임신출산 및 난임 관련 사항, 난임 치료관련 의료기 관이용 형태, 한 방난임 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	87.1%가 난임치료 또는 임신보조로 한방의료기관 이용하였으며 90.3%가 향 후 정부의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 희망
이선동 등 (2013)	2011년도 한 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외 래이용자	1,103 명	2차분석	한의원, 한방병 원 외래이용자 이용특성	외래이용자 주관적 건강 상태는 67.9% 좋은 편으 로 주로 관절염, 뱀,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으로 이 용
이은경 등 (2014)	2011년 도 한방의료이 용실태조사 외래환자	3,889 명	2차분석	외래이용근골격 계질환자 특성	근골격계질환자는 비근 골격계질환자에 비해 고 령의 저학력,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 만족도 및 치 료효과 높다고 인식

이우천 등 (2014)	2011년 한방 의료이용실태 조사대상자	3,665명	2차분석	외래환자 지역/성 별 치료질병순위	남자는 요통,근육부상,허리뼈손 여자는 요통,관절염,근육부상 순 임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요통이 1순위이며 지역별 차이남
최병희 등 (2014)	2009년 한 국의료패널 조사	4,643 명	2차분석	일반적인 특징과 한양방 외래의료 이용 현황, 한양 방 의료기관 이용 유무, 방문빈도, 의료비 지출 분석	근골격계 질환자의 양방의료 기관 이용 빈도는 한약치료 이용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해창 등 (2014)	2011년 한 방의료실태 조사	1,103 명	2차분석	성별 한방의료 기관 이용환자 특성분석	남자는 한방병원을, 여 자는 한의원을 주로 이 용. 여성의 경우 저소득 층과 이용패턴 유사함
최지연 등 (2015)	2008~2009 년 한국의 료패널	24,616 명	2차분석	인구학적변수, 질 병명, 생활습관	한방의료가 근골격계질 환 등 특정질환에 효과 적이라고 인식
윤진원 등 (2015)	2011년 한방 의료이용실태 조사 30세이 상 외래환자	1,729 명	2차분석	복 합 / 비 복 합 만성질환자 의 료이용 특성	복합만성질환자가 여자, 의료급여자, 외래진료비, 외래진료횟수에서 차이
이연화 (2015)	한의원외래 이용 성인	159명	설문 조사	요통환자의 건 강관련 삶의 질 연구(요통, 스트 레스척도, 우울 증상척도 등)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통, 우울증 상 완화를 위한 중재프 로그램 개발/교육 필요
서수경 등 (2016)	2008-2012한 국패널조사	72,412 건	2차분석	만성질환수, 근골 격계 질환이환여 부, 양방의료이용	한방의료이용시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은 여성, 35-64세, 낮은 교육수준, 만성질환개 수가 많을수록 이용이 높음
이기범 등 (2016)	2011년 한 방의료이용 실태조사	3,518 명	기초자 료 사용 2차분석	한약제 부작용 및 독성여부, 치료방법 별 질병치료유무 등	고학력자, 고비용지불한 경우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 높음
김미경, 한창호 (2017)	한 의사	590명	전자우 편설문 조사	한의중풍진료현황- 병기별 치료방법	중풍의 경우 만성기, 회복기 급성기 순으로 이용, 주요치 료방법은 침뜸 사용
권수현 등 (2017)	일반국민	1,000 명	설문 조사	2011-2014년간 한방 이용 및 실태도 추이	한방진료에 대한 신뢰수준 69.3%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도 이용횟수 및 실태도가 저하추세

1) 이용자특성

- 유왕근, 류경아(2000)은 한방의료서비스의 이용행태 및 이용결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대도시 지역주민의 한방의료이용 수준은 매우 높으나 한방 의료보험 급여의 미비, 양한방 협력체계의 미흡, 과학적인 진단기술의 부족, 높은 진료비용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성진(2001)은 1,430명을 대상으로 양방이용군, 한방이용군, 양한방혼용군, 비이용군으로 나누어 차이 비교함. 양한방 혼용군은 양방 이용군보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양한방 이용군이 침효과를 인정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으며 한방진료비가 비싸다고 한 응답이 다른 이용군에 비해 높음
- 이정택, 박영재, 박영배, 이상철, 허명(2006)은 수도권 한의원 내원 환자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함.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방을 선택한 집단은 중졸 이하, 월수입 150만원 미만의 저수입군에서 많았으며 한방이용빈도와 만족도가 높으며 건강에 관심이 많고 한방치료의 안정성, 효과성, 친절성을 높게 평가함. 질병치료 목적으로 한방을 선택한 집단은 한방이용 빈도가 높고 한방치료의 효과성, 경제성, 친절성을 높게 평가함. 질병관리 목적으로 한방을 선택한 집단은 한방치료의 효과성을 높게 평가함
- 이한울, 정명수, 이기남(2007)은 2005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1,376가구의 만 20세 이상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질환에 대한 입원 및 외래 비율은 여성, 고령, 저학력, 저소득층, 육체 노동계층에서 높았으며 한방 이용은 주로 입원보다 외래 치료율이 높았음. 1회 입원시 평균 입원 기간은 한방병원 19.7일이며, 평균 본인부담 입원료는 90.9만원이고 외래서비스 본인부담금은 한의원 4.3만원이었음
- 도세록(2009)의 노인연령층 의료이용실태를 보면, 외래환자 중 의원급에서 한의원에 노령 연령층이 약간 많은데 질환치료를 한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입원환자의 경우 전체 퇴원환자중 비중은 높지 않으나 요양병원 환자의 70%가 노인이며 한방병원에서 노인환자 비중이 29.8%로 약간 많았음

- 서영준, 강신희, 김연희, 최대봉, 신현규(2010)은 2008년 기준 전국 18,579개 한의원 중 4,000개소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원을 선택한 이유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방진료를 선택한 이유는 양한방의 병행, 양방치료나 양약보다 한방치료가 효과가 있어서 순으로 많았음. 한의원 선택 동기는 명성과 신뢰가 49.5%로 가장 많고, 한의원 방문 전 동일질환으로 타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67.9%로서 환자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일차로 양방진료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로 한방진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됨. 가장 받고 싶은 치료방법은 침구치료(55.1%), 치료약첩약(16.2%), 보약첩약(12.3%) 순으로 많았고, 한방진료 받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고가의 진료비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양방진료 병행여부, 한방치료효과 및 침이나 한약 부작용 순으로 나타남
- 윤강재(2012)의 2011년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현장에서 한방의료를 양방의료와 함께 혼합 또는 중복 이용하고 있고, 연령별로 40~50대 중장년층과 60대이상 고령층의 한방의료 이용비율이 높음.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자료 기준으로 한방의료 이용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차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한방의료 이용자들의 외래/입원서비스 만족도 비율이 높은 편이나 최근 3년간(2008~2010) 신뢰도와 만족도가 감소하여 한방의료 치료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확보가 필요하며 비급여대상인 한방물리요법, 탕약 등 한방의료에 대한 급여확대방안 검토,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한의약계의 자발적인 노력 필요, 이용자 관점에서 양한방협진을 통한 자원의 효과적 활용과 치료효과 제고,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양한방 협진사례와 성과 파악하고 효과성입증, 인력양성 및 지불보상 등 제도적 보완 필요

- 이선동, 조재국, 김현도, 박해모, 양준모, 최성용(2013)은 2011년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외래이용자 1,103명을 대상으로 외래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여성, 청장년, 중년의 고학력자가 비교적 적은 수입자 중 대체로 건강상태가 좋거나 통증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환자들이 한약, 침,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함
- 정해창, 박해모, 이선동(2014)의 2011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한방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성별 이용실태 및 특성비교에 따르면, 한방 병원은 남자가 한의원은 여자가 더 이용율이 높고 치료방법별로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질환에 따른 남녀간 차이가 있는 등 여성의 한방의료이용패턴이 저소득층패턴과 유사하여 한방의료보장 정책을 수립할 때 성별에 따른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이연화(2015)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기도지역 요통환자 159명의 건강관련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고령의 여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요통, 우울증상 완화를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필요
- 서수경, 박보현, 최숙자(2016)은 한국의료패널 2008년~2012년까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방의료이용시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경우 여성, 중간연령(35세~64세: inverse U-자형태),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만성질환 수가 많을수록 한방의료이용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과 노인인구의 한방의료이용의 제한요인을 해소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제언
- 권수현, 허신희, 김동윤, 강승현, 우종민(2017)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3년간의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 및 이용양상 변화를 조사한 결과 한방의료에 신뢰수준이 높은 수준('11년 63.2%, '14년 69.3%)에도 불구하고 젊은 20~30대에서 이용횟수 감소추세. 신뢰도 저하이유는 과학적 근거 부족, 한약재 안전성 의심 등 순으로 나타남

2) 질환별 이용특성

- 이현주, 유원섭, 정수경(2011)은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건강형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여부, 이용행태,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파악함
- 임미선(2011)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의료패널자료 분석결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의 상병을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현황을 보면 5개 질환군(고혈압, 당뇨병,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당뇨병, 관절염) 모두 의원의 비율이 61.0~75.4%로 가장 높으나, 관절염의 경우에는 한의원의 13.8%가 두 번째로 이용비율이 높아 나머지 만성질환군과 다른 양상을 보였음. 만성질환의 특성상 발병의 순간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즉 관리의 지속성으로 인해 의료비부담이 예견되는 바 의료이용의 형평성보다 소득계층간에 동일필요에 대한 동일한 의료이용원칙이 필요하므로 검사에 사용되는 보장범위, 급여와 비급여항목비율에 따른 지출행태 연구 필요
- 최성용, 신현규, 박해모, 이선동(2012)은 2008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의 한방건강보험 현황의 20대 다빈도 상병명을 변수로 하고 지역, 성별, 연령별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대응분석함. 진단 및 검사방법은 진맥이 83.3%, 치료방법은 침약이 39.3%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비 지불방법은 61.8%가 한방건강보험이었음. 연구대상자 8,251명 중 남자 3,330명, 여자 4,921명 이었으며 50-54세가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은 25-40세의 남자에서 45-60세의 여자가, 65세 이상에서는 여자가 한의원을 주로 이용함. 지역별로 외래환자와 입원재원환자의 상병이 다르게 나타남
- 최민선, 이동녕, 김동일 (2013)은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실태 및 한방난임 치료 지원사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연구로 한방병원 외래 난임 여성 환자 124명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 87.1%가 난임 치료 또는 임신 보조를 위해 한방의료기관 이용하였고 한약 96.3%, 침치료 69.4%, 뜸치료 53.7% 순으로 이용함. 향후 정부의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에 참여의지 90.3%로 나타남

- 이은경, 이선동, 송애진, 윤진원, 최성용, 정명수(2014)는 ‘11년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대상자중 외래환자 3,889명으로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자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자는 비근골격계 질환자에 비해 고령의 저학력,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 만족도 및 치료효과 높다고 인식하여 다양한 치료방법 개발과 한방진료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대책이 요구됨
- 이우천, 최성용, 이선동(2014)는 2011년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대상 중 외래환자 3,695명을 대상으로 성별·지역별로 외래치료 질병 순위를 비교한 결과 남자는 요통, 근육부상, 허리뻐 순, 여자는 요통, 관절염, 근육부상 순임.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요통이 1순위이며 지역별 차이남
- 최병희, 손지형, 임병목 (2014)은 2009년 한국패널조사 대상자 중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자 4,643명 대상으로 하였음. 근골격계 질환자의 양방의료기관 이용 빈도는 한약치료 이용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 근골격계 질환자의 양방의료기관 이용 빈도는 한약 치료이용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음
- 최지연, 강성욱, 유창훈, 권영대(2015)는 2008~2009 한국의료패널자료(24,616명)를 이용하여 한방의학 또는 전통의학의 선택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화기계질환에 비해서 순환기계질환은 5배 이상, 신경계질환은 12배 이상, 근골격계질환은 20배 이상, 신생물은 0.2배 정도로 한방의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의약이 특정질환 특히 근골격계질환에 효과적이라고 인식함
- 윤진원, 최성용, 이선동(2015)은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30세 이상 1,729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기관 외래환자 중 비복합 및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의료급여여부, 진료비, 진료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이기범, 박영철, 이선동(2016)은 2011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

비 실태조사 자료의 한방의료기관 외래이용 환자 3,518명을 대상으로 부작용 및 독성발생의 특성을 인구학적 특성, 치료방법별, 질병 치료유무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외래진료비가 60만원 이상에서 4.2배, 진료만족도가 불만족인 경우는 약 4.8배, 암치료를 경험한 경우는 약 2.2배 이상 부작용발생을 보고할 확률이 높았음. 즉, 고학력자, 고비용을 지출하여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암치료환자가 한방치료의 부작용과 독성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음

- 김미경, 한창호(2017)는 한의중풍 진료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한의사 590명의 전자우편 설문조사한 결과 중풍환자의 경우 만성기가 32.4%로 가장 많고 회복기 20.5%, 급성기 11.2% 순이었으며, 주요 진찰방법은 한의학적 진찰과 의학적 방법을 병행하고 주요 치료 방법은 침과 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또한 중풍치료의 장점으로 건강강태가 52% 개선되었으나 단점으로 환자의 비용부담이 큰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급여 확대, 한의치료효과 홍보 및 중증질환 관리를 위한 한의보건정책 수립 순서로 답함

나. 한약소비

〈표 2-4〉 한약소비 관련 선행연구

저자명 (연도)	연구자료 및 대상자	N	연구 방법	주요변수	주요연구내용
신현규 (2000)	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와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	정책 제언	한약재 생산에 대한 연구개발, 품질규격화, 한약제제 관리	한약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방향(GMP, GSP), 한약제제관리 연구개발
조성진 (2004)	한약재 거래유통 및 형태조사	—	정책 제언	한약재 시장의 구성, 거래형태, 한약재 사이버시장, 거래단계 및 상대매매 단계	한약재선호도가 상승 함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구축
손상목 (2006)	청장년층 대상	401명	설문 조사	한약 이미지, 양약과 차이, 복용이유, 불편한점	청장년층 기호에 맞는 한약복용기술 개발 및 소비자 신뢰위한 개선 필요
이은경 (2007)	서울시 거주자	208명	설문 조사	한약복용실태, 소비자 인식, 만족도, 의향	약재규격화, 원산지 증명제 등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인증제 위한 시책마련 필요성 대두
장동민 (2007)	한방공공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	정책 제언	한방공공사업의 추진과정, 운영실태와 성과, 발전방안	사업개념과 접근전략의 정립, 사업추진기반의 지속적인 강화, 한방인력 교육 훈련
황대선 등 (2008)	한의사	150명	설문 조사	한의학 분업, 의료기사 지휘권 면허제도 통합, 직업 만족도	한의학전문의 적정비율, 한의학분업, 의료기사 지휘권 한의의사면허 통합 여부, 직업만족도 등
이채원 (2010)	한약재 관련 발행자료, 보고서, 법규정수집, 유통구조 조사	한약재 규격품 총 546종	문헌 고찰	한약재 제조업소만 한약재 규격품 생산 원칙 준수,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 한약재 GMP, GSP 제도 도입	한약재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 신현규(2000)은 한약을 의약품 조건에 맞추기 위한 3단계(한약재생산 단계, 의약품화단계, 의약품단계) 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있어 새로운 한약제제 생산허가기준 마련, 난치병 위주로 한약제제 재평가연구 실시, 한약제제의 연구개발과 생산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 한약제제 사용량 증가방안 마련을 제시할 것을 제안
- 조성진(2004)는 한약재 시장의 구성, 거래형태, 한약재 사이버 시장 거래단계 및 상대 매매단계 조사하여 한약재 선호도가 상승함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의 구축 조사함
- 손상목(2006)은 탕약 위주의 한약복용에 대한 젊은 소비자층의 반응을 파악하여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선진화된 한약의 형태를 예측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한 한약복용 의견 수렴과 각국의 한약시장현황 및 소비 형태 관련 문헌고찰로 한약 제형변화의 필요성을 도출함
- 이은경,정순희, 문은숙 (2007)은 한약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한약 인식파악과 향후 한약복용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을 통한 한약재의 안전관리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자료 제시함
- 황대선, 이경구, 신현규(2008)는 한방의료기관에 근무하는 한의사 150명 대상으로 한의사관련 정책현안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한의사 전문의 적정 비율이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48.3%가 응답하고 응답자 중 80.7%가 한의약분업을 반대하였고, 의료기사 지휘권이 필요하다는 98.7%가 찬성함. 해외진출에 72.3%가 부정적, 한의사와 의사면허 통합에는 57.7%가 찬성하고 직업만족도는 73.8%가 만족한다고 답변함
- 이채원(2010) 국내의 한약재 유통구조와 법규정 등을 조사하고 외국의 한약재 관리제도와 유통 실태를 조사하여 국내 한약재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제 3 장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관련 한의약 통계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1. 개요

- 합리적인 한방 의료정책을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현재 한방급여항목에 대한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해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 전체 건강보험 재정(약국 제외) 36조 3,491억원 중 한방의료(의과의 한방의료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2조 2,119억원에서 2016년 2조 4,206억원으로 증가함
 - 전체 건강보험 재정 중 한방건강보험 6.7% 차지
 - 급여확대 노력은 인지되나 실제 변화는 체감되지 않는 실정임
- 본 분석에서는 한방의료 이용행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전국민의 실질적인 한방의료 이용양상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청구자료의 한방의료이용의 실질적인 이용행태 추이를 파악하고자 함
- 또한 3년 주기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전 국민의 실질적인 한방의료이용이 반영된 ‘13년부터 ‘16년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한방의료 이용행태를 세부적으로 파악 및 통계지표 산출을 통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이 분석함
- 한편, 2014년도 실태조사에서 한약재 생산판매업체의 한약구매량을 조사한 것과 달리 2017년도 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부문과 조제·판매부문의 한약소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한약의 전체 유통단계 중 생산부문에 해당되는 한약재의 생산·수입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개년 한약재 수입 현황통계를 수록함

○ 한의학 건강보험 정책 추이

- 1984년 시범사업 이후 1987년 2월부터 전국 2,786개 의료기관(한의원)에 확대되었고, 1996년부터 산재보험, 1999년부터 자동차보험에 한방급여가 적용되고 있음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2008년을 전후해서 한의학 건강보험 정책변화는 <표 3-1>과 같음

<표 3-1> 한의학 건강보험 정책 변화

구분	주요 내용
200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의 첩약 및 탕전료가 건설교통부 고시로 등재 - 정율제 시행(65세 미만 총진료비용 중 30% 본인부담금으로 부담 등) - 유형별 환산지수 건강보험 공단 계약체결
20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상대가치점수제 적용 - 2차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체결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사인분류 한의 3차 개정안 고시(2010.1.1.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의과의 질병 분류(KCD)를 수용하면서 한의고유상병(U코드 306개) 신설 · 12월 경근온열용법 등 한방물리요법 3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 실시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별 적용상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술별 적용 상병 기준이 삭제됨 · 한방물리요법의 급여 적용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원 외래 본인부담기준 및 본인부담액 제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노인 본인부담금 개선으로 한약제제 투여시 정액제 상한선(20,000원) 상향 조정 · 한국표준사인분류(한의) 3차 개정판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통합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한의계 전문가 2인 참여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재료 급여 별도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시술시 자락관법 실시 일회용 부항컵 · 복합상병에 대한 1일 2처방 인정, 자락관법 동일상병 인정 등 건강보험급여 심사기준의 개선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한의계 위원 위촉 · 첩약 및 탕전료 수가를 약 37.4%(1첩당 6,690원) 인상
20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실손보험 부활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출범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자료: 1) 조재국, 2011/ 임병목, 2012

2)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 2014 제2권 제2호

2. 분석방법

가. 분석자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한방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일부 정부·공공기관 발간 통계연보(건강보험통계연보,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진료비 통계지표 등)를 참고하여 분석·정리하였음

〈표 3-2〉 연구자료 개요

구분	건강보험
요양개시일*	2013.1 ~ 2016.12
심사년월**	2013.1 ~ 2016.06
입원/외래구분	전체(외래, 입원)
청구형태	서면, 디스켓,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보험자	건강보험, 의료급여
서식구분	보건기관입원한방, 보건기관외래한방, 한방입원, 한방외래
지급구분	지급
청구구분	전체(일반청구, 분리청구 등)
종별***	전체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

Note : * 실제 진료가 발생한 진료일

** 청구된 진료내역에 대한 심사일(일반적으로 진료일 후 청구 및 심사기간을 6개월로 산정함)

*** 한방의료 이용 현황에서는 한방진료를 주 진료로 하는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분석함

나. 분석내용

- 환자 한방의료 이용 실적, 연도별 추이, 지역별 이용 현황, 진료비 구조, 한방 다빈도 상병 등을 분석함
- 자동차보험 청구자료에서 한방의료 이용비율을 분석함

〈표 3-3〉 주요 분석 내용

구분	변수
환자의 한방의료 이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구분, 입원/외래 구분 - 청구건,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공단부담 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비용),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본인부담비율
성별, 연령별 한방의료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성별, 연령(소아/성인/노인) - 구성비,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역별 한방의료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지역, 입원/외래 구분 - 한의사 수, 청구건,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내원일당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한방 진료내역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병원구분, 진료세부항목 - 5대 항목의 청구건, 실환자수, 청구량, 세부항목별 진료비
한방 다빈도 상병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 입원/외래, 연령, 상병분류 등 - 청구건, 내원일수, 실환자수, 진료비, 내원일수
동일상병 양·한방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양방 구분, 상병 구분 - 청구건, 진료비, 건당진료비, 내원일수 등
한방건강보험 약제 처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구분, 약제구분(56종 혼합엑스산제/ 67종 단미엑스산제), 노인(65세 이상)구분 - 약제비, 투약일수
한방의료급여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구분, 입원/외래구분 - 청구건, 실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본인부담비율
자동차보험 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청구건수 -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

- 한방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에서 정리·분석한 데이터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는 <표 3-4>와 같음

<표 3-4>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방건강보험 현황)

1) 한방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용 현황

- 4개 요양기관 계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총칭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입원한방(073), 한방입원(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외래한방(083), 한방외래(131)
- 청구건수 :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청구명세서 중 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한 후 보험자가 지급하는 건수(명세서 건수)
- 실환자수 : 건강보험 가입자중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수진자수)로 중복이 없음. 실환자수이기 때문에 입원/ 외래 실환자수들의 합이 전체 실환자수와 다르고, 요양기관 실환자수들의 합이 전체 실환자수와 다름
- 내원일수 : 진료비 청구 명세서상에 기재된 수급권자가 실제로 의료급여기관에 방문 또는 입원한 일수
-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심사 결정된 금액(공단부담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비용)
- 구성비 : 해당 요양기관 값/전체 요양기관 값*100
- 전년 대비 증가율 : (당년-전년)/전년*100

2) 성별, 연령별 분류에 따른 한방건강보험의 이용 현황

- 전체 요양기관 : 요양기관 구분이 없이 전체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으로 분석함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입원한방(073), 한방입원(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외래한방(083), 한방외래(131)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
- 실환자수 : 진료 연월일에 따라 연령 범주 간에 중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 실환자수들의 합이 전체 실환자수와 다를 수 있음.
- 연령별 실환자수 구성비 : 연령군 실환자수/해당 연도 실환자수*100
- 연령별 구성비 : 각 연령군 값/해당 연도 값*100
- 성별 실환자수 구성비 : 성별군 실환자수/해당 연도 실환자수*100
- 성별 구성비 : 각 성별군 값/해당 연도 값*100

3) 지역별 분류에 따른 한방건강보험의 이용 현황

- 전체 요양기관 : 요양기관 구분 없이 전체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으로 분석함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입원한방(073), 한방입원(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외래한방(083), 한방외래(131)
 - 실환자수 : 건강보험 가입자중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수진자수)로 중복이 없음. 실환자수이므로 지역별 실환자수의 합이 전체 실환자수와 다름
-

제2절. 국민건강보험상 한방의료 이용실태 분석

1. 한방의료이용의 전체 현황

○ 2016년 한방과 의과 의료기관 수는 한방은 14,150개 의과는 33,575개로 한방 대비 의과 의료기관이 2.4배 많았음

- 한방병원은 282개, 한의원은 13,868개

- 한의사 수 19,737명, 의사 수는 123,512명으로 한의사 대비 의사 수는 6.3배 많았음

〈표 3-5〉 의과 및 한방 건강보험의 현황

(단위: 천원, %)

구분(단위)	한방					의과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2016
건강보험 적용인구(명)	49,989,620	50,316,384	50,490,157	50,763,283	0.5	50,763,283
소계(개)	13,312	13,654	13,873	14,150	2.1	33,575
상급종합병원(기관)	—	—	—	—	—	43
종합병원(기관)	—	—	—	—	—	298
한방병원(기관)	212	231	260	282	10.0	2,942
한의원(기관)	13,100	13,423	13,613	13,868	1.9	30,292
한의사 수(명)	18,199	18,767	19,246	19,737	2.7	123,512
청 구 건 수 (건,%)	101,126,086 7.6%+	104,457,391 7.7%+	102,611,566 7.6%+	103,267,644 7.4%+	0.7	717,373,476 51.3%+
내 원 일 수 (일,%)	103,259,945 7.0%+	106,759,913 7.2%+	105,162,434 7.1%+	106,006,557 7.0%+	0.9	893,738,361 58.6%+
총 진료비 (천원,%)	2,108,963,913 4.2%+	2,272,416,018 4.2%+	2,321,029,190 4.0%+	2,420,551,472 3.7%+	4.7	36,349,097,162 56.2%+
한의원 건당 진료비(천원)	20,855	20,323	20,807	21,295	0.7	23,927
내원 1일당 진료비(원)	20,424	20,286	20,768	21,257	1.3	23,634

Note: 1) 진료비(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급여비용+환자본인부담비용

2) + 해당지표/해당지표의 총계(약국포함)

3) 의과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포함), 의원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한방 건강보험의 5대 진료항목 비용은 시술 및 처치료가 52.9%, 진찰료 35.3%, 입원료 4.0%, 투약료 1.6%, 검사료 0.1%이었음
- 2013년 대비 투약료는 5.2% 증가하였고, 검사료는 비용의 비중은 적으나 4.2%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의과는 진찰료 20.9%, 시술 및 처치료 18.6%, 입원료 12.1%, 검사료 12.9%, 주사료 8.3%,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4.5%, 이학요법, 투약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순임

〈표 3-6〉 의과 및 한방 건강보험의 현황(5대 항목 급여비)

(단위: 천원, %)

구분		한방					의과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2016
5 대 항 목 급 여 비	진찰료	783,754,317 37.2	835,080,417 36.7	831,585,655 35.8	857,658,422 35.4	3.0	10,019,859,707 20.90
	입원료	90,568,448 4.3	69,473,333 3.2	86,822,482 3.7	94,112,920 3.9	2.0	5,775,934,457 12.05
	투약료	33,940,419 1.6	33,887,057 1.5	35,078,230 1.5	38,636,911 1.6	5.2	1,377,962,087 2.87
	시술및처 치료	1,197,374,122 56.8	1,255,545,089 55.2	1,275,545,089 55.2	1,323,548,427 54.7	2.3	8,932,765,549 18.63
	검사료	3,326,608 0.2	3,198,715 0.1	3,010,068 0.1	2,929,564 0.1	-4.1	6,197,239,454 12.93
	주사료	-	-	-	-	-	3,965,064,552 8.27
	마취료	-	-	-	-	-	1,205,609,806 2.51
	이학요법료	-	-	-	-	-	1,421,293,842 2.96
	정신요법료	-	-	-	-	-	368,715,169 0.77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	-	-	-	2,168,203,012 4.52

Note: 1) 2010-2015년 건강심사평가원 의료정보관리부 자료는 기본진료비(진찰료, 입원료, 식대), 시술 및 처치료(시술료, 처치료, 정신요법료, 온냉경락요법료), 검사료, 조제료, 약품비, 재료대, 기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2016년 전산 청구기관의 진료실적을 토대로 추정함(약국 실적 제외)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 2016년 한방 입원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의 9.1%이며, 전체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61.9%로 2013년 3.8%에 비해 58.1%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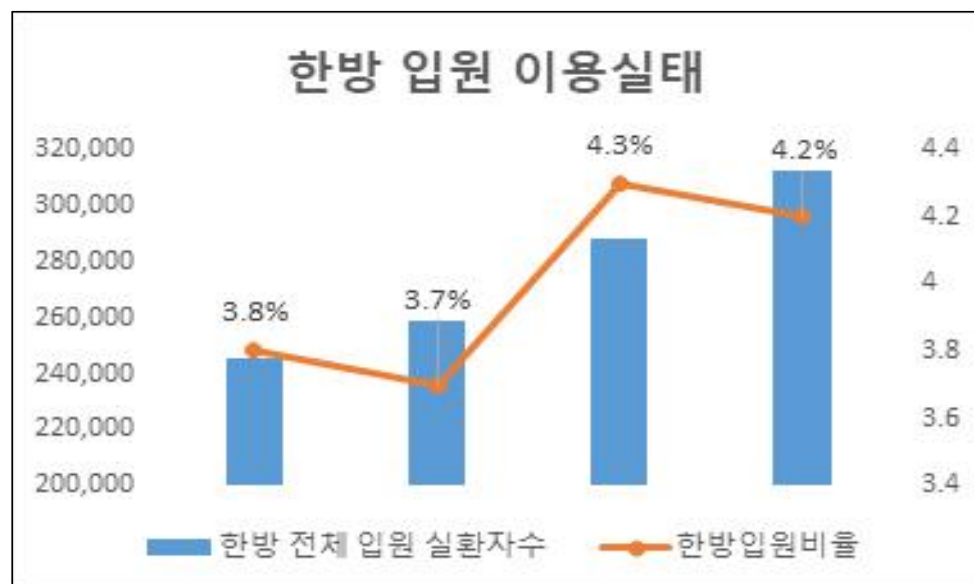
〈표 3-7〉 한방 입원 이용률

(단위: 명, %)

연 도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체 입원 실환자수(A)		한방 전체 입원 실환자수(B)		한방 요양기관 입원 실환자수(C)		한방 입원 비율(B/A)
	인구	구성 비	실환자수	구성 비	실환자수	구성 비	실환자수	구성 비	
2013	49,989,620	100.0	6,499,000	13.0	245,542	0.5	229,785	0.5	3.8
2014	50,316,384	100.0	6,944,196	13.8	259,080	0.5	138,967	0.3	3.7
2015	50,490,157	100.0	6,656,312	13.2	288,541	0.6	150,266	0.3	4.3
2016	50,763,283	100.0	7,430,940	14.6	312,258	0.6	160,936	0.3	4.2

Note : 1) 한방 전체 입원 실환자수: 전체 요양기관에서 한방 입원 실환자수(의과병원의 한방진료 포함)
 2) 한방 요양기관 입원 실환자수: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보건기관에서 한방 입원 실환자수
 3) 구성비 = 실환자수/ 건강보험적용인구
 4) 한방 입원 비율: 전체 입원 환자 중 한방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한방 전체 입원 실환자수/ 전체 입원 실환자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 한방 입원 이용률

- 2016년 한방 외래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전체 건강보험적용인구의 64.2%이며, 전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의 68.6%로 2013년 27.2%에 비해 41.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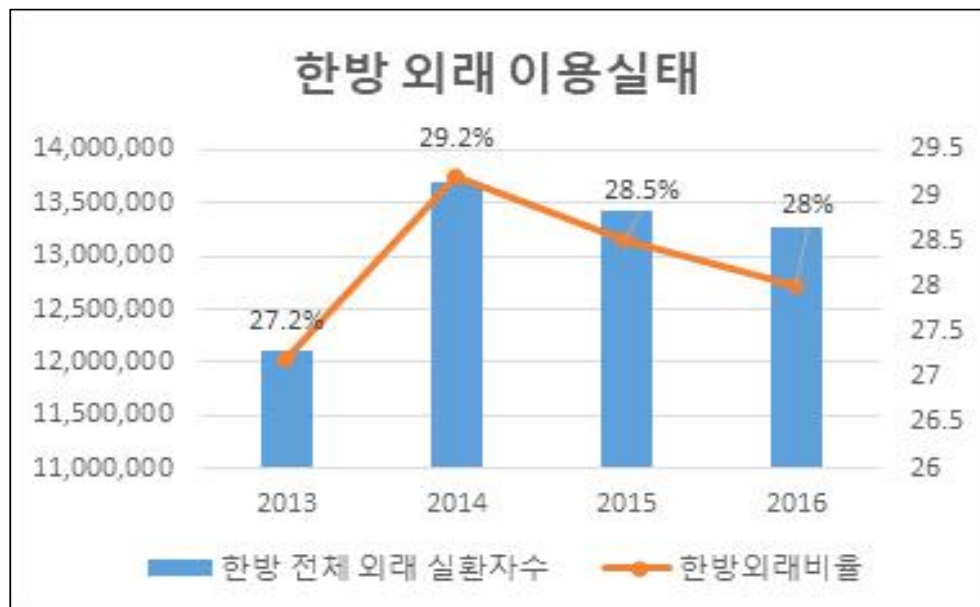
〈표 3-8〉 한방 외래 이용률

(단위: 명, %)

연도	건강보험 적용인구		전체 외래 실환자수(A)		한방 전체 외래 실환자수(B)		한방 요양기관 외래 실환자수(C)		한방 외래 비율(B/A)
	인구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2013	49,989,620	100.0	48,121,000	96.3	12,100,872	26.2	13,080,085	26.2	27.2
2014	50,316,384	100.0	46,939,249	93.3	13,699,564	27.2	16,357,922	32.5	29.2
2015	50,490,157	100.0	47,103,138	93.3	13,428,143	26.6	15,964,222	31.6	28.5
2016	50,763,283	100.0	47,458,069	93.5	13,277,982	26.2	11,630,226	22.9	28.0

Note : 1) 한방 전체 입원 실환자수: 전체 요양기관에서 한방 입원 실환자수(의과병원의 한방진료 포함)
 2) 한방 요양기관 입원 실환자수: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기관, 보건기관에서 한방 입원 실환자수
 3) 구성비 = 실환자수 / 건강보험적용인구
 4) 한방 입원 비율: 전체 입원 환자 중 한방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한방 전체 입원 실환자수 / 전체 입원 실환자수)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2] 한방 외래 이용률

2. 한방건강보험청구자료 분석

가.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1) 한방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이용 현황

가) 한방건강보험 청구건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건강보험 청구는 연평균 0.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의원의 청구건수가 90%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입원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11.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방병원은 연평균 10.8%, 요양병원은 연평균 12.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외래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0.2%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원을 제외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 각각 -1.6%, -8.7%, -4.8%로 감소함

· 외래의 청구건수 중 유일하게 한의원만 연평균 0.4% 증가하였음

〈표 3-9〉 건강보험 청구건 변화 추이

(단위: 건,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청구건	전년 대비 증가율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전 체	2013	104,085,419	6.3	100.0	3,221,220	3.1	98,228,546	94.4	1,006,644	1.0	1,629,009	1.6
	2014	107,062,256	2.9	100.0	3,155,296	2.9	101,122,411	94.5	1,137,263	1.1	1,647,286	1.5
	2015	104,734,452	-2.2	100.0	3,057,101	2.9	99,020,982	94.5	1,153,226	1.1	1,503,143	1.4
	2016	105,189,465	0.4	100.0	3,132,577	3.0	99,447,001	94.5	1,204,311	1.1	1,405,576	1.3
	연평균 증가율	0.4			-0.9		0.4		6.2		-4.8	
입 원	2013	860,839	23.2	100.0	164,699	19.1	16,999	2.0	679,141	78.9	—	
	2014	990,028	15.0	100.0	179,436	18.1	19,979	2.0	790,613	79.9		
	2015	1,094,178	10.5	100.0	202,153	18.5	19,142	1.7	872,883	79.8		
	2016	1,199,147	9.6	100.0	224,179	18.7	19,676	1.6	955,292	79.7		
	연평균 증가율	11.7			10.8		5.0		12.0			
외 래	2013	103,224,580	6.2	100.0	3,056,521	3	98,211,547	95.1	327,503	0.3	1,629,009	1.6
	2014	106,072,228	2.8	100.0	2,975,860	2.8	101,102,432	95.3	346,650	0.3	1,647,286	1.6
	2015	103,640,274	-2.3	100.0	2,854,948	2.8	99,001,840	95.5	280,343	0.3	1,503,143	1.5
	2016	103,990,318	0.3	100.0	2,908,398	2.8	99,427,325	95.6	249,019	0.2	1,405,576	1.4
	연평균 증가율	0.2			-1.6		0.4		-8.7		-4.8	

Note :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한방진료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나) 한방건강보험 이용 실환자수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환자의 연평균증가율은 0.8%이고, 2016년 기준 한의원 91.9%, 한방병원 5.0%, 보건기관 1.6%, 요양병원 1.5% 순이었음
- 입원 환자의 연평균증가율은 10.8%이고 요양병원의 입원환자가 약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평균 9.5% 증가율을 보임
 - 한방병원의 입원환자가 연평균 11.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외래 환자의 연평균증가율은 0.5%이고 90% 이상이 한의원을 이용하고 있음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모두 외래 환자가 줄어들고 있음

〈표 3-10〉 한방건강보험 이용 실환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환자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환자수	구성비
전 체	2013	13,214,484	3.0	100.0	663,783	5.0	12,618,490	95.5	181,525	1.4	251,299	1.9
	2014	13,906,536	5.2	100.0	653,876	4.7	12,802,828	92.1	199,758	1.4	250,074	1.8
	2015	13,661,513	-1.8	100.0	662,342	4.8	12,569,410	92.0	199,510	1.5	230,251	1.7
	2016	13,532,564	-0.9	100.0	678,145	5.0	12,438,089	91.9	204,454	1.5	211,876	1.6
	연평균 증감률	0.8			0.7		-0.5		4.0		-5.5	
입 원	2013	229,785	16.3	100.0	101,449	44.2	10,669	4.6	122,629	53.4	—	
	2014	259,080	12.7	100.0	108,069	41.7	12,044	4.6	138,967	53.6		
	2015	288,541	11.4	100.0	126,262	43.8	12,013	4.2	150,266	52.1		
	2016	312,258	8.2	100.0	139,691	44.7	11,631	3.7	160,936	51.5		
	연평균 증감률	10.8			11.3		2.9		9.5			
외 래	2013	13,080,085	2.9	100.0	604,984	4.6	12,613,875	96.4	60,840	0.5	251,299	1.9
	2014	13,699,564	4.7	100.0	589,104	4.3	12,797,567	93.4	62,819	0.5	250,074	1.8
	2015	13,428,143	-2.0	100.0	583,008	4.3	12,564,043	93.6	50,841	0.4	230,251	1.7
	2016	13,277,982	-1.1	100.0	588,109	4.4	12,433,148	93.6	44,849	0.3	211,876	1.6
	연평균 증감률	0.5			-0.9		-0.5		-9.7		-5.5	

Note : 1) 요양기관 구분에 따라 중복된 환자 포함

2) 전체 한방 진료 실환자수는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실환자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한방 진료를 포함

다) 한방건강보험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건강보험 이용 전체 내원일수는 연평균 증가율이 0.5%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의원이 90%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 입원의 내원일수는 연평균증가율이 9.1%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방병원의 입원 내원일수는 연평균 10.3%로 증가하고 있음
- 요양병원의 입원 내원일수의 연평균증가율은 -28.9%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요양병원 환자의 45%는 한방·의과 협의 진찰을 시행함에 따라 협의진료 시 내원일수는 산정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따라서 요양병원의 내원일수¹⁰⁾는 해석시 특히 유의해야 함
- 외래의 내원일수는 연평균증가율이 0.2%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연평균 0.4%로 증가하는 한의원을 제외하면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모두 -1.6%, -8.7%, -4.8%로 감소하고 있음

10) 요양급여일수 산정 지침: 협의진료 관련 요양급여일수만 기재하되, 실제 입원한 진료과의 요양급여일수와 중복되는 기간은 산정하지 않음(실제 입원한 진료과 요양급여일수와 중복시 '0'으로 산정)(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14), 심평원)

<표 3-11> 한방건강보험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

(단위: 일,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전체	2013	105,614,162	6.4	100.0	5,212,486	4.9	98,389,571	93.2	383,096	0.4	1,629,009	1.5	
	2014	108,726,379	2.9	100.0	5,369,380	4.9	101,316,259	93.2	393,454	0.4	1,647,286	1.5	
	2015	106,520,780	-2.0	100.0	5,508,934	5.2	99,200,266	93.1	308,437	0.3	1,503,143	1.4	
	2016	107,097,529	0.5	100.0	5,800,787	5.4	99,622,139	93.0	269,027	0.3	1,405,576	1.3	
	연평균 증감률	0.5			3.6		0.4		-11.1		-4.8		
입원	2013	2,389,609	15.4	100.0	2,155,966	90.2	178,039	7.5	55,604	2.3	—		
	2014	2,658,419	11.2	100.0	2,393,524	90.0	216,244	8.1	48,651	1.8			
	2015	2,881,281	8.4	100.0	2,653,997	92.1	198,492	6.9	28,792	1.0			
	2016	3,107,334	7.8	100.0	2,892,408	93.1	194,900	6.3	20,026	0.6			
	연평균 증감률	9.1			10.3		3.1		-28.9				
외래	2013	103,224,553	6.2	100.0	3,056,520	3.0	98,211,532	95.1	327,492	0.3	1,629,009	1.6	
	2014	106,067,960	2.8	100.0	2,975,856	2.8	101,100,015	95.3	344,803	0.3	1,647,286	1.6	
	2015	103,639,499	-2.3	100.0	2,854,937	2.8	99,001,774	95.5	279,645	0.3	1,503,143	1.5	
	2016	103,990,195	0.3	100.0	2,908,379	2.8	99,427,239	95.6	249,001	0.2	1,405,576	1.4	
	연평균 증감률	0.2			-1.6		0.4		-8.7		-4.8		

Note : 1)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2)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한방 진료를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라) 한방건강보험 이용 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건강보험 진료비는 2013년 2조 2,016억원에서 2016년 2조 5,143억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으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음(한의원 약 84.4%, 한방병원 약 10.9%)
 - 입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8%(2016년 기준 3,056억원)로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63.8%, 요양병원 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92%(2016년 기준 2조 2,086억원)로 연평균증가율3.3%이며 한의원의 외래 진료비가 95%이상을 차지함

〈표 3-12〉 한방건강보험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감률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전체	2013	2,201,615	10.6	100	189,456	8.6	1,924,989	87.4	77,013	3.5	10,157	0.5
	2014	2,368,689	7.6	100	208,554	8.8	2,059,983	87.0	89,738	3.8	10,414	0.4
	2015	2,413,056	1.9	100	240,104	10.0	2,064,758	85.6	98,309	4.1	9,885	0.4
	2016	2,514,313	4.2	100	274,179	10.9	2,122,823	84.4	107,841	4.3	9,470	0.4
	연평균 증감률	4.5			13.1		3.3		11.9		-2.3	
입원	2013	198,690	21.3	100	121,470	61.1	6,642	3.3	70,577	35.5	—	
	2014	229,286	15.4	100	138,566	60.4	7,987	3.5	82,733	36.1		
	2015	267,577	16.7	100	167,472	62.6	7,650	2.9	92,455	34.6		
	2016	305,664	14.2	100	195,148	63.8	7,860	2.6	102,656	33.6		
	연평균 증감률	15.4			17.1		5.8		13.3			
외래	2013	2,002,926	9.6	100	67,987	3.4	1,918,347	95.8	6,435	0.3	10,157	0.5
	2014	2,139,403	6.8	100	69,987	3.3	2,051,996	95.9	7,006	0.3	10,414	0.5
	2015	2,145,479	0.3	100	72,632	3.4	2,057,108	95.9	5,854	0.3	9,885	0.5
	2016	2,208,647	2.9	100	79,031	3.6	2,114,962	95.8	5,184	0.2	9,470	0.4
	연평균 증감률	3.3			5.1		3.3		-7.0		-2.3	

Note : 1)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2)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한방진료를 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마) 한방건강보험 환자당 내원일수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한방건강보험 이용 환자당 내원일수는 약 8일로 유지하고 있음

- 입원환자당 내원일수는 2013년 10.4일에서 2016년 10.0일로 연평균 1.5% 감소하였으며, 2016년 기준 한방병원의 입원환자당 내원일수가 20.7일로 가장 길었으며 한의원이 16.8일로 그 다음으로 길었음
- 외래환자당 내원일수는 2016년 기준으로 7.8일이며, 한방병원이 4.9일로 가장 짧았으며 연평균 1.0%로 계속 짧아지는 추세임

〈표 3-13〉 한방건강보험의 환자당 내원일수 변화 추이

(단위: 일, %)

구분	연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환자당 내원일수	환자당 내원일수	환자당 내원일수	환자당 내원일수	환자당 내원일수
전체	2013	8.0	7.9	7.8	2.1	6.5
	2014	7.8	8.2	7.9	2.0	6.6
	2015	7.8	8.3	7.9	1.5	6.5
	2016	7.9	8.6	8.0	1.3	6.6
	연평균 증가율	-0.4	2.7	0.9	-14.4	0.7
입원	2013	10.4	21.3	16.7	0.5	—
	2014	10.3	22.1	18.0	0.4	
	2015	10.0	21.0	16.5	0.2	
	2016	10.0	20.7	16.8	0.1	
	연평균 증가율	-1.5	-0.9	0.1	-37.1	
외래	2013	7.8	5.1	7.8	5.4	6.5
	2014	7.7	5.1	7.9	5.5	6.6
	2015	7.7	4.9	7.9	5.5	6.5
	2016	7.8	4.9	8.0	5.6	6.6
	연평균 증가율	0.1	-1.0	0.8	0.9	0.7

Note : 1) 환자당 내원일수 = 내원일수/실환자수

2)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한방 진료를 포함

3)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바) 한방건강보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요양기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연평균 4.0%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20,846원에서 2016년 23,477원으로 증가하였음
 - 입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83,147원에서 2016년 98,369원으로 올랐으며, 2016년 기준 한방병원은 67,469원, 한의원은 40,328원임
 - 외래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19,404원에서 2016년 21,239원으로 올랐으며 2016년 기준 한방병원의 내원일당 진료비가 27,174원으로 가장 높았음
- 2016년 요양병원의 입원 내원일당 진료비는 연평균 59.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한방·의과 협의 진찰 시 내원일수가 산정되지 않음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3-14〉 한방건강보험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원, %)

구분	연도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	한방병원 내원일당 진료비	한의원 내원일당 진료비	요양병원 내원일당 진료비	보건기관 내원일당 진료비
전체	2013	20,846	36,347	19,565	201,027	6,235
	2014	21,786	38,841	20,332	228,077	6,322
	2015	22,653	43,584	20,814	318,733	6,576
	2016	23,477	47,266	21,309	400,856	6,737
	연평균 증가율	4.0	9.2	2.9	25.9	2.6
입원	2013	83,147	56,341	37,309	1,269,286	—
	2014	86,249	57,892	36,935	1,700,541	
	2015	92,867	63,102	38,541	3,211,135	
	2016	98,369	67,469	40,328	5,126,136	
	연평균 증가율	5.8	6.2	2.6	59.2	
외래	2013	19,404	22,243	19,533	19,650	6,235
	2014	20,170	23,518	20,297	20,319	6,322
	2015	20,701	25,441	20,778	20,934	6,576
	2016	21,239	27,174	21,271	20,819	6,737
	연평균 증가율	3.1	6.9	2.9	1.9	2.6

Note : 1) 내원일당 진료비 = 진료비/내원일수

2)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3)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4) 요양병원 협진 시 내원일수를 산정하지 않으므로 내원일당 진료비 해석 시 유의해야 함

사) 한방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 변화 추이(2013~2016)

- 한방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23% 입원을 유지하고 있음
- 한방병원에서의 본인부담비율이 한의원, 요양병원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15> 한방건강보험의 본인부담비율 변화 추이

(단위: 원, %)

구분	연도	입원			외래		
		건당 본인부담비용	내원일당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 비율	건당 본인부담비용	내원일당 본인부담비용	본인부담 비율
전체	2013	52,894	19,070	22.9	4,868	4,868	24.8
	2014	52,933	19,713	22.9	4,695	4,695	24.4
	2015	55,773	21,180	22.8	5,065	5,065	24.5
	2016	58,568	22,602	23.0	5,219	5,219	24.6
	연평균 증가율	3.5	5.8	0.1	2.3	2.3	-0.3
한방 병원	2013	185,508	14,183	25.2	8,656	8,656	38.9
	2014	192,743	14,449	25.0	866	866	38.8
	2015	204,812	15,600	24.7	9,861	9,861	38.8
	2016	216,852	16,807	24.9	10,507	10,507	38.7
	연평균 증가율	5.3	5.8	-0.4	6.7	6.7	-0.2
한의원	2013	92,126	8,829	23.7	4,742	4,742	24.3
	2014	91,725	8,475	22.9	4,850	4,850	23.9
	2015	94,008	9,066	23.5	4,972	4,972	23.9
	2016	95,286	9,620	23.9	5,109	5,109	24.0
	연평균 증가율	1.1	2.9	0.3	2.5	2.5	-0.4
요양 병원	2013	241,384	19,748	19.0	7,195	7,196	36.6
	2014	20,221	328,606	19.3	7,438	7,478	36.8
	2015	20,418	618,997	19.3	7,651	7,670	36.6
	2016	20,667	985,880	19.2	7,607	7,608	36.5
	연평균 증가율	-55.9	268.2	0.3	1.9	1.9	-0.1

Note : 1) 건당 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청구건
 2) 내원일당 본인부담비용 = 본인부담비용/내원일수
 3) 본인부담비율 = 본인부담비용/진료비*100

나. 성별·연령별 분류에 따른 한방건강보험의 이용 현황

1) 소아·성인·노인 실환자수 구성비

- 전체 실환자수는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0~9세 환자들이 가장 적었음
 - 2016년 기준 40~64세 47.6%, 20~39세 23.7%, 65세 이상 21.1%, 10~19세 4.7%, 0~9세 3.4% 순이었음
- 입원 실환자수는 65세 이상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0~9세 환자들이 가장 적었음
 - 2016년 기준 65세 이상 52.9%, 40~64세 38.9%, 20~39세 13.5%, 10~19세 1.6%, 0~9세 0.2% 순이었음
- 외래 실환자수는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0~9세 환자들이 가장 적었음
 - 2016년 기준 40~64세 48.1%, 20~39세 24.0%, 65세 이상 20.5%, 10~19세 4.8%, 0~9세 3.5%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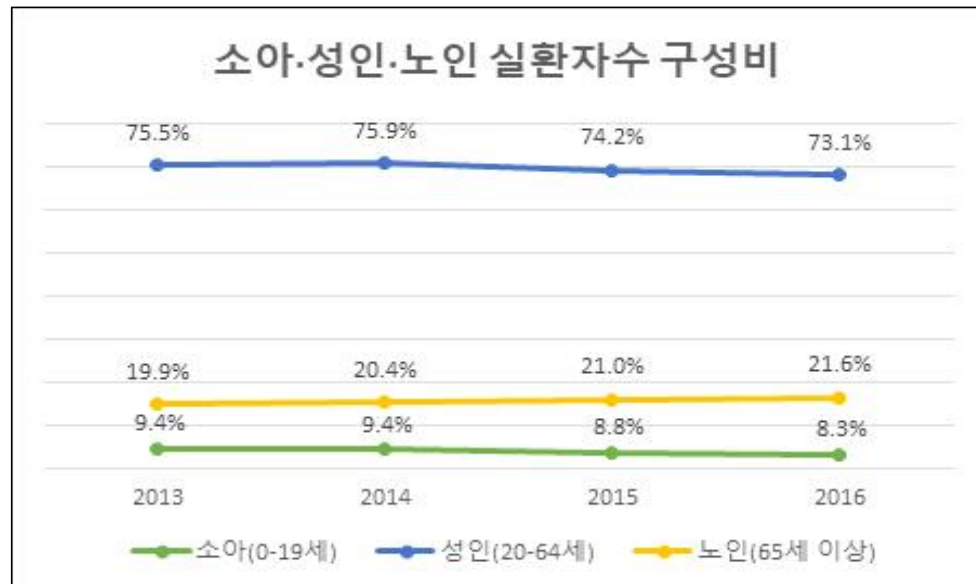
<표 3-16> 소아·성인·노인 실환자수 구성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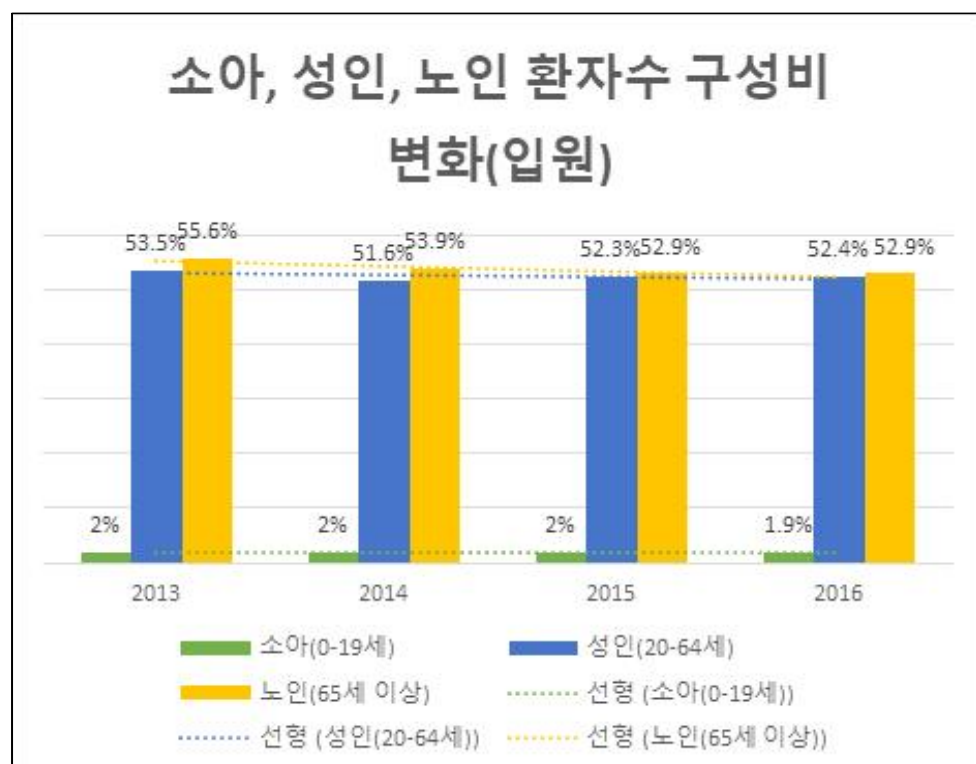
구분		0-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전체	2013	485	3.5	763	5.5	3,495	25.2	6,475	46.8	2,631	19.0
	2014	485	3.5	752	5.4	3,492	25.1	6,532	47.0	2,693	19.4
	2015	467	3.4	696	5.1	3,331	24.4	6,473	47.4	2,769	20.3
	2016	461	3.4	641	4.7	3,213	23.7	6,446	47.6	2,851	21.1
입원	2013	0.5	0.3	4.1	1.6	31.8	12.4	91.2	35.7	127.9	50.0
	2014	0.9	0.3	4.4	1.7	33.2	12.8	100.4	38.8	139.6	53.9
	2015	0.8	0.3	5.1	1.8	38.1	13.2	113.0	39.2	152.8	53.0
	2016	0.7	0.2	5.1	1.6	42.0	13.5	121.5	38.9	165.2	52.9
외래	2013	484	3.5	761	5.6	3,481	25.4	6,435	47.0	2,536	18.5
	2014	485	3.5	750	5.5	3,476	25.4	6,485	47.3	2,587	18.9
	2015	466	3.5	693	5.2	3,311	24.7	6,419	47.8	2,651	19.7
	2016	461	3.5	638	4.8	3,191	24.0	6,387	48.1	2,723	20.5

Note : 1)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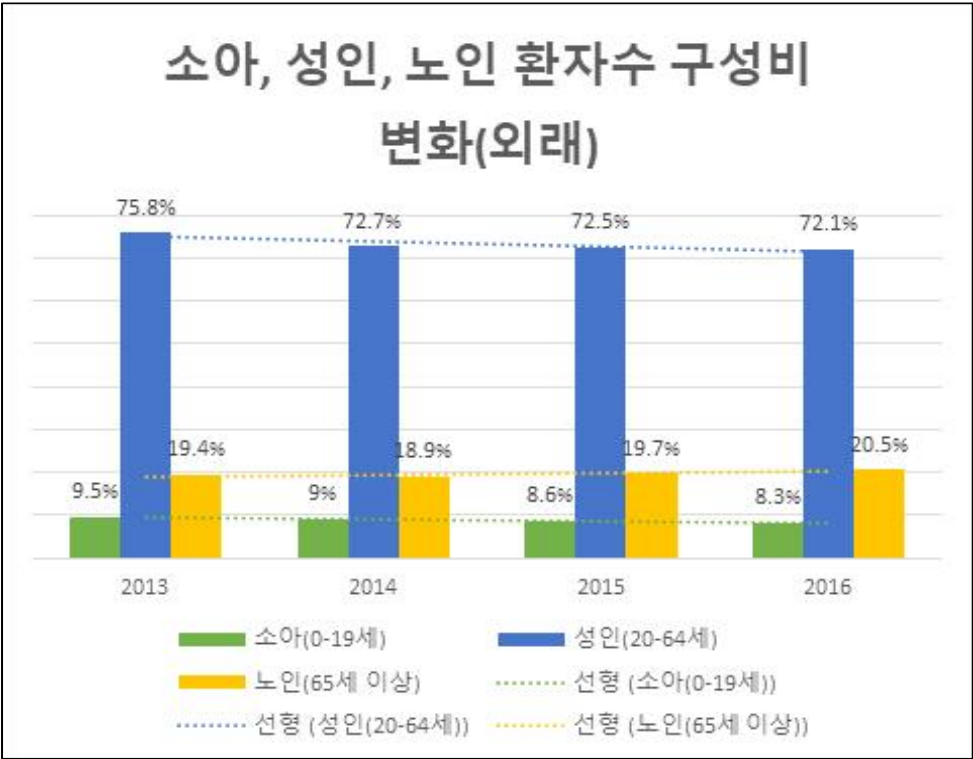
2) 구성비 = 해당연도 연령별 실환자수/해당연도 실환자수



[그림 3-3]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단위:%)



[그림 3-4] 입원별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변화 (단위:%)



[그림 3-5] 외래별 소아·성인·노인 환자수 구성비 변화 (단위:%)

2) 성별 실환자수 구성비

- 전체 실환자수의 여자 구성비는 약 60%로 남자 구성비 약 40%보다 더 많았음
- 입원 실환자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65.9%, 남자는 34.1%였음
- 외래 실환자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57.2%, 남자는 42.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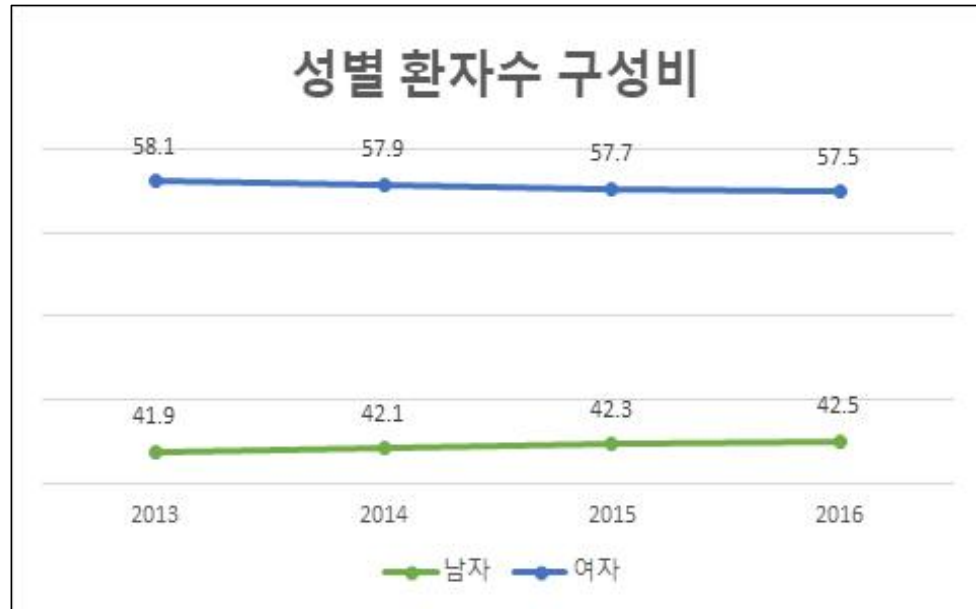
〈표 3-17〉 성별 실환자수 구성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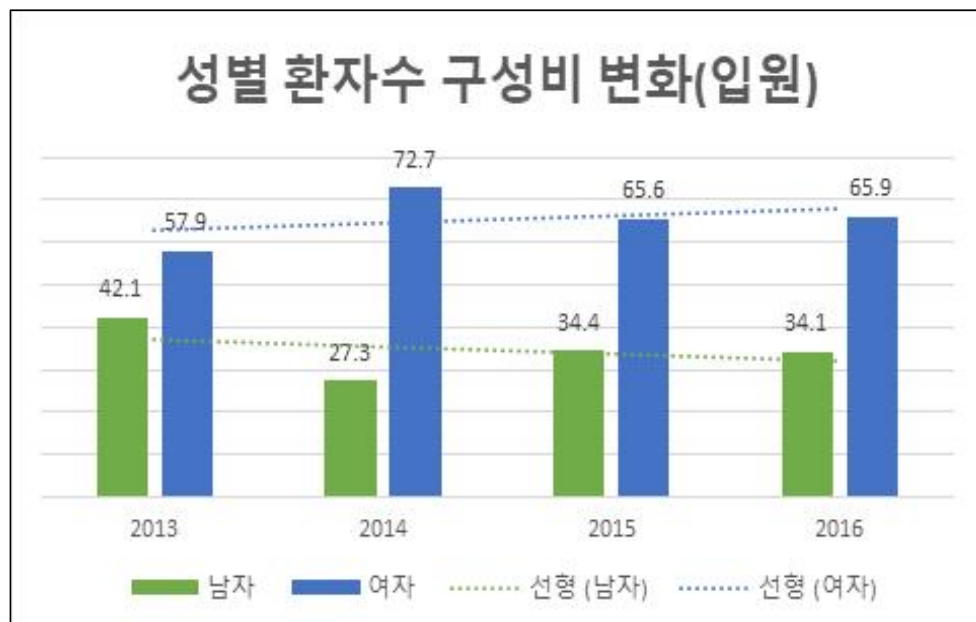
구분		남자		여자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전체	2013	5,848,667	41.9	8,103,565	58.1
	2014	5,859,556	42.1	8,094,960	57.9
	2015	5,785,027	42.3	7,950,628	57.7
	2016	5,748,269	42.5	7,863,819	57.5
입원	2013	83,744	42.1	171,963	57.9
	2014	89,976	27.3	188,450	72.7
	2015	99,185	34.4	210,547	65.6
	2016	106,513	34.1	227,896	65.9
외래	2013	5,764,923	32.8	7,931,602	67.2
	2014	5,802,770	42.4	7,980,247	57.6
	2015	5,720,965	42.6	7,819,979	57.4
	2016	5,678,412	42.8	7,720,595	57.2

Note : 1)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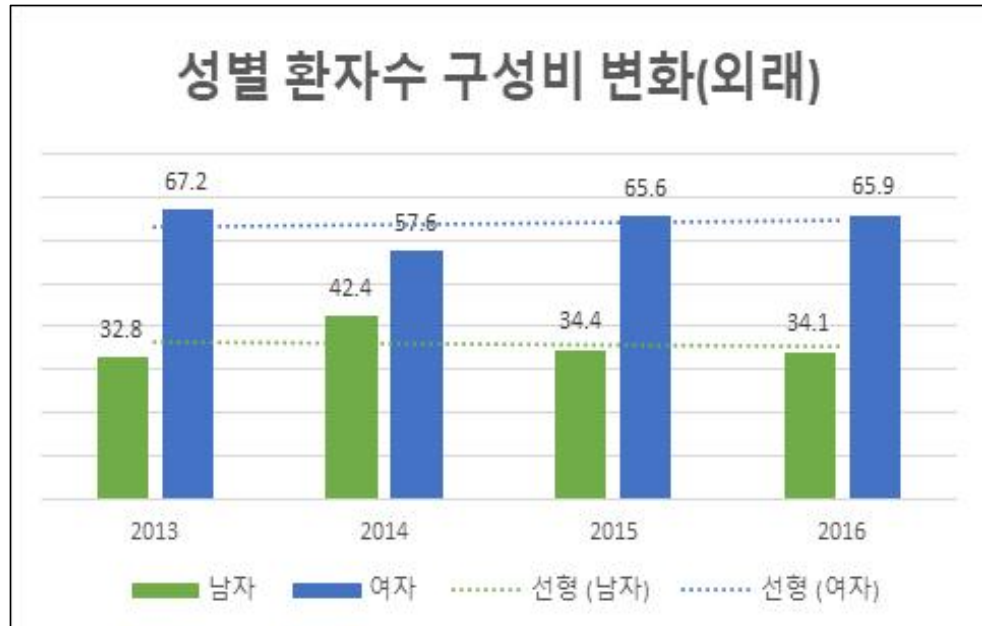
2) 구성비 = 해당연도 성별 실환자수/해당연도 실환자수



[그림 3-6] 성별 환자수 구성비 (단위:%)



[그림 3-7] 입원별 성별 환자수 구성비 변화 (단위:%)



[그림 3-8] 외래별 성별 환자수 구성비 변화 (단위:%)

3) 성별 · 연령별 실환자수

- 전체 연령별 실환자수는 30~64세 환자들이 60% 이상이며, 2016년 기준 55~59세 10.8%, 50~54세 10.3%로 가장 많았음
- 남자/여자 연령별 실환자수는 45~49세에서 각각 8.6%(2016년)로 가장 많았음

〈표 3-18〉 성별·연령별 실환자수

(단위: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0~4세	241 1.7	134 2.3	107 1.3	240 1.7	134 2.3	107 1.3	230 1.7	128 2.2	102 1.3	226 1.7	125 2.2	101 1.3
5~9세	244 1.8	135 2.3	109 1.4	245 1.8	137 2.3	108 1.3	236 1.7	131 2.3	105 1.3	236 1.7	131 2.3	105 1.3
10~14세	307 2.2	169 2.9	138 1.7	294 2.1	162 2.8	131 1.6	264 1.9	147 2.5	118 1.5	241 1.8	135 2.3	105 1.3
15~19세	457 3.3	222 3.8	235 2.9	459 3.3	224 3.8	235 2.9	432 3.1	214 3.7	218 2.7	400 2.9	201 3.5	199 2.5
20~24세	573 4.1	243 4.2	330 4.1	585 4.2	251 4.3	334 4.1	558 4.1	243 4.2	315 4.0	538 4.0	239 4.2	299 3.8
25~29세	783 5.7	359 6.2	424 5.3	777 5.6	360 6.1	417 5.2	739 5.4	347 6.0	392 4.9	716 5.3	338 5.9	377 4.8
30~34세	1,068 7.7	510 8.8	557 6.9	1,075 7.7	513 8.8	561 6.9	998 7.3	480 8.3	518 6.5	928 6.8	450 7.8	479 6.1
35~39세	1,071 7.7	526 9.0	545 6.8	1,055 7.6	519 8.9	537 6.6	1,035 7.5	512 8.9	523 6.6	1,031 7.6	512 8.9	519 6.6
40~44세	1,296 9.4	611 10.5	686 8.5	1,270 9.1	601 10.3	669 8.3	1,209 8.8	577 10.0	632 7.9	1,142 8.4	550 9.6	592 7.5
45~49세	1,339 9.7	575 9.9	764 9.5	1,365 9.8	588 10.0	777 9.6	1,336 9.7	584 10.1	752 9.5	1,328 9.8	587 10.2	740 9.4
50~54세	1,573 11.4	614 10.6	959 11.9	1,541 11.0	603 10.3	938 11.6	1,475 10.7	584 10.1	892 11.2	1,401 10.3	563 9.8	838 10.7
55~59세	1,300 9.4	498 8.6	803 10.0	1,371 9.8	522 8.9	848 10.5	1,410 10.3	538 9.3	871 11.0	1,464 10.8	561 9.8	903 11.5
60~64세	967 7.0	362 6.2	605 7.5	985 7.1	367 6.3	618 7.6	1,042 7.6	389 6.7	653 8.2	1,111 8.2	416 7.2	695 8.8
65~69세	857 6.2	305 5.2	553 6.9	879 6.3	314 5.4	565 7.0	900 6.6	324 5.6	576 7.2	932 6.8	335 5.8	596 7.6
70~74세	829 6.0	280 4.8	549 6.8	819 5.9	276 4.7	543 6.7	807 5.9	274 4.7	533 6.7	794 5.8	273 4.7	522 6.6
75~79세	552 4.0	172 3.0	380 4.7	576 4.1	180 3.1	396 4.9	599 4.4	189 3.3	409 5.1	626 4.6	198 3.4	424 5.4
80~84세	270 1.9	72 1.2	197 2.5	286 2.0	77 1.3	208 2.6	314 2.3	87 1.5	227 2.9	342 2.5	97 1.7	245 3.1
85세이상	124 0.9	30 0.5	93 1.2	135 1.0	32 0.5	102 1.3	149 1.1	35 0.6	114 1.4	161 1.2	38 0.7	123 1.6
계	13,850	5,816	8,033	13,955	5,860	8,095	13,736	5,785	7,951	13,612	5,748	7,864
	100.0 (100.0)	100.0 (42.0)	100.0 (58.0)	100.0 (100.0)	100.0 (42.0)	100.0 (58.0)	100.0 (100.0)	100.0 (42.1)	100.0 (57.9)	100.0 (100.0)	100.0 (42.2)	100.0 (57.8)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4) 성별·연령별 입원 및 외래 실환자수

- 2016년 기준으로 입원 환자들 중 남자는 75~79세, 55~59세가 9.7%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85세 이상이 16.9%로 가장 많았음
- 2016년 기준으로 외래 환자들 중 남자는 45~49세 10.3%로 가장 많았고, 여자는 55~59세가 11.6%로 가장 많았음
- 입원에서 연령별 실환자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남자는 59세까지 대체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69세 감소, 70~79세 증가, 80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 여자는 5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69세 감소, 70세 이후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외래에서 연령별 실환자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남자는 4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50세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임
 - 여자는 5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표 3-19> 성별·연령별 입원 및 외래 실환자수

(단위: 명, %)

구분	2014				2015				2016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228 0.3	174 0.1	133,421 2.3	106,863 1.3	139 0.1	153 0.1	128,113 2.2	102,146 1.3	107 0.1	95 0.0	124,515 2.2	101,333 1.3
5~9세	251 0.3	226 0.1	136,355 2.3	108,290 1.4	276 0.3	245 0.1	131,251 2.3	104,772 1.3	283 0.3	241 0.1	130,709 2.3	104,393 1.4
10~14세	599 0.7	597 0.3	161,840 2.8	131,106 1.6	678 0.7	673 0.3	146,261 2.6	117,358 1.5	669 0.6	647 0.3	134,917 2.4	105,051 1.4
15~19세	1,511 1.7	1,685 0.9	222,764 3.8	233,958 2.9	1,799 1.8	1,952 0.9	212,763 3.7	216,671 2.8	1,826 1.7	1,976 0.9	199,445 3.5	198,130 2.6
20~24세	2,491 2.8	2,925 1.6	249,544 4.3	332,717 4.2	2,825 2.8	3,375 1.6	241,604 4.2	313,171 4.0	3,179 3.0	3,548 1.6	236,647 4.2	296,732 3.8
25~29세	3,162 3.5	3,518 1.9	358,857 6.2	414,905 5.2	3,480 3.5	4,161 2.0	345,329 6.0	389,626 5.0	3,831 3.6	4,403 1.9	336,275 5.9	374,857 4.9
30~34세	4,918 5.5	5,601 3.0	511,203 8.8	558,467 7.0	5,540 5.6	6,420 3.0	477,382 8.3	514,656 6.6	5,882 5.5	6,822 3.0	446,571 7.9	475,284 6.2
35~39세	5,016 5.6	5,535 2.9	516,464 8.9	534,160 6.7	5,760 5.8	6,543 3.1	509,193 8.9	520,309 6.7	6,658 6.3	7,595 3.3	508,746 9.0	515,450 6.7
40~44세	5,564 6.2	8,023 4.3	598,460 10.3	665,493 8.3	6,113 6.2	9,021 4.3	574,286 10.0	628,241 8.0	6,580 6.2	9,251 4.1	546,385 9.6	587,972 7.6
45~49세	6,096 6.8	12,540 6.7	585,048 10.1	771,887 9.7	6,735 6.8	13,611 6.5	580,727 10.2	745,901 9.5	7,163 6.7	13,846 6.1	583,524 10.3	734,202 9.5
50~54세	7,941 8.8	18,802 10.0	598,284 10.3	930,654 11.7	8,357 8.4	20,092 9.5	579,160 10.1	883,203 11.3	8,193 7.7	19,886 8.7	558,710 9.8	829,494 10.7
55~59세	8,160 9.1	16,643 8.8	517,566 8.9	841,475 10.5	9,346 9.4	19,605 9.3	532,922 9.3	862,718 11.0	10,306 9.7	22,799 10.0	555,095 9.8	892,789 11.6
60~64세	6,636 7.4	9,974 5.3	362,581 6.2	613,916 7.7	7,620 7.7	12,455 5.9	384,154 6.7	647,669 8.3	8,533 8.0	14,911 6.5	410,598 7.2	688,574 8.9
65~69세	5,954 6.6	8,386 4.4	309,613 5.3	560,756 7.0	6,714 6.8	9,212 4.4	319,141 5.6	571,911 7.3	7,249 6.8	10,992 4.8	330,285 5.8	591,245 7.7
70~74세	7,863 8.7	13,811 7.3	270,050 4.7	534,747 6.7	7,897 8.0	13,914 6.6	268,263 4.7	524,659 6.7	7,830 7.4	14,314 6.3	266,714 4.7	513,091 6.6
75~79세	9,392 10.4	22,970 12.2	172,771 3.0	379,108 4.8	10,011 10.1	24,309 11.5	181,598 3.2	391,923 5.0	10,325 9.7	25,043 11.0	189,604 3.3	405,742 5.3
80~84세	7,559 8.4	27,231 14.4	71,246 1.2	186,221 2.3	8,575 8.6	30,089 14.3	80,175 1.4	202,397 2.6	9,706 9.1	33,005 14.5	89,141 1.6	218,188 2.8
85세이상	6,585 7.3	29,809 15.8	26,703 0.5	75,524 0.9	7,320 7.4	34,717 16.5	28,643 0.5	82,648 1.1	8,193 7.7	38,522 16.9	30,531 0.5	88,068 1.1
계	89,926 32.3	188,450 67.7	5,802,770 42.1	7,980,247 57.9	99,185 32.0	210,547 68.0	5,720,965 42.2	7,819,979 57.8	106,513 31.9	227,896 68.1	5,678,412 42.4	7,720,565 57.6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5) 성별·연령별 내원일수

- 전체 연령별 내원일수는 45~79세에서 내원일수가 길었고, 그 중 65~69세의 환자의 내원일수가 12.5%(2016년)로 가장 길었음
 - 남자 연령별 내원일수 역시 65~69세가 가장 길었으며, 2016년 기준으로 남자는 10.1%, 여자는 12.5%였음. 여자 연령별 내원일수 역시 65~69세가 12.5%로 가장 길었음
- 연령별 내원일수는 5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64세는 감소, 65~69세는 증가, 70~74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표 3-20〉 성별·연령별 내원일수

(단위: 천일,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0~4세	1,070 1.0	601 1.6	469 0.7	1,097 1.0	612 1.6	485 0.7	1,040 1.0	578 1.5	462 0.7	1,096 1.0	607 1.6	489 0.7
5~9세	1,148 1.1	656 1.7	492 0.7	1,175 1.1	670 1.7	505 0.7	1,094 1.0	622 1.6	472 0.7	1,116 1.1	634 1.6	481 0.7
10~14세	1,472 1.4	818 2.1	653 1.0	1,447 1.3	808 2.1	639 0.9	1,294 1.2	723 1.9	571 0.8	1,174 1.1	667 1.7	507 0.7
15~19세	1,913 1.8	946 2.5	968 1.4	1,978 1.8	982 2.6	996 1.4	1,872 1.8	951 2.5	921 1.4	1,757 1.7	910 2.4	847 1.3
20~24세	2,290 2.2	932 2.4	1,358 2.0	2,368 2.2	975 2.5	1,394 2.0	2,250 2.1	945 2.5	1,305 1.9	2,167 2.0	936 2.4	1,231 1.8
25~29세	3,247 3.1	1,407 3.7	1,840 2.7	3,260 3.0	1,436 3.7	1,824 2.7	3,091 2.9	1,391 3.6	1,700 2.5	2,988 2.8	1,355 3.5	1,633 2.4
30~34세	4,874 4.6	2,167 5.7	2,707 4.0	4,942 4.6	2,194 5.7	2,748 4.0	4,533 4.3	2,046 5.4	2,487 3.7	4,190 3.9	1,914 5.0	2,276 3.4
35~39세	5,636 5.3	2,562 6.7	3,074 4.5	5,535 5.2	2,521 6.5	3,014 4.4	5,337 5.1	2,451 6.4	2,886 4.3	5,263 5.0	2,426 6.3	2,837 4.2
40~44세	7,739 7.3	3,324 8.7	4,415 6.5	7,649 7.1	3,289 8.5	4,361 6.3	7,256 6.9	3,154 8.3	4,102 6.1	6,840 6.4	3,002 7.8	3,838 5.7
45~49세	8,961 8.5	3,369 8.8	5,592 8.3	9,157 8.5	3,449 9.0	5,708 8.3	8,889 8.4	3,428 9.0	5,461 8.1	8,831 8.3	3,465 9.0	5,365 7.9
50~54세	12,017 11.4	3,911 10.3	8,106 12.0	11,725 10.9	3,831 10.0	7,894 11.5	11,000 10.4	3,675 9.6	7,325 10.9	10,404 9.8	3,558 9.2	6,846 10.1
55~59세	10,712 10.1	3,495 9.2	7,217 10.7	11,158 10.4	3,604 9.4	7,554 11.0	11,241 10.7	3,654 9.6	7,588 11.3	11,737 11.1	3,807 9.9	7,930 11.7
60~64세	8,705 8.2	2,823 7.4	5,882 8.7	8,744 8.2	2,810 7.3	5,934 8.6	9,023 8.6	2,919 7.7	6,104 9.1	9,709 9.1	3,125 8.1	6,584 9.7
65~69세	11,434 10.8	3,587 9.4	7,847 11.6	11,725 10.9	3,660 9.5	8,065 11.7	11,835 11.2	3,730 9.8	8,105 12.0	12,384 11.7	3,904 10.1	8,480 12.5
70~74세	11,991 11.3	3,737 9.8	8,254 12.2	11,949 11.1	3,689 9.6	8,260 12.0	11,704 11.1	3,663 9.6	8,041 12.0	11,543 10.9	3,629 9.4	7,914 11.7
75~79세	7,924 7.5	2,409 6.3	5,515 8.1	8,298 7.7	2,523 6.6	5,775 8.4	8,534 8.1	2,629 6.9	5,905 8.8	8,929 8.4	2,754 7.2	6,175 9.1
80~84세	3,484 3.3	998 2.6	2,486 3.7	3,681 3.4	1,046 2.7	2,635 3.8	3,978 3.8	1,162 3.0	2,816 4.2	4,436 4.2	1,320 3.4	3,117 4.6
85세이상	1,249 1.2	371 1.0	878 1.3	1,342 1.3	394 1.0	949 1.4	1,461 1.4	427 1.1	1,034 1.5	1,570 1.5	453 1.2	1,118 1.7
계	105,864 100.0 (100.0)	38,112 100.0 (36.2)	67,752 100.0 (63.8)	107,231 100.0 (100.0)	38,492 100.0 (35.9)	68,740 100.0 (64.1)	105,432 100.0 (100.0)	38,148 100.0 (36.2)	67,283 100.0 (63.8)	106,136 100 (100.0)	38,469 100 (36.2)	67,667 100 (63.8)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6) 성별·연령별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 2016년 기준으로 입원 환자의 내원일수는 55~59세에서 남자는 13.4%, 여자는 20.2%로 가장 길었음
- 2016년 기준으로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는 65~69세에서 남자는 10.3%, 여자는 12.8%로 가장 길었음
- 입원에서 연령별 내원일수는 5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 외래에서도 연령별 내원일수는 5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표 3-21> 성별·연령별 입원 및 외래 내원일수

(단위: 천일,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입원		외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3 0.4	2 0.1	598 1.6	467 0.7	3 0.3	3 0.2	612 1.6	488 0.7	2 0.2	2 0.1	577 1.6	460 0.7	2 0.2	1 0.0	596 1.6	482 0.7
5~9세	3 0.3	3 0.2	653 1.8	489 0.7	3 0.3	3 0.2	671 1.8	504 0.8	3 0.3	3 0.2	619 1.7	467 0.7	3 0.3	3 0.1	629 1.7	478 0.7
10~14세	7 0.8	7 0.4	812 2.2	646 1.0	7 0.8	8 0.4	800 2.1	631 0.9	9 1.0	9 0.5	708 1.9	554 0.8	9 0.9	8 0.4	654 1.7	495 0.8
15~19세	19 2.4	23 1.4	926 2.5	945 1.4	22 2.5	25 1.4	960 2.5	968 1.4	26 2.8	28 1.4	924 2.5	886 1.4	26 2.6	28 1.3	876 2.3	809 1.2
20~24세	36 4.5	45 2.8	896 2.4	1,312 2.0	41 4.7	48 2.6	936 2.5	1,343 2.0	46 4.9	52 2.6	895 2.4	1,242 1.9	49 4.9	52 2.5	883 2.4	1,168 1.8
25~29세	48 6.0	58 3.5	1,359 3.6	1,782 2.7	53 6.1	59 3.2	1,382 3.7	1,759 2.6	56 6.0	65 3.3	1,327 3.6	1,621 2.5	62 6.1	67 3.2	1,293 3.5	1,559 2.4
30~34세	78 9.7	87 5.3	2,089 5.6	2,620 4.0	82 9.4	97 5.3	2,104 5.6	2,640 3.9	90 9.6	109 5.5	1,940 5.2	2,349 3.6	93 9.2	111 5.2	1,808 4.8	2,141 3.3
35~39세	79 9.8	87 5.3	2,483 6.7	2,987 4.5	85 9.7	95 5.2	2,431 6.5	2,914 4.4	93 9.9	108 5.4	2,352 6.3	2,766 4.2	102 10.1	124 5.9	2,320 6.2	2,698 4.1
40~44세	80 10.0	133 8.1	3,244 8.7	4,281 6.5	86 9.9	138 7.6	3,197 8.5	4,215 6.3	90 9.6	152 7.7	3,041 8.2	3,922 6.0	100 9.9	153 7.2	2,888 7.7	3,648 5.6
45~49세	86 10.7	214 13.1	3,283 8.8	5,378 8.1	97 11.1	235 12.9	3,358 8.9	5,475 8.2	102 10.9	237 12.0	3,319 8.9	5,197 8.0	105 10.4	233 11.0	3,359 9.0	5,116 7.8
50~54세	111 13.8	345 21.1	3,800 10.2	7,761 11.7	118 13.5	380 20.9	3,702 9.8	7,486 11.2	118 12.6	371 18.7	3,537 9.5	6,893 10.6	114 11.3	356 16.8	3,434 9.2	6,427 9.8
55~59세	87 10.9	240 14.6	3,408 9.1	6,977 10.6	105 12.0	320 17.6	3,509 9.3	7,266 10.8	118 12.6	367 18.5	3,538 9.5	7,224 11.1	135 13.4	427 20.2	3,680 9.8	7,498 11.5
60~64세	56 7.0	122 7.4	2,766 7.4	5,760 8.7	64 7.3	155 8.5	2,755 7.3	5,795 8.7	77 8.2	200 10.1	2,853 7.7	5,937 9.1	91 9.0	240 11.3	3,050 8.1	6,361 9.7
65~69세	31 3.9	66 4.0	3,556 9.5	7,781 11.8	35 4.0	71 3.9	3,642 9.7	8,024 12.0	39 4.2	90 4.5	3,695 9.9	8,030 12.3	49 4.9	118 5.6	3,858 10.3	8,359 12.8
70~74세	29 3.7	64 3.9	3,708 9.9	8,190 12.4	27 3.1	60 3.3	3,674 9.7	8,201 12.2	24 2.6	62 3.1	3,630 9.8	7,971 12.2	27 2.7	67 3.2	3,597 9.6	7,821 12.0
75~79세	26 3.2	66 4.0	2,384 6.4	5,449 8.2	22 2.5	59 3.2	2,521 6.7	5,731 8.6	21 2.2	61 3.1	2,617 7.0	5,876 9.0	22 2.2	62 2.9	2,742 7.3	6,132 9.4
80~84세	14 1.8	46 2.8	984 2.6	2,440 3.7	14 1.6	39 2.1	1,040 2.8	2,608 3.9	13 1.4	38 1.9	1,163 3.1	2,810 4.3	15 1.5	43 2.0	1,317 3.5	3,091 4.7
85세 이상	9 1.1	30 1.9	362 1.0	848 1.3	8 0.9	26 1.4	389 1.0	926 1.4	7 0.7	28 1.4	423 1.1	1,018 1.6	7 0.7	23 1.1	448 1.2	1,101 1.7
계	803 32.9	1,637 67.1	37,309 36.1	66,115 63.9	872 32.4	1,821 67.6	37,684 36.0	66,974 64.0	935 32.1	1,982 67.9	37,158 36.3	65,224 63.7	1,010 32.3	2,118 67.7	37,432 36.4	65,384 63.6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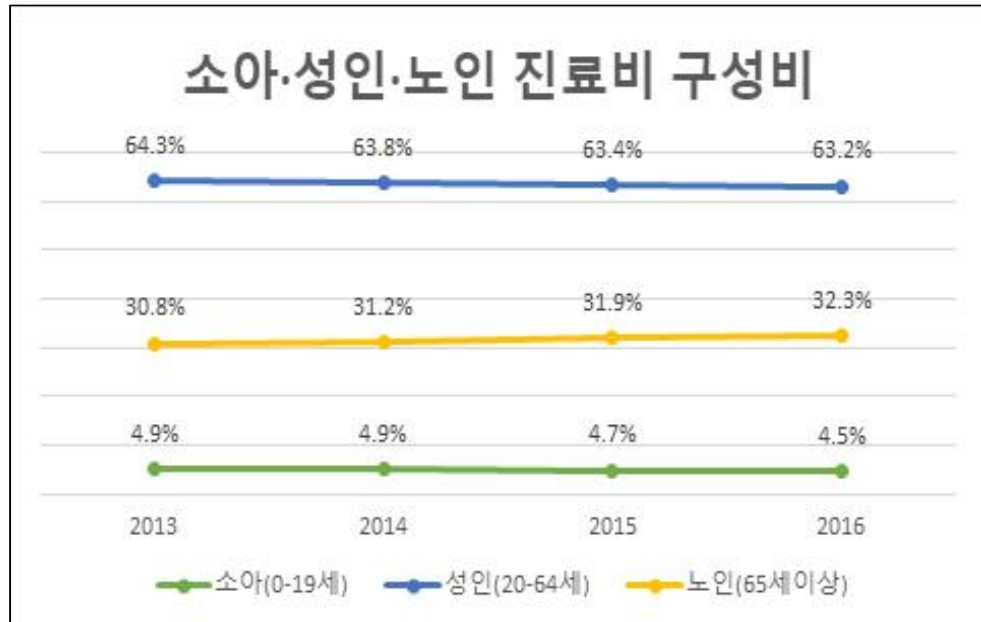
7) 소아·성인·노인 분류에 따른 진료비 구성비

- 전체 진료비는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40~64세는 47.8%, 65세 이상 32.3%, 20~39세 15.3%, 10~19세 2.8%, 0~9세 1.7% 순이었음
- 입원 진료비도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40~64세 44.9%, 65세 이상 38.9%, 20~39세 14.5%, 10~19세 1.5%, 0~9세 0.2% 순이었음
- 외래 진료비도 40~64세 환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40~64세 48.3%, 65세 이상 31.4%, 20~39세 15.5%, 10~19세 2.9%, 0~9세 1.9%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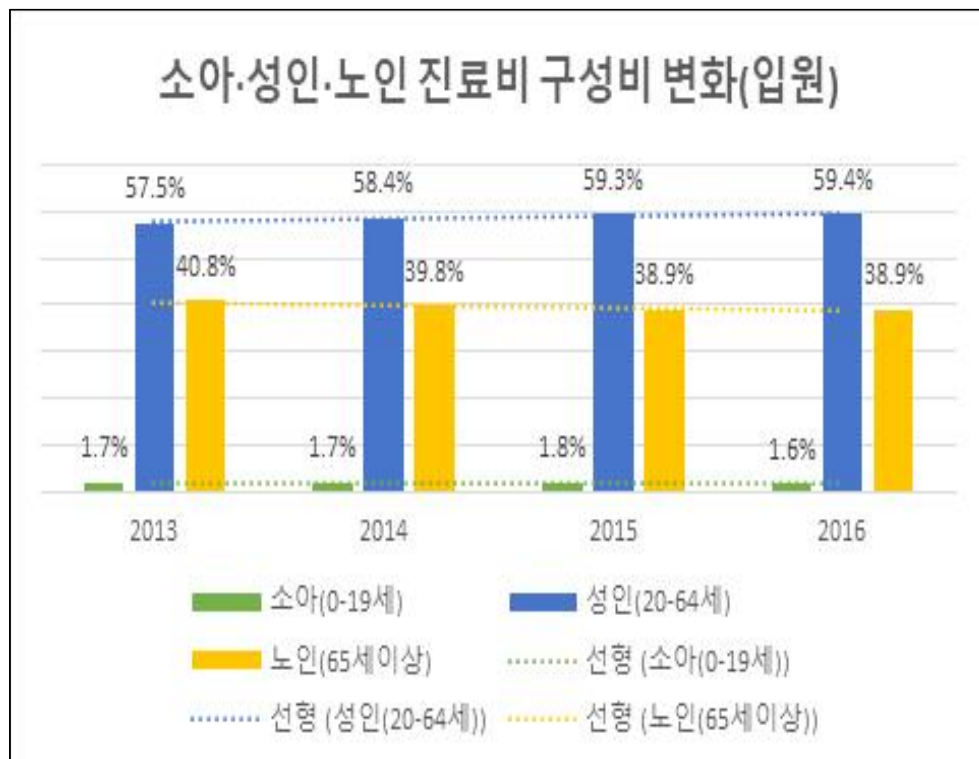
〈표 3-22〉 소아·성인·노인 분류에 따른 진료비 구성비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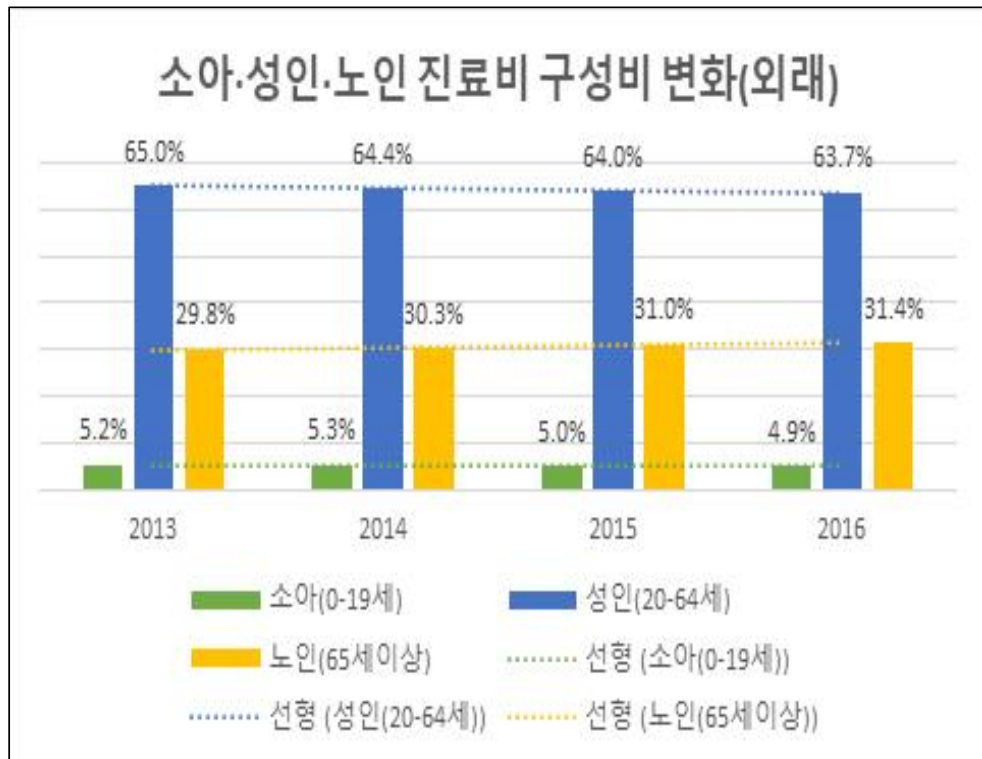
구분		0-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전체	2013	37,151	1.7	70,781	3.2	366,104	16.6	1,056,584	47.8	681,261	30.8
	2014	40,908	1.7	75,275	3.2	386,011	16.3	1,125,424	47.5	739,819	31.2
	2015	40,179	1.7	72,315	3.0	382,125	15.8	1,148,517	47.6	769,619	31.9
	2016	43,159	1.7	69,291	2.8	385,693	15.3	1,208,040	47.8	813,225	32.3
입원	2013	497	0.2	3,071	1.5	28,609	14.0	88,954	43.5	83,474	40.8
	2014	578	0.2	3,495	1.5	32,130	13.8	104,162	44.6	92,973	39.8
	2015	546	0.2	4,440	1.6	39,230	14.4	121,837	44.8	105,666	38.9
	2016	489	0.2	4,618	1.5	45,028	14.5	139,108	44.9	120,714	38.9
외래	2013	36,655	1.8	67,711	3.4	337,495	16.8	967,630	48.2	597,787	29.8
	2014	40,330	1.9	71,779	3.4	353,881	16.6	1,021,282	47.9	646,846	30.3
	2015	39,633	1.9	67,875	3.2	342,895	16.0	1,026,680	48.0	663,953	31.0
	2016	42,670	1.9	64,673	2.9	340,665	15.5	1,063,981	48.3	692,512	31.4



[그림 3-9] 소아·성인·노인 진료비 구성비



[그림 3-10] 입원별 소아·성인·노인 진료비 구성비 변화



[그림 3-11] 외래별 소아·성인·노인 진료비 구성비 변화

8) 성별에 따른 진료비 구성비

- 전체 진료비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63.4%, 남자는 36.6%였음
- 입원 진료비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69.0%, 남자는 31.0%였음
- 외래 진료비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여자는 62.6%, 남자는 37.4%였음

〈표 3-23〉 성별에 따른 진료비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남자		여자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전체	2013	805,869,815	36.4	1,406,011,941	63.6
	2014	859,762,396	36.3	1,507,674,620	63.7
	2015	880,889,298	36.5	1,531,866,150	63.5
	2016	920,911,134	36.6	1,593,496,975	63.4
입원	2013	65,115,910	36.9	139,489,074	63.1
	2014	73,283,980	31.4	160,054,830	68.6
	2015	84,020,924	30.9	187,698,970	69.1
	2016	96,029,065	31.0	213,928,817	69.0
외래	2013	740,753,905	31.8	1,266,522,867	68.2
	2014	786,478,417	36.9	1,347,619,791	63.1
	2015	796,868,374	37.2	1,344,167,180	62.8
	2016	824,882,069	37.4	1,379,568,158	62.6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9) 성별·연령별 진료비 분포

- 전체 연령별 진료비는 55세~59세에서 11.9%(2016년)로 가장 많았음
 - 남자/여자 연령별 진료비 역시 55세~5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남자는 10.6%, 여자는 12.6%였음
- 연령별 진료비는 59세까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60~64세는 감소, 65~69세는 증가, 70세 이후로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표 3-24〉 성별·연령별 진료비 분포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0~4세	17,255 0.8	9,696 1.2	7,559 0.5	19,065 0.8	10,621 1.2	8,445 0.6	19,118 0.8	10,607 1.2	8,511 0.6	21,243 0.8	11,742 1.3	9,501 0.6
5~9세	19,897 0.9	11,344 1.4	8,553 0.6	21,410 0.9	12,209 1.4	9,201 0.6	20,876 0.9	11,853 1.3	9,023 0.6	22,134 0.9	12,546 1.4	9,588 0.6
10~14세	28,987 1.3	16,059 2.0	12,928 0.9	29,875 1.3	16,609 1.9	13,266 0.9	27,882 1.2	15,509 1.8	12,372 0.8	26,101 1.0	14,786 1.6	11,314 0.7
15~19세	41,794 1.9	20,553 2.6	21,241 1.5	45,220 1.9	22,341 2.6	22,879 1.5	44,631 1.9	22,537 2.6	22,094 1.4	43,547 1.7	22,355 2.4	21,192 1.3
20~24세	52,208 2.4	21,466 2.7	30,742 2.2	56,339 2.4	23,456 2.7	32,882 2.2	56,292 2.3	23,920 2.7	32,372 2.1	56,661 2.3	24,814 2.7	31,847 2.0
25~29세	74,809 3.4	33,054 4.1	41,755 3.0	78,655 3.3	35,275 4.1	43,381 2.9	78,186 3.2	35,669 4.1	42,517 2.8	79,115 3.2	36,381 4.0	42,734 2.7
30~34세	111,879 5.1	51,136 6.3	60,743 4.3	118,859 5.0	54,177 6.3	64,682 4.3	115,164 4.8	53,164 6.0	62,000 4.1	112,054 4.5	52,301 5.7	59,754 3.8
35~39세	127,208 5.8	59,314 7.4	67,894 4.8	131,122 5.6	61,289 7.2	69,834 4.6	132,923 5.5	62,563 7.1	70,360 4.6	137,829 5.5	65,001 7.1	72,828 4.6
40~44세	172,515 7.8	75,313 9.3	97,202 6.9	178,529 7.6	78,192 9.1	100,337 6.7	177,230 7.4	78,228 8.9	99,002 6.5	175,057 7.0	78,112 8.5	96,945 6.1
45~49세	199,814 9.0	75,820 9.4	123,994 8.8	214,017 9.1	81,498 9.5	132,519 8.8	216,726 9.0	84,298 9.6	132,428 8.7	224,215 8.9	88,782 9.7	135,433 8.5
50~54세	266,829 12.1	87,628 10.9	179,201 12.7	273,834 11.6	90,186 10.5	183,648 12.2	268,354 11.1	90,139 10.2	178,215 11.7	264,789 10.5	90,796 9.9	173,992 10.9
55~59세	233,194 10.5	77,269 9.6	155,926 11.1	257,315 10.9	84,186 9.8	173,129 11.5	271,578 11.3	89,073 10.1	182,505 11.9	297,306 11.8	97,056 10.6	200,250 12.6
60~64세	184,232 8.3	61,245 7.6	122,988 8.7	196,516 8.3	64,598 7.5	131,917 8.8	212,256 8.8	70,031 8.0	142,225 9.3	238,617 9.5	78,116 8.5	160,501 10.1
65~69세	202,320 9.1	64,883 8.1	137,438 9.8	216,666 9.2	69,195 8.1	147,471 9.8	223,434 9.3	72,176 8.2	151,258 9.9	238,623 9.5	77,156 8.4	161,467 10.1
70~74세	212,982 9.6	67,025 8.3	145,957 10.4	222,621 9.4	69,444 8.1	153,177 10.2	221,568 9.2	70,053 8.0	151,515 9.9	221,533 8.8	70,477 7.7	151,057 9.5
75~79세	149,283 6.7	44,722 5.5	104,560 7.4	165,020 7.0	49,491 5.8	115,529 7.7	172,999 7.2	52,454 6.0	120,544 7.9	182,885 7.3	55,577 6.1	127,308 8.0
80~84세	76,683 3.5	20,083 2.5	56,600 4.0	86,130 3.7	22,495 2.6	63,635 4.2	95,318 4.0	25,414 2.9	69,904 4.6	107,982 4.3	29,373 3.2	78,609 4.9
85세이상	39,993 1.8	9,262 1.1	30,732 2.2	47,036 2.0	10,679 1.2	36,357 2.4	54,538 2.3	11,892 1.4	42,646 2.8	61,676 2.5	13,116 1.4	48,560 3.0
계	2,211,882	805,870	1,406,012	2,358,231	855,941	1,502,290	2,409,073	879,581	1,529,492	2,511,367	918,487	1,592,88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	100	100
	(100.0)	(36.4)	(63.6)	(100.0)	(36.3)	(63.7)	(100.0)	(36.5)	(63.5)	(100.0)	(36.6)	(63.4)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10) 성별·연령별 환자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 남자는 2016년 기준으로 0~4세, 20~24세, 25~29세, 30~34세가 16일로 가장 길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남자의 45세 이상 환자당 내원일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 기준 45세~49세 남자환자의 내원일수는 15일이었으며 85세 이상 남자환자의 내원일수는 1일이었음
 - 85세 이상 환자당 내원일수는 요양병원이 많고, 요양병원에서 내원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음
- 내원일당 진료비는 요양병원의 영향으로 50세 이상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추세임
 - 40~74세의 환자당 내원일수는 여자가 길었으나 내원일당 진료비는 남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25> 성별·연령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입원)

(단위: 일,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환자당 내원일 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 수		내원일당 진료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20	13	38,839	39,456	15	16	43,330	49,362	15	13	46,465	46,142	16	14	43,478	43,393
5~9세	12	13	50,790	51,258	10	12	56,277	54,811	11	13	60,042	54,578	10	12	64,627	60,374
10~14세	13	13	55,043	55,470	12	13	55,524	56,295	14	13	62,393	60,408	13	12	63,180	63,379
15~19세	14	14	54,825	55,086	14	15	57,138	57,110	14	14	62,434	62,018	14	14	66,619	66,597
20~24세	17	16	54,568	54,384	16	17	57,480	55,961	16	16	62,410	62,019	16	15	67,399	67,080
25~29세	16	16	55,317	54,321	17	17	57,707	56,899	16	16	62,592	62,617	16	15	68,108	67,783
30~34세	17	16	55,650	54,464	17	17	57,491	57,121	16	17	63,656	63,270	16	16	68,675	67,445
35~39세	16	16	56,783	55,029	17	17	59,265	57,237	16	17	64,880	63,417	15	16	69,974	67,710
40~44세	15	17	59,018	55,229	16	17	61,365	56,796	15	17	66,803	62,429	15	17	71,228	67,358
45~49세	15	18	61,135	55,351	16	19	62,898	56,886	15	17	67,209	62,480	15	17	72,150	67,239
50~54세	14	20	64,499	55,786	15	20	56,277	56,563	14	18	70,999	62,294	14	18	75,663	67,079
55~59세	12	18	73,686	58,103	13	19	65,930	58,809	13	19	77,517	63,656	13	19	80,694	68,250
60~64세	9	14	89,474	65,367	10	16	73,229	65,229	10	16	90,310	68,965	11	16	91,990	72,761
64~69세	6	9	125,224	88,744	6	9	88,971	90,728	6	10	131,508	89,193	7	11	128,796	89,538
70~74세	4	5	166,011	146,166	3	4	126,609	159,031	3	4	213,965	161,313	3	5	208,405	160,478
75~79세	3	3	206,184	215,466	2	3	186,159	255,668	2	3	304,726	273,553	2	2	304,325	288,117
80~84세	2	2	270,131	352,971	2	1	262,803	456,881	2	1	382,582	533,781	2	1	402,238	538,245
85세이상	1	1	384,958	549,963	1	1	316,319	772,108	1	1	596,484	886,161	1	1	747,497	1,226,212
계	10	10	81,061	85,186	10	10	84,032	87,914	9	9	89,876	94,710	10	9	95,096	101,016
	50.2	49.8	48.8	51.2	50.1	49.9	48.9	51.1	50.0	50.0	48.7	51.3	50.5	49.5	48.5	51.5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11) 성별·연령별 환자당 내원일수 및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 환자당 내원일수는 65세 이상인 환자들이 12일~15일로 가장 길었음
- 내원일당 진료비는 64세까지 10~64세까지 약 23,000원 내외였고, 65세 이후로는 약 18,000원으로 5,000원 가량 낮아졌음

<표 3-26> 성별·연령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외래)

(단위: 일,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환자당 내원일수		내원일당 진료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0~4세	4	4	16,021	16,014	5	5	17,294	17,320	5	5	18,355	18,411	5	5	19,360	19,430
5~9세	5	4	17,154	17,184	5	5	18,131	18,112	5	4	18,922	18,975	5	5	19,630	19,747
10~14세	5	5	19,338	19,423	5	5	20,299	20,398	5	5	21,007	21,117	5	5	21,684	21,734
15~19세	4	4	21,052	21,125	4	4	22,083	22,187	4	4	22,723	22,927	4	4	23,481	23,690
20~24세	4	4	21,765	21,541	4	4	22,780	22,542	4	4	23,566	23,361	4	4	24,351	24,200
25~29세	4	4	22,359	21,672	4	4	23,406	22,786	4	4	24,163	23,641	4	4	25,032	24,528
30~34세	4	5	22,402	21,339	4	5	23,530	22,432	4	5	24,393	23,322	4	5	25,327	24,271
35~39세	5	5	22,085	21,125	5	5	23,221	22,188	5	5	24,095	23,006	5	5	25,027	23,893
40~44세	5	6	21,754	20,882	5	6	22,852	22,006	5	6	23,672	22,771	5	6	24,601	23,615
45~49세	6	7	21,491	20,853	6	7	22,592	21,878	6	7	23,382	22,611	6	7	24,272	23,434
50~54세	6	8	21,179	20,611	6	8	22,291	21,675	6	8	23,073	22,411	6	8	23,956	23,233
55~59세	7	9	20,785	20,352	7	9	21,949	21,463	7	8	22,723	22,177	7	8	23,592	22,957
60~64세	8	10	20,325	19,957	8	9	21,543	21,173	7	9	22,296	21,889	7	9	23,119	22,679
65~69세	12	14	17,142	16,915	12	14	17,913	17,665	12	14	18,199	17,910	12	14	18,414	18,098
70~74세	14	15	16,758	16,684	14	15	17,581	17,514	14	15	17,823	17,736	13	15	18,026	17,893
75~79세	14	15	16,541	16,532	15	15	17,468	17,537	14	15	17,709	17,745	14	15	17,866	17,889
80~84세	15	14	16,438	16,533	15	14	17,502	17,579	15	14	17,699	17,783	15	14	17,841	17,920
85세이상	14	12	16,358	16,555	15	12	17,370	17,587	15	12	17,650	17,846	15	13	17,824	18,027
계	6	8	19,855	19,156	7	8	20,870	20,122	7	8	21,445	20,609	6.6	8.5	22,037	21,099
	43.7	56.3	50.9	49.1	43.6	56.4	50.9	49.1	43.8	56.2	51.0	49.0	43.8	56.2	51.1	48.9

Note :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12) 전체 연령군별 본인부담금

- 전체 연령별 본인부담금은 55세~59세에서 14.0%(2016년)로 가장 많았음
 - 입원/외래 연령별 본인부담금 역시 55~5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입원은 13.6%, 외래는 14.1%였음

〈표 3-27〉 전체 연령군별 본인부담금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합계	입원	외래
0~4세	3,529 0.6	32 0.1	3,497 0.7	3,903 0.7	39 0.1	3,864 0.7	3,934 0.7	26 0.0	3,908 0.7	4,346 0.7	19 0.0	4,327 0.8
5~9세	5,417 1.0	71 0.2	5,346 1.1	5,838 1.0	68 0.1	5,770 1.1	5,716 1.0	83 0.1	5,633 1.1	6,077 1.0	86 0.1	5,991 1.1
10~14세	8,407 1.5	180 0.4	8,227 1.6	8,579 1.5	208 0.4	8,371 1.6	7,983 1.4	275 0.4	7,709 1.5	7,565 1.2	257 0.4	7,308 1.3
15~19세	12,221 2.2	588 1.3	11,633 2.3	13,090 2.3	659 1.2	12,431 2.4	12,932 2.2	823 1.3	12,108 2.3	12,634 2.1	893 1.3	11,742 2.2
20~24세	15,492 2.8	1,132 2.4	14,360 2.9	16,669 2.9	1,273 2.4	15,396 2.9	16,566 2.8	1,535 2.5	15,031 2.9	16,726 2.7	1,711 2.4	15,015 2.8
25~29세	22,247 4.1	1,475 3.2	20,773 4.2	23,240 4.0	1,620 3.0	21,620 4.1	23,052 3.9	1,908 3.1	21,143 4.0	23,528 3.8	2,207 3.1	21,321 3.9
30~34세	33,247 6.1	2,300 4.9	30,947 6.2	35,025 6.1	2,577 4.8	32,448 6.2	33,842 5.8	3,161 5.1	30,681 5.8	33,042 5.4	3,509 4.9	29,533 5.4
35~39세	37,663 6.9	2,308 4.9	35,355 7.1	38,605 6.7	2,599 4.9	36,007 6.9	39,189 6.7	3,191 5.2	35,998 6.9	40,776 6.6	3,890 5.5	36,886 6.8
40~44세	50,808 9.3	2,978 6.4	47,829 9.6	52,199 9.1	3,211 6.0	48,988 9.4	51,766 8.8	3,790 6.1	47,976 9.1	51,283 8.4	4,286 6.0	46,996 8.7
45~49세	58,363 10.7	4,170 8.9	54,193 10.9	62,252 10.8	4,706 8.8	57,547 11.0	62,975 10.7	5,221 8.4	57,754 11.0	65,549 10.7	5,654 7.9	59,895 11.0
50~54세	77,484 14.2	6,415 13.7	71,070 14.2	78,820 13.7	7,099 13.3	71,721 13.7	77,109 13.1	7,563 12.2	69,546 13.3	76,492 12.5	7,885 11.1	68,607 12.6
55~59세	67,613 12.4	4,887 10.4	62,726 12.6	74,417 12.9	6,353 11.9	68,064 13.0	78,408 13.4	7,766 12.6	70,642 13.5	86,151 14.0	9,704 13.6	76,448 14.1
60~64세	53,251 9.8	3,010 6.4	50,241 10.1	56,606 9.8	3,693 6.9	52,913 10.1	61,414 10.5	4,844 7.8	56,570 10.8	69,199 11.3	6,157 8.7	63,042 11.6
64~69세	29,733 5.4	2,146 4.6	27,587 5.5	31,503 5.5	2,410 4.5	29,093 5.6	32,921 5.6	2,943 4.8	29,978 5.7	35,894 5.8	3,812 5.4	32,081 5.9
70~74세	30,017 5.5	2,988 6.4	27,029 5.4	30,685 5.3	3,104 5.8	27,580 5.3	30,829 5.3	3,206 5.2	27,622 5.3	31,471 5.1	3,469 4.9	28,002 5.2
75~79세	21,481 3.9	4,012 8.6	17,469 3.5	23,087 4.0	4,306 8.1	18,781 3.6	24,385 4.2	4,672 7.6	19,712 3.8	26,171 4.3	5,035 7.1	21,136 3.9
80~84세	11,778 2.2	4,077 8.7	7,702 1.5	12,868 2.2	4,519 8.5	8,348 1.6	14,323 2.4	5,078 8.2	9,245 1.8	16,339 2.7	5,882 8.3	10,457 1.9
85세이상	6,802 1.2	4,026 8.6	2,776 0.6	7,913 1.4	4,833 9.1	3,080 0.6	9,214 1.6	5,787 9.4	3,426 0.7	10,464 1.7	6,698 9.4	3,766 0.7
계	545,553 100.0	46,794 100.0	498,759 100.0	575,299 100.0	53,277 100.0	522,022 100.0	586,558 100.0	61,872 100.0	524,682 100.0	613,707 100.0	71,154 100.0	542,553 100.0

Note 1) 성별 오류 값은 제외함(2013년 4명)

2) 한방명세서 심사결정기준

다. 지역별 분류에 따른 한방건강보험의 이용 현황

1) 지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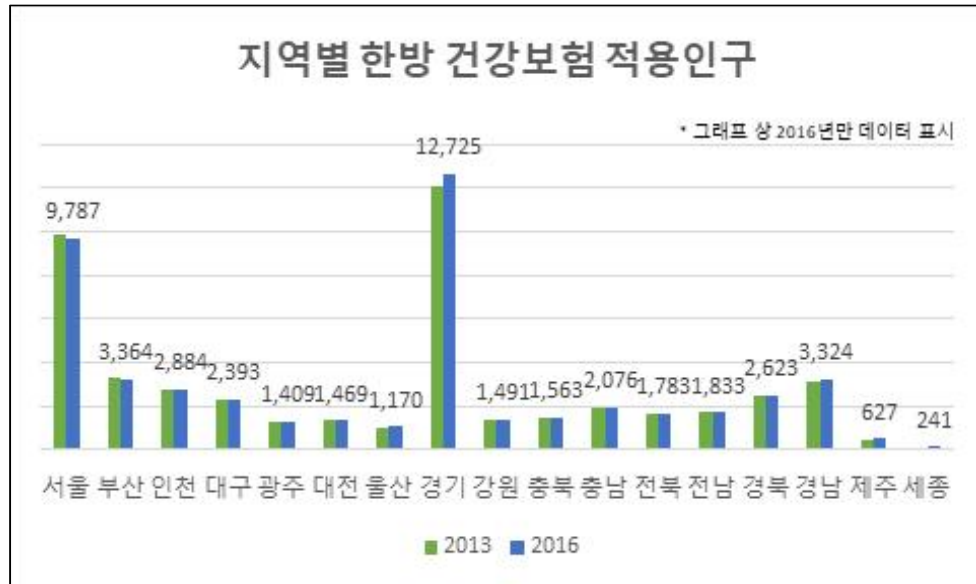
- 2016년 지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경기 25.1%, 서울 19.3%, 부산 6.6%, 경남 6.5% 순으로 많았음

〈표 3-28〉 지역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천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9,972	9,949	9,874	9,787	-0.6
부산	3,386	3,386	3,349	3,364	-0.2
인천	2,823	2,848	2,861	2,884	0.7
대구	2,402	2,400	2,391	2,393	-0.1
광주	1,408	1,413	1,407	1,409	0.02
대전	1,488	1,489	1,471	1,469	-0.4
울산	1,149	1,163	1,176	1,170	0.6
경기	12,158	12,333	12,505	12,725	1.5
강원	1,477	1,483	1,486	1,491	0.3
충북	1,536	1,547	1,551	1,563	0.6
충남	2,013	2,034	2,051	2,076	1.0
전북	1,782	1,786	1,782	1,783	0.01
전남	1,823	1,829	1,832	1,833	0.2
경북	2,609	2,618	2,621	2,623	4.4
경남	3,268	3,296	3,317	3,324	0.6
제주	573	589	607	627	3.0
세종	120	153	209	241	26.2
계	49,990	50,316	50,490	50,762	0.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2] 지역별 한방 건강보험 적용인구 (단위: 천명)

2) 지역별 한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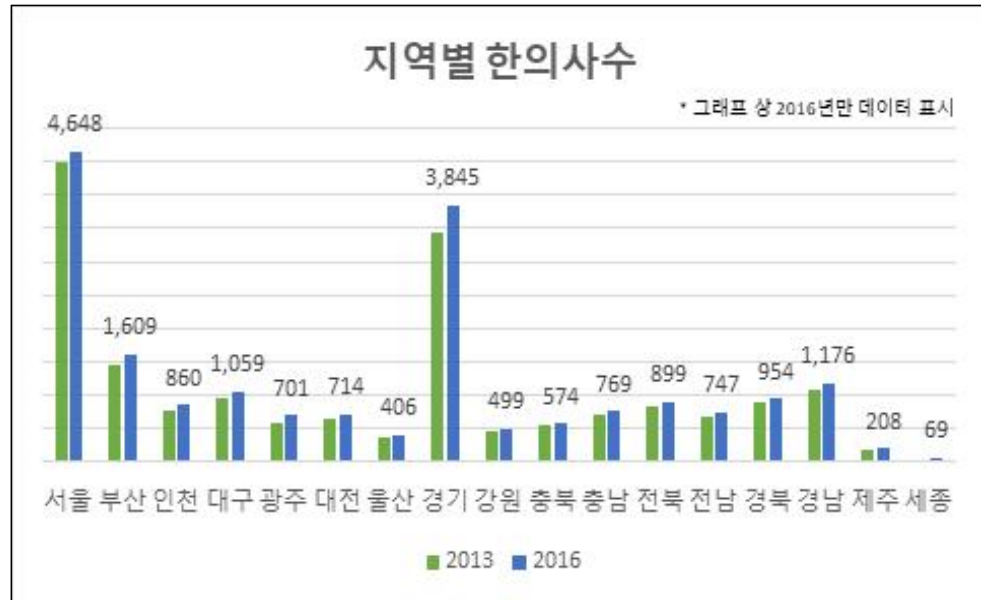
- 2016년 지역별 한의사 수는 서울이 23.5%, 경기 19.5%, 부산 8.2% 순으로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29〉 지역별 한의사 수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4,492	4,512	4,567	4,648	1.1
부산	1,465	1,536	1,579	1,609	3.2
인천	761	827	821	860	4.2
대구	968	999	1,018	1,059	3.0
광주	602	637	661	701	5.2
대전	660	689	709	714	2.7
울산	373	376	402	406	2.9
경기	3,443	3,561	3,716	3,845	3.7
강원	477	482	498	499	1.5
충북	541	549	570	574	2.0
충남	706	743	756	769	2.9
전북	841	862	886	899	2.2
전남	686	724	731	747	2.9
경북	889	928	944	954	2.4
경남	1,074	1,112	1,137	1,176	3.1
제주	188	189	197	208	3.4
세종	33	41	54	69	27.9
계	18,188	18,767	19,246	19,737	2.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3] 지역별 한의사 수 (단위: 천명)

3) 지역별 한방 요양기관 수

- 2016년 지역별 한방 요양기관 수는 서울 25.6%, 경기 20.6%, 부산 7.9% 순으로 많았으며 연도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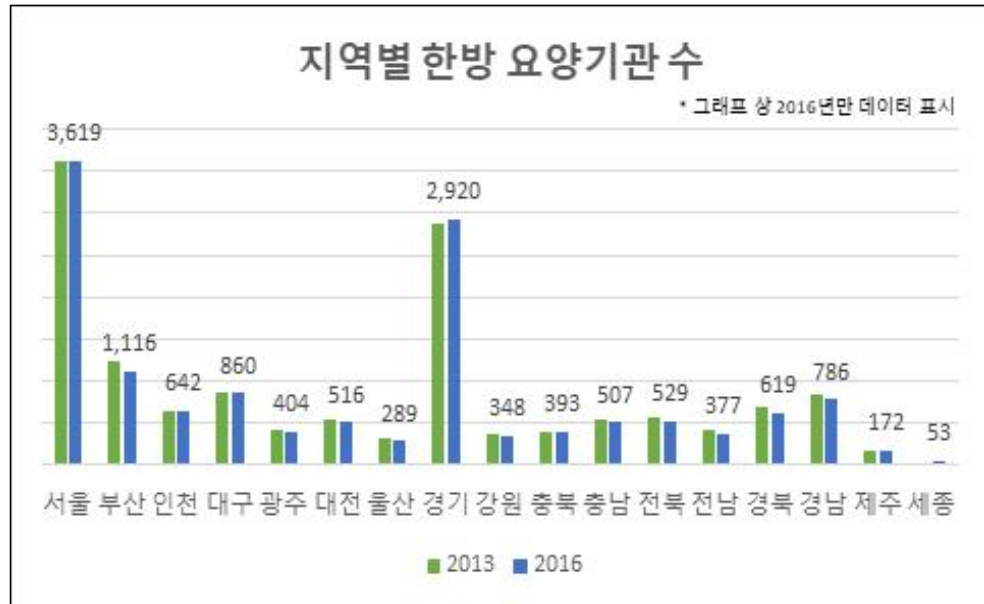
〈표 3-30〉 지역별 한방 요양기관 수(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단위: 개,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3,619	3,551	3,582	3,619	0.0
부산	1,240	1,104	1,107	1,116	-3.5
인천	640	613	621	642	0.1
대구	871	837	844	860	-0.4
광주	409	381	388	404	-0.4
대전	540	499	507	516	-1.5
울산	329	286	292	289	-4.2
경기	2,876	2,732	2,823	2,920	0.5
강원	360	339	342	348	-1.1
충북	407	376	389	393	-1.2
충남	534	487	497	507	-1.7
전북	575	510	517	529	-2.7
전남	415	370	369	377	-3.2
경북	703	616	620	619	-4.2
경남	831	760	770	786	-1.8
제주	163	161	165	172	1.8
세종	32	32	40	53	18.3
계	14,544	13,654	13,873	14,150	-0.9

Note : 요양기관은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만 포함되어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4] 지역별 한방 요양기관 수 (단위: 천명)

4) 지역별 청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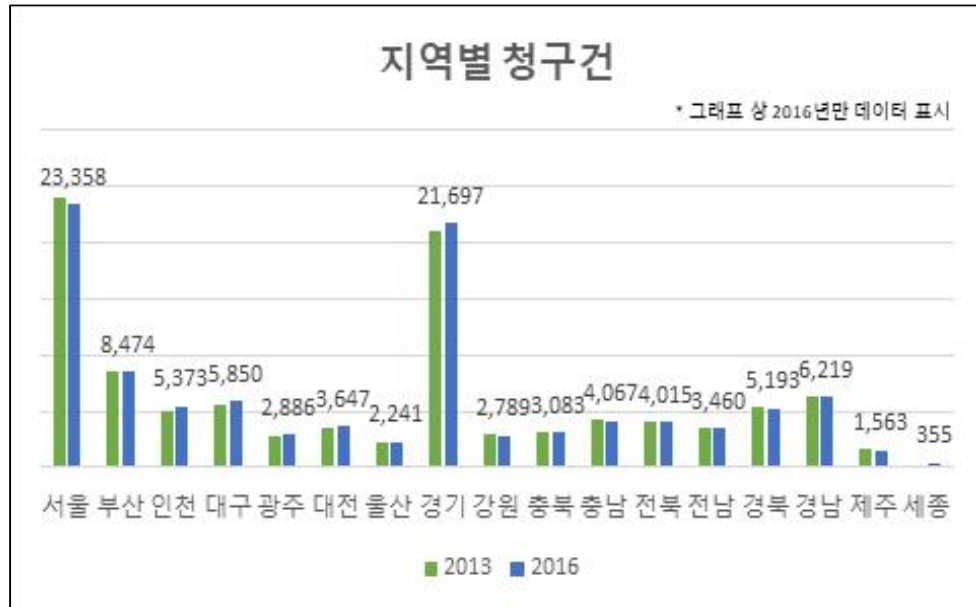
- 2016년 지역별 청구건은 서울 22.4%, 경기 20.8%, 부산 8.1% 순으로 많았으며 신생도시인 세종을 제외하고 제주가 가장 적게 나타났음
- 전체 지역의 청구건 연평균 증가율이 0.0%인데 반해 세종은 18.2%, 인천은 2.1% 증가율을 보임

〈표 3-31〉 지역별 청구건

(단위: 천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23,918	24,219	23,364	23,358	-0.8
부산	8,533	8,557	8,425	8,474	-0.2
인천	5,049	5,377	5,408	5,373	2.1
대구	5,596	5,715	5,696	5,850	1.5
광주	2,856	2,965	2,866	2,886	0.3
대전	3,597	3,694	3,579	3,647	0.5
울산	2,256	2,270	2,239	2,241	-0.2
경기	20,989	21,618	21,239	21,697	1.1
강원	2,885	2,846	2,812	2,789	-1.1
충북	3,174	3,101	3,066	3,083	-1.0
충남	4,209	4,142	4,054	4,067	-1.1
전북	4,045	4,041	3,977	4,015	-0.2
전남	3,570	3,508	3,473	3,460	-1.0
경북	5,460	5,427	5,292	5,193	-1.7
경남	6,330	6,268	6,250	6,219	-0.6
제주	1,646	1,617	1,620	1,563	-1.7
세종	215	246	294	355	18.2
계	104,328	105,611	103,654	104,270	0.0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5] 지역별 청구건 (단위: 천명)

5) 지역별 실환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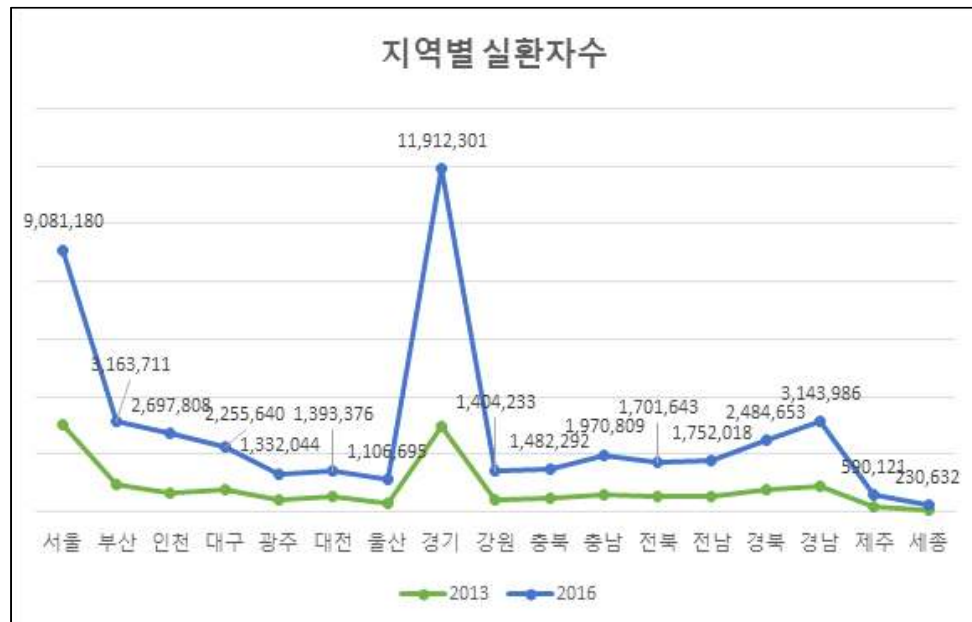
- 지역별 한방의료 실환자수는 2013년에 서울 > 경기도 > 부산 순으로 많았으나 '16년도는 경기도 > 서울 > 부산 순으로 많았음
-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서 58.9%의 증가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 58.2%, 전남 53.0%이었음

〈표 3-32〉 지역별 실환자수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3,009,761	9,240,770	9,107,264	9,081,180	44.6
부산	969,133	3,184,898	3,142,778	3,163,711	48.0
인천	664,565	2,661,777	2,664,797	2,697,808	58.9
대구	763,050	2,263,697	2,248,277	2,255,640	43.4
광주	426,380	1,336,926	1,330,943	1,332,044	46.1
대전	510,472	1,410,719	1,391,448	1,393,376	39.7
울산	315,081	1,099,146	1,110,030	1,106,695	52.2
경기	2,940,872	11,538,621	11,634,787	11,912,301	58.2
강원	411,751	1,398,133	1,395,717	1,404,233	50.2
충북	484,864	1,468,927	1,466,472	1,482,292	44.6
충남	599,332	1,934,258	1,940,857	1,970,809	47.9
전북	560,494	1,708,693	1,699,272	1,701,643	44.7
전남	503,176	1,753,955	1,753,801	1,752,018	51.6
경북	791,170	2,487,397	1,477,393	2,484,653	23.1
경남	874,915	3,120,059	3,133,070	3,143,986	53.0
제주	160,812	556,560	571,102	590,121	52.6
세종	38,489	147,048	198,854	230,632	72.9
계	13,849,627	47,311,584	46,266,862	47,703,142	49.5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6] 지역별 실환자수 (단위: 명)

6) 지역별 내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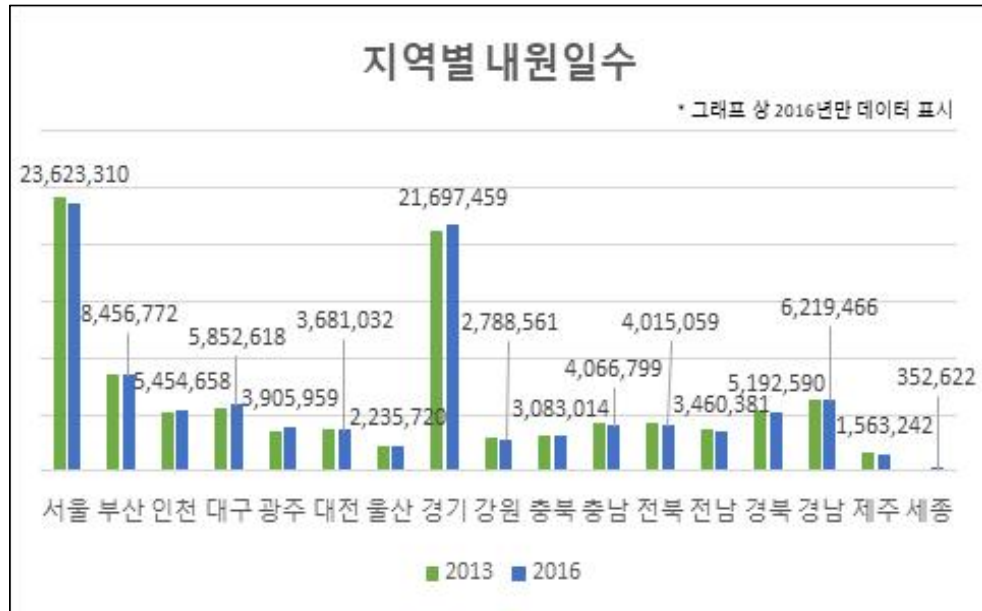
- 2016년 지역별 내원일수는 서울 22.4%, 경기 20.5%, 부산 8% 순으로 많았음
- 전체 지역의 환자수 연평균 증가율은 -0.1%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세종은 18.2%, 광주 4.2%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3-33〉 지역별 내원일수

(단위: 일,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24,207,306	24,495,245	23,618,419	23,623,310	-0.8
부산	8,540,894	8,551,426	8,405,475	8,456,772	-0.3
인천	5,118,603	5,456,120	5,488,267	5,454,658	2.1
대구	5,604,526	5,716,574	5,693,061	5,852,618	1.5
광주	3,448,601	3,674,429	3,764,406	3,905,959	4.2
대전	3,655,234	3,739,901	3,615,222	3,681,032	0.2
울산	2,267,487	2,277,749	2,241,290	2,235,720	-0.5
경기	21,181,183	21,804,252	21,418,716	21,697,459	0.8
강원	2,895,974	2,859,609	2,824,070	2,788,561	-1.3
충북	3,194,512	3,121,209	3,080,605	3,083,014	-1.2
충남	4,207,287	4,131,577	4,032,560	4,066,799	-1.1
전북	4,250,457	4,236,724	4,199,760	4,015,059	-1.9
전남	3,689,523	3,683,422	3,681,393	3,460,381	-2.1
경북	5,420,304	5,385,470	5,242,202	5,192,590	-1.4
경남	6,323,078	6,237,769	6,215,232	6,219,466	-0.5
제주	1,645,992	1,615,528	1,618,417	1,563,242	-1.7
세종	213,434	244,349	292,537	352,622	18.2
계	105,864,395	107,231,353	105,431,632	105,649,262	-0.1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7] 지역별 내원일수 (단위: 일)

7) 지역별 진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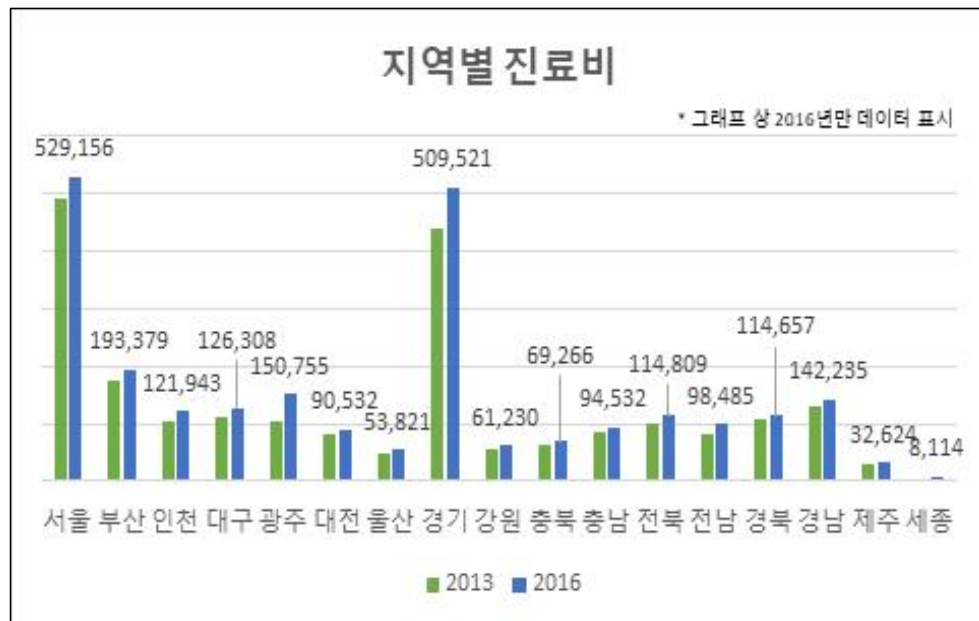
- 2016년 지역별 진료비는 서울 21.1%, 경기 20.3%, 부산 7.7% 순으로 많았으며 전체 지역의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은 4.3%임
- 지역별로는 세종의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이 25.4%, 광주의 진료비 연평균증가율이 13.9%로 크게 증가하였음

〈표 3-34〉 지역별 진료비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489,694	517,118	514,339	529,156	2.6
부산	174,216	181,878	185,778	193,379	3.5
인천	103,468	115,478	118,620	121,943	5.6
대구	109,649	116,058	118,471	126,308	4.8
광주	102,158	116,712	132,607	150,755	13.9
대전	81,814	86,843	86,833	90,532	3.4
울산	48,420	50,904	52,015	53,821	3.6
경기	439,926	475,586	484,128	509,521	5.0
강원	57,023	59,792	60,595	61,230	2.4
충북	64,261	66,472	67,449	69,266	2.5
충남	86,741	90,457	91,584	94,532	2.9
전북	100,866	105,846	110,056	114,809	4.4
전남	82,976	90,551	95,229	98,485	5.9
경북	107,413	113,443	113,779	114,657	2.2
경남	128,350	134,033	138,261	142,235	3.5
제주	30,797	32,072	32,934	32,624	1.9
세종	4,111	4,988	6,397	8,114	25.4
계	2,211,882	2,358,231	2,409,075	2,511,367	4.3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8] 지역별 진료비 (단위: 백만원)

8) 지역별 입원 청구건 및 진료비

- 2016년 지역별 입원 청구건은 경기 15.5%, 부산 13.8%, 광주 12.9%, 등의 순임
- 2016년 지역별 입원 청구건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가 26%로 가장 많았고, 광주 16.3%, 대구 13.5%, 부산 12.3% 순임
- 2016년 지역별 입원 진료비는 광주가 28.5%로 가장 많았고, 경기 12.9%, 전북 10.3%, 서울 9.5%였음. 연평균증가율은 25.6%로 광주 진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남은 18.9%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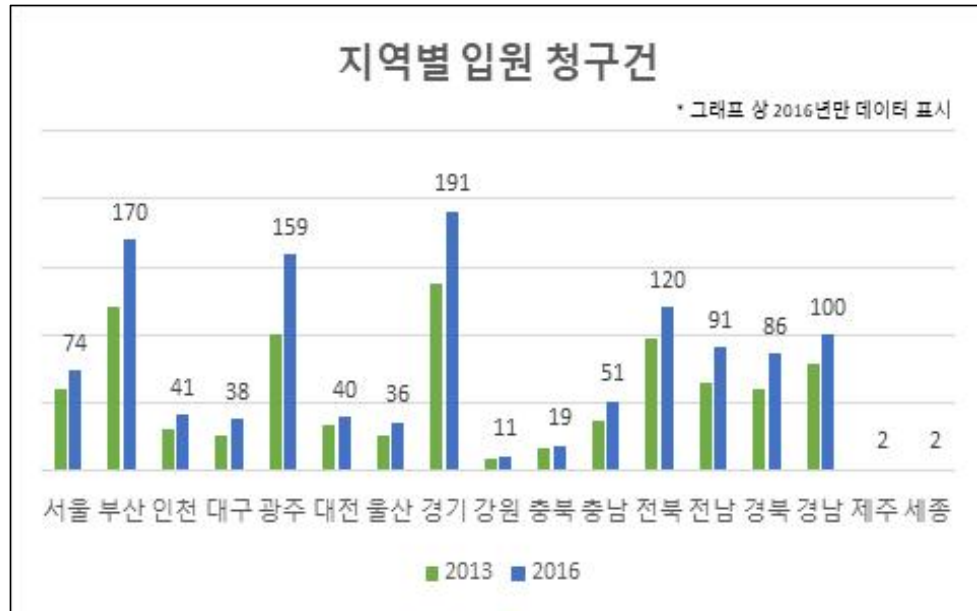
〈표 3-35〉 지역별 입원 청구건 및 진료비

(단위: 천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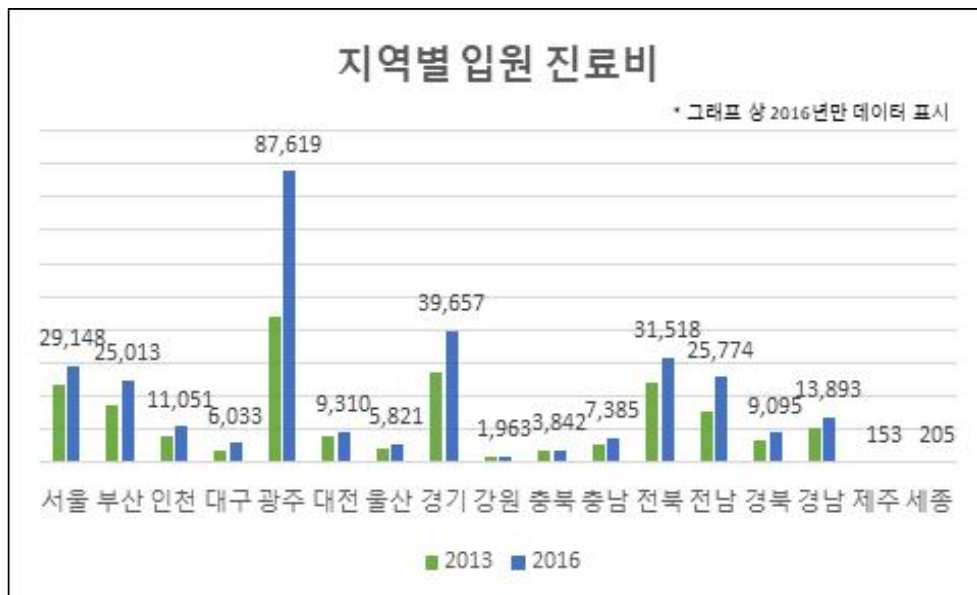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서울	60	23,274	65	24,093	72	26,054	74	29,148	7.2	7.8
부산	120	17,456	142	19,673	156	22,476	170	25,013	12.3	12.7
인천	31	7,895	36	8,935	39	9,638	41	11,051	9.8	11.9
대구	26	3,862	29	3,844	32	4,183	38	6,033	13.5	16.0
광주	101	44,178	122	54,409	142	71,649	159	87,619	16.3	25.6
대전	34	8,315	37	8,391	38	8,818	40	9,310	5.6	3.8
울산	26	4,460	30	4,953	33	5,317	36	5,821	11.5	9.3
경기	137	27,346	153	30,781	173	35,622	191	39,657	11.7	13.2
강원	9	1,866	10	2,138	10	2,241	11	1,963	6.9	1.7
충북	17	3,574	17	3,732	19	3,938	19	3,842	3.8	2.4
충남	37	5,459	39	5,462	47	6,428	51	7,385	11.3	10.6
전북	97	23,852	106	25,239	115	29,258	120	31,518	7.4	9.7
전남	65	15,319	77	19,653	86	23,737	91	25,774	11.9	18.9
경북	61	6,875	69	7,912	75	8,243	86	9,095	12.1	9.8
경남	79	10,568	86	11,156	93	12,459	100	13,893	8.2	9.5
제주	1	165	1	120	2	135	2	153	26.0	-2.5
세종	2	140	1	121	2	181	2	205	0	13.6
계	904	204,605	1,020	230,612	1,134	270,376	1,231	307,481	10.8	14.5

Note : 한방명세서 심사결정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19] 지역별 입원 청구건 (단위: 천건)



[그림 3-20] 지역별 입원 진료비 (단위: 백만원)

9) 지역별 외래 청구건 및 진료비

- 지역별 외래 청구건과 진료비 모두 서울이 약 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기 약 21%, 부산 약 8% 순이었음
- 지역별로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각 18.3%, 25.8%로 세종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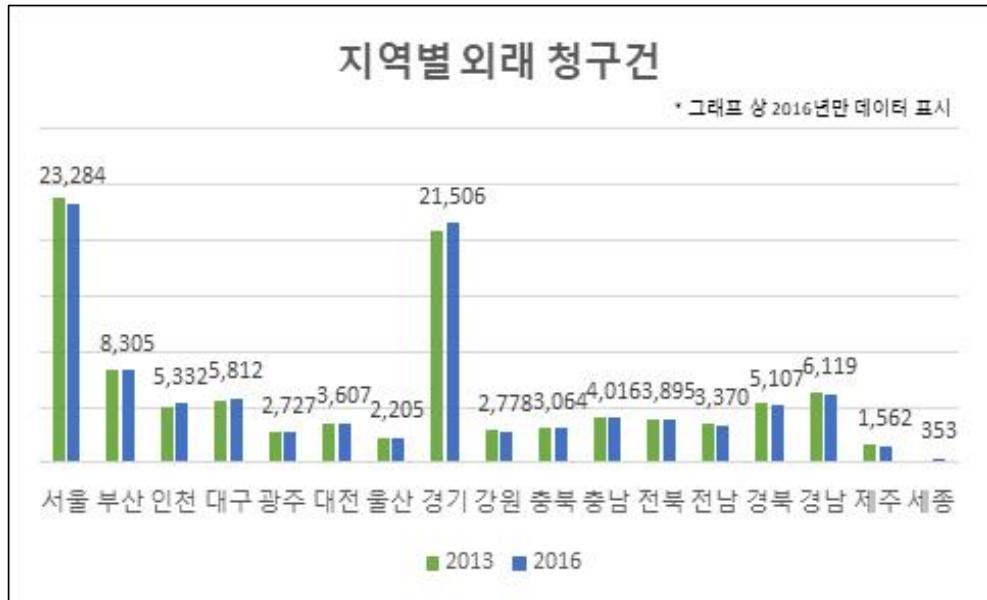
〈표 3-36〉 지역별 외래 청구건 및 진료비

(단위: 천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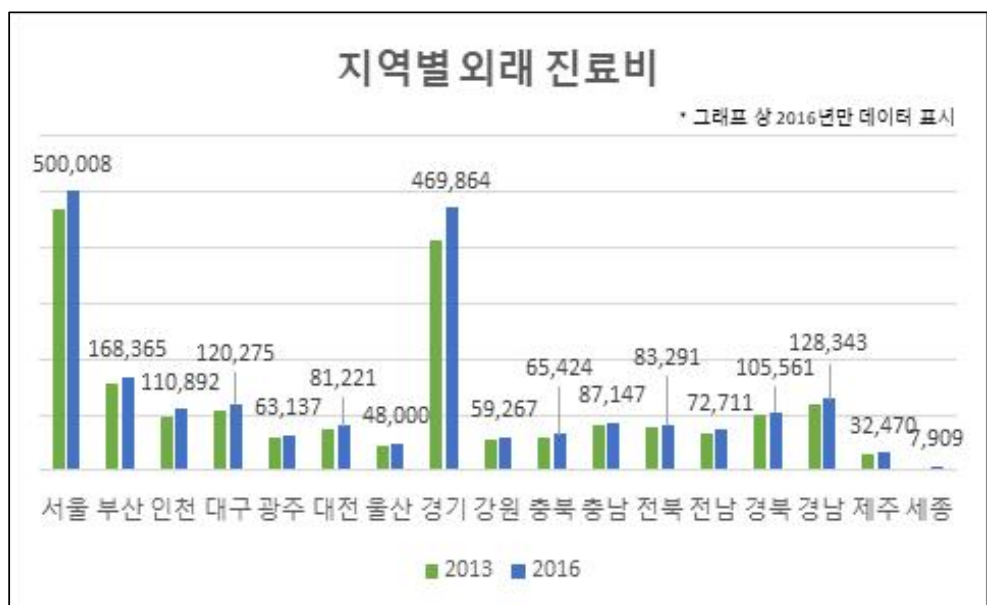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증가율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청구건	진료비
서울	23,858	466,421	24,154	493,025	23,292	488,285	23,284	500,008	-0.8	2.3
부산	8,412	156,760	8,415	162,205	8,268	163,302	8,305	168,365	-0.4	2.4
인천	5,018	95,572	5,341	106,544	5,369	108,982	5,332	110,892	2.0	5.1
대구	5,570	105,786	5,687	112,214	5,665	114,288	5,812	120,275	1.4	4.4
광주	2,754	57,981	2,843	62,303	2,724	60,958	2,727	63,137	-0.3	2.9
대전	3,564	73,499	3,658	78,451	3,541	78,015	3,607	81,221	0.4	3.4
울산	2,229	43,960	2,240	45,950	2,206	46,698	2,205	48,000	-0.4	3.0
경기	20,852	412,580	21,465	444,805	21,067	448,507	21,506	469,864	1.0	4.4
강원	2,876	55,157	2,836	57,654	2,801	58,354	2,778	59,267	-1.1	2.4
충북	3,157	60,687	3,085	62,740	3,047	63,511	3,064	65,424	-1.0	2.5
충남	4,172	81,281	4,103	84,995	4,007	85,156	4,016	87,147	-1.3	2.3
전북	3,948	77,014	3,936	80,606	3,862	80,798	3,895	83,291	-0.4	2.6
전남	3,505	67,656	3,430	70,898	3,388	71,492	3,370	72,711	-1.3	2.4
경북	5,398	100,538	5,358	105,532	5,217	105,537	5,107	105,561	-1.8	1.6
경남	6,251	117,782	6,182	122,877	6,157	125,801	6,119	128,343	-0.7	2.9
제주	1,645	30,632	1,615	31,952	1,618	32,799	1,562	32,470	-1.7	2.0
세종	213	3,971	244	4,867	293	6,216	353	7,909	18.3	25.8
계	103,424	2,007,277	104,592	2,127,619	102,522	2,138,697	103,041	2,203,886	-0.1	3.2

Note : 한방명세서 심사결정기준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그림 3-21] 지역별 외래 청구건 (단위: 천건)



[그림 3-22] 지역별 외래 진료비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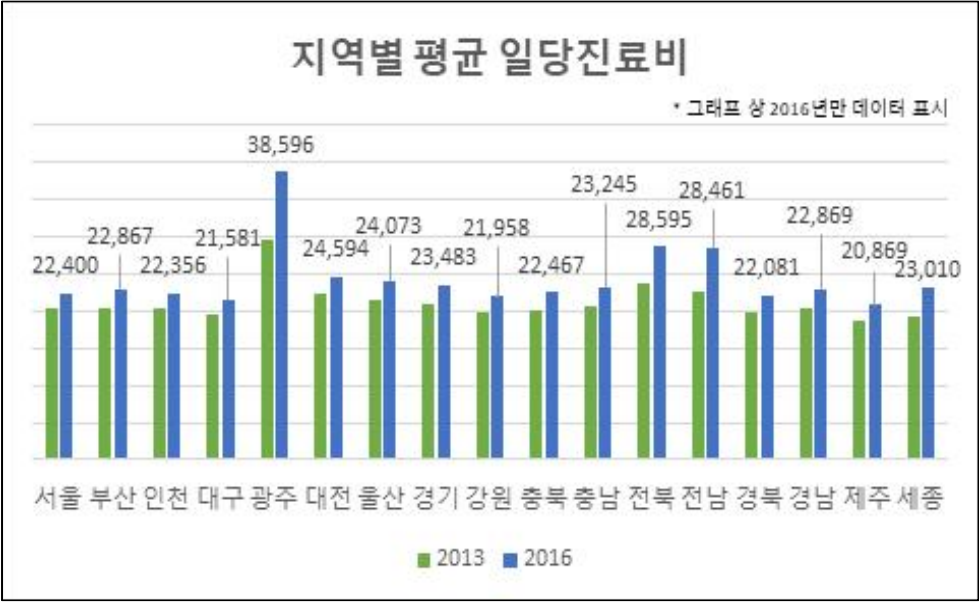
10) 지역별 평균 일당진료비

- 2016년 지역별 평균 일당진료비는 광주가 38,596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증가율 역시 9.2%로 가장 높았음

<표 3-37> 지역별 평균 일당진료비

(단위: 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서울	20,229	21,111	21,777	22,400	3.5
부산	20,398	21,269	22,102	22,867	3.9
인천	20,214	21,165	21,613	22,356	3.4
대구	19,564	20,302	20,810	21,581	3.3
광주	29,623	31,763	35,227	38,596	9.2
대전	22,383	23,221	24,019	24,594	3.2
울산	21,354	22,348	23,208	24,073	4.1
경기	20,770	21,812	22,603	23,483	4.2
강원	19,690	20,909	21,457	21,958	3.7
충북	20,116	21,297	21,895	22,467	3.8
충남	20,617	21,894	22,711	23,245	4.1
전북	23,731	24,983	26,205	28,595	6.4
전남	22,489	24,583	25,868	28,461	8.2
경북	19,817	21,065	21,704	22,081	3.7
경남	20,299	21,487	22,246	22,869	4.1
제주	18,710	19,852	20,350	20,869	3.7
세종	19,260	20,413	21,867	23,010	6.1
계	20,894	21,992	22,850	23,771	4.4



[그림 3-23] 지역별 평균 일당진료비 (단위: 원)

라. 한방건강보험 다빈도 상병의 분석

- 한방건강보험 다빈도 상병의 분석 부분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38〉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다빈도 상병)

1) 22대분류별 청구 분석

- 전체 요양기관 : 요양기관 구분 없이 전체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으로 분석함
- 입원외래구분코드 한방진료 청구 건(보건기관입원한방(073), 한방입원(121), 보건기관외래한방(083), 한방외래(131))
- 입원,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음
- 실환자수 : 건강보험 가입자중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수진자수)로 중복이 없음. 대분류별 실환자수(환자의 상병 청구건이 2개 이상일 수 있음)의 합은 연도별 전체 실환자수(중복없음)와 같지 않음

2) 22대분류별 연령별 진료비 분석

- 연령별 전체 실환자수에는 성별오류를 제외하였으며, 대분류별 전체 실환자수에는 성별오류가 포함되어 두 값이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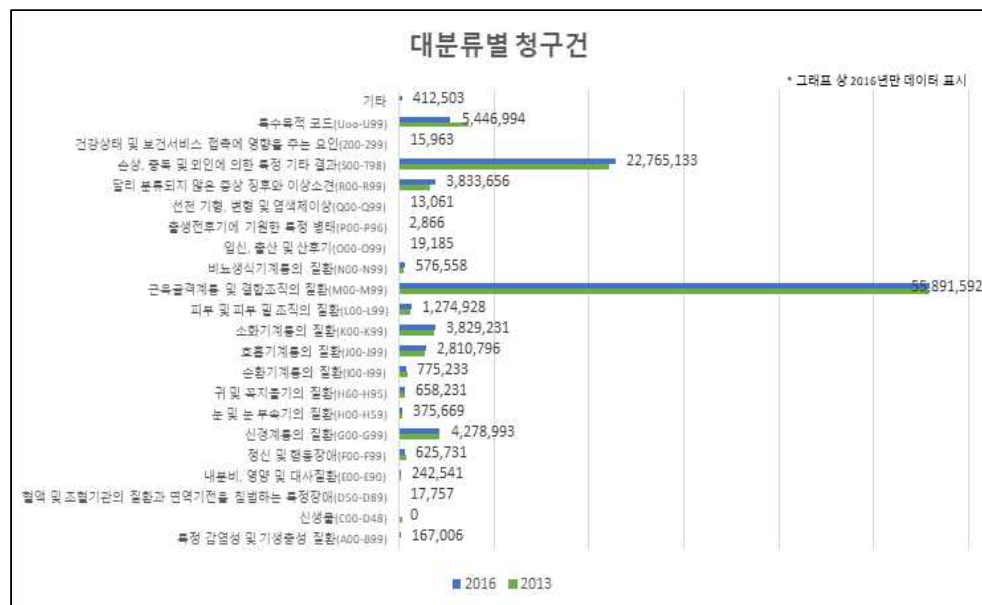
3) 연도별 다빈도 상병 순위

- 표, 그래프 : 연령별 대분류별 실환자수 비율
-

1) 22대분류별 청구분석

가) 대분류별 청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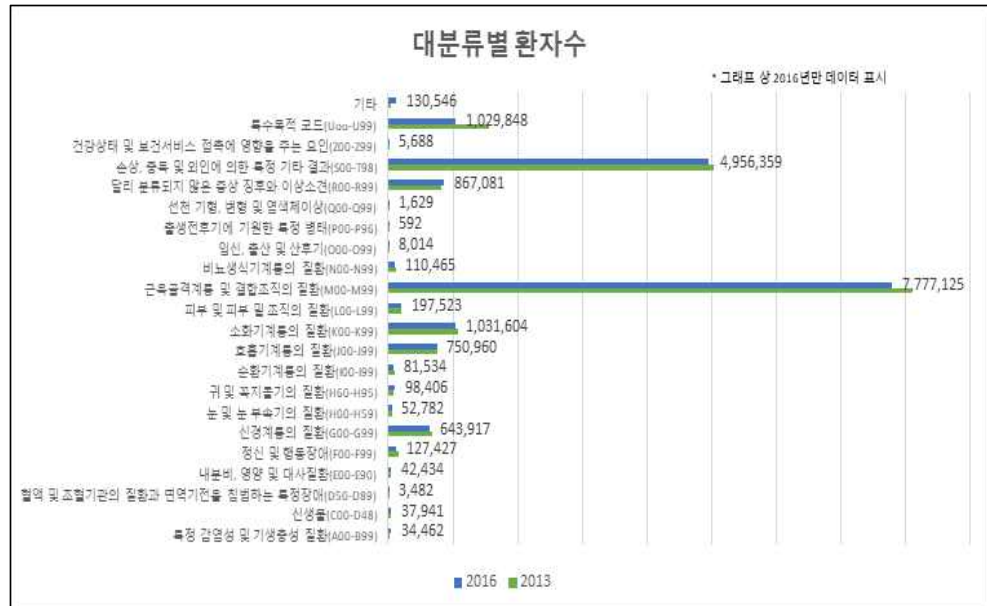
- 2016년 청구건이 많은 질환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53.7%),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21.9%), 특수 목적 코드(5.2%), 신경계통의 질환(4.1%) 등의 순이었음



[그림 3-24] 대분류별 환자수 (단위: 건)

나) 대분류별 실환자수

- 2016년 청구 환자가 많은 질환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43.2%),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27.6%), 소화기계통의 질환 및 특수목적 코드(5.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4.8%) 등의 순이었음



[그림 3-25] 대분류별 환자수 (단위: 명)

〈표 3-39〉 대분류별 청구건, 실환자수

(단위: 건,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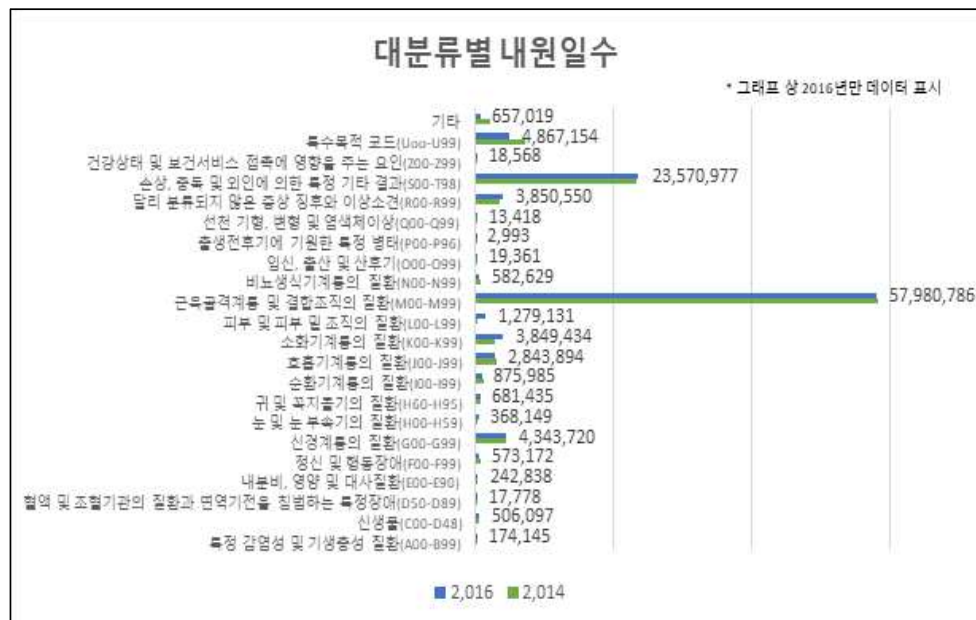
구분 대분류 명칭	청구건(건)					실환자수(명)				
	2013	2014	2015	2016	2016 구성비	2013	2014	2015	2016	2016 구성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123,778	142,944	157,090	167,006	0.2	29,347	31,235	31,687	34,462	0.2
신생물(C00-D48)	310,231	-	-	-	-	31,300	35,423	35,102	37,941	0.2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14,027	14,105	16,262	17,757	0.0	2,791	2,831	3,096	3,482	0.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251,188	240,599	234,328	242,541	0.2	44,824	42,602	40,408	42,434	0.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723,250	700,035	668,551	625,731	0.6	159,346	152,040	142,716	127,427	0.7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4,260,298	4,293,937	4,185,131	4,278,993	4.1	670,673	654,346	635,541	643,917	3.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H00-H59)	350,031	367,101	357,498	375,669	0.4	55,609	53,782	53,141	52,782	0.3
귀 및 쪽지돌기의 질환(H60-H95)	598,400	634,604	643,174	658,231	0.6	89,758	95,209	95,900	98,406	0.5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962,941	940,306	887,958	775,233	0.7	96,182	93,139	90,229	81,534	0.5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2,710,367	2,904,379	2,704,919	2,810,796	2.7	761,796	800,734	748,226	750,960	4.2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9)	3,739,078	3,810,473	3,794,384	3,829,231	3.7	1,083,305	764,577	754,462	1,031,604	5.7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L00-L99)	1,132,090	1,276,213	1,258,242	1,274,928	1.2	196,234	37,631	35,236	197,523	1.1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55,721,894	56,140,059	54,765,026	55,891,592	53.7	8,090,574	7,887,724	7,715,318	7,777,125	43.2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00-N99)	553,642	595,989	564,133	576,558	0.6	117,262	120,934	112,251	110,465	0.6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23,471	24,134	23,623	19,185	0.0	9,376	9,232	9,475	8,014	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2,652	3,978	5,684	2,866	0.0	636	768	966	592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18,573	16,496	13,773	13,061	0.0	2,702	2,427	1,996	1,629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R00-R99)	3,337,701	3,353,959	3,239,449	3,833,656	3.7	816,939	798,968	764,024	867,081	4.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22,077,449	22,681,506	23,009,741	22,765,133	21.9	5,037,946	5,002,084	5,036,776	4,956,359	27.6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20,514	19,478	19,975	15,963	0.0	6,937	7,811	7,085	5,688	0.0
특수목적 코드(U00-U99)	7,395,943	7,132,129	6,573,436	5,446,994	5.2	1,554,175	1,484,513	1,369,925	1,029,848	5.7
기타	0	384,027	374,711	412,503	0.4	43,925	480,120	476,705	130,546	0.7
합계	104,327,519	105,676,451	103,497,088	104,033,627	100.0	13,849,631	18,558,130	18,160,265	17,989,819	100.0

Note : 한의병명(U20-U33), 한의병증(U50-U79), 사상체질병증(U95-U9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다) 대분류별 내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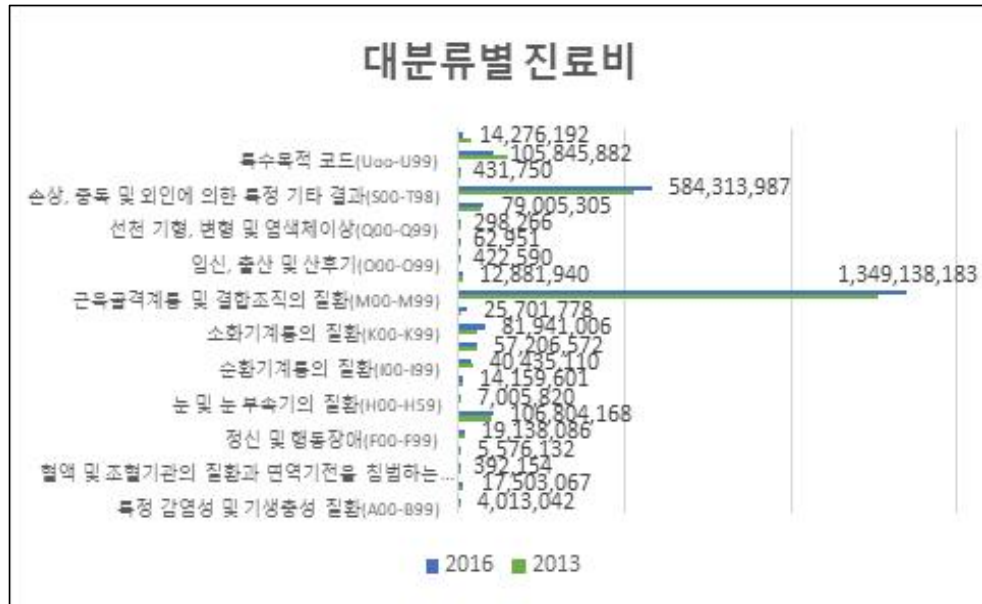
- 2016년 내원일수가 많은 질환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54.0%),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22.0%), 특수목적 코드(4.5%), 신경계통의 질환(4.0%), 소화기계통의 질환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3.6%) 등의 순이었음



[그림 3-26] 대분류별 내원일수 (단위: 일)

라) 대분류별 진료비

- 2016년 22대 분류별 진료비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53.4%),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23.1%), 특수목적 코드(4.2%), 신경계통의 질환(4.2%)의 순이었음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2013년 1조 1,732억원이며, 2016년 1조 3,491억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질환의 2013년 4,879억원에서 2016년 5,843억원으로 6.2% 증가하였음. 특수목적 코드는 2013년 1,445억원에서 2016년 1,058억원으로 1.4% 감소하였음



[그림 3-27] 대분류별 진료비 (단위: 천원)

〈표 3-40〉 대분류별 내원일수, 진료비

(단위: 일, 천원, %)

구분 대분류 명칭	내원일수(일)				진료비(천원)			
	2014	2015	2016	2016 구성비	2014	2015	2016	2016 구성비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A00-B99)	149,475	163,568	174,145	0.2	3,173,904	3,624,728	4,013,042	0.2
신생물(C00-D48)	433,179	438,953	506,097	0.5	12,921,015	14,236,092	17,503,067	0.7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14,383	16,491	17,778	0.0	311,910	363,222	392,154	0.0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241,875	234,519	242,838	0.2	5,175,630	5,111,018	5,576,132	0.2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667,766	624,325	573,172	0.5	18,235,179	18,962,154	19,138,086	0.8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4,387,443	4,262,742	4,343,720	4.0	99,486,239	100,398,331	106,804,168	4.2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H00-H59)	353,975	346,111	368,149	0.3	6,459,576	6,431,628	7,005,820	0.3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H60-H95)	660,682	667,395	681,435	0.6	12,965,429	13,435,841	14,159,601	0.6
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1,094,382	1,008,178	875,985	0.8	42,628,622	42,701,213	40,435,110	1.6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2,939,387	2,733,384	2,843,894	2.6	54,930,533	53,261,275	57,206,572	2.3
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9)	2,854,745	2,824,676	3,849,434	3.6	57,745,516	58,654,007	81,941,006	3.2
피부 및 피부 밑 조직의 질환(L00-L99)	213,805	192,411	1,279,131	1.2	3,676,959	3,445,284	25,701,778	1.0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58,184,684	56,698,986	57,980,786	54.0	1,262,216,828	1,276,249,821	1,349,138,183	53.4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N00-N99)	604,086	570,662	582,629	0.5	12,399,093	12,209,428	12,881,940	0.5
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24,359	23,847	19,361	0.0	505,457	512,513	422,590	0.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4,103	5,873	2,993	0.0	86,137	115,664	62,951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16,533	14,185	13,418	0.0	343,964	308,393	298,266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R00-R99)	3,415,305	3,291,568	3,850,550	3.6	67,345,603	66,630,699	79,005,305	3.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23,223,717	23,723,379	23,570,977	22.0	526,766,130	563,369,499	584,313,987	23.1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26,783	22,138	18,568	0.0	665,887	433,092	431,750	0.0
특수목적 코드(U00-U99)	7,204,217	6,600,338	4,867,154	4.5	146,857,492	138,861,104	105,845,882	4.2
기타	2,068,576	2,076,639	657,019	0.6	41,063,728	42,374,254	14,276,192	0.6
합계	108,783,460	106,540,368	107,319,233	100.0	2,375,960,831	2,421,689,260	2,526,553,582	100.0

Note : 한의병명(U20-U33), 한의병증(U50-U79), 사상체질병증(U95-U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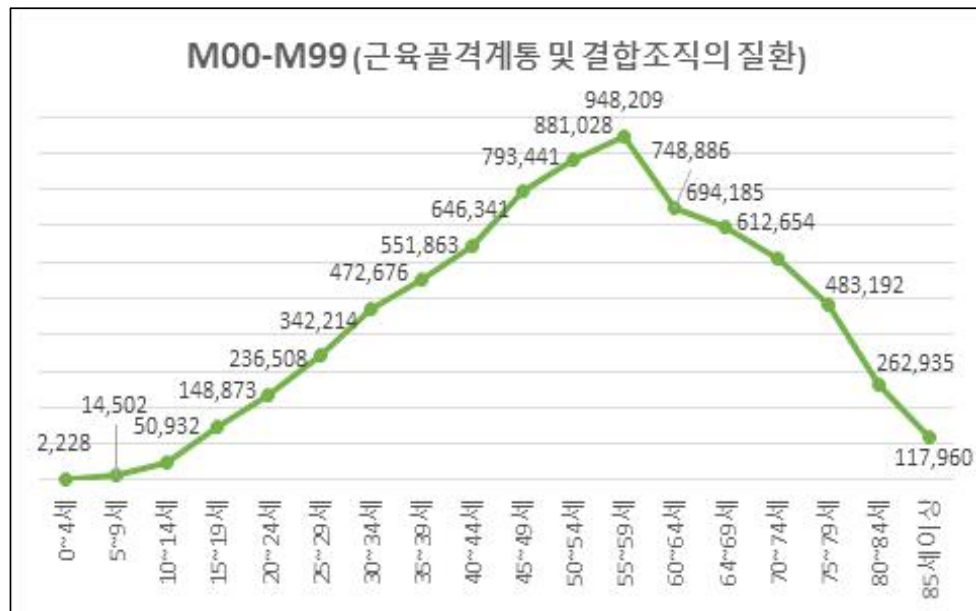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2) 22대분류별 연령별 청구분석

- 대분류별 연령별 청구분석은 한방 청구환자의 90.8%를 점유하고 있는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및 특수목적 코드(U00-U99) 상병을 분석하였음

가)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환자의 연령별 분포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환자는 59세까지 연령에 비례하여 환자수가 증가하였으며, 60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5~59세의 환자가 948,209명으로 가장 많으며, 50~54세, 45~59세, 60~64세 등의 순이었음



[그림 3-28]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환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환자의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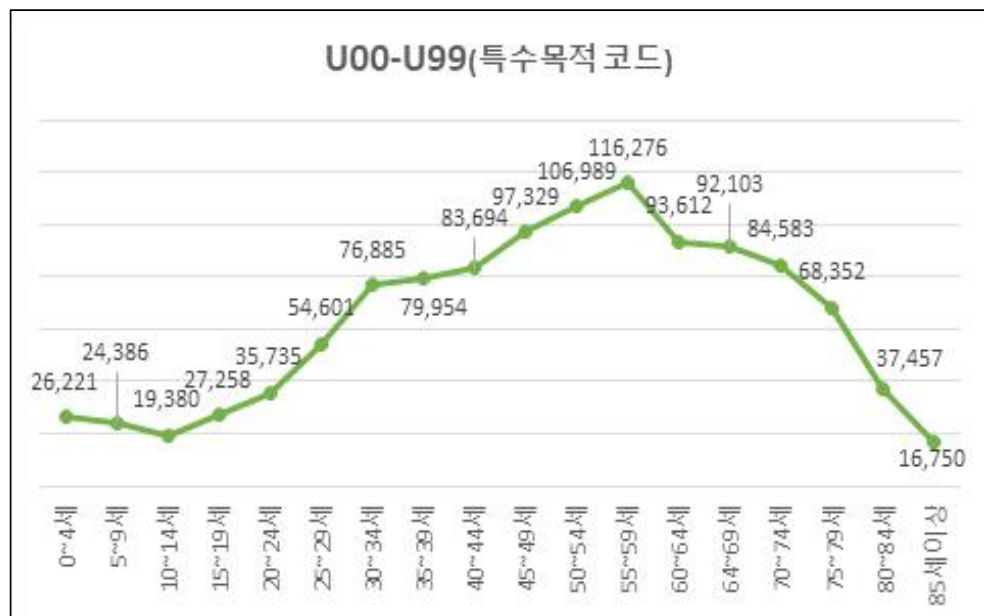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환자는 59세까지 연령에 비례하여 환자수가 증가하였으며, 60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5~59세의 환자가 587,206명으로 가장 많으며, 50~54세, 45~59세, 40~44세 등의 순이었음



[그림 3-2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환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다) 특수목적 코드(U00-U99)환자의 연령별 분포

- 특수목적 코드(U00-U99)환자는 59세까지 연령에 비례하여 환자수가 증가하였으며, 60세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55~59세의 환자가 116,276명으로 가장 많으며, 50~54세, 45~59세, 60~64세, 65세~69세 등의 순이었음



[그림 3-30] 특수목적 코드(U00-U99)환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라) 2016년 대분류별 연령별 실환자수 상위 5위의 청구 현황

-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은 0~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음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S00-T98)은 10~1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음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은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별 환자수가 1순위였음

〈표 3-41〉 2016년 대분류별 연령별 환자수 상위 5위

(단위: 명)

연령	G00-G99	J00-J99	K00-K93	L00-L99	M00-M99	R00-R99	S00-T98	U00-U99
0~4세	1,444	130,644	29,714	14,659	2,228	50,643	2,956	26,221
5~9세	2,674	111,976	35,637	10,669	14,502	33,690	35,500	24,386
10~14세	4,721	54,339	31,563	9,123	50,932	21,420	92,731	19,380
15~19세	10,380	35,399	42,226	15,311	148,873	26,086	165,643	27,258
20~24세	13,933	25,271	49,170	21,376	236,508	27,409	223,823	35,735
25~29세	20,080	30,777	61,095	21,493	342,214	34,511	306,647	54,601
30~34세	26,294	40,122	70,430	19,848	472,676	43,269	395,579	76,885
35~39세	32,400	45,054	74,659	15,880	551,863	47,484	445,257	79,954
40~44세	41,225	44,288	79,629	13,471	646,341	53,946	495,028	83,694
45~49세	55,550	43,078	89,996	13,113	793,441	64,969	568,962	97,329
50~54세	70,507	40,834	92,867	11,736	881,028	73,035	582,515	106,989
55~59세	84,374	44,503	96,454	10,981	948,209	85,446	587,206	116,276
60~64세	71,372	33,921	72,204	7,798	748,886	72,409	410,909	93,612
64~69세	68,481	29,041	69,338	6,015	694,185	72,039	294,802	92,103
70~74세	62,812	22,662	62,514	4,866	612,654	69,277	214,578	84,583
75~79세	50,248	15,545	49,753	3,465	483,192	57,834	144,505	68,352
80~84세	25,997	7,618	27,122	1,781	262,935	31,602	68,156	37,457
85세이상	10,523	3,149	11,566	763	117,960	13,130	26,956	16,750

Note : 연령별 1순위를 진한 색으로 표시함

3) 연도별 다빈도 상병 순위

가) 한방 다빈도 상병 순위

- 한방 다빈도 상병순위는 실환자를 기준으로 3단 상병코드로 순위를 선정하였음
 - 상위 20순위에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8개 상병,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6개 상병, 소화불량(K30), 급성코인두염(감기)(J00), 특수목적코드 2개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 2개 상병이었음
- M54, M79의 환자수가 2016년 36%였으며 2013년~2016년 모두 1위, 2위였음

〈표 3-42〉 청구 환자에 따른 다빈도 상병 20순위(전체 한방의료기관)

(단위: %)

순위	2013		2014		2015		2016		상병(2016년)
	상병	구성비	상병	구성비	상병	구성비	상병	구성비	
1	M54	31.5	M54	24.9	M54	24.2	M54	24.3	M54 등통증
2	M79	13.5	M79	10.8	S33	11.0	M79	11.5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3	S33	13.0	S33	10.6	M79	10.7	S33	11.3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4	S93	9.0	S93	6.8	S93	6.6	M62	6.4	M62 기타 근육장애
5	M75	8.8	M75	6.4	M75	5.8	S93	6.2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6	M62	6.8	M62	5.6	M62	5.6	M75	5.1	M75 어깨병변
7	K30	6.2	M17	4.2	S13	4.1	K30	4.7	K30 소화불량
8	M17	5.4	S13	3.9	M17	3.9	M25	4.5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9	U30	5.0	U30	3.7	M25	3.5	S13	4.3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0	S13	4.7	K30	3.5	K30	3.5	S43	3.0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1	S63	4.4	S63	3.3	U30	3.4	M17	3.0	M17 무릎 관절증
12	M25	3.6	M25	3.1	S63	3.2	S63	3.0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3	S43	3.5	S43	2.8	S43	2.9	U30	2.7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	J00	3.2	J00	2.6	2ZZ	2.8	J00	2.5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15	S83	2.6	S83	2.0	J00	2.4	S83	2.1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6	M77	1.7	M77	1.4	S83	2.1	M77	1.4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17	R10	1.5	R10	1.1	M77	1.4	R10	1.2	R10 복부 및 골반 통증
18	M51	1.5	M51	1.1	R10	1.0	R51	1.0	R51 두통
19	U24	1.4	U24	1.0	M51	1.0	M51	1.0	M51 기타 추간판 장애
20	R51	1.3	R51	1.0	R51	1.0	J30	0.9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나) 상병별 진료비 기준 한방 다빈도 상병 순위 선정

- 환자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을 때 없었던 안면신경장애(G51), 신경계통의 질환(U23), 기타 척추병증(M48)의 상병이 추가되고 복부 및 골반 통증(R10), 두통(R51),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상병이 제외되었음
- M54, S33의 진료비가 2016년 40.8%였으며 M54는 환자수와 같이 진료비에서도 2013년~2016년 모두 1위였음

<표 3-43> 진료비에 따른 다빈도 상병 20순위

(단위: %)

순위	2013		2014		2015		2016		상병(2016년)
	상병	구성비	상병	구성비	상병	구성비	상병	구성비	
1	M54	22.9	M54	30.2	M54	29.4	M54	29.4	M54 등통증
2	M79	7.5	S33	10.2	S33	11.1	S33	11.4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3	S33	7.4	M79	10.1	M79	10.0	M79	10.8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4	M75	5.0	M75	6.0	M75	5.4	M62	5.4	M62 기타 근육장애
5	M17	4.3	M17	5.7	M17	5.3	M75	4.8	M75 어깨병변
6	S93	4.1	S93	5.2	S93	5.1	S93	4.7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7	M62	3.4	M62	4.7	M62	4.7	M25	4.5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8	U30	2.4	M51	3.0	M25	3.4	M17	4.2	M17 무릎 관절증
9	K30	2.3	M25	3.0	S13	3.1	S13	3.3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0	M51	2.2	S13	2.9	M51	3.1	M51	3.2	M51 기타 추간관 장애
11	S13	2.1	U30	2.9	U30	2.6	K30	3.0	K30 소화불량
12	M25	2.0	S43	2.5	S43	2.6	S43	2.6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3	S43	1.8	K30	2.3	K30	2.3	S63	2.1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4	S63	1.8	S63	2.3	ZZZ	2.3	S83	2.0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5	G51	1.5	G51	2.0	S63	2.2	U30	2.0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6	S83	1.5	S83	2.0	S83	2.0	G51	1.9	G51 안면 신경장애
17	U23	1.1	U23	1.4	G51	1.9	U23	1.3	U23 신경계통의 질환
18	U24	0.9	J00	1.2	U23	1.3	M77	1.2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19	M77	0.9	M77	1.2	M77	1.2	J00	1.2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20	J00	0.9	U24	1.1	J00	1.1	M48	1.2	M48 기타 척추병증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연보

다)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한방 다빈도 상병순위(실환자 기준)를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2014년)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서 1위인 등통증(M54)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방 다빈도 상병순위에서도 1위였으며 환자수는 각각 26.5%, 24.5%였음
- (2014년)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상병 순위는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순위와 비슷함
 - 한방병원은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 비해 18위인 기타 추간판장애(M51)가 3위이며,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U30), 기타 골부착부병증(M77), 신경계통의 질환(U24) 대신 경추간판장애(M50), 안면 신경장애(G51), 기타 척추병증(M48)이 20순위에 있음
 - 한의원의 다빈도상병 순위는 전체 순위에 비해 기타 추간판장애(M51) 대신 편두통(G43)이 순위에 있음

〈표 3-44〉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2014)

(단위: %)

순위	한방병원			한의원		
	코드	구성비	상병	코드	구성비	상병
1	M54	26.5	M54 등통증	M54	24.5	M54 등통증
2	S33	15.0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79	10.6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3	M51	8.0	M51 기타 추간판 장애	S33	10.5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4	M79	6.2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S93	6.9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	S13	5.3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75	6.4	M75 어깨병변
6	S93	4.4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62	5.5	M62 기타 근육장애
7	M75	3.7	M75 어깨병변	K30	4.9	K30 소화불량
8	K30	3.3	K30 소화불량	M17	4.0	M17 무릎 관절증
9	M25	3.1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S13	3.9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0	M62	3.0	M62 기타 근육장애	U30	3.8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1	M17	2.9	M17 무릎 관절증	S63	3.4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2	M50	2.9	M50 경추 간판장애	S43	2.8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3	S43	2.6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25	2.8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14	G51	2.6	G51 안면 신경장애	J00	2.6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15	J00	2.3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S83	2.1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6	S63	1.8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77	1.4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17	S83	1.8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R10	1.1	R10 복부 및 골반통증
18	M48	1.7	M48 기타 척추병증	U24	1.0	U24 신경계통의 질환
19	R10	1.6	R10 복부 및 골반통증	R51	1.0	R51 두통
20	R51	1.4	R51 두통	G43	0.9	G43 편두통

- (2015년)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서 1위인 등통증(M54)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방 다빈도 상병순위에서도 1위였으며 환자수는 각각 26.6%, 24.3%였음
- (2015년)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상병 순위는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순위와 비슷함
 - 한방병원은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 비해 19위인 기타 추간판 장애(M51)가 3위이며,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U30), 한방 기타(2ZZ), 기타 골부착부병증(M77) 대신 경추간판장애(M50), 안면 신경장애(G51), 기타 척추병증(M48)이 순위에 있음
 - 한의원의 다빈도상병 순위는 전체 한방의료기관 순위에 비해 한방 기타(2ZZ), 기타 추간판 장애(M51) 대신 신경계통의 질환(U24),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53)이 순위에 있음

〈표 3-45〉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2015)

(단위: %)

순 위	한방병원			한의원		
	코드	구성비	상병	코드	구성비	상병
1	M54	26.6	M54 등통증	M54	24.3	M54 등통증
2	S33	16.4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11.1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3	M51	7.4	M51 기타 추간관 장애	M79	10.7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4	M79	6.2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S93	6.8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	S13	5.2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75	5.9	M75 어깨병변
6	S93	4.2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62	5.6	M62 기타 근육장애
7	M75	3.6	M75 어깨병변	K30	5.0	K30 소화불량
8	K30	3.3	K30 소화불량	S13	4.1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9	M62	3.2	M62 기타 근육장애	M17	3.8	M17 무릎 관절증
10	M25	3.0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U30	3.5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1	M17	2.8	M17 무릎 관절증	S63	3.3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2	M50	2.6	M50 경추 간판장애	M25	3.2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13	S43	2.5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3.0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4	G51	2.4	G51 안면 신경장애	J00	2.4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15	J00	2.2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S83	2.1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6	M48	1.9	M48 기타 척추병증	M77	1.4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17	S83	1.9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R10	1.0	R10 복부 및 골반통증
18	S63	1.8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R51	1.0	R51 두통
19	R10	1.6	R10 복부 및 골반통증	U24	0.9	U24 신경계통의 질환
20	R51	1.2	R51 두통	S53	0.9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2016년)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서 1위인 등통증(M54)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한방 다빈도 상병순위에서도 1위였으며 환자수는 각각 26.6%, 24.2%였음
- (2016년)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상병 순위는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순위와 비슷함
 - 한방병원은 전체 한방 의료기관에 비해 19위인 기타 추간관 장애(M51)가 3위이며,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U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기타 골부착부병증(M77) 대신 경추 간판장애(M50), 안면 신경장애(G51), 기타 척추병증(M48)이 순위에 있음
 - 한의원의 다빈도상병 순위는 한방의료기관 전체 순위에 비해 기타 추간관 장애(M51) 대신 편두통(G43)이 순위에 있음

〈표 3-46〉 환자수에 따른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다빈도 상병 20순위(2016)

(단위: %)

순 위	한방병원			한의원		
	코드	구성비	상병	코드	구성비	상병
1	M54	26.6	M54 등통증	M54	24.2	M54 등통증
2	S33	16.7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79	11.5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3	M51	7.3	M51 기타 추간판 장애	S33	11.2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4	M79	6.3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M62	6.4	M62 기타 근육장애
5	S13	5.4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6.4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6	S93	3.9	S93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M75	5.2	M75 어깨병변
7	M25	3.7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K30	4.8	K30 소화불량
8	M75	3.5	M75 어깨병변	S13	4.3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9	M62	3.4	M62 기타 근육장애	M25	4.3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10	K30	3.0	K30 소화불량	S43	3.1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1	M50	2.6	M50 경추 간판장애	S63	3.1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2	M17	2.5	M17 무릎 관절증	M17	2.9	M17 무릎 관절증
13	S43	2.3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U30	2.7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14	G51	2.2	G51 안면 신경장애	J00	2.5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15	M48	2.2	M48 기타 척추병증	S83	2.1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6	J00	2.2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M77	1.4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17	S83	1.9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R10	1.2	R10 복부 및 골반통증
18	R10	1.6	R10 복부 및 골반통증	R51	1.0	R51 두통
19	S63	1.6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J30	0.9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20	R51	1.1	R51 두통	G43	0.9	G43 편두통

라) 진료비에 따른 특수목적코드(한의상병) 다빈도 상병 20순위

- 진료비에 따른 한의상병코드(U코드)의 다빈도 순위는 한의병명으로 분류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U30), 신경계통의 질환(U23-U24) 등의 순서였음

<표 3-47> 진료비에 따른 특수목적코드(한의상병) 다빈도 상병 20순위

(단위: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한의분류	한글명칭
1	U30	U30	U30	U30	한의병명(韓醫病名)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	U23	U23	U23	U23	한의병명(韓醫病名)	신경계통의 질환
3	U24	U24	U24	U24	한의병명(韓醫病名)	신경계통의 질환
4	U67	U67	U67	U67	한의병증(韓醫病證)	심실증(心實證)
5	U28	U68	U68	U68	한의병증(韓醫病證)	비병증(脾病證)
6	U65	U28	U28	U28	한의병명(韓醫病名)	소화계통의 질환
7	U68	U65	U65	U65	한의병증(韓醫病證)	간실증(肝實證)
8	U64	U71	U71	U22	한의병명(韓醫病名)	정신 및 행동장애
9	U22	U22	U22	U71	한의병증(韓醫病證)	신병증(腎病證)
10	U79	U64	U64	U78	한의병증(韓醫病證)	장부겸병증(臟腑兼病證)
11	U33	U79	U79	U64	한의병증(韓醫病證)	간허증(肝虛證)
12	U71	U33	U78	U66	한의병증(韓醫病證)	심허증(心虛證)
13	U20	U78	U33	U60	한의병증(韓醫病證)	기병증(氣病證)
14	U66	U66	U66	U79	한의병증(韓醫病證)	장부겸병증(臟腑兼病證)
15	U78	U20	U26	U97	사상체질병증(四象體質病證)	태음인병증(太陰人病證)
16	U26	U26	U20	U69	한의병증(韓醫病證)	폐허증(肺虛證)
17	U63	U32	U60	U32	한의병명(韓醫病名)	여성 비뇨 생식기 및 분만관련 질환
18	U73	U60	U32	U73	한의병증(韓醫病證)	위병증(胃病證)
19	U60	U69	U69	U62	한의병증(韓醫病證)	기혈음양병증(氣血陰陽病證)
20	U62	U63	U73	U61	한의병증(韓醫病證)	혈병증(血病證)

마) 내원일수에 따른 특수목적코드(한의상병) 다빈도 상병 20순위

- 내원일수에 따른 한의상병코드(U코드)의 다빈도 순위는 한의병명으로 분류된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U30), 신경계통의 질환(U23-U24) 등의 순서였음

<표 3-48> 내원일수에 따른 특수목적코드(한의상병) 다빈도 상병 20순위

(단위: 일, %)

순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코드	코드	코드	코드	한의분류	한글명칭
1	U30	U30	U30	U30	한의병명(韓醫病名)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2	U23	U23	U23	U23	한의병명(韓醫病名)	신경계통의 질환
3	U24	U24	U24	U24	한의병명(韓醫病名)	신경계통의 질환
4	U67	U67	U67	U67	한의병증(韓醫病證)	심실증(心實證)
5	U28	U68	U68	U68	한의병증(韓醫病證)	비병증(脾病證)
6	U68	U28	U28	U28	한의병명(韓醫病名)	소화계통의 질환
7	U65	U65	U65	U65	한의병증(韓醫病證)	간실증(肝實證)
8	U79	U33	U71	U71	한의병증(韓醫病證)	신병증(腎病證)
9	U33	U71	U33	U64	한의병증(韓醫病證)	간허증(肝虛證)
10	U64	U64	U64	U78	한의병증(韓醫病證)	장부겸병증(臟腑兼病證)
11	U71	U79	U22	U22	한의병명(韓醫病名)	정신 및 행동장애
12	U22	U22	U78	U66	한의병증(韓醫病證)	심허증(心虛證)
13	U20	U78	U66	U97	사상체질병증 (四象體質病證)	태음인병증(太陰人炳證)
14	U66	U66	U79	U60	한의병증(韓醫病證)	기병증(氣病證)
15	U26	U26	U26	U69	한의병증(韓醫病證)	폐허증(肺虛證)
16	U78	U20	U20	U79	한의병증(韓醫病證)	장부겸병증(臟腑兼病證)
17	U73	U60	U69	U73	한의병증(韓醫病證)	위병증(胃病證)
18	U32	U32	U97	U32	한의병명(韓醫病名)	여성 비뇨생식기 및 분만관련 질환
19	U69	U69	U60	U50	한의병증(韓醫病證)	육음병증(六淫病證)
20	U60	U73	U32	U61	한의병증(韓醫病證)	혈병증(血病證)

4) 한방 다빈도 20순위 상병의 양방 의료 이용 비교 분석

- 한방 다빈도 20순위 상병의 양방 의료이용 비교 분석 부분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49〉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다빈도 20순위 양·한방 비교)

-
- 전체 요양기관 : 요양기관 구분이 없이 전체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으로 분석하였음.
 - 한방 기준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입원한방(073), 한방입원(121), 보건기관외래한방(083), 한방외래(131)인 청구건(의과의료기관 내 한방진료 포함)
 - 양방 기준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입원의과(071), 의과입원(021), 보건기관외래의과(081), 의과외래(031)인 청구건(한방의료기관 내 의과진료 포함)
 - 실환자수 : 건강보험 가입자중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수진자수)로 중복이 없음. 실환자수이기 때문에 10순위 실환자수들의 합이 소계 실환자수와 다름
 - 연평균 증가율 : 2013~2016년 증가율
-

가) 한방 다빈도 상병의 의과 순위

(1) 한방 다빈도 상병 순위

- 2016년 한방입원 및 외래 모두 1위 상병은 등통증(M54)로 의과 입원의 26위, 의과 외래의 9위를 차지하고 있었음
- 한방 다빈도 입원 2위 상병은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33)으로 의과 입원의 14위였음
- 한방 다빈도 외래 2위 상병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M79)로 의과 입원의 19위였음

〈표 3-50〉 2016년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에 따른 의과 순위

(단위: 명)

순 위	입원			외래			
	질병분 류 기호	실환자 수	의과 순위	질병분류기호		실환자수	의과 순위
1	M54	68,090	26	M54	등 통 증	4,089,899	9
2	S33	39,952	14	M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1,944,211	19
3	M79	28,697	135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889,481	28
4	M17	26,770	8	M62	기타 근육 장애	1,083,664	145
5	M51	25,256	5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057,335	30
6	M25	17,157	123	M75	어 깨 병 변	868,156	29
7	I63	11,609	12	K30	소 화 불 량	799,257	106
8	G81	9,647	78	M2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756,485	49
9	F00	8,737	16	S13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733,387	68
10	I69	8,397	112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14,082	94
11	M48	8,175	9	S63	손목 및 손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07,351	50
12	U23	7,270	없음	M17	무 료 관 절 증	489,858	20
13	M75	7,162	11	U30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451,607	없음
14	M62	6,566	257	J00	급성비인두염(감기)	421,792	12
15	M50	6,207	21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347,092	83
16	G51	4,946	161	M77	기타 골부착부병증	233,853	62
17	S13	4,239	108	R10	복부 및 골반통증	204,369	44
18	G20	4,195	91	R51	두 통	169,611	80
19	S83	3,767	23	J30	혈관 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155,850	3
20	M47	3,664	104	M51	기타 추간판 장애	148,418	32

Note : 의과 순위가 없는 상병은 의과상병 중 500순위 이상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나) 한방 다빈도 상병 비교

(1) 한방 다빈도 상병 실환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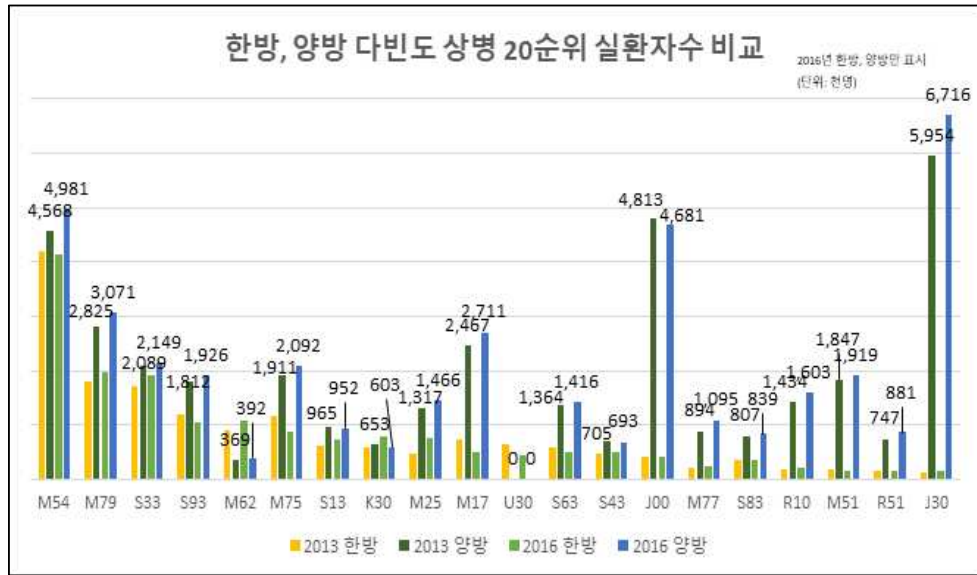
- 2016년 실환자수가 많은 다빈도 상병을 기준으로 20순위를 선정하여 의과 상병과 비교하여 청구분석을 하였음
- 2016년 한방 상위 20순위의 상병 중 한방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의 환자가 17.1%의 증가율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양방은 기타 골부착부병증(M77)의 환자가 7.0%의 증가율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표 3-51〉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 양방 질환자수 비교

(단위: 천명, %)

질환명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M54	4,209	4,568	4,285	4,680	4,174	4,785	4,144	4,981	-0.5	2.9
M79	1,803	2,825	1,855	2,937	1,835	2,970	1,972	3,071	3.0	2.8
S33	1,732	2,089	1,823	2,118	1,898	2,132	1,922	2,149	3.5	0.9
S93	1,198	1,812	1,172	1,843	1,129	1,867	1,059	1,926	-4.0	2.1
M62	913	369	961	376	962	383	1,090	392	6.1	2.0
M75	1,169	1,911	1,101	1,955	995	2,012	875	2,092	-9.2	3.1
S13	632	965	673	970	703	959	737	952	5.3	-0.5
K30	591	653	604	630	601	614	802	603	10.7	-2.6
M25	481	1,317	531	1,358	602	1,380	773	1,466	17.1	3.6
M17	726	2,467	723	2,535	665	2,617	515	2,711	-10.8	3.2
U30	665	-	644	-	586	-	453	-	-12.0	-
S63	589	1,364	569	1,384	549	1,377	508	1,416	-4.8	1.3
S43	472	705	488	705	506	695	516	693	3.0	-0.6
J00	424	4,813	451	4,966	413	4,660	423	4,681	-0.1	-0.9
M77	230	894	238	946	242	1,010	234	1,095	0.6	7.0
S83	349	807	352	808	358	817	350	839	0.1	1.3
R10	195	1,434	191	1,462	179	1,492	205	1,603	1.7	3.8
M51	194	1,847	187	1,879	172	1,886	168	1,919	-4.7	1.3
R51	174	747	174	757	170	793	171	881	-0.6	5.7
J30	138	5,954	154	6,354	152	6,269	156	6,716	4.2	4.1

Note : 전체, 소계, 각 상병 질환자수



[그림3-31] 한방 20대 항목 양 · 한방 실환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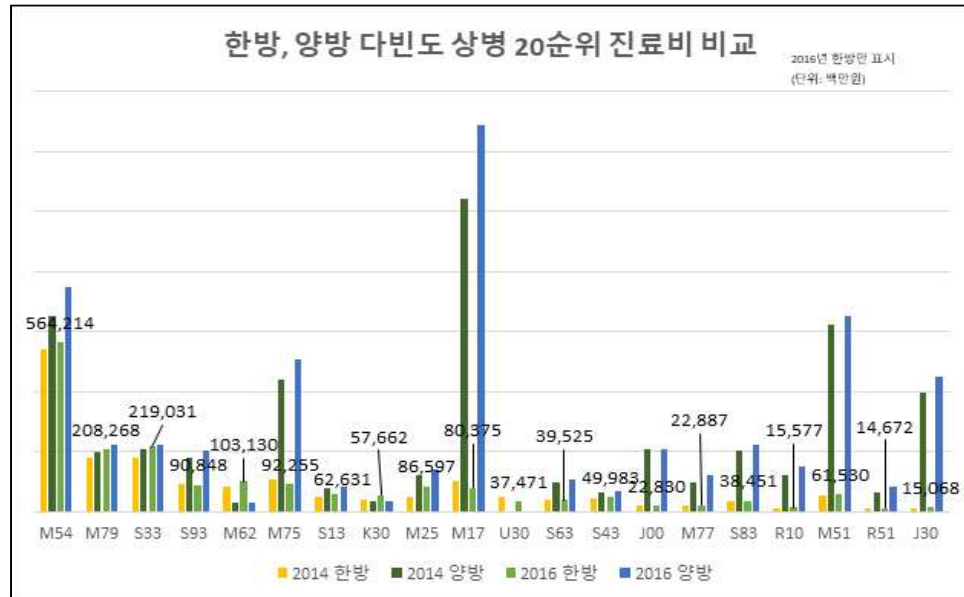
(2) 한방 다빈도 상병 진료비 비교

- 2016년 한방 상위 20순위의 상병 중 한방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의 진료비가 25.1%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음
- 한방 상위 20순위의 양방 진료비는 두통(R51)가 14.6%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음
- 어깨 병변(M75), 무릎 관절증(M17),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U30),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63)은 한방 진료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표 3-52〉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 양방 진료비 비교

(단위: 백만원, %)

질환명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M54	539,918	652,735	543,725	693,030	564,214	748,505	3.7	8.9
M79	180,227	198,879	184,223	208,996	208,268	222,074	8.1	8.8
S33	182,706	211,472	204,658	216,592	219,031	224,080	10.3	4.7
S93	93,338	181,456	93,562	192,225	90,848	205,124	0.3	8.0
M62	84,217	30,125	87,038	31,192	103,130	33,392	10.6	6.9
M75	107,938	438,208	100,536	467,096	92,255	507,447	-5.7	8.7
S13	52,640	81,983	56,974	83,127	62,631	83,871	9.8	3.7
K30	41,428	34,783	42,681	34,561	57,662	35,393	14.6	3.2
M25	53,085	121,625	63,809	128,369	86,597	143,316	25.1	10.3
M17	102,397	1,040,415	97,522	1,137,738	80,375	1,285,255	-5.5	10.6
U30	52,531	-	48,659	-	37,471	-	-10.4	-
S63	41,159	97,997	41,409	101,074	39,525	107,228	-0.8	6.0
S43	44,662	66,173	47,750	68,249	49,983	71,187	7.0	5.1
J00	21,790	211,280	20,797	202,361	22,830	210,307	5.7	3.6
M77	21,343	98,069	22,380	108,165	22,887	120,796	5.6	12.6
S83	34,971	206,736	37,227	212,683	38,451	222,061	5.9	3.7
R10	13,405	120,976	13,135	131,210	15,577	151,950	7.1	12.5
M51	54,116	625,424	56,758	638,519	61,530	654,012	8.8	3.7
R51	13,721	65,873	13,800	71,191	14,672	86,041	4.0	14.6
J30	13,006	397,161	13,604	407,108	15,068	451,971	11.0	10.6



[그림3-32] 한방 20대 항목 양 · 한방 진료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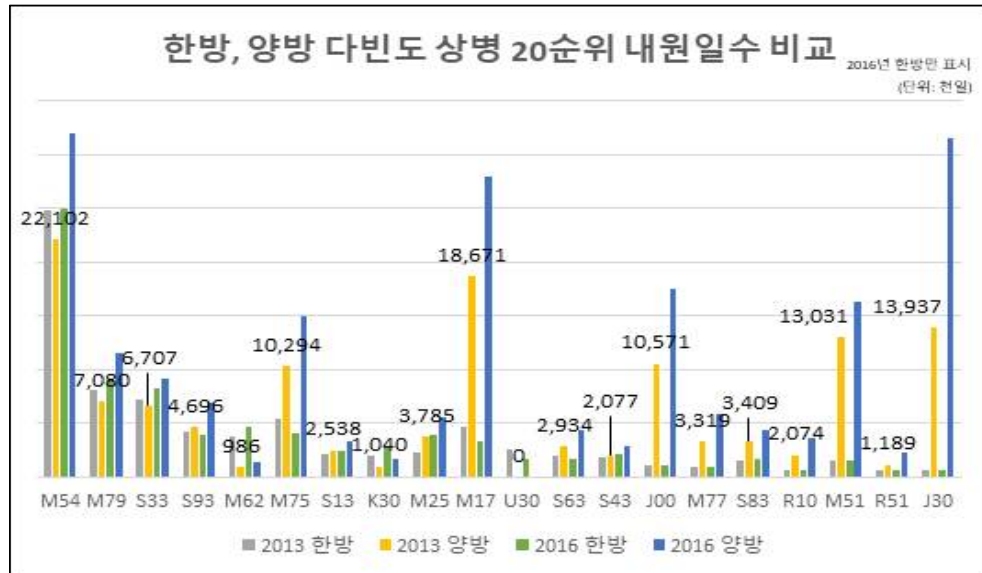
(3) 한방 다빈도 상병 내원일수 비교

- 2016년 한방 상위 20순위의 상병 중 한방의 경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M25)의 내원일수가 20.7%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음
- 한방 상위 20순위의 양방 내원일수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환자(J30)가 31.2%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음
-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93), 어깨 병변(M75), 무릎 관절증(M17),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S63), 기타 추간판 장애(M51)은 한방 내원일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양방 내원일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표 3-53〉 한방 다빈도 상병 20순위 양방 내원일수 비교

(단위: 천일, %)

질환명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한방	양방
M54	24,815	22,102	25,426	22,538	24,707	22,547	24,945	31,937	0.2	13.1
M79	8,059	7,080	8,458	7,411	8,403	7,472	9,211	11,479	4.6	17.5
S33	7,201	6,707	7,658	6,783	8,074	6,683	8,272	9,168	4.7	11.0
S93	4,287	4,696	4,264	4,857	4,159	4,935	3,915	6,968	-3.0	14.1
M62	3,757	986	4,007	1,033	4,021	1,023	4,631	1,407	7.2	12.6
M75	5,429	10,294	5,126	10,467	4,652	10,587	4,133	15,006	-8.7	13.4
S13	2,116	2,538	2,257	2,579	2,343	2,543	2,483	3,432	5.5	10.6
K30	1,978	1,040	2,044	997	2,051	978	2,718	1,689	11.2	17.5
M25	2,277	3,785	2,598	3,840	3,017	3,871	4,008	5,639	20.7	14.2
M17	4,652	18,671	4,755	19,198	4,371	19,319	3,399	27,891	-9.9	14.3
U30	2,602	-	2,525	-	2,275	-	1,685	-	-13.5	-
S63	1,994	2,934	1,940	2,979	1,898	2,951	1,753	4,369	-4.2	14.2
S43	1,932	2,077	2,035	2,082	2,109	2,059	2,141	2,856	3.5	11.2
J00	1,099	10,571	1,182	10,755	1,089	9,931	1,161	17,492	1.8	18.3
M77	969	3,319	1,021	3,478	1,038	3,686	1,024	5,840	1.9	20.7
S83	1,595	3,409	1,645	3,412	1,695	3,399	1,679	4,373	1.7	8.7
R10	639	2,074	643	2,127	613	2,199	705	3,634	3.3	20.6
M51	1,630	13,031	1,663	13,091	1,551	12,669	1,543	16,256	-1.8	7.6
R51	664	1,189	675	1,220	656	1,284	687	2,353	1.1	25.5
J30	629	13,937	700	14,996	696	14,892	742	31,453	5.7	31.2



[그림3-33] 한방 20대 항목 양 · 한방 내원일수 비교

5) 한방건강보험 약제 처방현황

- 한방건강보험 약제 처방현황 부분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54>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방건강보험 약제 처방현황)

1) 종별 연도별 약제비 및 투약일수

- 전체 요양기관 : 요양기관 구분이 없이 전체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기관)으로 분석함
- 기타 요양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

2)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 구성비 : $\text{약제비(투약일수)} / \text{총합계} \times 100$
- 누적비율이 90% 이하인 경우만 표시하였음

3) 한방 건강보험 연령별 약제비

- 연령별 비율 : $\text{각 연령군 약제비} / \text{해당 연령 총약제비} \times 100$

4) 단미엑스산제 : 한방 의료보험급여 처방 조제용 개별 한약재 추출물

혼합엑스산제 : 단미엑스제를 기존 한방처방에 따라 혼합한 제제

가) 한방건강보험 약제비 및 투약일수(전체)

○ 전체 약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전체 약제비 287억원에서 2016년 315억원으로 약 10% 증가함
- 2014년 287억원에서 285억원으로 약 0.7% 감소함

○ 전체 투약일수도 약제비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전체 투약일수 2,557만일에서 2016년 3,100만일로 약 21% 증가함

〈표 3-55〉 중별 연도별 약제비 및 투약일수

(단위: 원, 일, %)

구분	약제비				투약일수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한방 병원	1,467,589,894	1,629,147,938	1,926,374,876	2,163,532,109	891,246	1,042,758	1,273,016	1,447,687
	5.1	5.7	6.6	6.9	3.5	4.0	4.6	4.7
한의원	26,729,793,222	26,306,584	26,501,695,71	28,768,001,78	24,378,129	24,950,591	26,304,893	29,131,279
	93.0	92.3	91.4	91.1	95.3	94.8	94.1	94.0
요양 병원	287,796,413	209,337,624	254,716,612	210,997,170	162,168	125,261	158,677	144,469
	1.0	0.7	0.9	0.7	0.6	0.5	0.6	0.5
기타	246,181,164	346,519,683	324,261,932	422,060,862	141,520	205,424	213,813	279,265
	0.9	1.2	1.1	1.3	0.6	0.8	0.8	0.9
전체	28,731,360,693	28,505,641,169	29,006,992,991	31,564,670,319	25,573,063	26,324,034	27,950,399	31,002,7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ote :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 전체 혼합엑스산제 약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279억원에서 2016년 300억원으로
약 8.0% 증가함

○ 전체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도 약제비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 1,977만일에서 2016년 2,524만일
로 약 28.0% 증가함

〈표 3-56〉 종별 연도별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단위: 원, 일, %)

구분	약제비				투약일수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한방 병원	1,467,829,381	1,628,726,009	1,918,042,760	2,155,125,510	889,563	1,041,054	1,268,380	1,429,701
	5.3	5.9	6.9	7.2	4.5	4.8	5.4	5.7
한 의 원	25,376,119,639	25,317,338,464	25,357,755,546	27,270,284,622	18,574,141	20,293,061	21,738,344	23,399,962
	92.8	92.1	91.0	90.8	94.0	93.7	93.0	92.7
요양 병원	287,490,389	208,358,830	253,482,266	202,152,743	160,081	123,020	155,269	135,599
	1.0	0.8	0.9	0.7	0.8	0.6	0.7	0.5
기타	246,169,235	346,519,683	323,299,968	418,427,407	141,471	205,424	213,308	277,971
	0.9	1.3	1.2	1.4	0.7	0.9	0.9	1.1
전체	27,877,199,581	27,500,992,936	27,852,600,540	30,045,990,282	19,765,256	21,662,559	23,375,301	25,243,2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ote :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 전체 단미엑스산제 약제비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단미엑스산제 약제비 8억 5,416만에서 2016년 11억 5,439만으로 약 35.0% 증가함

○ 반면 전체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는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13년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 580만에서 2016년 576만일로 약 1% 감소함
- 2013년 대비 2014년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는 약 20% 감소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는 약 26% 증가하였음

<표 3-57> 종별 연도별 단미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단위: 원, 일, %)

구분	약제비				투약일수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한방 병원	169,576	421,979	8,332,116	8,406,599	1,683	1,704	4,636	17,986
	0.0	0.0	0.7	0.6	0.0	0.0	0.1	0.3
한의원	853,673,583	1,003,247,410	1,143,864,025	1,497,795,556	5,803,988	4,657,530	4,566,549	5,731,317
	99.9	99.9	99.1	98.6	99.9	99.9	99.8	99.5
요양 병원	306,024	978,794	1,234,346	8,844,427	2,087	2,241	3,408	8,870
	0.0	0.1	0.1	0.6	0.0	0.0	0.1	0.2
기타	11,929	-	961,964	3,633,455	49	-	505	1,294
	0.0	0.0	0.1	0.2	0.0	0.0	0.0	0.0
전체	854,161,112	1,004,648,183	1,154,392,451	1,518,680,087	5,807,807	4,661,475	4,575,098	5,759,4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Note :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나)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 2014년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처방 한약제제(56종 혼합엑스산제, 67종 단미엑스산제)의 다빈도 상위 10개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혼합엑스산제의 70.3%, 단미엑스산제의 85.2%를 차지하고 있음
- 2014년 56종 혼합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오적산으로 26.5%를 차지하며, 67종 단미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작약으로 37.3%를 차지하고 있음

〈표 3-58〉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4년)

(단위: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한방 56종 혼합엑스산제	1	오적산	7,288,173	26.5
	2	구미강활탕	2,045,098	7.4
	3	궁하탕	1,754,985	6.4
	4	소청룡탕	1,392,417	5.1
	5	이진탕	1,374,006	5.0
	6	삼소음	1,366,932	5.0
	7	보중익기탕	1,250,604	4.5
	8	향사평위산	1,109,557	4.0
	9	연교패독산	878,084	3.2
	10	평위산	872,020	3.2
한방 67종 단미엑스산제	1	작약	375,060	37.3
	2	감초	251,719	25.1
	3	강활	45,326	4.5
	4	인삼	43,626	4.3
	5	당귀	36,254	3.6
	6	방풍	27,516	2.7
	7	독활	21,648	2.2
	8	창출	20,889	2.1
	9	반하	17,269	1.7
	10	계지	17,179	1.7

자료: 2016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5년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처방 한약제제(56종 혼합엑스산제, 67종 단미엑스산제)의 다빈도 상위 10개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혼합엑스산제의 71.2%, 단미엑스산제의 94.5%를 차지하고 있음
- 2015년 56종 혼합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오적산으로 25.9%를 차지하며, 67종 단미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작약으로 43.0%를 차지하고 있음

〈표 3-59〉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5년)

(단위: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한방 56종 혼합엑스산제	1	오적산	7,216,131	25.9
	2	궁하탕	2,368,006	8.5
	3	구미강활탕	2,008,712	7.2
	4	소청룡탕	1,430,327	5.1
	5	삼소음	1,375,279	4.9
	6	보중익기탕	1,224,522	4.4
	7	이진탕	1,190,683	4.3
	8	향사평위산	1,147,186	4.1
	9	반하사심탕	1,022,048	3.7
	10	평위산	870,311	3.1
한방 67종 단미엑스산제	1	작약	496,856	43.0
	2	감초	327,571	28.4
	3	인삼	112,976	9.8
	4	강활	38,315	3.3
	5	방풍	26,092	2.3
	6	당귀	23,912	2.1
	7	독활	19,795	1.7
	8	창출	16,159	1.4
	9	반하	16,108	1.4
	10	계지	12,411	1.1

자료: 2016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16년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처방 한약제제(56종 혼합엑스산제, 67종 단미엑스산제)의 다빈도 상위 10개의 요양급여비용은 전체 혼합엑스산제의 71.6%, 단미엑스산제의 96.5%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56종 혼합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오적산으로 25.6%를 차지하며, 67종 단미엑스산제 1순위 요양급여비용은 작약으로 46.9%를 차지하고 있음

〈표 3-60〉 한방약제 다빈도 처방순위(2016년)

(단위: 천원, %)

구분	순위	처방목록	요양급여비용	비율
한방 56종 혼합엑스산제	1	오적산	7,679,685	25.6
	2	궁하탕	2,778,786	9.2
	3	구미강활탕	2,138,587	7.1
	4	소청룡탕	1,501,860	5.0
	5	삼소음	1,378,038	4.6
	6	이진탕	1,309,993	4.4
	7	보중익기탕	1,287,134	4.3
	8	반하사심탕	1,266,021	4.2
	9	향사평위산	1,219,477	4.1
	10	반하백출천마탕	931,170	3.1
한방 67종 단미엑스산제	1	작약	711,973	46.9
	2	감초	450,028	29.6
	3	인삼	128,229	8.4
	4	강활	39,588	2.6
	5	방풍	29,368	1.9
	6	독활	25,665	1.7
	7	당귀	24,433	1.6
	8	맥문동	19,911	1.3
	9	계지	19,421	1.3
	10	창출	18,575	1.2

자료: 2016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는 오적산이 25.6%(2016년)~28.5%(2013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은 오적산, 구미강활탕, 보중익기탕, 궁하탕, 삼소음이 50.6%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은 오적산, 구미강활탕, 궁하탕, 소청룡탕, 이진탕이 50.4%, 2015년은 오적산, 궁하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삼소음이 51.7%, 2016년은 오적산, 궁하탕, 구미강활탕, 소청룡탕, 삼소음이 51.5%를 차지하였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적산, 구미강활탕, 궁하탕은 지속적으로 높은 약제비를 차지함

〈표 3-61〉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3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27,877,199,581	—	1,467,420,318	25,876,119,639	287,490,389	246,169,235
오적산	7,943,437,118	28.5	329,576,932	7,528,735,038	43,962,618	41,162,530
구미강활탕	2,206,208,264	36.4	63,870,773	2,105,964,480	9,795,525	26,577,486
보중익기탕	1,354,423,908	41.3	54,700,646	1,258,851,128	28,425,851	12,446,283
궁하탕	1,351,506,863	46.1	2,142,504	1,347,690,914	1,085,605	587,840
삼소음	1,258,726,070	50.6	58,563,528	1,184,520,335	9,475,982	6,166,225
이진탕	1,253,673,022	55.1	10,102,181	1,236,723,520	5,938,595	908,726
갈근탕	1,248,156,608	59.6	89,201,347	1,141,532,58	7,723,068	9,699,685
소청룡탕	1,247,699,942	64.1	73,877,164	1,155,107,541	8,000,416	10,714,821
향사평위산	1,115,871,731	68.1	46,807,690	1,025,896,830	34,499,893	8,667,318
평위산	931,444,383	71.4	16,593,108	908,287,327	3,893,031	2,670,917
연교괘독산	868,144,529	74.5	103,420,115	755,472,619	2,998,944	6,252,851
인삼괘독산	698,130,787	77.0	34,545,732	653,980,538	4,113,346	5,491,171
가미소요산	668,721,915	79.4	53,676,517	590,484,773	10,326,790	14,233,835
반하백출 천마탕	658,167,247	81.8	66,496,687	574,306,631	8,829,051	8,534,878
반하사심탕	642,512,518	84.1	42,422,599	586,824,509	9,910,930	3,354,480
형개연교탕	430,839,213	85.7	33,850,426	392,436,771	1,815,324	2,736,692
소시호탕	409,881,991	87.1	19,398,224	381,834,197	4,697,189	3,952,381
팔물탕	383,060,972	88.5	65,287,742	245,476,277	44,759,823	27,537,130
내소산	377,800,333	89.9	12,220,895	362,385,223	2,564,707	629,508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62〉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4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27,500,992,986	—	1,628,726,009	25,317,388,464	208,358,830	346,519,683
오적산	7,288,172,961	26.5	433,646,023	6,772,897,550	33,357,790	48,271,598
구미강활탕	2,045,098,374	33.9	72,592,085	1,937,023,082	8,855,584	26,627,623
궁하탕	1,754,984,837	40.3	2,955,552	1,750,801,583	703,001	524,701
소청룡탕	1,392,416,907	45.4	85,102,174	1,287,748,251	7,531,509	12,034,973
이진탕	1,374,006,398	50.4	10,413,605	1,358,463,596	3,810,119	1,319,078
삼소음	1,366,932,244	55.3	65,267,397	1,280,213,367	12,742,720	8,708,760
보중익기탕	1,250,604,408	59.9	58,676,962	1,151,233,115	21,077,292	19,617,039
향사평위산	1,109,556,526	63.9	48,331,452	1,035,566,672	16,485,397	9,173,005
연교괘독산	878,083,739	67.1	100,053,365	765,708,271	5,253,172	7,068,931
평위산	872,019,727	70.3	12,461,932	852,966,405	3,414,607	3,176,783
반하사심탕	829,438,362	73.3	62,024,760	747,223,851	10,875,806	9,313,945
갈근탕	786,801,652	76.2	52,723,250	718,115,530	4,943,729	11,019,143
인삼괘독산	724,390,204	78.8	36,860,555	675,411,851	3,214,740	8,903,058
반하백출 천마탕	713,431,140	81.4	96,776,067	593,427,383	7,217,749	16,009,941
가미소요산	589,427,100	83.5	50,936,973	518,660,644	7,364,383	12,465,100
형개연교탕	511,715,974	85.4	37,991,154	467,874,167	1,223,955	4,626,698
소시호탕	479,870,557	87.1	25,084,555	444,514,558	4,408,196	5,863,248
팔물탕	364,053,129	88.5	51,118,955	243,034,901	18,427,146	51,472,127
내소산	342,389,546	89.7	15,940,275	321,475,125	3,769,998	1,204,148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63〉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5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27,852,600,540	—	1,918,042,760	25,357,775,546	253,482,266	323,299,968
오적산	7,216,131,297	25.9	622,619,037	6,503,173,228	39,969,674	50,369,358
궁하탕	2,368,006,003	34.4	5,533,636	2,358,966,693	314,722	3,190,952
구미강활탕	2,008,712,026	41.6	66,875,599	1,904,803,225	10,305,326	26,727,876
소청룡탕	1,430,327,289	46.8	91,461,920	1,314,226,854	10,371,478	14,267,037
삼소음	1,375,278,908	51.7	66,178,417	1,285,423,085	13,038,825	10,638,581
보중익기탕	1,224,521,600	56.1	58,144,801	1,107,128,190	36,260,307	22,988,302
이진탕	1,190,682,509	60.4	7,754,517	1,175,948,106	3,839,392	3,140,494
향사평위산	1,147,186,401	64.5	56,324,489	1,072,906,818	8,867,117	9,087,977
반하사십탕	1,022,047,567	68.2	87,658,051	907,937,190	13,584,187	12,868,139
평위산	870,311,371	71.3	12,230,913	848,992,254	6,452,514	2,635,690
반하백출천마탕	857,531,615	74.4	169,566,691	664,440,458	10,764,718	12,759,748
연교괘독산	792,519,697	77.2	86,872,467	694,788,937	5,369,586	5,488,707
인삼괘독산	698,569,101	79.7	36,592,385	651,161,825	2,592,039	8,222,852
갈근탕	555,985,094	81.7	38,511,480	510,484,881	3,123,504	3,865,229
형개연교탕	543,293,965	83.7	45,232,671	490,325,575	2,166,196	5,569,523
가미소요산	535,458,858	85.6	50,634,918	466,097,886	7,745,915	10,980,139
소시호탕	492,722,053	87.4	26,623,986	448,901,762	6,965,942	10,230,363
내소산	368,280,493	88.7	15,439,861	347,184,627	4,652,907	1,003,098
팔물탕	357,984,100	90.0	50,901,077	254,938,894	18,393,430	33,750,699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64〉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2016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30,045,990,282	—	2,155,125,510	27,270,284,622	202,152,743	418,427,407
오적산	7,679,684,694	25.6	686,815,347	6,876,204,322	39,047,214	77,617,811
궁하탕	2,778,786,017	34.8	8,793,303	2,766,870,930	148,843	2,972,941
구미강활탕	2,138,586,845	41.9	82,029,225	2,005,868,250	10,402,312	40,287,058
소청룡탕	1,501,860,163	46.9	98,299,550	1,377,762,825	9,546,312	16,251,476
삼소음	1,378,038,153	51.5	69,813,077	1,285,014,993	10,559,934	12,650,149
이진탕	1,309,992,723	55.9	9,549,341	1,290,942,230	5,159,479	4,341,673
보중익기탕	1,287,134,124	60.2	83,625,282	1,149,964,249	17,088,761	36,455,832
반하사심탕	1,266,020,919	64.4	105,147,742	1,128,305,391	15,479,150	17,088,636
향사평위산	1,219,476,738	68.4	67,874,447	1,130,487,636	7,061,096	14,053,559
반하백출천마탕	931,170,480	71.5	191,219,502	716,366,820	9,156,902	14,427,256
평위산	927,084,326	74.6	12,562,718	907,088,773	4,226,729	3,206,106
연교폐독산	839,987,980	77.4	93,829,308	735,719,774	3,836,860	6,602,038
인삼폐독산	663,671,916	79.6	39,637,271	616,152,454	2,728,306	5,153,885
갈근탕	622,163,800	81.7	40,462,683	571,268,655	3,942,025	6,490,437
가미소요산	587,406,362	83.6	57,656,060	509,489,253	5,204,761	15,056,288
형개연교탕	577,400,863	85.6	50,520,664	519,854,988	1,646,105	5,379,106
소시호탕	513,122,826	87.3	35,115,260	466,084,713	6,617,342	5,305,511
팔물탕	411,268,474	88.6	64,653,712	282,817,894	10,341,778	53,455,090
내소산	367,683,025	89.9	11,841,791	347,798,909	6,531,925	1,510,400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는 오적산이 20.6%(2016년)~23.8%(2013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은 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이 52.9%를 차지하였으며 2014년은 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구미강활탕, 평위산이 54.5%, 2015년은 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평위산이 50.3%, 2016년은 오적산, 궁하탕, 이진탕, 평위산이 50.9%를 차지하였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오적산, 궁하탕, 이진탕은 지속적으로 높은 투약일수를 차지함

〈표 3-65〉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3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19,765,256	—	889,563	18,574,141	160,081	141,471
오적산	4,702,436	23.8	188,332	4,466,182	24,352	23,570
궁하탕	1,669,705	32.2	2,653	1,665,023	1,325	704
이진탕	1,589,452	40.3	12,760	1,568,631	6,967	1,094
구미강활탕	1,281,878	46.8	35,789	1,225,777	5,423	14,889
향사평위산	1,213,606	52.9	50,580	1,130,144	23,815	9,067
평위산	1,123,414	58.6	19,769	1,096,326	4,269	3,050
보중익기탕	1,065,255	64.0	41,920	993,209	20,688	9,438
소청룡탕	1,057,382	69.3	57,638	986,313	5,443	7,988
삼소음	773,334	73.2	33,928	731,144	4,852	3,410
갈근탕	509,528	75.8	32,090	470,928	2,893	3,617
연교폐독산	442,715	78.1	49,832	388,577	1,334	2,972
형개연교탕	381,749	80.0	27,702	350,868	1,235	1,944
가미소요산	367,813	81.9	29,870	324,851	5,537	7,555
인삼폐독산	362,566	83.7	17,907	340,085	1,894	2,680
반하백출천 마탕	350,573	85.5	35,459	306,235	4,429	4,450
반하사심탕	291,523	86.9	19,137	266,702	4,192	1,492
내소산	288,852	88.4	9,119	277,362	1,892	479
불환금정 기산	245,163	89.6	6,967	235,536	832	1,828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66〉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4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21,662,559	—	1,041,054	20,293,061	123,020	205,424
오적산	4,748,687	21.9	247,448	4,452,391	19,451	29,397
궁하탕	2,521,853	33.6	4,197	2,516,135	880	641
이진탕	1,925,994	42.5	13,299	1,906,373	4,611	1,711
구미강활탕	1,331,362	48.6	42,986	1,266,990	4,958	16,428
평위산	1,278,731	54.5	16,898	1,254,320	3,434	4,079
향사평위산	1,269,705	60.4	55,382	1,189,674	14,600	10,049
소청룡탕	1,103,299	65.5	63,792	1,025,024	5,267	9,216
보중익기탕	963,399	69.9	41,243	895,266	12,128	14,762
삼소음	792,464	73.6	36,018	745,573	6,153	4,720
갈근탕	599,702	76.3	38,297	551,462	3,089	6,854
연교폐독산	526,118	78.8	59,017	460,789	2,557	3,755
형개연교탕	437,870	80.8	30,226	403,419	903	3,322
가미소요산	388,488	82.6	34,489	342,134	4,344	7,521
반하백출천마탕	380,535	84.3	51,394	317,019	3,599	8,523
인삼폐독산	358,984	86.0	18,242	334,738	1,480	4,524
반하사심탕	350,652	87.6	26,609	316,214	3,923	3,906
내소산	269,036	88.8	12,108	252,921	3,029	978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67〉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5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23,375,301	—	1,268,353	21,738,233	155,420	213,308
오적산	4,898,138	21.0	360,382	4,481,860	22,913	32,983
궁하탕	3,613,967	36.4	8,229	3,602,896	311	2,531
이진탕	1,770,951	44.0	9,963	1,753,408	5,052	2,528
평위산	1,468,061	50.3	18,657	1,436,608	8,428	4,368
구미강활탕	1,376,993	56.2	42,465	1,311,157	5,557	17,814
향사평위산	1,343,097	61.9	67,093	1,256,595	8,933	10,476
소청룡탕	1,089,246	66.6	67,139	1,005,033	151	10,192
보중익기탕	914,747	70.5	39,373	839,460	19,732	16,182
삼소음	766,318	73.8	35,497	719,518	3,526	5,848
갈근탕	711,991	76.8	48,870	654,309	3,888	4,924
연교폐독산	543,849	79.1	59,283	477,857	3,193	3,516
반하백출천마탕	459,161	81.1	94,756	352,689	4,697	7,019
형개연교탕	451,041	83.0	36,425	409,237	1,375	4,004
반하사심탕	415,693	84.8	39,404	365,673	5,619	4,997
가미소요산	407,757	86.5	39,416	353,989	5,725	8,627
인삼폐독산	331,300	88.0	17,565	308,665	882	4,188
불환금정기산	295,723	89.2	10,653	281,985	5,455	1,708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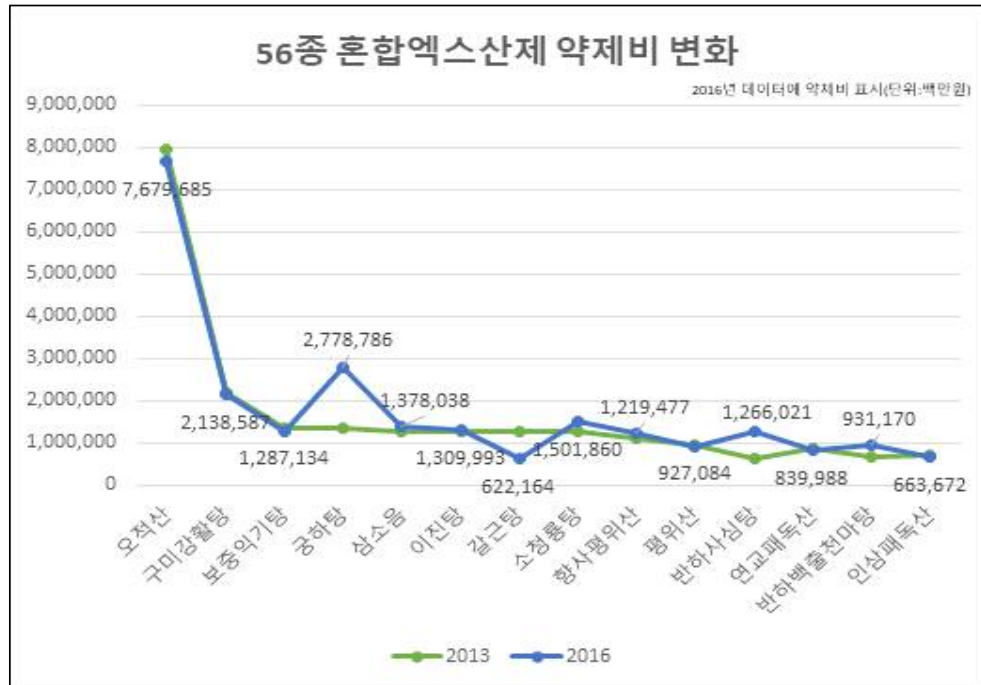
〈표 3-68〉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2016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25,243,233	—	1,429,701	23,399,962	135,599	277,971
오적산	5,194,134	20.6	399,017	4,721,306	25,124	48,687
궁하탕	4,192,991	37.2	12,751	4,175,972	199	4,069
이진탕	1,917,233	44.8	12,473	1,894,040	6,622	4,098
평위산	1,555,013	50.9	19,739	1,524,437	5,643	5,194
구미강활탕	1,458,277	56.7	53,166	1,372,103	6,661	26,347
향사평위산	1,424,891	62.4	81,006	1,321,308	7,314	15,263
소청룡탕	1,142,356	66.9	72,509	1,052,539	6,458	10,850
보중익기탕	935,350	70.6	57,833	841,120	11,598	24,799
갈근탕	797,856	73.8	52,087	32,537	4,796	8,436
삼소음	766,530	76.8	37,433	717,446	4,965	6,686
연교괘독산	576,826	79.1	63,888	506,749	2,226	3,963
반하사심탕	511,455	81.1	46,461	451,699	6,594	6,701
반하백출천마탕	501,241	83.1	107,426	381,297	4,644	7,874
형개연교탕	487,807	85.0	42,204	440,991	1,070	3,542
가미소요산	442,254	86.8	43,685	383,495	3,805	11,269
불환금정기산	338,671	88.1	12,690	322,679	995	2,307
인삼괘독산	313,693	89.4	19,033	290,856	1,189	2,615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그림 3-34] 56종 혼합엑스산제 약제비 변화



[그림 3-35] 56종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 변화

(2)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 및 투약일수

-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는 작약이 33.8%(2013년)~46.9%(2016년), 감초가 23.1%(2013년)~29.6%(2016년)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에는 작약, 감초가 56.9%를 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62.4%, 2015년에는 71.4%, 2016년에는 76.5%를 차지하였음

<표 3-69>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3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854,161,112	—	169,576	853,673,583	306,024	11,929
작약	288,567,246	33.8	65,036	288,425,964	75,580	666
감초	197,321,709	56.9	50,684	197,223,374	47,354	297
당귀	39,985,405	61.6	9,606	39,943,254	31,951	594
강활	27,422,933	64.8	6,913	27,415,787	233	-
계지	26,428,432	67.9	-	26,424,660	3,772	-
식방풍	18,840,486	70.1	-	18,840,009	477	-
독활	18,142,119	72.2	66	18,141,504	549	-
창출	17,805,242	74.3	-	17,803,416	1,826	-
갈근	16,168,859	76.2	234	16,168,625	-	-
복령	15,589,083	78.0	352	15,580,177	7,920	634
반하	13,294,433	79.6	-	13,290,329	2,736	1,368
후박	11,067,757	80.9	9,079	11,058,678	-	-
천궁	10,978,305	82.1	172	10,975,863	2,270	-
대추	10,129,383	83.3	86	10,128,351	946	-
숙지황	9,850,191	84.5	-	9,760,215	89,976	-
진피	8,642,403	85.5	72	8,642,331	-	-
계피	7,969,437	86.4	-	7,969,437	-	-
맥문동	7,596,045	87.3	550	7,570,535	24,960	-
도인	7,495,755	88.2	3,308	7,448,180	4,267	-
향부자	7,076,522	89.0	4,680	7,068,560	3,282	-
건강	6,529,790	89.8	7,090	6,522,178	522	-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전체 현황은 부록 00참조

〈표 3-70〉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4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약제비	누적			
총합계	1,004,648,183	—	421,979	1,003,247,410	978,794
작약	375,059,631	37.3	52,596	374,530,709	476,326
감초	251,718,612	62.4	43,100	251,454,809	220,703
강황	45,325,539	66.9	10,482	45,314,759	298
인삼	43,625,524	71.2	256,218	43,158,757	210,549
당귀	36,254,414	74.9	12,145	36,240,676	1,593
방풍	27,516,464	77.6	-	27,516,252	212
독활	21,647,877	79.7	-	21,647,633	244
창출	20,889,073	81.8	-	20,888,211	862
반하	17,268,607	83.5	-	17,247,403	21,204
계지	17,178,577	85.3	-	17,177,016	1,561
갈근	13,578,382	86.6	798	13,572,784	4,800
맥문동	13,186,063	87.9	5,445	13,180,618	-
복령	8,493,523	88.8	-	8,489,708	3,815
천궁	8,086,548	89.6	-	8,085,826	722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71〉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5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1,154,392,451	—	8,332,116	1,143,864,025	1,234,346	961,964
작약	496,856,358	43.0	13,877	496,365,349	471,434	5,698
감초	327,571,247	71.4	7,181,921	320,174,396	212,389	2,541
인삼	112,976,400	81.2	1,110,717	110,818,523	116,748	930,412
강황	38,314,842	84.5	2,958	38,310,576	1,308	-
방풍	26,092,092	86.8	2,278	26,089,814	-	-
당귀	23,912,069	88.9	1,666	23,910,297	106	-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72〉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2016년)

(단위: 원,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약제비	누적				
총합계	1,518,680,037	—	8,406,599	1,497,795,556	8,844,427	3,633,455
작약	711,973,475	46.9	445,309	710,872,872	644,134	11,160
감초	450,028,114	76.5	7,472,597	442,259,863	290,654	5,000
인삼	128,228,731	85.0	484,986	120,687,949	3,439,575	3,616,221
강활	39,587,535	87.6	174	39,586,053	654	654
방풍	29,367,818	89.5	134	29,367,684	-	-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는 감초가 19.6%(2013년)~34.9%(2016년), 작약이 19.4%(2013년)~34.5%(2016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추세임. 2013년에는 감초, 작약, 강활, 당귀가 51.2%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2014년에는 감초, 작약, 강활이 53.6%, 2015년에는 감초, 작약이 59.7%, 2016년에는 감초, 작약이 69.4%를 차지하였음

〈표 3-73〉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3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5,807,807	—	1,683	5,803,988	2,087	49
감초	1,136,967	19.6	376	1,135,884	704	3
작약	1,130,700	39.0	389	1,129,561	747	3
강활	355,697	45.2	129	355,564	4	-
당귀	352,200	51.2	143	351,861	193	3
식방풍	310,609	56.6	-	310,603	6	-
계지	197,014	60.0	-	197,002	12	-
독활	194,398	63.3	1	194,391	6	-
창출	176,383	66.4	-	176,362	21	-
갈근	130,203	68.6	9	130,194	-	-
반하	123,646	70.7	-	123,642	1	3
도인	113,329	72.7	114	113,190	25	-
천궁	112,090	74.6	1	112,071	18	-
건강	101,804	76.4	115	101,688	1	-
진피	94,173	78.0	1	94,172	-	-
숙지황	93,825	79.6	-	93,692	133	-
향부자	92,321	81.2	128	92,168	25	-
대추	86,554	82.7	1	86,542	11	-
후박	71,933	83.9	128	71,805	-	-
계피	68,194	85.1	-	68,194	-	-
생강	57,430	86.1	1	57,412	11	6
신곡	44,746	86.9	-	44,746	-	-
황백	41,908	87.6	-	41,908	-	-
산사	41,470	88.3	-	41,470	-	-
백지	40,787	89.0	1	40,786	-	-
육계	39,789	89.7	115	39,674	-	-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74〉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4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4,661,475	—	1,704	4,657,530	2,222	-
감초	1,093,968	23.5	311	1,092,646	1,011	-
작약	1,090,952	46.9	325	1,089,608	1,019	-
강활	313,283	53.6	129	313,149	5	-
방풍	271,900	59.4	-	271,896	4	-
당귀	268,855	65.2	148	268,694	13	-
독활	174,986	68.9	-	174,982	4	-
창출	161,707	72.4	-	161,698	1	-
계지	146,962	75.6	-	146,955	7	-
반하	110,822	77.9	-	110,815	7	-
갈근	104,284	80.2	19	104,232	33	-
건강	66,713	81.6	114	66,593	6	-
육계	58,548	82.9	115	58,433	-	-
도인	58,323	84.1	115	58,204	4	-
천궁	58,210	85.4	-	58,205	1	-
후박	50,666	86.5	129	50,537	-	-
향부자	49,671	87.5	129	49,538	1	-
숙지황	47,481	88.5	-	47,481	-	-
대추	40,942	89.4	-	40,940	2	-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75〉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5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4,575,098	—	4,636	4,566,549	3,408	505
감초	1,366,354	29.9	3,780	1,361,322	1,175	77
작약	1,362,730	59.7	33	1,361,446	1174	77
강황	273,742	65.6	17	273,713	12	-
방풍	260,040	71.3	17	260,023	-	-
당귀	217,138	76.1	17	217,120	1	-
독활	175,308	79.9	17	175,291	-	-
창출	158,941	83.4	17	158,923	1	-
계지	119,448	86.0	-	119,448	-	-
반하	92,402	88.0	-	92,400	2	-
갈근	87,338	89.9	18	87,319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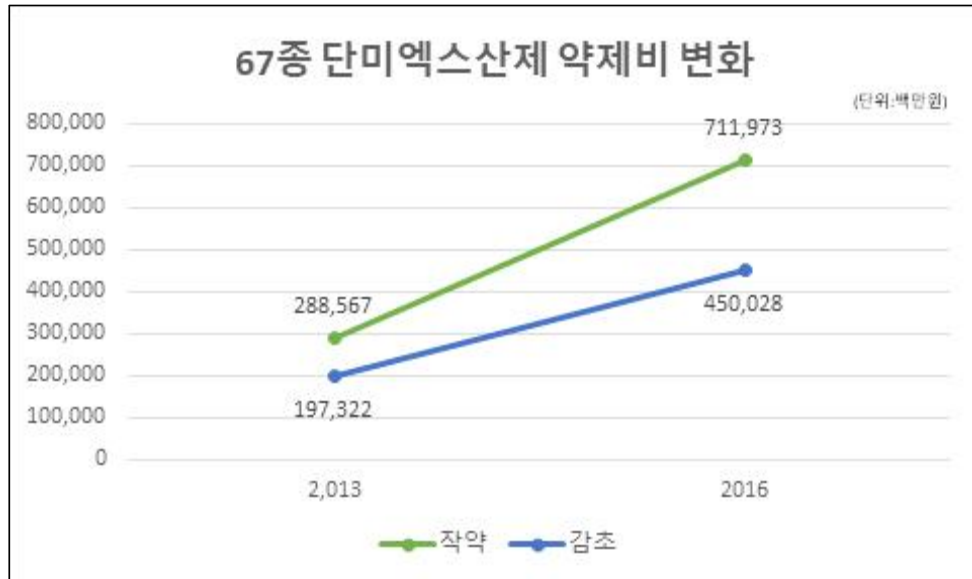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표 3-76〉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2016년)

(단위: 일, %)

구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기타
	투약일수	누적				
총합계	5,759,467	—	17,986	5,731,317	8,870	1,294
감초	2,008,338	34.9	16,258	1,990,494	1,576	10
작약	1,988,718	69.4	1,464	1,985,662	1,582	10
방풍	259,102	73.9	1	259,101	-	-
강황	245,932	78.2	1	245,922	6	3
당귀	235,845	82.3	1	235,838	6	-
독활	223,567	86.1	1	223,566	-	-
창출	199,769	89.6	1	199,762	6	-

Note : 1) 기타는 의과(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기관)를 말함
2) 약제비 누적 90%이내만 표기함.



[그림 3-36] 67종 단미엑스산제 약제비 변화(작약, 감초)



[그림 3-37] 67종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 변화(작약, 감초)

(3) 한방 건강보험 연령별 약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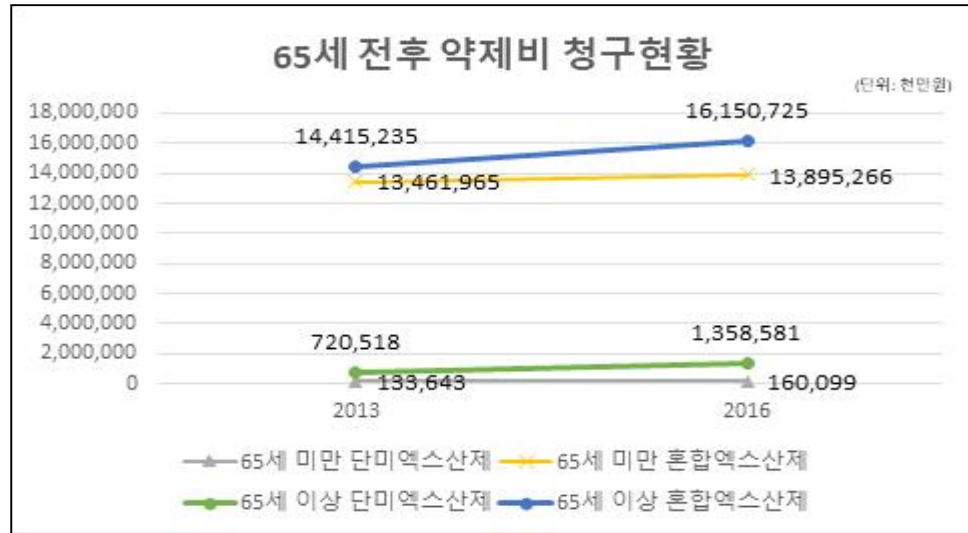
(가) 65세 전후 약제비 청구 현황

- 65세 미만 환자의 전체 약제비는 약 1.03배 증가하였음
 - 65세 미만 혼합엑스산제 약제비는 2013년 대비 약 1.03배 증가하였음
 - 65세 미만 단미엑스산제 약제비는 2013년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환자의 전체 약제비는 2013년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혼합엑스산제 약제비는 2013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단미엑스산제 약제비는 2013년 대비 약 1.9배 증가하였음

<표 3-77> 65세 기준 약제비 추이

(단위: 천만원)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합계
	소계	단미엑스 산제	혼합엑스 산제	소계	단미엑스 산제	혼합엑스 산제	
2013년	13,595,608	133,643	13,461,965	15,135,753	720,518	14,415,235	28,731,361
2014년	13,462,501	147,006	13,315,495	15,043,140	857,642	14,185,498	28,505,641
2015년	13,459,780	140,457	13,319,323	15,547,213	1,013,936	14,533,277	29,006,993
2016년	14,055,365	160,099	13,895,266	17,509,306	1,358,581	16,150,725	31,564,670



[그림 3-38] 65세 기준 약제비

(4) 한방 건강보험 연령별 투약일수

(가) 65세 전후 투약일수 청구 현황

- 65세 미만 환자의 전체 투약일수는 약 1.1배 증가하였음
 - 65세 미만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는 2013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음
 - 65세 미만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는 2013년 대비 약 0.5배 감소하였음
- 65세 이상 환자의 전체 투약일수는 2013년 대비 약 1.3배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혼합엑스산제 투약일수는 2013년 대비 약 1.4배 증가하였음
 - 65세 이상 단미엑스산제 투약일수는 2013년 대비 약 1.1배 증가하였음

<표 3-78> 65세 기준 투약일수 추이

(단위: 일)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총합계
	소계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소계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2013년	9,863,752	971,859	8,891,893	15,709,311	4,835,948	10,873,363	25,573,063
2014년	9,948,555	726,635	9,221,920	16,375,479	3,934,840	12,440,639	26,324,034
2015년	10,024,602	534,946	9,489,656	17,925,797	4,040,152	13,885,645	27,950,399
2016년	10,376,122	539,714	9,836,408	20,626,578	5,219,753	15,406,825	31,002,700

3. 한방의료급여 분석 결과

- 의료급여 자료 분석 부분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79〉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방의료급여)

-
- 1) 한방요양기관의 의료급여 이용 현황
- 4개 요양기관 :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총칭
 - 입원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입원한방(073), 한방입원(121)
 - 외래 : 입원외래구분코드가 보건기관외래한방(083), 한방외래(131)
 - 실환자수 : 건강보험 가입자중 실제 진료 받은 환자수(수진자수)로 중복이 없음
 - 입원/외래 실환자수들의 합이 전체 실환자수와 다름
 - 요양기관 실환자수들의 합이 전체 실환자수와 다름
 - 구성비 : 해당 요양기관 값/전체 요양기관 값 $\times 100$
 - 전년 대비 증가율 : (당년-전년)/전년 $\times 100$
-

가. 한방요양기관(한방병원/한의원/요양병원/보건소)의 의료급여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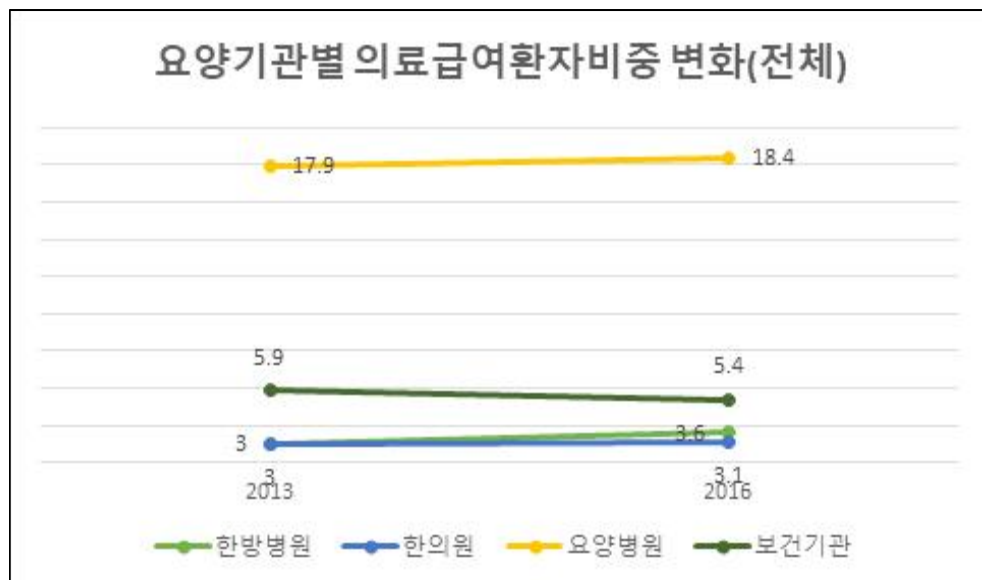
1)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2013~2016)

- 한방진료를 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 중 의료급여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3%에서 2016년 3.5%로 증가하였음
- 한방병원(3.0%→3.6%)과 요양병원(17.9%→18.4%)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반면, 보건기관은 2013년 5.9%에서 2016년 5.4%로 감소하였음
- 2013년 대비 2016년 입원환자비율이 1.1% 감소하였음
- 요양병원은 1.6%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음
- 2013년 대비 2016년 외래환자비율은 0.1% 증가하였으나 요양병원(5.7%→5.2%)과 보건기관(5.9%→5.4%)은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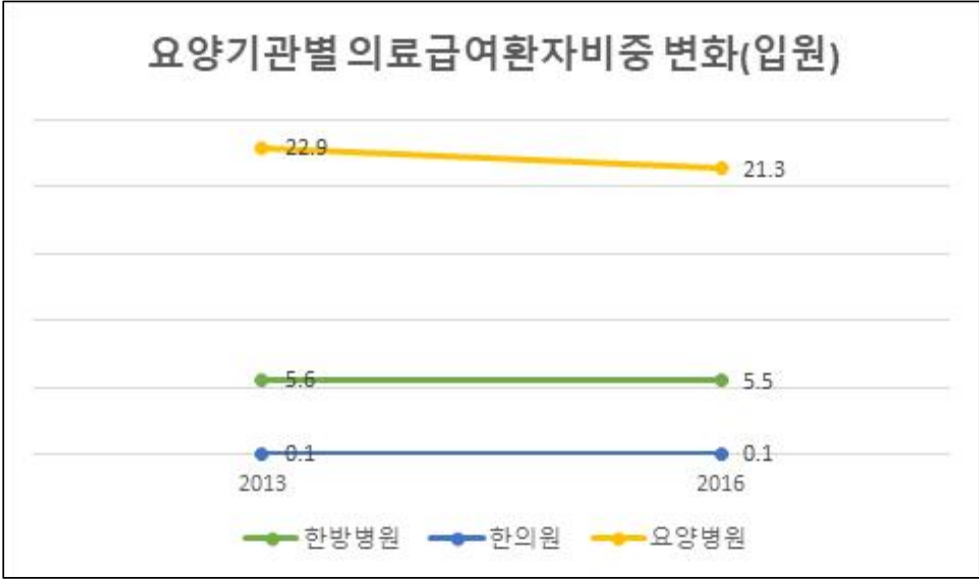
〈표 3-80〉 의료급여 환자 변화 추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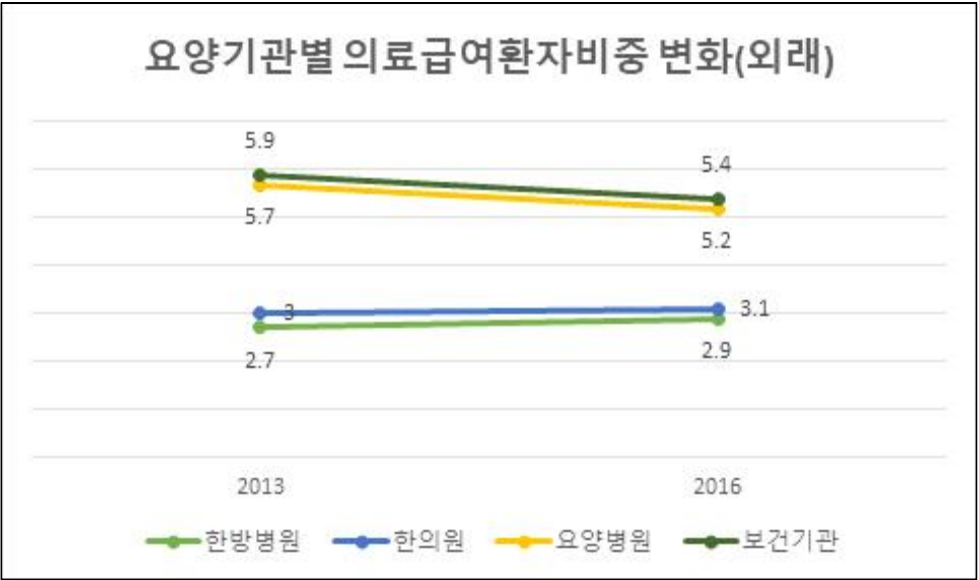
구분	연도	환자수 (건강보험+의료급여)	의료급여환자비중				
			4개 요양기관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전체	2013	13,655,767	3.3	3.0	3.0	17.9	5.9
	2014	14,370,627	3.2	3.3	2.9	17.8	5.5
	2015	14,134,078	3.3	3.4	3.0	18.2	5.4
	2016	14,019,202	3.5	3.6	3.1	18.4	5.4
입원	2013	271,696	15.3	5.6	0.1	22.9	—
	2014	304,383	14.9	5.1	0.2	22.1	
	2015	336,911	14.4	5.2	0.1	21.6	
	2016	363,932	14.2	5.5	0.1	21.3	
외래	2013	13,488,608	3.1	2.7	3.0	5.7	5.9
	2014	14,118,352	3.0	2.7	2.9	5.8	5.5
	2015	13,852,338	3.1	2.8	3.0	5.4	5.4
	2016	13,712,946	3.2	2.9	3.1	5.2	5.4



[그림 3-39] 의료급여 환자수 변화 추이(전체) (단위: %)



[그림 3-40] 의료급여 환자수 변화 추이(입원) (단위: %)



[그림 3-41] 의료급여 환자수 변화 추이(외래) (단위: %)

2) 한방의료급여 청구건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청구건수는 2013년 대비 2014년, 2014년 대비 2015년 조금 증가하다가 2016년 상대적으로 많이 약 8.0%로 증가하였음
 - 입원 청구건은 2012년 대비 2013년 18.7%, 2013년 대비 2014년 10.4%, 2014년 대비 2015년 5.7%로 점차 증가율이 줄어들었으며, 2016년은 2015년 대비 9.1%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졌음
 - 입원 청구건 중 요양병원이 2013년 95%, 2014년 95.5%, 2015년 95.2%, 2016년 94.6%로 대다수 점유하고 있음
 - 외래 청구건은 전체 청구건수와 비슷한 양상으로 2012년 대비 2013년 4.3%, 2013년 대비 2014년, 2014년 대비 2015년 조금 증가하다가 2016년 상대적으로 많이 약 7.9%로 증가하였음
 - 외래 청구건 중 한의원이 2013년 95%, 2014년 95.2%, 2015년 95.6%, 2016년 96%로 대다수 점유하며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한방병원 입원청구건의 연평균 증가율이 11.8%로 가장 높았으며, 요양병원 입원청구건 연평균 증가율 8.2% 등의 순이었음
 - 보건기관 외래청구건의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음

〈표 3-81〉 한방의료급여 청구건 변화 추이

(단위: 건,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청구건	전년대비 증가율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청구건	구성비
전체	2013	5,315,028	4.9	100	132,313	2.5	4,825,701	90.8	256,498	4.8	100,516	1.9
	2014	5,356,805	0.8	100	123,956	2.3	4,855,661	90.6	283,838	5.3	93,350	1.7
	2015	5,387,448	0.6	100	122,432	2.3	4,891,769	90.8	290,851	5.4	82,396	1.5
	2016	5,816,462	8.0	100	133,967	2.3	5,299,815	91.1	307,272	5.3	75,408	1.3
	연평균 증가율	3.1			0.4		3.2		6.2		-9.1	
입원	2013	232,623	18.7	100	11,529	5.0	20	0.0	221,074	95	—	
	2014	256,748	10.4	100	11,472	4.5	54	0.0	245,222	95.5		
	2015	271,315	5.7	100	13,114	4.8	21	0.0	258,180	95.2		
	2016	295,945	9.1	100	16,104	5.4	19	0.0	279,822	94.6		
	연평균 증가율	8.4			11.8		-1.7		8.2			
외래	2013	5,082,405	4.3	100	120,784	2.4	4,825,681	95.0	35,424	0.7	100,516	2.0
	2014	5,100,057	0.3	100	112,484	2.2	4,855,607	95.2	38,616	0.8	93,350	1.8
	2015	5,116,133	0.3	100	109,318	2.1	4,891,748	95.6	32,671	0.6	82,396	1.6
	2016	5,520,517	7.9	100	117,863	2.1	5,299,796	96.0	27,450	0.5	75,408	1.4
	연평균 증가율	2.8			-0.8		3.2		-8.1		-9.1	

Note :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을 포함함

3) 한방의료급여 진료 실환자수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환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입원 환자는 2013년 41,911명에서 2016년 51,67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대비증가율은 13.5%, 8.1%, 6.8%로 감소하고 있음
- 입원 환자수는 요양병원에서 전체의 약 85%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에서 전체의 약 14% 점유하고 있음
 - 요양병원 환자의 점유율이 2013년 86.9%에서 2014년 87.0%로 증가하다가 2015년 85.6%, 2016년 84.2%로 감소하였음
 - 한방병원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14.4%에서 2014년 12.9%로 감소하다가 2015년 14.3%, 2016년 15.8%로 증가하였음
- 외래 환자는 2013년 408,523명에서 2016년 434,9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래 환자수는 한의원에서 전체의 약 93%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에서 전체의 약 4%, 보건기관에서 전체의 약 3% 점유하고 있음
 - 한의원 환자의 점유율이 2013년 95.5%에서 2014년 91.7%로 감소하다가 2015년 92.3%, 2016년 92.7%로 증가하였음
 - 한방병원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4.1%에서 2014년 · 2015년 3.9%로 감소하다가 2016년 4.0%로 증가하였음
 - 보건기관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3.9%에서 2014년 3.4%, 2015년 3.1%, 2016년 2.8%로 연평균 증가율이 -8.9%로 감소하고 있음

〈표 3-82〉 한방의료급여 실환자수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실환자수	전년 대비 증가율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실환자수	구성비
전체	2013	441,283	0.2	100.0	20,858	4.7	390,314	88.5	39,699	9.0	15,871	3.6
	2014	464,091	5.2	100.0	22,249	4.8	384,119	82.8	43,295	9.3	14,428	3.1
	2015	472,565	1.8	100.0	23,488	5.0	391,513	82.8	44,305	9.4	13,259	2.8
	2016	486,638	3.0	100.0	25,609	5.3	403,052	82.8	45,990	9.5	11,987	2.5
	연평균 증가율	3.3			7.1		1.1		5.0		-8.9	
입원	2013	41,911	13.5	100.0	6,015	14.4	15	0.0	36,423	86.9	—	
	2014	45,303	8.1	100.0	5,864	12.9	22	0.0	39,417	87.0		
	2015	48,370	6.8	100.0	6,933	14.3	17	0.0	41,420	85.6		
	2016	51,674	6.8	100.0	8,139	15.8	15	0.0	43,520	84.2		
	연평균 증가율	7.2			10.6		0.0		6.1			
외래	2013	408,523	0.9	100.0	16,884	4.1	390,308	95.5	3,709	0.9	15,871	3.9
	2014	418,788	2.5	100.0	16,385	3.9	384,097	91.7	3,878	0.9	14,428	3.4
	2015	424,195	1.3	100.0	16,555	3.9	391,496	92.3	2,885	0.7	13,259	3.1
	2016	434,964	2.5	100.0	17,470	4.0	403,037	92.7	2,470	0.6	11,987	2.8
	연평균 증가율	2.1			1.1		1.1		-12.7		-8.9	

Note : 1) 요양기관 구분에 따라 중복된 환자가 있음

2) 전체 한방 진료 실환자수는 중복을 제거한 값으로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실환자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한방 진료를 포함

4) 한방의료급여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내원일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입원 내원일수는 2013년 166,995일에서 2016년 218,03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입원 내원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2% 증가하였으며 가장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입원 내원일수는 한방병원에서 전체의 약 94%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요양병원에서 전체의 약 6% 점유하고 있음
 - 한방병원 내원일수의 점유율이 2013년 91.7%에서 2014년 91.5%로 감소하다가 2015년 95.3%, 2016년 96%로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 내원일수의 점유율이 2013년 8.1%에서 2014년 8.2%로 증가하다가 2015년 4.6%, 2016년 4.0%로 감소하였음
- 외래 내원일수는 2013년 5,082,392일에서 5,520,510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외래 내원일수는 한의원에서 전체의 약 95%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에서 전체의 약 2.1% 점유하고 있으며 보건기관에서 전체의 약 1.7% 점유하고 있음
 - 한의원 내원일수의 점유율이 2013년 95%에서 2014년 95.2%, 2015년 95.6%, 2016년 9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한방병원 내원일수의 점유율이 2013년 2.4%, 2014년 2.2%, 2015년 및 2016년 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보건기관 내원일수의 점유율이 2013년 2%에서 2014년 1.8%, 2015년 1.6%, 2016년 1.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표 3-83〉 한방의료급여 이용 내원일수 변화 추이

(단위: 일,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 율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내원일수	구성비
전 체	2013	5,249,387	4.2	100.0	273,962	5.2	4,825,950	91.9	48,959	0.9	100,516	1.9
	2014	5,267,068	0.3	100.0	265,439	5.0	4,856,035	92.2	52,244	1.0	93,350	1.8
	2015	5,297,480	0.6	100.0	282,118	5.3	4,891,958	92.3	41,008	0.8	82,396	1.6
	2016	5,738,549	8.3	100.0	327,099	5.7	5,299,975	92.4	36,067	0.6	75,408	1.3
	연평균 증가율	3.0			6.1		3.2		-9.7		-9.1	
입 원	2013	166,995	0.9	100.0	153,178	91.7	282	0.2	13,535	8.1	—	
	2014	167,127	0.1	100.0	152,957	91.5	458	0.3	13,712	8.2		
	2015	181,387	8.5	100.0	172,800	95.3	212	0.1	8,375	4.6		
	2016	218,039	20.2	100.0	209,236	96.0	184	0.1	8,619	4.0		
	연평균 증가율	9.3			11.0		-13.3		-14.0			
외 래	2013	5,082,392	4.3	100.0	120,784	2.4	4,825,668	95.0	35,424	0.7	100,516	2.0
	2014	5,099,941	0.3	100.0	112,482	2.2	4,855,577	95.2	38,532	0.8	93,350	1.8
	2015	5,116,093	0.3	100.0	109,318	2.1	4,891,746	95.6	32,633	0.6	82,396	1.6
	2016	5,520,510	7.9	100.0	117,863	2.1	5,299,791	96.0	27,448	0.5	75,408	1.4
	연평균 증가율	2.8			-0.8		3.2		-8.2		-9.1	

Note : 1)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으로 산정되어 있음
 2)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진료를 포함

5) 한방의료급여 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입원 환자는 2013년 295억에서 2016년 412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도 2014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체 진료비 중 한의원이 약 76%를 점유하고 있으며 요양병원 약 16%, 한방병원 약 7% 등의 순이었음
- 전체 진료비 중 입원진료비가 약 20%~약 22%를 점유하고 있음
- 입원 진료비는 요양병원에서 전체의 약 74%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에서 전체의 약 25% 점유하고 있음
- 외래 진료비는 한의원에서 전체의 약 96.9% 점유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한방병원에서 전체의 약 2.2% 점유하고 있음

○ 한방병원 입원진료비의 연평균증가율이 16.2%이며 가장 높았음

〈표 3-84〉 한방의료급여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진료비	전년 대비 증가율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진료비	구성비
전 체	2013	144,810	11.2	1000	10,310	7.1	111,317	76.9	22,524	15.6	659	0.5
	2014	153,478	6.0	1000	10,271	6.7	117,253	76.4	25,334	16.5	620	0.4
	2015	162,628	6.0	1000	12,065	7.4	122,860	75.5	27,141	16.7	562	0.3
	2016	183,837	13.0	1000	15,066	8.2	138,547	75.4	29,689	16.1	535	0.3
	연평균 증가율	8.3			13.5		7.6		9.6		-6.7	
입 원	2013	29,519	17.0	1000	7,656	25.9	8	0	21,855	74.0	—	
	2014	32,293	9.4	1000	7,683	23.8	15	0.0	24,595	76.2		
	2015	35,922	11.2	1000	9,407	26.2	8	0.0	26,507	73.8		
	2016	41,178	14.6	1000	12,015	29.2	8	0.0	29,155	70.8		
	연평균 증가율	11.7			16.2		0.0		10.1			
외 래	2013	115,291	9.9	1000	2,654	2.3	111,309	96.6	669	0.6	659	0.6
	2014	121,185	5.1	1000	2,588	2.1	117,238	96.7	739	0.6	620	0.5
	2015	126,706	4.6	1000	2,658	2.1	122,852	97.0	634	0.5	562	0.4
	2016	142,659	12.6	1000	3,051	2.1	138,539	97.1	534	0.4	535	0.4
	연평균 증가율	7.4			4.8		7.6		-7.2		-6.7	

Note : 보건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의 진료료를 포함

6) 한방요양기관의 환자당 내원일수

- 전체 환자당 내원일수는 11~12일이었으며 한방병원 및 한의원의 환자당 내원일수는 12~13일, 보건기관의 환자당 내원일수는 6일, 요양병원의 환자당 내원일수는 1일 순이었음
 - 입원 환자당 내원일수는 2013년 4일에서 2016년 4일로 크게 차이가 없었음
 - 한방병원 입원 환자당 내원일수는 2013년 25명에서 2016년 26명으로 조금 증가하였으며 한의원에 입원 환자당 내원일수는 2013년 19명에서 2016년 12명으로 감소하였음
 - 한방병원 외래 환자당 내원일수는 2013년 7명에서 2016년 7명으로 크게 차이 없었으며 한의원에 외래 환자당 내원일수는 2013년 12명에서 2016년 13명으로 조금 증가하였음
- 전체 한의원과 보건기관의 환자당 내원일수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한방병원과 요양병원의 환자당 내원일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표 3-85〉 한방요양기관의 환자당 내원일수

(단위: 일, %)

구분	연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환자당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율	환자당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율	환자당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율	환자당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율	환자당 내원일수	전년 대비 증가율
전체	2013	12	4.1	13	1.1	12	5.4	1	-14.9	6	0.4
	2014	11	-4.6	12	-8.2	13	5.4	1	20.7	6	7.8
	2015	11	-1.2	12	0.7	12	-1.2	1	-23.3	6	-4.0
	2016	12	5.2	13	6.3	13	5.2	1	-15.3	6	1.2
	연평균 증가율	-0.3		-0.6		3.1		-7.8		1.6	
입원	2013	4	-11.1	25	-4.1	19	-	0	0.4	—	
	2014	4	-7.8	26	4.3	21	9.6	0	0.0		
	2015	4	1.7	25	-4.4	12	-40.1	0	-41.9		
	2016	4	12.5	26	3.1	12	-1.6	0	-2.1		
	연평균 증가율	1.8		0.9		-13.6		0.0			
외래	2013	12	5.3	7	1.1	12	5.4	10	-2.7	6	0.4
	2014	12	1.5	7	-1.9	13	5.3	10	-0.6	6	7.8
	2015	12	-1.0	7	-3.8	12	-1.2	11	13.8	6	-4.0
	2016	13	5.2	7	2.2	13	5.2	11	-1.8	6	1.2
	연평균 증가율	1.9		-1.2		3.1		3.6		1.6	

Note : 1) 환자당 내원일수=내원일수/실환자수

2)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3) 요양병원 내원일수 중 한방협의진료와 관련된 내원일수는 '0' 으로 산정되어 있음

7) 한방의료급여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추이(2013~2016)

-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2만 8천원에서 2016년 3만 2천원으로 연평균 약 5.1%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46만원에서 2016년 82만 3천원으로 연평균 약 21.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입원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17만 7천원에서 2016년 18만 9천원으로 연평균 약 2.2%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의 입원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161만 4천원에서 2016년 338만 3천원으로 연평균 약 28.0%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
 - 한의원의 입원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2만 9천원에서 2016년 4만 3천원으로 연평균 약 14.2% 증가하였음
-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는 2013년 2만 3천원에서 2016년 2만 6천으로 연평균 약 4.4% 증가하였음

〈표 3-86〉 한방의료급여의 내원일당 진료비 변화 추이

(단위: 원, %)

구분	연도	전체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보건기관	
		내원일당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내원일당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내원일당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내원일당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내원일당 진료비	전년대비 증가율
전체	2013	27,586	6.7	37,633	6.5	23,066	5.1	460,054	25	6,555	-1.6
	2014	29,139	5.6	38,694	2.8	24,146	4.7	484,917	5.4	6,642	1.3
	2015	30,699	5.4	42,766	10.5	25,115	4.0	661,846	36.5	6,821	2.7
	2016	32,035	4.4	46,059	7.7	26,141	4.1	823,162	24.4	7,095	4.0
	연평균 증가율	5.1		7.0		4.3		21.4		2.7	
입원	2013	176,765	15.9	49,981	5.8	29,174	-	1,614,671	5.1	—	
	2014	193,224	9.3	50,230	0.5%	32,751	12.3	1,793,684	11.1		
	2015	198,041	2.5	54,439	8.4%	37,736	15.2	3,165,015	76.5		
	2016	188,856	-4.6	57,423	5.5%	43,478	15.2	3,382,643	6.9		
	연평균 증가율	2.2		4.7		14.2		28.0			
외래	2013	22,684	5.3	21,973	6.2	23,066	5.1	18,891	2.2	6,555	-1.6
	2014	23,762	4.8	23,008	4.7	24,145	4.7	19,179	1.5	6,642	1.3
	2015	24,766	4.2	24,314	5.7	25,114	4.0	19,428	1.3	6,821	2.7
	2016	25,842	4.3	25,886	6.5	26,140	4.1	19,455	0.1	7,095	4.0
	연평균 증가율	4.4		5.6		4.3		1.0		2.7	

Note : 1) 내원일당 진료비 = 진료비/내원일수

2)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포함

4. 한방 자동차보험 이용 현황

-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된 2013년 하반기부터 집계되기 시작했음

가. 한방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청구건수

- 한방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6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전체 이용 현황은 652만 건으로 2015년 대비 18.1% 증가하였음
 -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도 2015년 14만건에서 19만건으로, 외래환자도 2015년 537만건에서 633만건으로 증가하였음

〈표 3-87〉 한방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청구건수

(단위: 천 건)

구분	연도	전체 계	한의 의료기관		
			계	한방병원	한의원
전체	2015	14,430	5,515	1,009	4,506
	2016	15,526	6,515	1,404	5,111
외래	2015	13,478	5,371	887	4,484
	2016	14,561	6,328	1,242	5,086
입원	2015	952	144	122	22
	2016	964	187	162	25

나. 한방 자동차보험의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

-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2016년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전체 이용 현황은 4,635억원으로 2015년 대비 51.5% 증가하였음
 - 한방병원은 2016년 1,667억원으로 2015년 대비 51.5% 증가하였으며 한의원은 2,9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19.7% 증가하였음
 - 한방의료기관 입원환자도 2015년 1조 233억에서 1조 433억으로, 외래환자도 2015년 5,324억원에서 6,153억원으로 증가하였음

〈표 3-88〉 한방 자동차보험 한의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진료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전체 계	한의 의료기관		
			계	한방병원	한의원
전체	2015	1,555,795	357,999	110,050	247,949
	2016	1,658,621	463,536	166,701	296,835
외래	2015	532,447	358,690	47,284	232,454
	2016	615,293	358,690	79,653	279,037
입원	2015	1,023,348	78,262	62,766	15,495
	2016	1,043,328	104,846	87,048	17,798

제3절. 한약재 생산 현황

1. 연구배경

- 한약재의 생산현황에 대한 추이 분석을 위해 '11년, '14년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 동일하게 진행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분석·정리하였음

2. 국산 및 수입한약재 현황

- 본 절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기준 및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3-89〉 분석 데이터 기준 및 용어 정의(한약재 생산 현황)

2. 국산 및 수입한약재 현황

가. 국산 약용작물 생산 현황

- 수급조절대상한약재 : 2001년 7월에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2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가 2004년 3월에는 이 가운데 하수오, 창출, 적작약이 제외되어 18개로 축소되었고, 2006년 9월 개정을 통해 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 제외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14종으로 그리고 2012년 12월에 일당귀가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포함되어 15종으로 늘었다가 백수오와 시호가 2012년도 말까지 그리고 택사와 황금은 2013년도 말까지만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2014년부터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1종으로 유지하고 있음
-

3. 한약제제 생산실적

- 단미엑스제 : 한방 의료보험급여 처방 조제용 개별 한약재 추출물
- 단미혼합엑스제 : 단미엑스제를 기존 한방처방에 따라 혼합한 제제
- 기타 한약복합제제 : 기존 한방 방제를 제제화한 한약제제

가. 국산 약용작물 생산 현황

-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은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산 약용작물 생산실적으로 국산 한약재의 생산현황을 추정하는데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개괄적인 국내 한약재의 생산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국산 약용작물의 생산현황 파악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내 한약재 생산 동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약용작물 재배·수확면적 및 전체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 수확면적 그리고 생산량 모두가 증가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배면적은 연평균 6.2%가 그리고 수확면적은 4.8%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0〉 2013년~2016년 약용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단위: ha, 톤, %)

연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재배면적	13,958	14,847	14,232	14,458	6.2
수확면적	12,834	13,359	12,741	12,644	4.8
생산량	75,550	75,649	83,068	76,886	8.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 생산실적, 각 년도

- 2013년~2016년 사이 국산 약용작물 생산량 상위 품목은 오미자(연평균 9,844톤), 산약(9,057톤), 복분자(8,989톤), 양유(8,213톤), 길경(5,400톤), 의이인(1,518톤), 식방풍(1,509톤) 등 순으로 분석됨
- 같은 기간 동안 약용작물 생산량 증가 상위 품목은 백수오(125.8%),

식방풍(122.2%), 강황(72.7%), 목단피(71%), 결명자(36.9%), 강활(36.6%), 향부자(33.2%)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약용작물 생산량 감소 상위인 품목은 산수유(48%), 단삼(28.6%), 택사(27.7%), 석창포(27.1%), 구기자(26.7%), 당삼(26.3%), 사삼(24.2%) 등 순으로 나타남

〈표 3-91〉 2013년~2016년 약용작물별 생산량 현황

(단위: ha, 톤, %)

약용작물	2013	2014	2015	2016	평균	연평균 증가율	수급조절 한약재*
오미자	9,575	10,159	9,711	9,932	9,844	△1.2	수급조절 한약재
산약	8,499	6,479	9,482	11,768	9,057	△11.5	—
복분자	9,801	10,199	9,208	6,749	8,989	-11.7	—
양유	7,288	8,458	8,740	8,367	8,213	△4.7	—
길경	5,442	5,080	4,827	6,249	5,400	△4.7	—
의이인	1,391	1,422	1,668	1,590	1,518	△4.6	—
식방풍	149	2,460	1,794	1,634	1,509	△122.2	—
독활	1,217	1,750	1,472	1,452	1,473	△6.1	—
당귀	1,627	1,345	1,371	1,398	1,435	-4.9	수급조절 한약재
강황	459	487	1,804	2,365	1,279	△72.7	—
지황	1,176	507	1,363	1,337	1,096	△4.4	수급조절 한약재
오가피	1,022	944	1,224	835	1,006	-6.5	—
작약	1,234	1,054	600	642	883	-19.6	수급조절 한약재
천궁	886	712	587	809	749	-3.0	수급조절 한약재
황기	708	722	642	578	663	-6.5	수급조절 한약재
산수유	1,657	263	269	233	606	-48.0	수급조절 한약재
천마	1,023	265	458	525	568	-19.9	수급조절 한약재
구기자	667	350	685	263	491	-26.7	수급조절 한약재
백수오	68	367	686	783	476	△125.8	—
맥문동	341	348	355	260	326	-8.6	수급조절 한약재
감초	372	284	334	306	324	-6.3	—
두충	407	351	300	222	320	-18.3	—
일당귀	275	274	231	415	299	△14.7	수급조절 한약재
하수오	278	243	237	181	235	-13.3	—
강활	95	188	219	242	186	△36.6	—
홍화	115	148	168	175	152	△15.0	—

백출	120	135	174	143	143	△6.0	—
어성초	203	128	101	110	136	-18.5	—
한인진	122	109	109	91	108	-9.3	—
황정	90	111	99	96	99	△2.2	—
향부자	55	55	144	130	96	△33.2	—
우슬	79	78	105	123	96	△15.9	—
치자	65	106	103	103	94	△16.6	—
사삼	138	86	72	60	89	-24.2	—
백지	116	81	75	63	84	-18.4	—
삼백초	86	36	120	52	74	-15.4	—
결명자	44	70	55	113	71	△36.9	—
택사	103	100	39	39	70	-27.7	—
자소엽	41	64	54	49	52	△6.1	—
시호	44	42	43	48	44	△2.9	—
석창포	49	53	52	19	43	-27.1	—
단삼	44	45	41	16	37	-28.6	—
위유	45	29	30	24	32	-18.9	—
황금	35	26	28	18	27	-19.9	—
고본	19	19	20	34	23	△21.4	—
현삼	12	29	21	25	22	△27.7	—
형개	10	15	17	11	13	△3.2	—
목단피	1	5	4	5	4	△71.0	—
익모초	5	1	5	3	4	-15.7	—
당삼	5	2	2	2	3	-26.3	—
대황	3	1	3	-	2	-	—
지모	0	-	-	-	-	-	—
기타	2,298	2,230	2,244	998	1,943	-24.3	—
합계	59,604	75,649	83,068	76,886	73,802	△8.9	11종

* 수급조절대상한약재는 2001년 7월에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2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가 2004년 3월에는 이 가운데 하수오, 창출, 적작약이 제외되어 18개로 축소되었고, 2006년 9월 개정을 통해 독활, 두충, 백지, 백출을 제외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14종으로 그리고 2012년 12월에 일당귀가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로 포함되어 15종으로 늘었다가 백수오와 시호가 2012년도 말까지 그리고 택사와 황금은 2013년도 말까지만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2014년부터 구기자, 당귀, 맥문동, 산수유, 오미자, 작약, 지황(생·건), 천궁, 천마, 황기, 일당귀 11종으로 유지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용작물생산실적, 각 년도

나. 한약재 수입 현황

- 한약재의 수입 현황도 국산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식품용과 의약품용으로 공동으로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체 수입 한약재 품목별 수입실적에 대한 통계구축도 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 한약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한약재의 품질검사 실적을 의약품용 한약재의 수입실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절에서도 수입 한약재의 품질검사 실적 분석을 통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수입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함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 총 수입량과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수입물량은 연평균 2.7%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연평균 5.9%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92〉 2013년~2016년 한약재 수입현황

(단위: 개, 톤, US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품목	346	313	342	315	-3.1
물량	19,203	18,922	15,660	17,670	-2.7
금액	112,392	122,791	181,640	133,312	5.9

자료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실적, 각 년도

2)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마황 1,213톤, 복령 871톤, 육계 758톤, 감초 725톤 순으로 수입이 많이 이뤄졌음. 2014년에는 마황 1,164톤, 백출 930톤, 감초 849톤, 복령 709톤 순으로 수입되었음. 2015년에는 감초 979톤, 지황 707톤, 복령 677톤, 마황 636톤 순으로 수입되었음. 2016년에는 감초 972톤, 마황 954톤, 복령 850톤, 지황 849톤 순으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짐

〈표 3-93〉 2013년~2016년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량 현황

(단위: 톤)

순위	2013		2014		2015		2016	
	품명	수입량	품명	수입량	품명	수입량	품명	수입량
1	마황	1,213	마황	1,164	감초	979	감초	972
2	복령	871	백출	930	지황	707	마황	954
3	육계	758	감초	849	복령	677	복령	850
4	감초	725	복령	709	마황	636	지황	849
5	백출	694	지황	705	육계	505	애엽	605
6	지황	634	육계	625	백출	441	육계	453
7	은행엽	570	어성초	453	석고	290	백출	396
8	애엽	395	우슬	354	애엽	272	반하	366
9	길경	380	팔루근	338	산사	261	팔루근	330
10	용안육	362	길경	305	용안육	260	우슬	278
11	갈근	335	애엽	293	길경	257	용안육	265.1
12	팔루근	319	반하	283	작약	231	진피	264.3
13	계지	313	갈근	277	사인	230	산사	264
14	반하	307	석고	273	계지	213	황금	256
15	우슬	258	황금	271	팔루근	212	위령선	244
16	석고	251	강황	265	반하	203	갈근	243.5
17	산사	244	산사	263	갈근	199	사인	242
18	하고초	213	자소엽	261	시호	197	작약	238.77
19	지구자	212	계지	260	후박	195	석고	238.74
20	사인	185	용안육	242	황금	191	시호	238
21	창출	182	위령선	211	창출	175	후박	231
22	백수오	168	창출	200.8	우슬	161	은행엽	200
23	후박	168	목향	200.6	택사	153	향부자	178
24	작약	159	작약	194	행인	152	길경	166
25	시호	156	후박	187	녹용	150	하고초	157
26	구기자	154	사인	173	치자	143	오가피	154
27	홍화자	153	녹용	169	천궁	138.9	창출	152
28	목향	150	시호	168	향부자	138.6	계지	144
29	두충	143	하고초	161	차전자	127	녹용	142
30	회향	157	은행엽	150	목단피	124	현호색	133

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실적, 각 년도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액 상위 30개 한약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연도에서 녹용의 수입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우황, 사향, 감초, 반하, 사인, 생녹용, 복령, 마황 등이 수입액 상위로 나타났음

<표 3-94> 2013년~2016년 수입액 상위 30개 한약재 현황

(단위: US 천달러)

순위	2013		2014		2015		2016	
	품명	수입액	품명	수입액	품명	수입액	품명	수입액
1	녹용	19,714	녹용	26,338	녹용	31,094	녹용	29,001
2	우황	14,886	우황	9,968	사향	10,340	사향	16,596
3	사향	3,334	어성초	9,503	우황	9,438	우황	8,745
4	마황	3,133	사향	5,160	감초	3,405	반하	3,720
5	감초	3,073	마황	3,478	사인	2,924	감초	3,541
6	반하	2,839	백출	3,211	생녹용	2,880	사인	3,315
7	생녹용	2,782	감초	2,986	복령	2,292	생녹용	3,170
8	복령	2,539	반하	2,696	녹각	2,210	복령	3,011
9	백출	2,424	복령	2,189	황련	2,036	마황	2,787
10	사인	2,356	사인	2,072	반하	2,029	녹각	2,390
11	은행엽	1,991	시호	1,937	마황	1,827	골쇄보	2,092
12	시호	1,938	생녹용	1,909	지황	1,481	황련	1,999
13	용안육	1,864	팔루근	1,585	용안육	1,445	지황	1,839
14	팔루근	1,485	지황	1,573	백출	1,408	현호색	1,789
15	육계	1,363	원지	1,472	시호	1,396	홍화	1,568
16	길경	1,358	용안육	1,465	육계	1,329	황금	1,449
17	황련	1,321	황련	1,435	원지	1,215	팔루근	1,389
18	지황	1,251	녹각	1,390	창출	1,129	백출	1,301
19	현호색	1,082	육계	1,363	현호색	1,070	육계	1,229
20	녹각	1,064	현호색	1,093	부자	1,003	용안육	1,175
21	홍화	1,049	창출	1,064	팔루근	955	시호	1,165
22	하고초	958	황금	1,062	작약	883	애엽	1,159
23	원지	863	위령선	970	금은화	802	위령선	1,145
24	창출	820	길경	923	홍화	797	창출	941
25	맥문동	803	우슬	913	길경	782	오공	826
26	영묘향	785	오공	851	오공	754	산조인	819
27	오공	742	작약	749	산조인	750	목단피	792
28	당삼	720	산조인	744	황금	691	연교	766
29	우슬	664	하고초	715	연교	648	원지	759
30	구기자	657	구기자	640	목단피	608	우슬	75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실적, 각 연도

3. 한약제제 생산실적

- 2013년부터 2016년도까지 국내 한약제제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생산액은 연평균 약 1.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미엑스제, 단미혼합엑스제, 기타 한약복합제제를 포함한 수치임
- 한약제제 분류별로 보면 단미엑스제가 약 38.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미혼합엑스제가 약 9.9%, 그리고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약 0.01%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8%를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95〉 2013년~2016년 한약제제 생산실적

(단위: 억원, %)

한약제제 분류*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한약제제 총 생산액	2,866	2,962	2,776	2,959	1.1
단미엑스제	6	12	14	16	38.7
단미혼합엑스제	251	375	282	333	9.9
기타 한약복합제제	2,609	2,575	2,481	2,610	0.0

자료: 2013-2014는 한국제약협회 자료를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15-2016은 한약진흥재단에서 재가공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제제 생산액을 약효분류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한약제제 중 27.9%가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으로 나타났으며, ‘해열, 진통, 소염제’가 20.1%,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이 18.7% 그리고 ‘건위소화제’가 7.4% 순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기타의 소화기관용약’이 연평균 17.6%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4.5%, ‘이비과용제’ 10.5%로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3-96〉 2013년~2016년 약효분류별 생산실적

(단위: 백만원, %)

약효분류별	2013	2014	2015	2016	총합계	비중	연평균 증가율
(114)해열, 진통, 소염제	6,029	5,517	5,238	5,453	22,237	20.1	-3.3
(119)기타의 중추신경용약	174	207	205	261	847	0.8	△14.5
(132)이비과용제	423	506	536	570	2,035	1.8	△10.5
(190)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 기관용 의약품	8,166	7,503	7,426	7,880	30,975	27.9	-1.18
(219)기타의 순환계용약	70	70	72	83	295	0.3	△5.8
(222)진해거담제	1,519	1,676	1,687	1,781	6,663	6.0	△5.5
(229)기타의 호흡기관용약	115	109	96	108	428	0.4	-2.1
(231)치과구강용약	40	33	29	33	135	0.1	-6.2
(233)진위소화제	2,043	1,992	2,036	2,176	8,247	7.4	△2.1
(235)최토제, 진토제	1,215	1,369	1,184	1,300	5,068	4.6	△2.3
(238)하제, 완장제	46	50	51	49	196	0.2	△2.1
(239)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965	4,638	5,642	6,439	20,684	18.7	△17.5
(253)통경제	666	592	537	587	2,382	2.1	-4.1
(259)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24	23	22	26	95	0.1	△2.7
(263)화농성질환용제	846	866	782	830	3,324	3.0	-0.6
(290)기타의 개개의 기관용 의약품	28	29	21	22	100	0.1	-7.7
(329)기타의 자양강장 변질제	1,681	1,587	1,542	1,649	6,459	5.8	-0.6
(392)해독제	8	9	7	8	32	0.0	0.0
(399)따로 분류되지 않은 대 사성 의약품	191	170	166	169	696	0.6	-4.0
합계	27,249	26,946	27,279	29,424	110,898	100	2.6

Note : 약효분류번호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별표인 의약품 분류표에 따라 의약품별로 3자리 숫자로 정해져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의약품청구현황

제 4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 한의약 관련 통계의 생산은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문제 등 국가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에 필요한 한의약 정책우선순위 결정 및 제도 개선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외 한의약 관련 의료서비스시장의 성장 추세에 맞춰 관련 한의약정책 수립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 통계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20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제3차 국가승인통계로 실시되는 조사로서 그 이전까지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요구되었던 여러 현안에 대한 대안과 개선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의 경우 전국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5,000명과 한방의료 외래이용자 1,010명과 입원 이용자 904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모든 통계수치는 일반국민의 경우 통계청의 ‘2017년 장래인구추계’의 만 19세 이상 인구수 (약 4천 2백만명)로 모수 추정하고 이용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건강보험 의료급여대상자 실환자수’에 근거하여 모수추정한 결과임
- 한약소비실태조사의 경우 한약소비기관으로서 한방의료기관과 약국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 근무) 및 한약방, 총 2,800개소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본 보고서의 모든 통계수치는 2016년 기준 한방의료기관 15,273개소와 한의약 조제·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 한약방 2,380개소를 기준으로 모수추정한 결과임. 이번 조사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가. 일반국민

- 일반국민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평생한방의료 이용경험자는 73.8%로 높았으나 지금까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90.6%로 가장 많았고 50대 86.1%, 40대 77.7%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이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방의료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한방치료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방의료를 잘 몰라서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가 76.2%로 높고 그 이유로 치료효과가 좋아서, 부작용이 적어서, 유명해서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효과가 좋아서’의 비율이 증가함
- 이에 빠른 인구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 인구사회경제학적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서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부문의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의약 관련 인식 제고 필요함
- 둘째, 일반국민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지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잘 모름이 가장 많고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잘 모름이 많았음
- 셋째, 지금까지 한방의료를 이용한 응답자 중 주요 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94.1%로 가장 많은데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치료를 위해 한방의료를 이용한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 증진 등의 목적으로 이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질환으로는 전체적으로 주로 요통이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타염좌(뺨) 37.3%, 오십견 및 견비통 20.9% 순으로 나타남
- 이용한 한방치료법으로는 침이 90.2%로 가장 많고, 부항 53.0%, 뜸 49.1%의 순으로 나타남

- 질환별 한방치료에 대한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효과있다고 응답한 질환 중 요통이 85.1%로 가장 높았고 기타 염좌(뺨) 83.9%, 오십견 및 견비통 81.1% 순으로 나타남
- 넷째, 한방의료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2명 중 1명인 53.4%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으로는 탕약 84.2%, 추나요법 39.8% 순으로 나타남
 -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 치료법으로서(1순위만) 탕약이 55.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약제제(탕약 제외)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10명중 6명이 탕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질환으로서(1순위만) 근골격계질환이 41.5%로 가장 많고 4대중증질환 28.0%, 신경질환 14.4% 순으로 나타남
- 다섯째, 한약재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민 10명 중 4명인 39.2%는 한방의료기관, 약국, 한약방에서 취급하는 한약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생산자, 유통 및 판매업체 등의 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함. 또한 향후 한방의료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78.9%는 한약복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향후 한약복용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으로 한약값이 비싸서 44.3%로 가장 높았음
- 여섯째, 만 19세 미만 자녀의 지난 1년간 한방의료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대상자의 22.3%가 자녀의 한방의료이용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자녀의 한방의료이용 목적은 질환치료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가 경험한 치료법은 탕약이 6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침 39.1% 순이었음. 이용결과에 대한 만족은 57.6%를 보였음

나. 이용자(외래/입원)

- 외래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첫째, 한방외래의 이용경험을 보면 외래목적은 질환치료가 93.3%로 가장 많고 30대 이하의 경우 교통사고 치료가 가장 많음. 지난 1년간 외래이용횟수는 4~7회가 가장 많고 여성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특히 60대의 경우 평균 16.1회로 이용횟수가 증가함
 - 질환치료 목적으로는 척추질환(허리)이 4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32.8%, 어깨병변 24.7% 순으로 이용하였음
 - 가장 많이 이용하고 효과있는 치료법으로서 침이 각각 93.5%, 97.0%를 차지함.
 - 외래이용자가 지난 1년동안 지출한 외래진료비는 전체적으로 1만원~10만원이 49.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10만원~50만원 미만 순으로 지출함. 지출비용에 대한 생각은 외래이용자 10명 중 4명이 비싸다고 생각하였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탕약이 7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약제제(탕약 제외), 추나요법 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한방치료법으로 탕약 51.9%, 한약제제 23.9% 순이며 우선적용이 필요한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 41.1%, 4대 중증질환 28.1%, 신경질환 10.1% 순이었음
- 둘째, 한방의료정보 획득경로는 외래이용인 경우 주로 가족친구 등 주변사람에게서 58.6%로 획득함. 또한 한방외래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86.5%로 매우 높은 편이며, 세부적으로 한의사진료태도 97.1%, 간호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태도 94.4%, 치료효과에 대해서 94.2% 순으로 만족하였음. 한방의료이용전 타의료기관 이용경험은 50.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타의료기관으로서 의원, 병원, 약국 순이었음
- 셋째, 입원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실태를 보면 지난 1년간 입원이용을

한 목적이 질환 치료가 66.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 치료 34.5%, 건강증진 4.4% 순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질환치료를 위해 방문한 경우가 많아지는 경향임. 입원 이용횟수는 전체적으로 1년간 1회가 62.7%로 가장 높고 평균 1.7회이며, 1회인 경우는 여성과 연령이 젊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질환치료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질환으로는 척추질환(허리)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관절염 22.9%, 관절의 탈구·염좌·긴장 22.3% 순으로 이용하였음
- 가장 많이 이용하고 효과있는 치료법으로서 침이 각각 97.8%, 97.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뜸 72.9%, 부항 70.9% 순이었음
- 입원이용자가 지난 1년동안 지출한 입원진료비는 전체적으로 10만원~50만원 미만인 30.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만원~100만원 미만 순으로 지출함. 지출비용에 대한 생각은 입원이용자 10명 중 7명이 비싸다고 생각하였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치료법은 탕약 75.2%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침, 추나요법 순이었음
- 건강보험급여 확대시 우선적용 치료법으로서 탕약이 48.9%로 가장 많고, 우선적용 질환은 근골격질환이 39.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4대 중증질환 32.9% 순으로 높았음

○ 넷째, 한방의료정보 획득경로는 입원이용인 경우 가족, 친구 등 주변사람에게서 63.6%를 획득함. 또한 입원진료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6%로 매우 높은 편이며 세부적으로 한의사의 진료태도 95.6%, 간호사 및 의료기관종사자 태도 95.5%, 한방치료법 설명 91.6% 순으로 만족하였음. 한방입원이용 전에 동일질환으로 타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46.9%였으며 입원전 타의료기관으로서 병원, 의원 순으로 가장 많았음

- 한약에 대한 복용의사는 86.1%로 매우 높은데 복용의사가 없는 13.9%에게 복용하지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약값이 비싸서가 62.5%로 높았음

2. 한약소비 실태조사

- 한약소비실태는 한약유통단계 중 최종 한약소비기관으로서 한방의료 서비스부문(한방의료기관, 한방진료과목이 있거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기타 의료기관)과 한약 조제·판매부문(한약방, 한약조제약사나 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으로 조사대상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임
- 첫째, 한약(탕약 등 전체)소비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방의료서비스부문이 96.6%로 가장 많으며 이 중 한의원이 84.9%로 가장 높았으며 한약조제·판매부문은 3.4%가 한약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방의료서비스 부문의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의 처방(조제) 건수의 변화에 대해 병원급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사가 있는 요양/ [종합]병원, 이하 같음)은 비슷함 68.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감소함 25.7% 순이었고, 한약제제(보험)는 비슷함 78.1%, 감소함 16.5% 순이었음. 한의원의 경우 탕약은 감소함 48.3%, 비슷함 45.2% 순이며, 한약제제(보험)은 비슷함 71.4%, 감소함 16.2% 순이며 한약제제(비보험)는 비슷함 68.8%, 감소함 24.6% 순이었음
 - 한약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2015년 대비 2016년 탕약의 처방(조제) 건수의 변화에 대해 감소함 69.6%, 비슷함 29.2%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약제제(비보험)의 조제건수 변화에 대해 비슷함 50.4%, 감소함 45.8%의 순이었음
- 둘째, 한방의료서비스부문(전체)에서 질환치료시 탕약이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질환(1순위)은 근골격계질환이 53.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소화기질환 20.3%, 호흡기질환 6.0%순이었고 한약제제(보험)의 경우 근골격계질환 56.7%, 호흡기질환 18.8% 순이며, 한약제제(비보험)의 경우는 근골격계 34.1%, 소화기질환 28.3%의 순으로 처방함
 - 질환치료시 가장 많이 처방(조제)된 한약(1순위)으로서 탕약은 오적산이 16.6%, 보중익기탕 10.4% 순으로 높고, 한약제제(보험)의 경우 오적산 27.9%, 궁하탕 10.6% 순이며, 한약제제(비보험)의 경우 소청룡탕 17.0%, 평위산 5.4% 순으로 처방(조제)되었음

- 셋째, 한약재 소비현황으로서 한방의료서비스 부문 중 병원급 한방 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전체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비중은 평균 4.0%로서 구입비중 20% 미만이 92.0%로 가장 높음. 사용하는 한약재의 가짓수는 병원급 한방병원이 평균 116.4개(한방병원: 139.2개, 요양/[종합]병원: 8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의원 93.8개, 요양/(종합)병원이 85.8개를 사용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52.5%, 감초 14.1%의 순이었음
- 한약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2016년 전체 매출액 중 한약재 구입비중은 평균 31.7%로서 구입비중 20~40% 미만이 33.6%로 가장 높았으며 사용하는 한약재 가짓수는 평균 81.4개(한약방: 98.2개, 약국: 68.7개)를 사용하였고 가장 많이 사용한 한약재는 당귀 52.9%, 감초 8.8%의 순이었음
- 넷째, 한약소비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한약 선호 제형의 경우 한방 의료서비스부문은 탕제가 94.2%로 가장 많고 환제 44.9%, 과립제 43.7% 순으로 높았음. 한약 조제·판매의 경우 탕제 85.6%, 과립제 34.6%, 환제 20.9% 순이었음
- 평소 한약재와 관련하여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병원급 한방 의료기관인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 45.9%, 한약재 가격상승 4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의원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 75.2%, 한약재 가격상승 69.4% 순이었음. 한약 조제·판매부문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 77.4%, 한약재 가격상승 62.3% 순이었음
- 한약이용의 활성화방안으로서 탕약에 대하여 한방의료서비스부문 중 병원급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5.6%, 품질관리강화 50.5% 순으로 높았고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80.5%, 안전성 인식개선 63.6% 순이었음. 한약제제(보험)의 경우 병원급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1.9%, 품질관리강화 45.7% 순이며 한의원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확대 71.6%, 다양한 제형개발 52.1% 순이었음. 한약제제(비보험)의 경우 병원급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9.0%, 품질관리강화 41.6% 순이고 한의원은 건강보험 적용확대 74.2%,

치료효과 홍보 45.0% 순으로 응답하였음. 반면, 한약·조제판매의 경우 탕약이용은 건강보험적용 확대 72.9%, 안전성인식 개선 40.4% 순으로 높았고, 한약제제(비보험한약) 활성화는 건강보험적용 확대 75.6%, 치료효과 홍보 41.1% 순이었음

3. 실태조사 관련 한의약 통계자료 분석

가. 한방건강보험자료

- 2011년도와 2014년도에 이어 2017년도 실태조사 관련 한의약 통계자료 추이분석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대상자의 한방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한방의료기관 중별 및 한방청구 서식구분으로 입원/외래별, 성별·연령별 한방의료이용실적, 지역별 의료이용, 진료비구조 및 한방다빈도상병 등을 연도별 추이분석을 위해 분석·제공함
- 한방건강보험 청구건은 연평균 0.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한의원의 청구건이 90% 이상으로 대다수를 차지함
 - 입원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11.7%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방병원은 연평균 10.8%, 요양병원은 연평균 12.0%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외래의 청구건수는 연평균 0.2%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의원을 제외(0.4% 증가)한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기관에서 각각 -1.6%, -8.7%, -4.8%로 감소하고 있음
- 한방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4.5%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2조 5,143억원에 달함. 그 중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약 95%(한의원 84.4%, 한방병원 10.9%)를 차지하고 요양병원은 4.3%, 보건기관은 0.4%를 차지함
 - 입원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8%로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며 한방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63.8%, 요양병원 진료비가 33.6% 차지함
 - 외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약 92%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

한의원외래 진료비가 95% 이상을 차지함

- 한방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2013년 5,455억에서 2016년 6,137억으로 약 13%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5세~59세에서 14.0%로 가장 많았음. 입원/외래 연령별 본인부담금 역시 55~59세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기준으로 입원은 13.6%, 외래는 14.1%임

○ 성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환자수의 여자 구성비는 약 60%로 남자 구성비의 약 40% 보다 더 많았음

- 입원 실환자수도 2016년 기준 여자가 65.9%로 남자 34.1%보다 더 많았음
- 외래 실환자수도 2016년 기준 여자가 57.2%로 남자 42.8%보다 더 많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체 실환자수는 <표 4-15>에서 40~64세 환자들이 2016년 기준 47.6%로 가장 많았으며 0~9세 환자들이 3.4%로 가장 적었음

- 입원 실환자수는 남자의 경우 55~59세 9.7%, 75~79세 9.7%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80~84세가 9.1%로 많고 가장 적은 연령군은 0~9세로 0.4%임. 여자의 경우 85세 이상이 1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80~84세 14.5%, 75~79세 11.0%의 순으로 많고 가장 적은 연령층은 0~9세군으로 0.1%임
- 외래 실환자수는 남자의 경우 45~49세가 10.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50~54세군, 55~59세군이 9.8%로 많았으며 0~9세군은 4.5%를 차지함. 여자의 경우 55~59세군이 11.6%로 가장 많고 50~54세군 10.7%, 45~49세군 9.5% 순이었으며 0~9세는 2.7%이었음

○ (다빈도 상병) 2016년 청구 환자가 많은 질환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1.9%, 특수 목적 코드 5.2% 등의 순이었음

- 진료비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이 53.4%로 가장

높았으며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23.1%, 특수 목적 코드 4.2%, 신경계통의 질환 4.2%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은 0~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으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이상소견(S00-T98)은 10~19세 연령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였음. 또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은 20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연령별 환자수가 1순위임

나. 한약재 생산 현황

- (조사대상 변경) 2011년도 실태조사는 한약재의 최종소비단계에 가장 가까운 한방병원, 한의원, 한약방, 한약국¹¹⁾을 대상으로 2009, 2010년의 주요 한약재 구입량을 조사하고, 2014년도는 한약제조업체 및 한약도매상을 대상으로 주요 한약재의 연간 소비(유통)량 및 소비(유통)실태 조사함. 2017년도는 한약재 생산실적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통계가 됨에 따라 2011년도와 유사하게 한약소비기관으로서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 및 한방진료과목이나 한의사가 근무하는 종합병원 등 기타 의료기관,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및 한약방을 대상으로 한약소비 실태조사 수행함.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한약재의 생산실적의 추이분석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함
- (국산 약용작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약용작물 재배·수확면적 및 전체 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 수확면적 그리고 생산량 모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으며 특히 재배면적은 연평균 6.2%가 그리고 수확면적은 4.8%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국산 약용작물 생산량 상위 품목은 오미자, 산약, 복분자, 양유, 길경, 의이인, 식방풍 등의 순이었으며

11) '한약국'은 2011년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인용함

같은 기간동안 약용작물 생산량 증가 상위 품목은 백수오, 식방풍, 강황, 목단피, 결명자, 강활 등의 순이었음

○ (한약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 총 수입량과 수입액을 분석한 결과 수입물량은 연평균 2.7%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액은 연평균 5.9% 증가하였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마황, 복령, 육계, 감초 순으로 수입이 많이 이뤄졌으며 2016년에는 감초, 마황, 복령, 지황 순으로 수입이 많이 이뤄졌음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약재별 상위 30개 수입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에는 녹용, 우황, 사향, 마황, 감초 순으로 2016년에는 녹용, 사향, 우황, 반하, 감초 순으로 수입액이 높았음. 2013년과 2016년 모두 녹용의 수입액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약제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한약제제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생산액은 연평균 약 1.1% 증가하였으며 그 중 한방 의료보험급여 처방조제용 개별 한약재 추출물인 단미엑스제가 약 38.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단미엑스제를 기존 한방 처방에 따라 혼합한 제제인 단미혼합엑스제 약 9.9%, 기타 한약복합제제(기존 한방 방제를 제제화한 한약제제) 0.01% 순이었음

- 전체 한약제제 중 약 88%를 기타 한약복합제제가 차지하고 있음

제2절. 정책제언

1. 개요

○ 그동안의 실태조사 결과는 물론 기타 한의약통계에 따르면 한방의료 이용은 감소 추세에 있음. 이에 '17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한방의료이용 증진 등 관련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구축한 전문가자문단 및 한의 의료계종사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면자문을 실시함. 이를 통해 의견수렴한 결과를 각 주제별, 질환별 일반국민, 이용자 및 사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정책 수립과정에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자문 목적이 있음

○ 정책제언 도출방법

① 전문가자문단 서면자문(설문)조사

- 자문내용구성 : 한방의료이용 증진 정책제언¹²⁾ 관련 한방의료이용 현황 변화, 한의약정책 수용성, 한의약정책 방향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향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조사 관련 통계지표 수요조사¹³⁾, 한의약 전반에 관한 정책제언 방향성 및 정책제도 검토
- 전문가 : 실태조사 자문단(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약사협회, 제약회사 및 학계) 8명 및 한의 종사자 9명
- 조사기간 : 2017. 11. 28.~ 12. 11.

② '17년도 실태조사결과와 전문가자문단 서면자문결과 연계하여 정책제언 도출

12) 부록2. 한방의료이용 증진 정책제언 관련 서면자문 참조.

13) 부록3. 17년도 실태조사 대상별 정책지표에 대한 전문가 서면자문 참조.

2. 전문가자문 주요결과

- 전문가자문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표 4-1>, <표 4-2>, <표 4-3>, <표 4-4>, <표 4-5> 참조)
- 첫째, 한방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전망을 묻은 결과 변화 없다가 45%로 가장 높았으며, 감소하고 있다 33%, 증가하고 있다 22% 순이었음

<표 4-1> 한방의료 현황

진료변화	비율	이유
①증가하고 있다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좌, 근육통 등 간단한 치료 이용의 증가로 사려됨
②변화없다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약환자수가 감소한 만큼 침환자 수는 늘어서 총 환자수는 비슷함 ○ 한의치료가 동통위주로 인식되다 보니, 젊은 층의 통증 질환 유병률이 노인층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 ○ 젊은층에게는 한의원은 침을 주로 놓는다는 인식이 많은 것 같고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음
③감소하고 있다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하는 의료시장을 한방의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보장성강화 실패 ○ 건강기능식품 만연 ○ 부정적 이미지차단 실패 ○ 전체적인 환자 수의 감소와 한방의료 인식 저하

- 둘째, (정책방향성) ‘17년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조사표의 구성에 의거하여 정보매체 등 인식개선 위한 홍보방안, 한약재관리방안, 보장성강화방안, 이용목적에 따른 방향성, 한의진료 활성화방안 및 만족도 및 신뢰도 개선 6개부문에 대한 정책제안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수렴함

〈표 4-2〉 정책제안 방향성

주제	정책제안 내용
정보매체 등 인식개선 위한 홍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교육매체 내 탑재 가능한 홍보자료(교재 및 부교재, 애니메이션 자료) 개발하여 아동 및 젊은 연령층 부모에 간접 홍보 - 현대화된 한의학 인식 증대를 위하여 다큐멘터리 같은 친근한 형식으로 한의학 홍보 - 한의전문매체 외에도 일반대중매체 의학전문기자 및 의학담당기자에 적극 홍보
한약재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GMP 한약규격품등 구축된 한약재관리제도 홍보. 비규격품(규격 존재하나 시중에 존재하지 않은 한약재, 규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한약재)에 대해 현실적인 관리방안 모색 - 원외탕전실에 대한 지원과 관리 강화 필요
비용부담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이나 유효한 질병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한의치료수요가 높은 연령층 맞춤형 보장성 강화정책
이용 목적에 따른 방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중심 진료, 한의치료 우수질환 등 질환치료에 대한 중점적 지원이 필요, 양방과 병행 치료 우수사례 개발과 방향성 제공 우선 - 건강증진목적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한의진료 활성화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빈도질환 중 근거가 확실한 질환 치료 먼저 근거강화와 홍보지원 등 전략 필요 - 새롭게 늘고있는 대사성질환 등에 대한 근거 확보 및 창출 연구 지원, 내과질환 환자의 한의의료이용 증대방안 모색
만족도 및 신뢰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와 안전성있는 치료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구축 - 근거중심 의학적 체계에 맞춘 정책방안 제시 필요

- 셋째,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 인구고령화에 따른 한방의료이용의 역할 증진 및 다양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함.

〈표 4-3〉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효과질환 우선순위

순 위	아동 (0-19세)	청년 (20-44세)	장년 (45세-64세)	노인 (65세 이상)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염 ○ 아토피성 피부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통 ○ 요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혈압 ○ 치매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불량 ○ 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 ○ 고혈압 ○ 소화불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 ○ 중풍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질환 (소화불량, 편두통, 두근거림 등) ○ 불면증 ○ 비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럼증 ○ 이명

- 넷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한의약분야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해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한방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55.6%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현재보다 전문화된 한방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33.3%로 2순위였음

〈표 4-4〉 한의약분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우선순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
1순위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한방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
2순위	공공부문은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현재보다 전문화된 한방진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순위	공공부문은 건강증진 관련 한방 공공보건사업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정책현안 연구주제) 실태조사자료 활용하여 한의약정책 수립 근거 제공에 필요한 연구주제 제안에 대하여 의견수렴함

〈표 4-5〉 한의약 정책현안 관련 주제

구분	의견
한의학의료비 지출 및 이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분석: 본인부담금, 한의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이용자의 지출의사 - 제형별(복용한약, 외용고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실태 - 한의약계에 경쟁산업분야의 지출규모 분석 (예. 소아성장, 성기능강화, 비만, 항노화, 탈모, 피부미용 등에 관련된 현대 의학, 건강기능식품, 민간부문 등) - 건강개선과 질병치료 목적별 한의의료서비스이용 분석 - 한의 의료 이용자 대상 패널을 구성 필요, 매년 샘플링을 통해 조사 혹은 순환 조사 - 한의의료이용이 자녀 또는 타인에 미치는 영향
민간의료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방실비보험 가입 및 실제이용 현황 및 영향분석 - 주요 상병별 표준 매뉴얼 제작과 민간실손보험 상품개발 데이터 구축
자동차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보험의 한의급여 비율, 세부항목별 치료기간, 치료비 등 현황 분석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의 한의 이용차이(진료비, 협약 등) - 자동차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데이터 구축(지불제도개선 및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및 확대 방안 -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정책대안: 국민, 이용자 및 공급자 별 선호급여대상행위 등 보장성강화확대방안 연구 - 민간의료보험의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근거설정 자료 수집을 통한 건강보험급여항목 확대 근거자료 이용방안 모색
보건의료체 계내 한의 의료재원의 분배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의사 주치의 제도의 단계적 시행 - 한의의료서비스 적용가능한 보험급여 지불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논의(총액계약제 또는 인두제 등) - 한방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한방병의원 관리지표(환자 1인당 부가가치, 병상이용률, 입원 대 외래환자비, 100병상 당 1일 평균 외래환자수) 구축 - 보건의료체계 내의 한의의료재원의 재정립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한방진료 지원(예. 청각장애인 한방진료시 통역지원 등)

3. 전문가 서면자문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도출

- 일반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한의의료서비스 이용목적에 따른 욕구 충족을 위하여 비급여항목의 보험급여 확대 등 이용대상에 맞춰 다양한 한방의료이용 서비스 접근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한의약 의료인 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외에 국가정책 및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한의의료영역의 확대, 한의우수치료질환에 대한 지원,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한약재 관리방안 한의학 치료효과가 있는 질환에 대한 근거강화방안 모색

4. 정책제언

가. 한방의료이용 제고방안

- 첫째, 국민의 한방의료이용에 대한 인지도 강화하여야 함
 - 한방의료 이용경험이 있는 국민이나 이용자의 경우 성별·연령별 상관없이 한방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한방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나타나는 경향에 대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있음. 그 이유 중 하나로서 한방의료이용이 가장 낮은 남자, 젊은 연령층의 경우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한방의료를 잘 몰라서의 순으로 응답하거나 한방의료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을 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향후 한방의료 이용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84.2%, 외래환자는 96.4%, 입원환자는 91.8%로 높고 향후 이용목적 중 질환치료가 일반국민과 외래/입원환자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국민 및 이용자의 한방의료욕구에 맞게 한방의료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방의료이용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긍정적 인식 확산 위한 홍보 강화 필요함

○ 둘째, 한방의료이용서비스의 다양화하여야 함

- 국민 및 이용자가 이용한 한방의료서비스의 경우 질환으로는 척추, 관절염 등 근골격계질환에 치중되어 있고 치료방법도 침, 뜸, 부항 등에 한정된 치료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한방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에서 근골격계질환 외에도 안면신경마비, 중풍, 소화기질환, 난임,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여 한방으로 치료될 수 있는 질환과 치료방법을 확대하여 한방의료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이용편의 제공 및 진료비 절감방안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의·한의 협진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외래환자의 경우 50.4%, 입원환자의 46.9%가 한방의료 이용 전 동일한 증상으로 병원, 의원 등 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한방의료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한의과 원활한 협진이 일반국민은 14.0%(3순위), 외래환자는 15.5%(3순위), 입원환자는 14.2%(2순위)를 나타남. 이에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서 의과와 한의과가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동일질환으로 의과와 한의과를 동시에 이용하는 의료욕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간 질병진단 정보도 공유되지 않아 동시에 의과 한의과를 이용하면 진료비 외에도 기회비용 발생 등 질환치료에 드는 비용부담이 많아져 국민의 의료수요에 반해 한방의료이용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그러므로 의료이용형태의 다각화를 통한 치료효과 증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보장성강화방안

○ 첫째, 국민 및 이용자의 한방의료이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비급여항목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향후 한방의료이용 의향이 있는 입원환자, 외래환자 및 일반국민 각각에 대하여 한약복용의향이 있는 입원환자 86.1%, 외래환자 80.1%, 일반국민 78.9%로 매우 높지만, 향후 한약을 복용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주요이유는 한약값이 비싸서가 입원환자 62.5%, 외래환자 51.7%, 일반국민 44.3%가 응답하고 있음
- 향후 한약 복용의향은 있지만 한약값의 부담으로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한의약의 비급여항목 급여화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할 필요가 있음

○ 국민 및 이용자대상 맞춤형 이용서비스를 제공되도록 대상별 질환 및 치료법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반국민의 평생 한방의료경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며 (60세 이상 90.6%), 향후 이용의향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고 특히, 60세 이상 연령군은 질환치료 목적으로 91.6%가 이용의향이 있고 한약 복용의사도 높으나, 한방의료 이용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다른 연령층보다 비싸서 이용하지 않으려는 비율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상태가 향후 한방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이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수요가 증가 추세일 경우를 고려하여 노인 특성을 반영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함
- 그 외에도 장애인, 저소득층, 임산부 등 대상 한방의료 이용서비스 강화정책 마련 필요함

다. 한약관리방안

○ 첫째, 한약의 안전관리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한방의료기관, 약국 및 한약방에서 취급하는 한약재에 대하여

일반국민 10명 중 4명이, 외래환자 10명 중 6명이 입원환자 10명 중 7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나, 한방의료분야에서 개선할 사항으로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일반국민과 외래환자는 2순위, 입원환자는 3순위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또한 한약재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한약소비기관으로서 한방의료서비스 부문은 한약재의 위변조 30.5%, 한약 규격품 품질검사 미흡 28.4%, 잔류금속 및 중금속 오염문제를 23.5%가 우려를 표명했으며, 한약 조제·판매 부문은 한약재의 위변조 22.6%, 한약규격품 품질검사 미흡 24.9%, 잔류금속 및 중금속 오염문제는 29.4%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 한약안전관리 주체의 역할 중요성으로서 한방의료서비스부문과 한약 조제·판매부문 모두 정부 > 생산자 > 유통판매업체 순으로 응답하여 정부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음. 이에 한약재 관련 안전관리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약소비기관은 한약재 관련 심각한 문제로 한약소비량 감소 추세를 한방의료서비스부문 72.4%, 한약조제·판매부문 77.3%로 1순위로 뽑고 한약재 가격 상승은 각각 66.8%, 62.3%로 2순위로 답하고 있어 탕약 및 한약제제의 이용장점을 고려한 이용방안(한방의료기관의 한약제제 이용활성화, 보험급여 한약제제 홍보 등) 개발 및 한약재 가격 안정정책을 강구할 필요 있음

제3절. 실태조사의 한계 및 개선사항

○ 일반국민 문항개선

- 한방의료를 건강증진 및 예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방이용 목적 중 건강증진/예방/치료 중 선택할 수 있는 항목 필요
- 한약복용에 따른 만족도 정도의 증진 및 개선효과에 대한 의료이용자의 의견 필요

- 한의진료에 대한 신뢰도 제고 위해 일반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지표 필요
 - 치료 목적 아닌 예방적 측면에서 한방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표도출 필요
 - 크게 질병, 건강증진, 미용목적 등으로 분류하되, 각 세부 목적에서 이에 대해 질병치료는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접근, 건강증진은 유소아기, 난임, 갱년기여성, 노년의학으로 한방지원확대로 접근, 미용목적의 경우 비급여로 유지하는게 적절함
- 한방의료 이용실태 파악, 적절한 시계열 유지 등을 위해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통계작성 주기를 단축을 고려 할 필요 있음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작성주기는 실태파악, 시계열의 적정성 유지, 승인통계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작성주기 단축이 필요함
 - 또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와 한약소비실태조사로 각각 분리하여 격년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향후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조사 설계 및 문항의 일관성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함
- 본 연구는 기존 조사와 3년의 시차가 발생하여 변동사항을 최대한 줄여 반영하고자 함
 - 2008년 이래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실시될 때마다 조사표 문항이나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여 시계열 추이분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사일관성 방안을 강구해야할 필요 있음

참고문헌

- 김미경, 한창호(2017). 한의 중풍 진료현황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자우편 설문조사. 대한한의학회지 38(3), p2288~3339.
- 김성진(2001).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세록(2009). 노인의 의료이용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7, p66-79.
- 서수경, 박보현, 최숙자(2016). 성인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추세와 관련요인. 보건간호학회지 30(1), p136-148.
- 서영준, 강신희, 김연희, 최대봉, 신현규(2010). 한방의료서비스 이용과 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계통적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31(1), p69-80.
- 손상목(2006). 한약 제형 개선의 필요성과 우리나라 20-30대 소비자들의 제형별 선호도.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신현규(2000). 한약 및 한약제제 관리와 연구개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1(2), p14-24.
- 유왕근, 류경아(2000). 한방의료의 이용행태 및 이용결정요인 분석 - 일부 대도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지 4(2), p1-24.
- 윤강재(2012). 우리나라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실태와 인식도. 보건복지ISSUE & FOCUS 140.
- 윤진원, 최성용, 이선동(2015). 30세 이상 한방의료기관 외래환자 중 비복합 및 복합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결정요인- 2011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자료를 중심으로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9(1), p95-107.
- 이기범, 박영철, 이선동(2016). 한방의료기관이용환자의 부작용 및 독성발생의 특성 - 2011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 대한한의학회지 37(1), p135-150.

- 이선동, 조재국, Hyundo Kim, 박해모, 양준모, 최성용(2013).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의원과 한방병원 외래이용환자의 이용실태 및 특성비교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7(2), p29-46.
- 이연화(2015). 요통 환자의 건강관련 삶의 질 관련 요인 :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천, 최성용, 이선동(2014).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지역 및 남녀별 치료질병의 우선순위 비교.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8(3), p41-55.
- 이은경, 이선동, 송애진, 윤진원, 최성용, 정명수(2014). 한방의료기관 외래이용환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특성연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8(2), p31-45.
- 이은영, 정순희, 문은숙(2007). 한약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한약 복용 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007년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대회.
- 이정택, 박영재, 이상철, 허영, 박영배(2006). 한의원 래원환자의 한방의료 선택과 이용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진단학회지 10(1), p153-165.
- 이채원(2010). 한약재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영남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한울, 정명수, 이기남(2007). 계층별 한방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예방의학회지 11(2), p71-86.
- 이현주, 유원섭, 정수경(2011). 만성질환자의 한방의료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 2005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대한예방한의학회지 15(3), p115-125.
- 임미선(2011).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제3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2011.7.7.) p289~307.
- 정해창, 박해모, 이선동(2014).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기관 이용환자의 성별 이용실태 및 특성비교연구. 대한한의학회지 35(1), p75-87.
- 조성진, 허철희, 정환목(2004). 사이버 시장에서의 한약재 거래 에이전트에 관한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 14(1), p79-82.

최민선, 이동녕, 김동일(2013). 난임부부의 한방의료기관 이용 실태 및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연구. 대한한방부인과학지 26(2), p151-165.

최병희, 손지형, 임병묵(2014).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방의료기관 이용이 양방의료기관 이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한한의학회지 35(3), p22-31.

최성용, 신현규, 박해모, 이선동(2012). 한방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6(2), p67-81.

황대선, 이경구, 신현규(2008). 한방의료기관 근무 한의사의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한의학회지 29(2), p96-106.

S. H. Kwon, S. H. Heo, D. J. Kim, S. H. Kang and J. M. Woo(2017). Changes in trust and the use of Korean medicine in South Korea: a comparison of surveys in 2011 and 2014.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17 p463.

J. H. Choi, S. W. Kang, C. H. You and Y. D. Kwon.(2015). The Determinants of Choosing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r Conventional Medicine: Findings from the Korean Health Panel. Hindawi Publishing Corporation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Article ID 147408.

부록 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통계수요조사

-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에서는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번 실태조사부터는 수요자 맞춤형 통계 생산 및 제공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와 ‘이용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고자 합니다.
- 현 조사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관한 이용자들의 수요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용자 중심의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결과 회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 연구 수행 :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
- 조사 문의 : 02-3662-6713, jhw0720@nikom.or.kr
02-3662-6724, mizu88@nikom.or.kr

필요 항목

① 필요한 사항 작성항목 등 (통계지표, 필요한 자료명 등)	
	* 조사항목의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② 필요한 이유 (목적, 용도)	

작성자

③ 기관명		④ 부서명	
⑤ 성 명		⑥ 전화번호	
⑦ 이메일			

〈작성 예시〉

필요 항목

① 필요한 사항 작성항목 등 (통계지표, 필요한 자료명 등)	한약제제(비보험) 생산량 및 판매량, 유통실태 등을 조사
② 필요한 이유 (목적, 용도)	한약제제 생산 및 판매실태를 분석하여 한의약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자

③ 기관명	* 개인인 경우 생략	④ 부서명	* 개인인 경우 생략
⑤ 성 명	홍길동	⑥ 전화번호	02-1234-5678
⑦ 이메일	abcd@naver.com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의 이용실태조사

문 1)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 평소에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한 달 또는 일 년을 기준으로 몇 회 정도 이용하시는지 기입해 주십시오.

월 기준 : _____회 / 연간 기준 : _____회

문 2)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어떤 경로(채널)를 통해 얻으십니까?
모두 기입해 주십시오.(중복응답)

- | | |
|-----------------|--------------------|
| ① 인터넷(국가통계포털 등) | ④ 기관방문 |
| ② 통계간행물(책자/CD롬) | ⑤ 뉴스나 신문보도 |
| ③ 전화/팩스/이메일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시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학술연구 | ④ 개인적 관심 |
| ② 업무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
| ③ 과제 | |

문 4)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

- ① 찾고자하는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음
- ② 찾고자하는 통계자료는 있으나 세부자료가 미흡한 경우가 있음
- ③ 통계자료 제공 시기가 늦음
- ④ 통계자료수집 및 입수 경로에 대한 정보 미흡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 5)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자료 이용 시 개선·보완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문 6)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이용 관련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십시오.

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한방의료이용 증진 정책제언 관련 서면자문

안녕하십니까?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조사는 한방의료이용 증진 정책제언 관련 서면자문으로 한약진흥재단에서 주관하여 한의원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한방의료이용 현황, 한의약정책 수용성, 한의약정책 방향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와 제3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연구진은 조사를 토대로 한의 의료기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 12.

□ 대상 : 개원 한의사

□ 문의 : 한약진흥재단 정책기획팀 김유진 팀장, egkim@nikom.or.kr

정책기획팀 류지연 연구원, lynneedoo@nikom.or.kr

A	한방의료이용 현황
---	-----------

1. 최근 3년('14~ 현재까지) 환자 수(30대 이하)의 진료변화에 대해 이유와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진료변화	이유
①증가하고 있다	
②변화 없다	
③감소하고 있다	

2. 30대 이하 이용자의 다빈도 질환과 치료방법 만족도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순위	질환명
1	
2	
3	

치료방법	전혀 만족하지 않음	별로 만족하지 않은 편	보통	만족한 편	매우 만족
침	①	②	③	④	⑤
뜸	①	②	③	④	⑤
부항	①	②	③	④	⑤
물리치료	①	②	③	④	⑤
첩약	①	②	③	④	⑤
한약제제	①	②	③	④	⑤

3. 생애주기별 한의관련 다빈도질환에 대해 보장성 강화를 한다면, 각 대상별 어느 질환을 가장 먼저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순 위	아동 (0-19세)	청년 (20-44세)	장년 (45세-64세)	노인 (65세 이상)
1				
2				
3				
4				

B	한의약정책 수용성
---	-----------

1. 평소 우리나라 한방의료 관련 제도나 정책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 ②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한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갖추어진 편이다
- ⑤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2. 아래 표와 같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애주기 대상별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대해 한의약 측면에서 중요도(2순위까지)와 개선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구분	의견
1순위	
2순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자유롭게 기술)	

대상	사업	내용
영·유아	①한국형육아	서양 육아방식과 전통 육아방식 차이점 소개, 한국형육아 장점 소개, 잘못된 육아상식 소개
	②경혈마사지	준비사항, 경혈자극 통한 마사지 방법 소개 및 실습, 모자 간 애착형성 유도
	③약선이유식	감기, 발열, 변비 등 활용가능한 약선이유식 소개
	④오감발달 신체놀이	포대기 통한 전통애착문화 소개, 단동십훈 활용한 전통놀이법 교육
	⑤질환예방 및 관리	영유아 호발질환 및 취약계층 영유아 다발질환 예방 및 관리법
	⑥육아스트레스 관리	지역 내 육아 커뮤니티 형성 통한 양육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지지 공동체 조성 유도
청소년	⑦한의학 건강관리	한의학 양생법 생활화
	⑧정서교육	전통적 인격수양법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존감 향상
	⑨식이교육	건강한 음식 섭취법 교육, 한의학 건강 먹거리
	⑩질환예방 및 관리	청소년 다빈도 질환 예방 및 관리
	⑪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가치관 형성 및 분노 조절법 교육, 신체활동 통한 스트레스 관리
	⑫금연	청소년 금연실천을 증가를 위한 금연교육, 한의학보건의료서비스
임산부	⑬임신중 건강관리	임신중 주의사항(생활습관, 술이나 커피같은 기호품), 잘못된 민간요법 바로 알기, 한국형 육아 커뮤니티 만들기
	⑭태항아리 만들기	전통 태교의 현대적 의의, 태항아리 만들기 실습
	⑮한의학 산후조리	뇌과학으로 본 아기의 뇌 발달과 태교, 한국과 서양의 다른 산후조리 문화 소개, 산후풍 바로 알기, 산전·산후 다빈도 질환 및 예방법
	⑯신생아 케어	남편, 가족으로부터 임산부 지지의 중요성, 자연주의 유방관리, 신생아케어, 모유수유
성인	⑰한의학 건강관리	한의학 양생법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⑱만성질환 관리	개인별 맞춤형 비만관리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 이론교육, 운동요법, 한의학 처치 등을 병행하여 효과 제고
	⑲갱년기	한의학적인 건강관리법을 통해 갱년기 증상 예방 및 관리,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정신건강 관리
	⑳근골격계 질환	일터에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이론교육, 한의학 처치 등을 병행하여 효과 제고
	㉑금연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성공적 금연 지원, 흡연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를 위하여 금연침 등 한의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㉔한약 건강관리	한약 양생법의 생활화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노인성 질환 예방
	㉕중풍	중풍을 예방하는 한약적 양생법 교육, 중풍의 위험요인 및 초기증상과 응급대처법 등 교육
	㉖치매	치매관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고위험군 관리,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㉗정신건강	한의학적인 건강관리법을 통해 노년기 정신건강 향상, 우울증, 스트레스 등의 노년기 정신건강 관리
	㉘근골격계 질환	노년기 건강한 골·관절 만들기, 이론교육, 한약치료 등을 병행하여 효과 제고
	㉙금연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성공적 금연 지원, 흡연욕구 감소 및 금단증상 완화를 위하여 금연침 등 한약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한약분야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주시요.

- ①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 ②공공부문은 건강증진 관련 한방공공보건사업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공공부문은 의료소외계층에 한해서 현재보다 전문화된 한방진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한방의료에 대한 지원을 해야한다
- ⑤기타(적을 것: -----)

4. 2017년 보건복지부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의·한 협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①높은 치료효과 ②한방의료의 과학화 ③의료자원의 효과적 활용
- ④국민 의료비 절감 ⑤의·한 협진 제도개선(협진체계, 의료기관별, 수가체계 등)시 정책기초

5. 의·한 협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소는 무엇입니까?

- ①한약사의 양방의료에 대한 이해(지식)부족 ②양방의사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지식)부족
- ③한방과 양방의 용어의 통일성 결여 ④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방법의 차이
- ⑤한·양방 협진을 위한 기초연구의 부족
- ⑥협진을 위한 보건소 행정 시스템, 법제 등 제반조건의 미비
- ⑦기타(적을 것: -----)

1. 다음은 한의학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다. 동의하는 부분에 체크해주시시오.

한의학정책의 방향성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한의학 정책이 필요하다	①	↔	②	현재 있는 한의학 정책으로 충분하다
보편적인 한의학 정책이 제공되어야 한다	①	↔	②	취약계층(예: 저소득계층, 조손가족 등)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한방의료에 대한 수가개발 및 급여확대가 필요하다	①	↔	②	한방의료에 대한 수가개발 및 급여확대가 필요하지 않다
한의원/한방병원에서도 건강진단이 가능하도록 의·한협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①	↔	②	한의원/한방병원에서도 건강진단이 가능하도록 의·한협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한의학분야의 중·장기적 연구지원 환경 마련을 위해 한의학 R&D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	①	↔	②	현재 한의학 R&D 투자로 충분하다
한의학 공공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①	↔	②	한의학 공공의료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다
한방 외국인환자유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①	↔	②	국내 환자로 충분하다
한약 제조·공정 단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의학 공공인프라 구축(GLP, GMP, 원외탕전)사업이 필요하다	①	↔	②	한약 제조·공정 단계에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의학 공공인프라 구축(GLP, GMP, 원외탕전)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한약제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제품개발 및 상품화가 필요하다	①	↔	②	현재 개발되어있는 한약제제로 충분하다

2.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중요하 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은 편	보통	중요한 편	매우 중요
한약 보험급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첩약 보험급여	①	②	③	④	⑤
한의원임치료	①	②	③	④	⑤
치매·자폐·일경통·갱년기 등을 포함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①	②	③	④	⑤
한약 특화질환 개발	①	②	③	④	⑤
생애주기별 한의약 정책 개발	①	②	③	④	⑤
의·한 협진	①	②	③	④	⑤
한약재 유통구조 단순화 및 체계화	①	②	③	④	⑤
한방병원 평가인증제 시행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의 다빈도 질환에 대해 보장성강화를 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	보통	필요한 편	아주 필요
등통증 (입원/외래 1순위)	①	②	③	④	⑤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①	②	③	④	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 장애	①	②	③	④	⑤
무릎관절증	①	②	③	④	⑤
기타 추간판장애	①	②	③	④	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①	②	③	④	⑤
뇌경색증	①	②	③	④	⑤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①	②	③	④	⑤
편마비	①	②	③	④	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 -+)	①	②	③	④	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질병통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 `17년 실태조사 대상별 정책지표에
대한 전문가 서면자문 응답양식 -

-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에서는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3년주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선 11년·14년의 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14년도 실태조사
국민 및 이용자 특성	한방의료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한방의료 이용률(66.4% → 59.4%) 및 신뢰도 저하 추세 특히 남성, 젊은층일수록 이용률 저하 추세
이용목적	질병 > 건강유지 > 미용목적 순
건강보험 주요청구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심계질환, 피부, 소화기계질환 순
주요 치료법	침 > 물리요법 > 탕약 > 뜸 > 부항 순

- 위의 11년, 14년의 실태조사 결과 대비, 다음 장에서 제시될 17년도 실태조사 지표에 대한 제언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연구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작성자의 개인정보는 내용에 대한 문의와 결과 회신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1. 일반인 및 이용자 관련 정책지표 의견 수렴

조사 항목

☞ 일반국민

각 지표에 대한 개선 또는 증진 방안에 대해 서술해주시요.

구분	지표	의견(개선 또는 증진 방안)
한방의료 인식도 개선	정보매체 등 인식개선 위한 홍보방안	①
	한약재 관리방안	②
	비용부담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	③
한방의료 이용 현황	이용 목적에 따른 방향성	④
	다빈도질환과 치료법에 따른 한의진료 활성화방안	⑤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정책방안	⑥

☞ 이용자(입원 · 외래)

각 지표에 대한 개선 또는 증진 방안에 대해 서술해주시요.

구분	지표	의견(개선 또는 증진 방안)
한방의료 인식도 개선	정보매체 등 인식개선 위한 홍보방안	⑦
	한약재 관리방안	⑧
	비용부담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	⑨
한방의료 이용 현황	이용목적에 따른 방향성	⑩
	다빈도질환과 치료법에 따른 한의진료 활성화방안	⑪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정책방안	⑫

2. 이용서비스기관 및 조제·판매기관 관련 정책지표 의견 수렴

조사 항목

☞ 한방의료기관 및 약국, 한약방

각 지표에 대한 개선 또는 증진 방안에 대해 서술해주시요.

구분	지표	의견(개선 또는 증진 방안)
한의료자원 지원정책	기관경영	⑬
	인력양성	⑭
	기타	⑮
한약정책	탕약/한약제제 이용 확대방안	⑯
	다빈도처방질환 방향성	⑰
	다빈도 한약재	⑱
	탕전이용 및 관리	⑲
한방의료의 발전방향		⑳

작성자

① 기관명		② 부서명	
③ 성 명		④ 전화번호	
⑤ 이메일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종합편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처: 한약진흥재단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2층

홈페이지: www.nikom.or.kr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홈페이지: www.koms.or.kr)
